

무극(소림사 편)

부 서 명	개발6팀 기획팀	Story Writing	정영무(필명: 시니어)
Story Design	이희성	검 수	이희성
최초작성일	2009-04-06	최종수정일	2009-04-07

목차

목차..... 1

1. 서(序) ..... 1

2. Story..... 3

2.1. 제 1장 ..... 3

2.1. 제 2장 ..... 62

2.2. 제 3장 ..... 129

1. 서(序)

- ① 본 소설은 그 장르를 ‘게임 연상 소설’의 장르로 규정하며 ‘무극’의 세계관을 보여줌과 동시에 개발자들로 하여금 게임의 플레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② 정통 무협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는 무협 소설의 형태로 잠재적인 ‘무극’의 게임 유저의 관심과 집중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③ 움니버스 구성의 그 첫 편으로 태산 복두 소림을 테마로 하여 게임 내 성도와 게임의 유저 플레이 모델을 제시한다.
- ④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스토리는 Teaser Campaign 계획의 일환으로 오픈 카페와 오픈 클럽, 무협 동호회, 무림 클럽 등에 공개하여 ‘무극’의 브랜드 마케팅에 기초 전략으로 삼는다.



# 武極 - Story Book

## 2. Story

### 2.1. 제 1 장

#### 제 1 화 [소림열문]

<序>

“각원,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범여는 피로 물든 소매를 떨치며 뒤로 물러섰다. 황망한 표정의 얼굴에는 울긋불긋한 멍과 핏자국이 드러나 있다.

이미 수 차례 공격을 받은 탓이다.

“각원! 정신 차리거라!”

적잖은 내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여는 애써 목청을 높였다.

그럼에도 각원의 공세는 좀처럼 수그러질 줄을 모른다.

펼럭!

각원의 누런 가사가 팽팽하게 부푼다 싶더니 강맹한 기세를 품은 주먹이 연이어 날아든다.

너무나도 익숙한 무공.

나한권이다.

범여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탓에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

“소림의 무공이 어찌하여 소림을 친단 말인가!”

범여는 통탄했다.

각원만은, 각원만은 아니길 바랬다.

특하면 훌쩍거리고 울면서 콧물을 훔치던 천진난만한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부모를 잃고 소림에 입적한 어린 아이가 안쓰러워 제자로 삼았던 것이 벌써

20년 전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이다. 20년을 보아온 아이다.

범여에게 있어 각원은 제자이기 이전에 자식이나 마찬가지였다. 손수 삭발을 하였고 계인을 찍어 주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자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살기를 내뿜고 있다.

범여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퍽! 하는 격타음에 뼈가 부러지는 깔끄러운 소리가 섞였다.

각원의 주먹이 무방비 상태인 범여의 가슴을 강타했다.

범여는 몇 번이나 뒷걸음질을 치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울컥, 하고 핏덩이를 토해낸다.

내상을 입은 것도 모자라서 뼈가 부러졌다.

“각원..... 제발..... 정신 차리거라.”

범여는 애원했다.

하나 각원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각원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눈동자의 초점은 흐릿하고, 무리하게 내공을 끌어올리느라 실핏줄이 터져 눈알이 붉게 변해 있었다.

“가, 각원!”

범여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각원은 쾌속하게 범여를 향해 달려들었다.

쿵.

각원의 진각에 청석 바닥이 몸을 떨었다.

비스듬히 낮춘 무릎이 부드럽게 퍼지며 각원의 허리가 통겨지고, 허리 아래에서부터 세로로 켜 주먹이 비스듬히 뺨어 나온다.

# 武極 - Story Book

나한권 4초식 청룡파미.

황소의 머리뼈를 통째로 부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의 초식이다.

끝장을 낼 셈이다.

이미 내상을 입은 범여로서는 청룡파미를 맞으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범여는 한 손을 가슴에 두고 눈을 감았다.

“나무아미타불.”

죽음을 각오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를 잔뜩 머금고 범여에게 날아들던 주먹은 범여를 죽일 수 없었다.

한줄기 광풍이 불어온다 싶더니 각원의 주먹이 튕겨나갔다. 각원이 불청객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뒤이어 날아온 위력적인 쌍장이 아예 각원을 날려버렸다.

쿠당탕탕.

각원은 잔뜩 구겨진 채 대전의 기둥에 처박혔다.

“사제!”

누군가 익숙한 목소리가 범여를 불렀다.

범여는 눈을 뜨고 앞을 보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형인 범우가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뒤쪽으로 소림의 1대 제자들과 사숙인 혜각이 함께 서 있다.

“범우 사형, 혜각 사숙님.”

그들을 보던 범여가 급히 눈을 돌려 각원을 찾는다.

기둥에 처박혔던 각원이 벌떡 일어섰다. 크게 다쳤는지 입과 턱, 가사의 앞섶이 온통 피 천지다.

각원은 초점 없는 붉은 눈으로 장내의 이들을 노려보았다. 서있는 것도 힘든지 비틀거리면서도 주먹을 쥐고 싸우려 한다.

범여는 자신의 상태보다도 제자인 각원이 더 걱정스러웠다.

“각원! 괜찮은 거냐?”

각원에게 달려가려는 범여를 혜각이 가로막았다.

혜각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두어라. 이미 각원은 실혼인이 되었다.”

범여는 생전 처음으로 사문의 존장에게 반발했다.

“아닙니다! 각원은 심성이 곧고 착한 아이입니다. 마교의 섭혼술 따위는 금세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형인 범우가 범여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았다.

“범여 사제. 한번 실혼인이 되면 다시는 돌릴 수 없어. 각원은 더 이상 자네가 생각하던 제자가 아닐세. 지금은 마교의 명령을 따르는 꼭두각시일 뿐이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마교를 미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마교의 사술에 놀아날 리 없단 말입니다.”

“제자에 대한 사제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 실혼인이 된 이중에 누구도 다시 되돌아온 이는 없다네.”

“그럼 어찌하란 말입니까! 제게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범여는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그토록 오랜 기간을 심신의 수련에 정진해왔으나 친자식이나 마찬가지로인 제자의 일에는 그도 평범한 필부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정신적인 공황상태. 그것은 그가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였다.

그 와중에도 각원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비틀거리며 범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범여를 죽이는 것만이 자신의 사명인냥.

보다 못한 혜각이 내공을 담아 소리쳤다.

“갈(喝)! ”

구우우우.

대전 내부가 공기의 파동으로 울부짖었다. 파마멸사(破魔滅邪)의 힘을 가진 소림사의 절기 사자후였다.

복잡하게 뒤 형클어져 있던 범여의 머릿속이 맑아졌고 마교의 섭혼술에 걸려 있던 각원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마음이 진정된 범여는 혜각을 쳐다보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름살 가득한

# 武極 - Story Book

해각의 눈 역시 깊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나는 방장 사형의 열반을 지켜보았다.”

범여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바, 방장 사숙조차.....”

마교의 섭혼술에 제자를 잃고, 동문을 잃고, 사부를 잃은 것은 비단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이 자리에 살아남아있는 이들 모두가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숙님.....”

해각은 대답 없이 검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소림이 거두었으나 네가 가르친 아이이니, 아이의 마지막도 네가 거두거라.”

평범한 청강검처럼 보이는 장검의 날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저 검에는 얼마나 많은 소림의 피가 묻어 있을까. 정파무림의 태산북두라던 소림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범여는 씩씩한 미소를 머금고는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사문의 존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기사멸조의 대죄라는 것을 알지만 제 손으로 저 아이를 해칠 순 없습니다.”

“실혼인이 된 아이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마교의 주구가 되어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칠 것이다. 그래도 좋겠느냐?”

범여는 해각을 쳐다보았다.

공허한 눈.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세상을 전부 잃었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눈이었다.

“어차피 소림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각원뿐만이 아니다. 소림사 본산의 거의 대부분이 각원처럼 마교의 섭혼술에 당해 실혼인이 되었다.

말 그대로 소림은 끝장난 것이다.

"차라리 제자의 손에 죽겠습니다. 제 손으로 차마 각원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범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해각은 달랐다. 해각의 눈빛은 생생했고 얼굴에는 굳은 각오가 어려 있었다.

"본산 전체 전각과 사람들이 없어진다 해도 아직 우리가 남아있다. 이제부터는 네가 소림이다. 살아남은 한 명 한 명이 바로 소림이다."

"사숙님....."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한 소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범여는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해각과 마찬가지로 결연한 의지가 깃들여 있었다.

"검을, 검을 주십시오."

해각이 검을 건넸다. 범여는 검을 쥐고 각원을 향해 걸어갔다.

한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제자였다. 그 제자가 마교의 섭혼술에 이지를 상실한 채 살인도구가 되어 있었다.

오장육부를 찢어발기는 듯, 가슴이 아팠다.

"아미타불."

그러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심정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범여의 입에서는 고요한 불호가 흘러나왔다.

“크아아아!”

각원의 쉼 목소리가 울부짖음과 동시에 번쩍, 하고 검광이 적막한 대전을 갈랐다.

두 눈을 부릅뜬 각원의 머리가 바닥을 구르고.....

이어 짙은 혈향이 피어 올랐다.

뚝.

범여의 눈물이 짙은 핏물 속으로 흘러 떨어졌다.



# 武極 - Story Book

## 제 2 화 [혜울]

혜울이라는 노승이 있었다.

소림에 입적한지 어느덧 팔십 년. 지금은 굳이 향렬을 따지지 않더라도 소림의 최고 어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림 내에서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무공을 익히지 않은 채 칩거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무공을 익힐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입적하고 나서도 십 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소림에서 팔십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같은 혜자 향렬의 사제들은 소림의 최연소 나한승이 되고, 소림최고의 고수가 되고, 이어서 방장이 되거나 장로가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생을 마감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혜울은 독경을 읊었다.

다른 소림의 승려들이 무공을 수련하듯, 혜울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독경을 했다. 1차 정사대전, 2차 정사대전, 그리고 3차 서역대정벌에 이르기까지 소림의 수많은 제자들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암자에서 고인들을 위해 독경을 읊었다.

소림에서 유일하게 나한권의 일초 반식도 익히지 못한 혜울은 소림에서 가장 독경을 잘 읊는 자였다.

‘허허..... 때가 오는가.....’

조사동 옆의 초라한 암자.

혜울이 그를 거두었던 스승 홍인이 죽고 난 뒤 스스로의 거처로 삼았던 곳이었다. 평소대로라면 혜울이 읊는 청정한 독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렸어야 할 그 곳은 오늘따라 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다.

혜울이 입을 꼭 다문 채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라고 왜 모르겠는가.....

소림에서 소외되어 홀로 외따로 밥만 축내며 나이만 먹었다고 해도 그 역시 눈이 있고 귀가 있었다. 오늘 소림에 불어 닥친 이 섬뜩한 혈겁을 그 역시 이른 시간부터 느끼고 있었다.

문제는 피바람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거세고 잔인한 폭풍이 되어가고 있었으니.

혜울은 눈을 뜨고는 고목처럼 마른 노구를 천천히 일으켰다. 그리고 평소에는 입지 않던 적색 가사를 둘렀다. 그렇게 암자를 나서는 혜울은 복장 덕택에 여느 소림 승려처럼 보였다.

“허어.....”

암자를 벗어나자마자 격한 피비린내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더불어 그것이 주는 공포와 절망, 잔인함이 혜울을 휘감았다.

소림이 울부짖고 있다.

고통으로 아우성친다.

그러나 혜울은 표정을 일그러뜨리는 대신 인자한 미소를 지어냈다.

“가엾은 것..... 네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 알겠다. 내가 조금 달래주마.”

동시에 혜울의 입이 크게 벌어지며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건오온개공 도일체고액

.....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

한 줄기 푸른 바람 같은 혜울의 독경은 상처입고 피 흘린 채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소림을 찬찬히 달래듯, 서서히 흘러갔다.

“정문은 이미 틀렸습니다! 실혼인들의 수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 武極 - Story Book

제가 하나가 울부짖듯 외쳤다. 그의 말은 들은 혜각은 정문을 강행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문은 어떠냐? 그쪽에 살아남은 제자들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다른 제자가 대답했다.

“이미 범수 사제가 동문으로 갔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기별이 올 것입니다.”

“으음.”

혜각은 동문 역시 이미 글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얼마 되지 않은, 섭혼술에 걸리지 않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실혼인들 중에서 범수의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남문은!”

남문으로는 범문이 갔다. 1대 제자 중에서는 내로라하는 고수 중 하나다.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을 할 수 있다면 벌써 했을 것이다.

혜각의 눈매에 잔혹한 절망이 드리워졌다.

“하늘이... 이렇게 소림을 버리려 하시는가!”

그 혼자서라면 어쩌면 도망은 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하나라도 더 많은 제자를 살려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길이 없었다.

소림이 실혼인들로 가득했다. 어디에도 빠져나갈 공간은 없어 보였다.

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무공이 약한 제자들이 먼저 죽어나갔다.

“크아악! 주, 죽어랏!”

실혼인이 된 범수가 양 손을 치켜들고 덤벼들었다. 혜각은 다급히 선장을 치켜들어 범수에게 맞섰다.

“제자들은 각자 목숨을 책임지거라! 우리가 할 일은 이곳을 사수하는 것도 아니요, 적들을 응징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이곳을 벗어나 소림의 피를 이어가는 것이다!”

혜각의 하얀 수염 사이로 은은하지만 단호한 살기가 일어났다.

“그러니 나를 탓하지 말거라. 나무아미타불.”

마지막 말은 범수에게 향하는 말이었다. 동시에 혜각의 선장 끝에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팍, 하는 피안개가 일어났다.

“크악!”

머리가 터진 범수가 비명을 내지르며 쓰러졌다. 그러나 그 말고도 실혼인은 끝이 없었다. 거침없이 휘두르는 혜각의 선장은, 이미 피아를 잊은 지 오래였다. 코 끝이 섬뜩한 피비린내는 마치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섭혼술에 걸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모두 한결같이 살인귀로 만들고 있었다.

“손에 사정을 두지 마라!”

어제까지,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서로 얼굴을 맞대던 사이였다.

선장과 계도를 휘두르는 일대제자들의 얼굴에는 비참한 분노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범우! 길을 열어라!”

“에!”

성정이 너그러워 많은 제자들에게 추앙 받던 범우조차 오늘날은 살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길..... 달아날 길이 없다.’

혜각은 숙고했다.

어쩌면 그 길은 영원히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혹은 보인다 해도 수많은 제자들의 시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혜각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리 방도가 없었다.

광!

정신없이 혜각의 선장이 누군가와 부딪히며 강렬한 파공음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순간,

“... ...!”

불현듯, 혜각의 거침없던 선장이 주춤거렸다. 순간 들려왔던 것이다. 이 살육의

# 武極 - Story Book

한복판을 파고드는 희미한, 그렇지만 한 떨기 바람처럼 청량한 독경 소리를.

“이 소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혜각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순간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다.

-조사동! 조사동으로!

실혼인이 되어 자신의 손에 열반에 든 방장이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리며 유언처럼 뱉은 말.

그것이 왜 이순간 떠올랐던 것일까?

혜각은 다급한 기합소리를 토해냈다.

“제자들을 듣거라! 모두 조사동으로 향한다!”

곁에 있던 제자가 물었다.

“조사동으로요? 하지만 그곳은 완전히 막다른 길이지 않습니까! 그 뒤는 온통 절벽입니다!”

“나도 안다. 시간이 없으니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라!”

말을 마친 혜각이 직접 앞으로 나서서 조사동으로 향하는 길을 트기 시작했다. 때로 덤벼들던 실혼인들은 갑작스런 변화가 일자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를 놓치지 않은 몇몇 날렵한 제자들이 틈을 노려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어서! 어서 움직여라!”

혜각이 들었던 청아한 독경 소리는 분명 조사동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조사동에는 무언가가 있다. 아니, 있어야 했다. 실혼인이 되어 쌍장을 뺏어오던 방장사형이 죽어가면서까지 했던 말이다.

혜각은 타는 듯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실혼인들을 뿌리치며 달려온 조사동.

혜각은 그 앞에 서서 구부러진 허리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노승을 발견했다.

‘호, 혹시...?’

노승은 이 혈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자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피로 가득 찬 혈천지에서 그만이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이었다.

그가 혜각을 바라보았다.

“이리로 오시게, 사제. 내가 길을 안내하겠네.”

느닷없이 던져진 사제라는 호칭에 혜각뿐 아니라 함께 하는 제자들이 모두 놀랐다.

“사형이시라고?”

조사동 옆의 암자에서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 그를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네. 그보다 시간이 없지 않은가. 어서 이쪽으로 오시게.”

심장이 터질 듯 다급한 상황인데도 혜울은 느릿하기만 했다.

아직 이곳까지는 실혼인이 침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뒤쫓는 실혼인들이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문제다.

“사형은 지금 소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모르겠나.”

그 대답에서 혜각은 노승의 자애로운 미소 뒤에 있는 진짜 표정을 보았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 슬픔을 뒤이어 솟아나는 연민이,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슬픈 것들을 감싸 안는 자비로움이 그 속에 있었다.

“아, 사형.....!”

혜각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런 사형이 있는 줄도 몰랐던 혜각이었지만, 노승의 미소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혜울은 말 없이 몸을 돌려 조사동의 문을 열었다.

“이쪽일세.”

혜각이 앞장서서 혜울의 뒤를 쫓았다. 다른 제자들이 반신반의 하면서 그들의 뒤를 따랐다.

조사동은 길이가 십장이 채 되지 않는 석굴이었다. 가장 안쪽에 모셔진 달마조사



# 武極 - Story Book

의 위패를 시작으로, 뒤를 이어 열반에 든 조사들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다. 어린 제자들 중에는 아직 이곳에 걸음 한 적이 없던 자도 있었다.

“이곳은 막다른 곳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곳으로.....”

2대 제자 하나가 참지 못하고 불안감을 토해냈다. 조사동 가장 안쪽까지 들어왔지만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헤각이 엄한 소리로 제자들을 다스렸다.

“불안은 접어두거라. 길은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때 가장 뒤에서 따라오던 제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실혼인들이...! 실혼인들이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조사동의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쿵, 쿵!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문을 부수는 소리가 조사동 안을 울렸다.

헤각이 저도 모르게 헤울을 바라보았다. 헤울은 달마조사의 위패 앞에 고개 숙여 합장하고 있었다.

“사형...?”

합장을 마친 헤울은 정숙한 손길로 위패와 불단을 치우고 있었다.

쿵, 쿵!

콰득, 콰지직!

점점 더 크게 울리는 실혼인들의 소리에 발맞춰, 헤울의 동작은 터무니없이 느렸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실혼인들을 맞이했다간 모두 개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났다. 그것을 잠재운 것은 헤울의 독경 소리였다.

“이, 이런 때 독경을...!”

콰직!

그와 동시에 조사동의 문이 부숴지며 실혼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가장 뒤쪽에 있던 제자들은 당장 들어닥친 공포에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亦復如是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방금 전처럼 청아한 독경 소리가 그윽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비좁고 어두운 암굴 안을 가득 메운 독경 소리는 난초의 향기처럼 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으, 으으...”

“으아아.....”

실혼인들이 주춤거린다.

좁은 입구를 뺨뺨이 메운 그들은 입가에서 괴로운 신음소리를 흘릴 뿐, 선뜻 발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이럴 수가!”

헤울이 말했다.

“사마(邪魔)는 정(正)을 이길 수 없으니, 지금의 고난은 단지 한때일 뿐이라네.”

마치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얘기를 해주는 듯 헤울의 말투는 부드럽기만 하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우웅, 우우우우웅...!

조사동이 미묘하게 진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경 소리에 맞추어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일어나는 진동이었다. 그러면서 달마조사의 위패를 치운 막다른 벽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엇!”

“저, 저기!”

모두가 놀란 눈을 부릅떴다. 헤울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점차 독경소리를 키워갈 뿐이다.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無眼界 乃至 無意識界 無

# 武極 - Story Book

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독경과 박자를 맞추듯, 진동음도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곳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벽 전체를 둘로 갈라놓을 만큼 커졌다.

“아앗! 길이 생겨났다!”

벽이 갈라지자 그 안으로 연결된 어두운 토굴이 드러났다. 조사동 뒤쪽의 절벽을 아래로 파내려간 모양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가늘고 길게 이어진 굴이었다.

혜울은 독경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다.

어서 그 길로 도주하라는 뜻이다. 혜울의 뜻을 알아차린 혜각은 놀란 마음을 수습해 제자들을 인도했다.

“제자들은 신속히 발을 움직여라. 한시가 급하다.”

혜각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이 새로 생긴 길로 들어섰다.

우우웅, 우우웅...

그 사이에도 조사동은 끊임없이 진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모두 피신했습니다. 사숙께서도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혜각이 남았다. 혜각이 혜울에게 손을 내밀었다.

“사형. 제 손을 잡으십시오. 진동이 계속 울리는 게, 이제 곧 조사동은 무너질 것입니다. 조사동이 무너지면서 이 길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듯 합니다.”

혜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 들어 조사동의 문밖을 가리켰다. 실혼인들이 들어서기 전에 어서 가라는 뜻이다.

혜각이 안타깝게 말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형. 여기서 사형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혜울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계속 독경을 읊었다. 혜각은 그 미소 뒤에 숨은 뜻을, 차마 알기 싫은 그 뜻을 이번에도 이해해야 했다.

“사형...”

혜울의 미소가 혜각에게 말하고 있었다.

‘어서 가시게, 사제. 이 몸은 팔십 년이 넘도록 독경을 읊은 것은 오로지 이 날을

위해서였네. 아마 조사들께서 이날 이토록 독경 밖에 할 줄 모르는 소림의 밥 버러지를 위해서 이런 안배를 해두신 듯 하이.’

우우우웅.... 우웅!

조사동에서 울리는 진동은 어느 순간 고막을 찢을 것처럼 견잡을 수 없이 커졌다. 혜각은 본능적으로 이제 곧 조사동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았다.

“사형!”

“잘 가시게.”

혜울의 미소를 본 혜각은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혜각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장을 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혜각은 어쩔 수 없는 발걸음을 이었다.

혜각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사라지자 혜울은 독경을 딱 멈추었다.

“우우우우우!”

“크으....”

그러자 입구 앞에 멈춰 서 있던 실혼인들이 우르르 다가왔다.

마치 제방이 터져 붓물이 넘치듯.

“우리... 가야... 한다. 간다... 죽인다...”

앞서도 말했듯이 혜울은 무공을 전혀 모르는 자였다. 그러나 그는 온통 피칠갑을 하고 있는 한 무더기의 실혼인들을 앞에 두고도 전혀 굶힘이 없었다.

“죽인다..... 간다.....!”

순간 혜울이 주름살로 덮인 눈을 부릅떴다.

자비롭고 편안한 표정이 아닌 노기가 깃든 얼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되었다.

90이 넘은 나이의 노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거센 노호성이 튀어나온다.

“이놈들! 여기는 소림이니라! 내가 소림의 제자이니라!”

# 武極 - Story Book

쿵!

우르르르르!

그 말이 신호인 것처럼 조사동의 동굴이 무너져 내렸다.

천 년 소림을 이어온 증거였던 조사동이, 그리고 그 안에 모셔진 수많은 위패가

격한 진동을 타고 부서졌다. 그러나 소림의 이름을 증명하듯 그 안에 들어있던 실혼인들 역시 산산조각으로 흩어졌으며 그 중 어느 하나도 무사히 도주한 제자들의 뒤를 쫓아가지 못했다.

# 武極 - Story Book

## 제 3 화 [소림의 희망]

“어?”

진명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서 있었다.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갑자기 머리가 깨어질 듯 아파왔다.

아픈 머리를 손으로 누르는데 갑자기 이마에서 뺨으로 진득하니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진명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닦았다.

"五!"

흥건한 피가 손에 들뿔 묻어 나온다.

"뭐, 뭐야!"

손뿐만이 아니다. 얼굴이고 몸이고 간에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피를 뒤집어 쓴 상태였다. 옷은 여기저기 찢겨있고 누구에게 두들겨 맞았는지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 있다.

자신 뿐만이 아니었다. 온 사방에서 고막을 찢어 발길 것 같은 비명소리와 병장기 부딪치는 소리가 난무한다.

아비규환이었다.

진명은 순간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눈앞의 광경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나.

진명이 소림사에 도착한 것은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던 한낮이었다. 소림사의 정문이 보이는 커다란 연무장. 방금 전까지 이곳 연무장에는 호기에 찬 군웅(群雄)들로 가득했다.

단상 앞에는 소림의 방장 해원과 소림의 무승들이 도열해 있었고, 연무장 가운데로 수천이 넘는 정파 무인들과 소림의 속가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모두가 마교의 손에서 소림을 지키기 위해 협의로 뿔뿔 뭉쳤다. 소림의 방장인 혜원대사가 긴 일장 연설을 늘어 놓았고, 그때마다 소림의 무승과 무인들이 환호했다.

분명히 진명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마교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런데 눈을 잠깐 감았다 떴다 싶을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환한 태양이 비추던 하늘은 어느새 자줏빛으로 찌푸려져 있어서 금방이라도 뇌전을 떨굴 듯 어둡혔고, 현기증이 날만큼 짙은 피비린내가 사방에 가득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몸이 성한 곳 없는 시체들이 무수히 굴러다닌다. 팔다리가 떨어진 건 그나마 평범하고 머리가 반이 갈리거나 내장을 다 쏟고 죽은 처참한 시체도 있다.

“이,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어떻게 된 일일까?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라면 기억이라도 잃었던 것일까?

그 사이에 마교가 쳐들어오기라도 한 것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꿈인 걸까?

하지만 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한바탕 혈전이라도 치른 마냥 쑤셔오는 온몸과 아직까지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손의 핏물.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진명은 고개를 들었다.

주위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칫 한눈을 팔다가 눈먼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꿈이든 현실이든 당장에는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다. 살아남아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낼 게 아닌가!

그런 그의 눈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피로 물든 가사를 휘날리며 주먹을 날리는 소림의 승려였다.

## 武極 - Story Book

'대오였던가?'

소림의 삼대제자로 대오라는 법명을 쓰고 있는 30대의 무승이다.

아까 모여있던 많은 무인들 앞에서 나한권을 시연했었는데 그 위력과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다. 진명으로서도 꿈도 꿀 수 없는 경지였다.

그 대오가 누군가와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도와야 해!'

일대일로 정당한 비무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난전(亂戰)이다. 진명의 무공은 일천한 수준이지만 손 하나 거드는 것이 이런 혼잡한 싸움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진명은 대오의 상대를 본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몸에 벼락이 관통한 것처럼 마비가 된 듯 하다.

"말도 안돼..."

소림의 승려인 대오의 상대 역시 소림의 승려였다. 온몸이 피로 젖어 있었지만 소림의 가사를 입은 소림의 무승이 확실했다. 그가 쓰는 무공 역시 소림의 무공이었다.

진명이 주춤거리는 사이 대오가 밀렸다. 대오의 손발이 어지러워지는 순간 상대는 주저 없이 살수(殺手)를 썼다.

퍽!

대오의 머리통이 터져나갔다. 뒤쪽에 서 있던 진명의 얼굴에 피와 뇌수가 흩뿌려졌다.

머리를 잃은 대오의 몸통이 비틀거리더니 허무하게 쓰러져간다. 선홍색의 핏물이 꿀럭대며 바닥으로 스며든다.

진명은 너무 놀라서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소림의 무공은 대자대비(大慈大悲)하다. 제아무리 악적을 만나더라도 함부로 살계를 열지 않는다.

그래서 소림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림이다.

하늘도 용서치 못할 악적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소림인데 하물며 같은

소림의 제자끼리 살계를 열다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많은 이들이 엉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소림의 제자들이고 정파의 무인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명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미타불, 부디 극락왕생하게."

불호가 들려온 순간 진명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대오를 무참히 살육한 승려가 이젠 진명을 노리고 있었다.

"자, 잠깐.....!"

구-웅.

말을 걸 틈도 없이 살점이 덕지덕지 붙은 선장이 진명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으아악!”

진명은 온 힘을 다해 바닥을 굴렀다.

무시무시한 파공성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대로 바닥을 데굴데굴 굴러 공격해온 승려와 거리를 벌린 후, 진명은 벌떡 일어섰다.

"미쳤어! 다들 미쳤어!"

진명이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더니 공격해오던 승려가 멈칫한다.

"자네...?"

진명은 그 틈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다.

"도와줘!"

갑자기 진명의 말 한마디에 사방이 고요해졌다.

수십 명이 어우러져 싸우고 있던 현장이었다. 그곳에 순식간에 적막이 찾아온 것이다.

스윽.

수십 쌍의 눈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에 진명을 돌아보았다. 하나같이

# 武極 - Story Book

시뻘건 눈동자에 살기를 즐기듯 내뿜고 있었다.

진명은 소름이 쭉 돋았다.

"어? 어어?"

저녁, 수십 명이 한꺼번에 걸음을 내디뎠다. 진명을 향해서.

그 중의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어...뭇...게?”

다행히 이번에도 아는 얼굴이었다.

이번에 소림사 본산으로 함께 올라온 녀석이다. 동갑내기인데 소림의 속가제자가 된지 2년차로 본산의 대회합(大會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왕삼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 있었는데 얼마나 사람을 베었는지 날이 다 빠져 있었다. 금방이라도 그 칼로 진명을 향해 휘두를 것 같다.

진명이 손을 내저으며 다급히 외쳤다.

"왕삼! 나 진명이야! 나 몰라?"

왕삼이 또다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뭇...게?”

같은 말을 반복해 내뱉는 모습에 소름이 쭉 끼친다. 진명은 애써 불길한 마음을 버리고 손짓 발짓을 해가며 설명했다.

"요 앞 객잔에서 같이 술도 마셨는데, 기억 안나?"

그를 맞이한 것은 정겨운 대답이 아니었다.

"죽어라."

살을 저며오는 살기와 함께 왕삼이 달려들었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에 시뻘건 눈동자가 빛을 발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분명히 이건 정상이 아니다.

진명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발을 굴렀다. 몸을 비틀어 뒤로 피했다.

굉!

진명이 서 있던 자리에 왕삼의 칼이 박혔다.

"왕삼, 너 이 자식!"

왕삼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다시 공격을 준비했다. 왕삼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진명을 노려보며 걸어오고 있었다.

뒷목이 찌르르한 느낌에 진명은 옆으로 몸을 굴렸다.

뒤쪽에서 다른 이가 진명을 공격한 것이다.

쩍.

제대로 피하지 못했는지 등에 긴 칼자국이 났다.

등에서 흐르는 피가 순식간에 허리를 타고 허벅지로 흘러내린다. 따스하고 축축한 느낌이 이토록 기분 나쁘기는 처음이었다.

"크윽!"

진명은 비틀거리며 피할 곳을 찾았지만, 달아날 곳이 없었다.

'죽었구나!'

왕삼이 칼을 들고 재차 휘두르며 달려든다.

방금 맨땅을 치는 바람에 칼이 반이나 부러져나갔는데 그것도 모르는지 평소처럼 칼을 휘두른다.

진명은 이를 악물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살겠다고 한번 용이라도 써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환해졌다.

퍽 하는 격타음과 우둑 하고 뼈 으스러지는 소리가 동시에 나며 왕삼이 튕겨나갔다. 왕삼은 몇 번 일어나려다가 피를 토하고 주저앉았다.

진명은 눈을 크게 떴다. 다 똑같이 피칠을 한 이들만 있으니 누가 자신을 도운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미타불. 괜찮은가?”

놀랍게도 그는 조금 전 잔인하게 대오를 쓰러뜨린 소림의 승려였다. 진명은 어떻게 된 일인지 헷갈렸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예?"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승려는 세 명의 공격을 동시에 받아내고 있었다.

"하얏!"

진각을 밟으며 선장을 떨어뜨려 공격해오던 이들이 바람에 휩쓸린 나뭇잎처럼 밀려나간다.

"시간이 없네! 어서 일어나게!"

"예, 예!"

진명은 절뚝거리면서도 기를 쓰고 일어났다.

하지만 달아날 수 있을 지는 자신이 없었다. 아무리 자신을 돕는 승려의 무공이 고강하다 하더라도 수십 명에게 포위된 상태다.

"혼자 달아나십시오. 전... 글렀습니다."

진명은 배에 힘을 주었다. 살고 싶다. 하지만 살아나갈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순 없다.

하나 승려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럴 순 없네!"

미친 듯 공격해오는 이들을 상대하며 승려가 물었다.

"자네는 섭혼술에 당하지 않았었나?"

"예? 섭혼술이요?"

"자네는 잠깐까지 저들처럼 나를 공격하던 무리 중 한 명이었네."

"그럴 수가....."

그제서야 진명은 어찌된 상황인지 조금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다.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섭혼술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니.

섭혼술에 걸려 서로가 미치도록 싸우고 있었다니.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네! 자네는 반드시 살아야 해. 살아서 섭혼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네!"

"하지만....."

진명은 어떻게 섭혼술에서 깨어날 수 있었는지 몰랐다. 그저 정신을 차리고

# 武極 - Story Book

보니 섭혼술에서 깨어나 있었을 뿐이다.

강 강!

승려는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해내며 진명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가 호흡을 가다듬더니 진명을 보았다.

승려의 눈은 맑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핏발이 잔뜩 선 붉은 눈이 아니다.

"장안성으로 가게. 그곳에서 본파의 해각 사숙을 찾게."

진명은 차마 섭혼술을 벗어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승려가 희미하게 웃었다.

"어쩌면 이것이 졸납(拙納)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지도 모르겠네."

승려는 선장을 놓고 진명을 번쩍 들었다.

그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자 진명은 소리를 질렀다.

"대사님! 그만 두십시오! 대사님!"

"졸납의 범명은 범문이라 하네!"

범문은 가진 공력을 모두 쏟아 진명을 던졌다. 진명은 포위하고 있던

실혼인들의 머리 위를 날아가 연무장 끝 쪽에 떨어졌다.

데구르르.

등쪽에 입은 상처 때문에 몸이 마비되는 듯 고통스러웠지만, 진명은 일어났다.

진명이 달아날 시간을 벌기 위해 범문이 실혼인들의 가운데로 뛰어들어 시선을 끌고 있었다.

"범문 대사님....."

이미 범문은 실혼인들에 가려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진명은 이를 질끈 깨물고 소림사의 정문을 향해 뛰었다. 뒤쪽에서 일부 실혼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뒤돌아볼 시간조차 아까웠다.

살아야 한다. 범문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순 없다.

진명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달리고 또 달렸다.

등허리를 흐르는 피보다도 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 武極 - Story Book

## 제 4 화 [탈출]

어이없는 일이었다.

무림의 천년지주 소림사는 이제 더 이상 소림사라 부를 수도 없었다.

온 몸에 피칠갑을 한 괴물들이 돌아다니는 악마의 소굴이었다.

소림사를 상징하는 거대한 일주문의 아래에도 시체가 굴러다닌다.

핏발이 선 눈을 희번덕거리며 실혼인들이 속세와 불가의 경계를 나누는 일주문을 아무 거리낌없이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시궁창에 득시글거리는 구더기처럼 소림사의 경내 어디를 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도 오전까지는 소림을, 무림을 구하고자 의기를 불태우던 정파의 협객이었다. 아침까지 독경을 외고 참배를 하며 달마조사의 뜻을 이어가던 소림의 제자였다.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마교로부터 강호를 지켜내겠다는 협의로 가득한 이들.

그들이 지금은 마교의 섭혼술에 빠져 소림을 무너뜨리고 있다.

‘소림이.... 소림이....!’

진명은 피눈물을 삼키며 이를 악 다물었다.

시체들 중에도, 실혼인들 중에도 아는 얼굴이 얼핏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죽이지 않으면 죽는 적일 뿐.

그것이 진명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으.....”

“으?”

그들이 진명을 발견하고는 곧장 무기를 치켜들었다.

“크어어어!”

발밑에서 피보라를 뿌리며 실혼인들이 달려든다.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끈적한 피.

진명은 등에 입은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진명도 자신의 수준은 잘 알고 있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삼류에 어울리는 일천한 수준이다.

두렵다. 두렵지 않으면 거짓말이다.

소림의 속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기 전에는 삼류 무관에서 형의권을 배웠다. 기초는 제대로 닦았지만 불행히도 무관의 관장은 진명을 고수로 이끌어줄 만한 능력은 없었다. 그저 기초라도 배운 것을 감사해야 했다.

덕분에 진명의 형의권은 딱 삼류가 되었다.

소림의 속가 제자가 된 후에는 나한권을 정식으로 사사(師事)했다.

겨우 단초식 하나뿐이었지만, 진명은 새로운 세상을 본 기분이었다. 왜 사람들이 기를 쓰고 명문 정파에서 무공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진기를 이끄는 방법부터 미세한 동작에 이르기까지. 그 사소한 하나하나에 천년 소림의 정수가 배어 있었다.

다른 속가 제자들은 겨우 단초식 하나 가르쳐 준다면 실망하고 투덜땀지만, 진명은 맹세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한권을 가르친 무승의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10년을 수련한 일권(一拳)이 20년을 수련한 십권(十拳)을 이긴다. 처음은 느낄지 모르나 기본이 탄탄하면 10년 후에는 남보다 빠르게 될 것이다. 인내와 정진. 이것이 소림 무공의 기본이다.

진명 대의 속가 제자들에게 나한권 단초를 가르친 이는 2대 제자인 각원이었다. 각원은 너그럽고 온화한 사람이었으나 무공에 대해서만은 엄격했다.

각원은 속가 제자들에게 하루 백 번의 나한권 단초 수련을 명했다. 게으름을

## 武極 - Story Book

피우면 2백 번을 시켰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밤을 새서라도 지켜보며 4백 번을 채우도록 했다.

남들이 각원에 대해 불평불만을 내 쉴 때 진명은 나한권을 한번이라도 더 하려 애썼다. 백 번, 2백 번이 아니라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똑같은 동작을 되풀이 했다.

각원은 그런 진명을 보며 만 번을 채우면 다른 초식을 알려주겠노라 말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는 각원을 볼 수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대화합이 대악몽으로 바뀐 이후부터.....

진명은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믿었다.

‘만번. 만번도 더 뺀 주먹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인정받았다.’

“크아아!”

피로 물든 손가락이 진명의 목줄기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소림의 무공!’

실혼인들은 생전의 무공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대화합에 모인 이들은 대부분이 소림의 속가제자와 정식제자다. 일부 강호의 협객도 섞여 있지만 말 그대로 일부일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소림을 피바다로 만든 것은 다름아닌 소림의 무공이었다.

그리고 지금 진명의 머리를 바스라뜨리려 하는 손가락 역시 소림의 무공이다.

상대를 보니 나이가 지긋한 60안팎의 노인이다. 머리를 탁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속가제자인 듯 하다.

지금이야 눈이 돌아가고 피를 뒤집어 써서 귀면(鬼面)이 되었지만, 실혼인이 되기 전에는 참으로 온화한 얼굴이었을 것이다. 온화한 얼굴로 손주들의 재롱을 지켜보며 파스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을 것이다.

진명은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을 되삼켰다. 상대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 되뇌다. 자신을 돌보는 데만도 버거운 것이다.

더구나 진명이 배우지 못한 수공(手功)까지 사용하는 걸 보면, 실력면에서 진명은 한참 아래였다.

상대가 어떻든 간에 진명은 살아야 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희생한 범문을 위해서라도.

“으아아아아!”

진명은 괴성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실혼인이 된 노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한 순간 노인의 손가락이 진명의 머리를 스쳐갔다.

빠득.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움켜쥔 노인의 손가락이 서로 어긋나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역시나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진명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주먹을 내질렀다.

만번을 넘게 연습했던 초식이 진명의 전신 근육에서 최대의 힘을 이끌어 냈다. 짧은 순간 폭발하듯 진명의 주먹이 노인의 머리를 강타했다.

뽕!

우직!

둔탁한 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리더니 노인의 머리가 뒤로 쪽 밀려났다. 머리와 몸통을 잇는 목이 길게 늘어나 있다. 목이 부러진 것이다.

끔찍하게도 등 뒤에 자신의 목을 매단 노인은 몇 번을 휘청거리더니 앞으로 쓰러져 버렸다. 등뒤까지 늘어난 노인의 머리가 진명을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으아아아!”

진명은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

실혼인들이 계속해서 달려든다. 진명은 가벼운 공격은 내주고 위험한 공격은 피했다. 피할 수 없으면 정면으로 부딪쳤다.

앞으로.

앞으로만 간다.

온 몸에 자잘한 상처가 계속 늘어나고 흐르는 피의 양도 많아진다.

진명의 눈앞에 탁발한 머리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머리 중앙에 계인이

# 武極 - Story Book

뚜렷했다.

소림의 무승이었다.

‘안돼.....’

제아무리 진명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소림의 정식 제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광!

무엇에 맞았는지 채 깨닫기도 전에 몸이 충격으로 뒤흔들렸다. 내장이 진탕되고 입에서 피가 쏟아진다. 하늘땅이 빙글 돌더니 땅은 사라지고 하늘만 보인다.

소림의 무승이 양 주먹을 내밀고 있다. 그제야 진명은 자신이 주먹에 맞고 누웠다는 걸 알았다.

“아.....!”

송산소림(嵩山少林)!

일주문의 거대한 편액에 쓰여진 글귀가 진명의 눈에 아로새겨졌다.

손만 뻗으면 달을 듯 한데, 아득하도록 멀게만 느껴진다.

실혼인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안돼.....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진명은 있는 힘을 다 고집어 내 정신을 차렸다. 정통으로 무승의 쌍권을 맞았는데도 어찌어찌 버텨볼 만은 하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보니 자신을 공격한 무승의 몸에는 부러진 칼과 창이 두 자루나 관통되어 있었다. 그 몸으로는 제대로 무공을 펼칠 수 없었으리라.

‘운이 좋았다! 몸이 저런 데도 한 수에 날 날려버리다니.....!’

그의 무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진명은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두 번 당해줄 수는 없다.

진명은 핏물을 삼키며 무승의 몸에 박힌 칼자루를 잡았다.

“크아아!”

괴로운 비명인지, 아니면 포효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진명은 무승의 배에

박힌 칼자루를 잡고 그대로 그어 내렸다.

짜악!

복부가 갈라지고 안의 것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바닥에 흥건한 핏물과 살덩이들에 섞일 뿐이다. 조금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크아아아아!”

무승이 마지막 발악처럼 일권을 날렸다. 주먹이 닿기도 전에 파공성이 먼저 일었다.

진명은 주먹을 받아내며 그 반동으로 몸을 튕겼다.

퍽!

진명의 몸이 이장이나 튕겨져 날아갔다.

가로막은 팔뚝이 부러질 듯 아려왔지만 가로막은 실혼인들을 잠시나마 떨어낼 수 있었다. 진명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몸을 굴러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달렸다.

뒤쪽에서 실혼인들이 달려오고, 앞쪽에 남아있던 몇몇 실혼인들이 진명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비켜! 비키란 말이다!”

진명은 핏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흘리며 주먹을 뻗었다.

일주문을 겨우 통과해 가파른 계단을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온 진명이었다.

“하아, 하아.”

뒤를 돌아보니 실혼인들이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경공을 사용해서 달려오는 자도 있었고, 다리에 부상을 입어 진명처럼 굴러 내려오는 자도 있었다. 그 어느 쪽이든 진명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것은 확실했다.

“제길!”

전신이 쑤시고 아파왔지만 쉴 겨를이 없었다.

진명은 다시 일어나 달렸다.

# 武極 - Story Book

얼마나 달렸는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입에서 단내가 느껴졌다. 그런데도 실혼인들의 추적은 계속되고 있었다.

내공이 부족하다 보니 경공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힘이 달려 머리가 핑 돌았다.

‘더 이상은 못 달리겠다.’

이미 다리는 마비가 된 듯 감각이 없었고 눈은 점점 캄캄해졌다.

진명을 뒤쫓아오는 실혼인들 중에는 무공이 고강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상승의 경공을 사용해서 진명과의 격차를 좁혀오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돼.’

아무리 끈기가 있는 진명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해!’

때마침 폐가가 된 민가들이 눈에 띄었다.

“헉....헉.....”

진명은 민가의 담벼락에 붙어 뒤쪽으로 돌았다. 일시적이거나 추적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는 퇴비가 쌓인 뒷마당의 헛간으로 뛰어 들었다.

어찌 보면 뻥한 곳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나마 수풀 속으로 숨는 것보다 퇴비 속에 숨는 것이 그의 몸에서 나는 피 냄새는 가려줄 것이다.

타닥.

실혼인들의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실혼인들이 생전의 이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진명의 흔적이 사라진 것 정도는 아는 모양이었다. 핏자국이 끊겨 있기 때문이다.

걸음을 멈추고 실혼인들이 두리번거렸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사방으로 갈라져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진명이 숨어있는 헛간 근처에도 실혼인들이 어른거렸다. 진명은 퇴비 속으로 완전히 몸을 파묻었다.

스윽.

실혼인의 그림자가 헛간 안을 이리저리 오갔다.

진명은 숨을 참고 기다렸다.

혈떡대는 심장 박동 소리가 실혼인들의 귀에 들릴까 억지로 가슴을 감싸 안았다.

실혼인들은 쉽게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다. 진명은 미동도 않고 퇴비 속에서 참고 견뎌냈다. 썩은 퇴비의 냄새도 긴장 때문에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진명은 소림사의 입적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던 날을 떠올렸다.

진명의 아버지는 나무꾼이었다.

나이가 들어 한 사람의 장정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진명도 아버를 따라 나무를 하러 다녔다. 어느 날 산중에서 거대한 곰 한 마리를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그 곰을 때마침 나타난 소림의 승려가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진명은 평생을 아버지처럼 나무꾼으로 살았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소림의 승려에게 목숨을 구하게 된 이후, 진명은 소림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 내세울 것은 쥐뿔만큼도 없는, 가문이랄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집구석이었지만 진명은 독자였다. 아버의 반대로 승려가 될 수는 없었지만 속가 제자로라도 소림사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내로라하는 대부호들이 자제를 소림의 속가로 들이기 위해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소림사로 찾아가는 마당에 진명에게 쉽게 기회가 찾아올 리 만무했다. 그런 상황에서 진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삼류 무관에서 무술을 배우며 조금이나마 욕구를 달래는 것뿐이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왔다.

서역 대정벌에 차출된 소림의 제자 대부분이 전멸하고 마교가 본격적으로 강호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소림사에서 대대적으로 속가 제자를 모집했다. 당장 눈앞에 마교의 위협이



## 武極 - Story Book

닥친 상황에 소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진명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무기명도 아닌 무려 기명제자(記名弟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게 소림에 이름을 올리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예상했던 대로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다.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대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다.

‘소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다. 내가 쉽게 포기할 것 같아?’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드는 퇴비 속 탁한 공기를 맡으며 진명은 이를 악물었다.

팔다리가 저려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실혼인들은 끈질기게도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다. 퇴비를 칼로 휘저을 때에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도 했다. 입안으로 퇴비가 들어와 소리가 안 났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을까.

귀찮다고 남들이 포기할 때 홀로 나한권 단초식 만 번을 시도한 진명이다. 다른 건 몰라도 끈기 하나만큼은 어딜 가도 자랑할 자신이 있었다. 그런 그에게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더러운 퇴비 속에 마냥 파묻혀 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진명은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 위해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었다.

그렇게 얼마를 버텼을까?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진명은 퇴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실혼인 중에도 진명처럼 지독한 녀석이 있었나 보다. 반나절쯤 더 지났을까 한 즈음, 헛간 바로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기척은 마지막으로 한번 주변을 돌아보더니 멀리 사라졌다.

그제서야 진명은 퇴비 밖으로 나왔다.

“으음.”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았더니 온 몸이 다 굳었다.

‘살았다. 살았어!’

몸을 씻는 것은 나중 일이었다. 지금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실혼인들을 피해 장안성으로 가야 한다.

진명은 가볍게 몸을 어루만진 후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틀.

진명이 퇴비 속에 숨어든 지 무려 이틀 만의 일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 제 5 화 [장안성]

“하아.....”

길게 한숨을 내쉬 진명은 장안성의 성문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성문을 오가고 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긴장이 풀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장안성은 이를 테면 정파의 보루, 혹은 유일한 안전지대와도 같은 곳이었다. 무림맹 정파지부가 있는데다 화산파가 굳건히 버티고 있어 마교도 이곳만큼은 크게 손을 쓰질 못하고 있었다. 사파쪽의 펴라성과 비견되는 곳이다.

이곳까지 온 이상 절반의 안전은 확보한 셈이었다.

끈질기게 따라오던 실혼인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달렸는지 모른다. 소림사의 본산을 나와 낙양성을 빠져 나오기까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온몸에 자잘한 상처가 가득하지만, 제대로 한칼 맞은 등의 상처가 제일 깊다. 치료를 못해 덧났는지 등줄기가 욱신거린다. 퇴비 때문에 대충 오다가 냇가에서 씻긴 했지만 그게 다다.

통증이 느껴지자 불현듯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다.

“범문 대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죽었겠지.

진명은 가슴이 울컥했다.

“마교 놈들...”

마교를 생각하자 이가 갈리고 손이 떨렸다.

눈에 불뚱이 튀는 듯 했다.

당금의 마교는 고금이라 최대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강대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오죽하면 건원지간이라던 정파와 사파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겨우 동수를 이룰 정도였다.

그러나 서역대정벌에서 정사무림맹(正邪武林盟)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말았다. 문파마다 피해는 다르지만 살아남은 이가 겨우 1할에 불과했으니...

그야말로 최악의 패배였다.

일패도지한 정사무림맹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문파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주력이 깨지고 더이상 마교를 상대할 힘이 없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문파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소림의 대회합 역시 이 같은 연유로 개최되었다.

마교의 침공에서 소림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집회였다. 평소라면 강호 전역에 흩어져 있었을 소림의 제자들 거의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만약 마교가 소림을 멸문시키고자 했다면 가장 좋은 기회이긴 했다.

하나 대회합에 모인 이들만 따져보아도 결코 어쭙잖은 전력이 아니었다. 아무리 주력의 상당수를 잃었다 하더라도 소림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 마교의 분타 하나쯤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만한 전력이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대회합에 마교가 기습을 해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기습을 해온다 해도 싸워 물리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섭혼술이라니.”

진명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다.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정작 마교의 인물은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 소림이 무너진 것이다. 섭혼술 때문이라지만 말이 그렇지, 자멸에 가까웠다.

진명이 갓 속가제자가 되어 소림 입적부(入籍簿)에 올린 이름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큰일이군.”

대회를 연 것은 소림뿐만이 아니다. 정파의 십대문파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대회를 열어 마교와의 전쟁을 준비했다.

비단 소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범문 대사님은 내가 섭혼술을 켜다고 했어.”

범문의 말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난..... 내가 어떻게 섭혼술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몰라.”

그것이 문제였다.

범문이 시킨 대로 해각을 만나더라도 할 말이 없다. 뭔가 알아야 말을 할 게 아닌가.

“.....”

잠시 고민하던 진명은 어차피 고민해봐야 쓸모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범문 대사님께서는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하다못해 범문 대사님이 어떻게 입적했는지는 알려야 해.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진명은 주먹을 불끈 쥐고는 장안성의 거대한 성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직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진명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장안성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소림사의 본산이 있는 낙양성과 비교해도 족히 10배 이상은 되어 보인다.

당장 눈앞에서 오가는 사람만도 수백이 넘고 상점은 아예 거리를 이룰 정도로 줄지어 늘어서 있다.

진명은 눈이 돌아갈 것 같았다.

“휴우.”

막연히 장안성에 오면 소림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이를 어쩔담?”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끄끙거리고 고민하다가 등이 쭈셔오는 것을 느꼈다. 통증 때문에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무래도 헤각 대사님을 만나기 전에 의원부터 만나야겠다.”

진명은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의방을 찾아갔다.

의방은 장안성 정문을 지나 오른편 성벽 건너에 위치해 있었다.

장안성이 워낙 크다 보니 의방 역시 구획으로 나뉘어 여러 종류의 의방이 거리를 이루고 있다.

진명은 그 중 가장 눈에 띄이는 한 곳을 골라 들어갔다.

당가의방(唐家醫房).

외벽 지현판(紙懸板)에 쓰여진 의방의 이름이었다. 독과 암기로 유명한 당씨세가에서 의방을 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아마 강호 각지에 같은 이름의 의방이 있을 것이다.

예전의 세가들이 아니다. 한때는 세가연합이라고도 불릴 만큼 세가들의 위세가 높을 때도 있었지만 모두가 예전 이야기일 뿐이다.

마교의 침공 이후 많은 세가의 위치가 바뀌었다. 남궁세가처럼 발 빠르게 마교 쪽에 붙어 가세를 확장한 쪽이 있는가 하면, 미적거리다가 몰락한 곳도 많다.

당가도 마찬가지다. 당문(唐門)이라고 부를 만큼 무림 문파에 가까운 독보적인 위치의 세가였다.

그러나 당가는 정파에 힘을 보탰다가 가세가 쇠락했다.

이제는 의방의 수입원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다시 한번 비상하는 날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마교 하나가 강호 전역을 이렇게도 많이 바꾸어 놓았구나.'

진명은 쓴 미소를 지으며 의방에 들어섰다.

의방에 들어서니 진한 약 냄새가 물씬 풍겨온다. 벽에는 말린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어딜 보나 전형적인 의방이었다.

흰 머리칼을 날리며 나이드 의원 한 명이 진명을 보고 다가왔다.

"어이쿠, 웬 시체 하나가 들어오는 구만."

진명이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의원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말했다.

"걱정하지 말게.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데에는 우리 당가의방만한 곳이 없지."

의원의 허세에 진명은 얼굴을 찌푸렸다. 등에 칼 한번 맞았는데 시체니 뭐니 하고 말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제 상처는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만."

의원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무릇 강호인이란 언제 어디서 칼침을 맞고 비명횡사를 할지 아무도 모른다네. 특히나 요즘처럼 세상이 어지러운 때에는 늘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지. 자네처럼 중상을 입고도 치료를 제대로 않으면 시체가 걸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의원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분은 나빴다.

"상처나 보아 주십시오."

진명은 웃옷을 벗고 등의 상처를 의원에게 보였다.

"눈먼 칼에 맞았구먼. 다행히 피는 멧었네만 상처에서 고름이 흐르고 있어. 대체 이려고 며칠을 돌아다닌 겐가?"

"한 사나흘 댔습니다."

의원은 등의 상처를 본 후 진명의 온 몸 여기저기에 난 자잘한 상처들을 살폈다.

"등의 상처가 제일 심하구만. 다른 데는 며칠 잘 먹고 쉬면 낫겠어. 칼밥 먹는 사람들에게 이정도야 애교지. 손 좀 내밀어 보게."

의원은 진명이 내민 손목을 잡고 진맥했다.

"내상은 크게 입지 않은 것 같네만, 기력이 많이 쇠했군. 기력을 보하고 외상만 처치하면 큰 후유증은 없겠네."

의원은 능숙한 솜씨로 진명의 등을 닦은 후 약을 발랐다. 상체를 광목으로 둘둘 감고 침을 꽂는 동작이 무척이나 익숙했다. 무인들을 많이 치료해 본

# 武極 - Story Book

경험이 있는 것 같았다.

일 다경쯤이 지나고 의원이 진명의 몸에서 침을 뽑았다.

"다 됐네. 환약이나 몇 개 챙겨 줄 테니 먹도록 하게."

"고맙습니다."

진명이 몸을 움직여보니 한결 가뿐하다.

"고맙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치료비는 30전일세."

"예?"

진명은 깜짝 놀랐다. 30전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무려 3천 푼이다.

"뭘 그리 놀라나. 자네 외상에 바른 약은 우리 당가 비전의 고약이라 좀 비싸."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답답하다고 광목을 풀어버릴 만큼 좋아질 걸세. 다른 의방들이 쓰는 약하고는 비교도 안된다고. 천년설삼에 만년하수오에 공청석유, 독각화망의 내단을 비롯해서 수백 가지의 약재를 조합해 만든거야."

"에? 정말 제가 바른 약에 그런 게 다 들어 갔다구요?"

진명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의원을 보았다.

하나만 취해도 고수가 될 수 있다는 절세의 영약들을 겨우 고약 따위로 만들 리가 없다. 만년하수오니 하는 영약들은 돈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인 것이다.

의원은 돌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그럼 당가의 일원인 내가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취릿.

의원의 손에 갑자기 암기가 들렸다. 언제 꺼내 들었는지 진명은 보지도 못했다. 살기가 엄습했다.

"비록 지금은 의방에 매인 몸이지만 한때는 강호에서 천독비살(千毒秘殺) 당청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내 손에 걸린 놈들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다 이 말이야."

"노인장, 잠깐 진정 좀 하고..."

의원 당청이 송곳모양의 암기를 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진정하긴! 나 천독비살 당청을, 우리 당가를 사기꾼이라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참으란 말인가!"

진명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젠장.'

당청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지금이야 우리 당가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자존심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어!"

금방이라도 암기를 던질 듯이 의원은 손을 흔들어들었다. 극독을 발랐는지 암기 끝이 거무죽죽해서 오싹했다.

생각 같아서야 진명도 한 소리 하고 싶었다.

'그렇게 자존심 높은 분들이 돈 몇 푼에 암기부터 들이대냐!'

그러나 그런 말을 내뱉었다간 온몸이 벌집이 될 게 분명했다.

"드릴게요. 30전, 드리면 되잖습니까."

"30전이라니, 50전."

"엣? 좀 전엔 30전이라고 했잖아요."

당청은 암기를 넣고 뒷짐을 졌다.

"그거야 아까 얘기지. "

진명도 화가 났다.

"바가지가 심해도 너무 심하잖습니까!"

"왜 20전이 더 붙었는지 설명해줄까?"

"관두시오! 난 30전만 내겠소!"

진명이 화를 내며 허리춤에 찬 전낭을 뒤희는데, 당청이 암기를 꺼내 들었다. 당청은 암기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했다.

"잘 들어보라고. 자네가 당가를 모욕했으니 난 참을 수가 없단 말일세. 그 대가로 난 자네에게 독이 발린 암기를 던질 셈이야. 자네는 내 암기를 피할 실력이 못되니 곧 중독되겠지. 그럼 난 자네를 해독시킬 셈이야. 해독은 공짜로

## 武極 - Story Book

하나? 하물며 우리 당가의 독은 다른 데서는 해독도 못해. 그 해독약 값이 한 냥이야. 100전이라고."

"그, 그런 말도 안되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네. 자네가 20전을 더 내면 난 자네에게 암기를 던지지 않아도 되니 독을 낭비하지 않아서 좋고, 자네는 괜히 중독되어서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잖은가."

처음엔 그렇게 서글서글하던 인상이 이제는 마치 악귀처럼 보였다.

"으으....."

진명은 이를 갈았지만 별 수 없었다.

'제대로 걸렸구나.'

당장 성밖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도 사람 사는 곳에서는 돈이 필요하다. 마교가 강호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진명이 전낭을 꺼내는 걸 보면서 당청이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젊은 사람이 판단이 빠르구만.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오래 산다네."

토박이가 아닌 뜨내기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는 어디에나 있는 법이다. 어수룩하게 비용 얘기도 없이 치료부터 받은 게 문제였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다.

진명의 얼굴이 하얗게 변색된다.

"어, 없다!"

전낭을 아무리 뒤져봐도 전낭 안에 돈이 없었다. 전낭을 꺼내 흔들어 보니 찢겨져서 구멍이 뚫하니 뚫려 있었다.

"아차!"

소림사 본산에서 그렇게 혈투를 벌였으니 언제 전낭에 구멍이 뚫렸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후에는 달아나느라 전낭에 든 돈 따위는 신경도 쓰질 못했다.

진명은 찢어진 전낭을 들고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다시 악귀로 변한 당청이 무시무시한 살기를 내뿜으며 암기를 쳐든다.

"돈이.... 없다고?"

식은땀이 흘렀다.

바가지를 쓴 거야 바가지를 쓴 것이고, 지불해야 할 돈이 애초에 없다는 건 자신의 잘못이다.

진명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전낭을 보여주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돈은 꼭 갚을 테니..."

이정도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한데 뜻밖에도 당청은 순순히 수긍한다.

인상을 풀고 암기를 집어넣었다.

"당연히 갚아야지. 감히 당가의 돈을 떼어먹고 무사할 것 같은가?"

너무 순순히 인정해버려서 진명이 당황할 지경이다.

"하지만 당장은 돈이..."

"걱정하지 말아.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면 되잖아. 안 그런가?"

"모, 몸으로요?"

당청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에 약값을 떼어먹고 달아난 녀석이 하나 있었지. 그래, 자네가 그 놈에게 대신 돈을 받아다 주면 되겠군. 내가 가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놈을 보면 죽여버릴 것 같아서 말이야. 죽이는 건 상관없지만 돈을 못 받을 테니, 에잉."

진명은 고민했다. 떼인 돈을 받는 건 뒷골목 해결사들이나 하는 짓이다. 입문하자마자 사건이 터져 무공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명색만 속가제자라 하더라도 소림의 제자인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 싫은가? 싫으면 팔다리라도 하나 떼어두고 가던가."

빨리 소림의 해각을 찾아가야 하는데, 일이 자꾸 꼬여만 간다.

"후우.....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니까?"

"장랑이라고 하는 건달녀석인데 어제까지 돈을 가져온다더니, 오질 않는 구만. 약값 한 냥에 이자 한 냥. 합쳐서 두 냥을 받아오게."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기가 막혔다.

하루가 지났다고 이자가 원금의 두 배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리대금이다. 진명에게 50전 대신 돈을 받아오란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수가 없으면 돈을 달라고 했다가 내 목이 먼저 달아나겠군.'

그러나 진명은 그런 것을 따질 입장이 아니었다.

"장랑이라는 자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아마 객잔가에 있을 걸세. 듣자 하니 평안객잔에서 자주 보인다고 하던데. 파락호 놈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객잔에서 술이나 마시겠지."

"객잔가는 어딘데요?"

당청이 귀찮은 투로 대답했다.

"의방가에서 정문쪽으로 내성벽을 타고 가다 보면 개천이 보일 걸세. 오면서 봤지?"

“예.”

“그 개천이 장안성의 명물인 장안번천(長安番川)이야. 번천을 건너면 광장을 끼고 객잔가가 있지. 거기 가서 찾아보게."

"알겠습니다."

진명은 한숨을 쉬며 당가의방을 나왔다.

그의 뒤통수에 대고 당청이 크게 소리쳤다.

"아아,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달아날 생각은 말게. 자네가 도망가면 강호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야. 돈 몇 푼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진명은 고개를 돌려 당청을 쏘아보았다.

'돈 몇 푼에 강호 전체를 뒤지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소!'

물론 목구멍으로 튀어나온 말은 아니었다.

"에휴, 내 처지야."

마교가 강호무림을 지배하려고 수많은 혈겁을 일으키는 난세다.

며칠 전에는 소림사에서의 혈사를 직접 겪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겨우 떼인 돈이나 받으러 다녀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어딘가 모르게 우스꽝스러웠다.

"아무리 무림이 난리가 난다 해도 평범한 민초들의 삶은 계속되는 거지."

진명은 쓴웃음을 지으며 객잔가를 향했다.



# 武極 - Story Book

## 제 6 화 [평안객잔]

의방가를 나와 내성벽의 통로를 지나고 나니 장안성의 중앙을 개천이 가로 지른다. 개천은 정문 앞쪽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흐르고 있다. 이 번천을 중심으로 동쪽 편에는 의방을 비롯해 각종 공방들이 자리하고, 서쪽 편은 객잔 등의 거주구로 나뉜다. 계란껍질처럼 내성을 외성이 둘러싼 형태가 아니라 쌍둥이처럼 나뉜 형태다. 그리고 공방 안쪽에 바로 무림맹 정파지부가 있다. 형식적이거나 이곳이 내성이다.

진명은 지금 공방구역의 내성을 나와 외성의 거주구역에 있는 것이다.

‘번천을 지나면 광장이 나온다고 했지.’

번천을 지나는 석조 다리는 몇 되지 않는데 하나같이 난간이 없었다. 이름도 불회교(不回橋)라 짝짝한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도 난간이 없으니 불안불안한 느낌이다.

“왜 난간이 없지?”

난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민송해서 자칫 발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개천으로 떨어질 것 같다.

진명은 가만히 서서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석조다리의 특징과도 같은 교각과 무지개모양의 홍예(虹霓)는 여타의 석조 다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자세히 보니 맑은 번천의 밑바닥에 반짝이는 것들이 보인다.

부러진 칼 조각과 화살 같은 것들이다.

진명은 그제서야 다리에 왜 난간이 없는지 알 것 같았다.

“아하.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군.”

장안성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내성의 무림맹 정파지부, 그곳으로 직접 통하는 후문 통로는 비좁아서 진입이 어렵다.

그렇다면 정문으로 진입하는 길밖에 없는데 정문을 통과하면 번천이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번천을 건너기 위한 다리에는 난간이 없으니, 돌파가 힘들 수 밖에 없다.

“그야말로 장안성은 그 자체로 요새로군. 왜 마교가 장안성만큼은 함락하지 못했는지 알겠어.”

번천, 말 그대로 번을 서는 개천이란 뜻이다. 번천을 지나면 돌아올 수 없으니 번천을 잇는 다리를 불회교라 부르는 것이다.

진명은 입맛을 썹 다셨다.

“번천의 바닥에 무기조각이 있으니 몇 번이나 공격이 있었다는 거겠지.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진명은 북적대는 사람들 틈새로 떨어지지 않도록 불회교를 지나 광장으로 향했다.

광장과 붙어있는 객잔가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무인들은 보란 듯 무기를 들고 다녔고, 상처를 입어 피투성이가 된 이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난세는 난세였다. 객잔가를 들어서니 수많은 객잔이 현판을 걸고 늘어서 있었다.

"평안객잔이라고 했던가?"

한참을 뒤지다 보니 평안객잔의 현판이 보였다.

객잔의 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려온다. 늦은 오후인데도 꽤 많은 이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가만있자. 여기서 어떻게 장량을 찾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진명은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정공법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소리를 쳤다.

"장량이 누구요!"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금세 멎어 들었다.

곧 평안객잔의 한구석에 앉아 있던 장한 한 명이 몸을 일으켰다. 함께 밥을

# 武極 - Story Book

먹던 동료가 셋이나 있었는데 대부분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음! 길보다 흥이 많겠다.'

하지만 이미 내친 걸음이다.

진명이 장한을 보며 물었다.

"당신이 장랑이오?"

거구는 아니지만 체격이 좋은 장한이 진명에게 다가오며 되물었다.

"형씨, 내가 장랑인데 왜 날 찾는 거요?"

눈빛이 매섭고 손에는 울퉁불퉁한 굳은살이 가득했다.

'허리에 칼을 찼지만 권을 주로 쓰는 무인이고 실전도 풍부하다.'

운 좋게 장랑을 찾았지만 일이 쉬울 것 같지는 않다.

결혼질로 쟁싸게 상대를 파악한 진명이 말했다.

"당가의방에서 보내서 왔소. 약값 두 냥을 갚아줘야겠소."

"뭐? 두냥?"

예상대로 장랑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두 냥이 누구네 집 개이름인줄 알아? 200전이라고, 200전!"

장랑이 탁자에 있던 자신의 일행을 돌아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봐들, 당가의방에서 내게 두 냥을 내놓으라는데?"

일행들이 웃었다.

장랑이 야비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진명을 쳐다보았다.

"형씨, 내 얼마 전에 한판 크게 싸우다가 팔이 골절돼서 당가의방에서 접골을 했어. 그러더니 환약 몇 개 쥐어주면서 50전을 내놓으라더군. 형씨 같으면 뼈 한 번 맞추고 50전을 내겠어?"

진명이 살짝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건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냐 아냐, 잘 생각해보라니까? 그래서 내가 50전을 못 내겠다 했더니 80전, 한 냥으로 늘더라 이말이야. 그러더니 오늘은 두 냥이라지?"

객잔 안에 있던 누군가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가의방이 치료는 확실해도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니까. 그 옆에 있는 의방에선 접골하는데 20푼밖에 안 해! 나한테 오면 공짜고!"

객잔 안의 사람들이 왁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장랑이 손가락 관절을 우둑 소리를 내며 꺾었다.

"그러니까 형씨, 내가 20푼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가. 안 그러면 형씨도 당가의방에서 바가지 한번 기차게 써야 할걸? 물론 나 때문에 말이지."

진명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벌써 바가지는 왕창 썼지.'

그래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택의 사정이야 알 바 아니고, 난 200전만 받아가면 돼."

장랑의 눈썹이 꿈틀댔다. 그가 진명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젊은 친구가 이렇게 말귀가 어둡나. 시체로 만들어서 당가의방으로 보내줄까? 아니지. 그럼 장의사에게 보내야겠군."

음산한 말투의 협박이었다.

'어차피 조용히 돈을 받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진명의 눈이 번쩍었다.

진명은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는 장랑의 손목을 잡고 발로 장랑의 복부를 걷어찼다. 그러나 장랑은 그리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었다.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던 듯 팔을 뒤틀어 손을 빼내고 뒤로 두 걸음을 훌쩍 물러섰다.

"오호라, 해보자 이거지?"

그의 뒤에 있던 일행들이 무기를 빼 들고 일어섰다.

"저 새끼가?"

"지금 우리 장안사호(長安四虎)와 해보겠다는 거냐?"

진명은 그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장안사호라는 거창한 별호를 가지고 있어봐야 뒷골목 파락호들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 武極 - Story Book

소림의 속가제자가 되어 배운 것은 고작 나한권 1초식 뿐이지만, 그 전에 다른 무관에서 기초는 탄탄히 닦았다. 상처 입은 등이 빠근하지만 파락호 한물쑈은 눌힐 수 있다.

굳건히 자세를 잡은 진명을 보며 장량이 코웃음을 쳤다.

"흥, 형제들이 나설 것도 없어. 요 녀석은 당가의방에 대한 본보기로 내가 처리하지."

진명도 입술을 이죽거렸다.

"해볼 수 있으면 해 봐."

"그럼 이렇게 할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네놈한테 지면 두 냥을 갚고, 네가 지면 없는 걸고 하는 거야. 어때?"

"그러지. 하지만 두 냥은 반드시 가져가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선공으로 기세를 잡는다!’

진명은 과거 무관에서 배웠던 형의권을 펼쳤다.

땅을 재빨리 차고 뛰어올라 장량의 턱을 걷어찬다.

“어딜!”

장량은 양손으로 진명의 정강이를 눌러 막고 머리로 진명의 코를 들이받는다.

역시나 뒷골목에서 꽤나 굴러본 싸움 실력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도 안되지!’

진명은 다른 발로 장량의 머리를 밟으며 옆으로 몸을 회전시켰다. 몸의 회전력을 더해 발을 뻗자 선풍각이 그대로 장량의 귓가를 강타한다.

뽕!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장량의 머리가 돌아간다.

‘정통으로 요혈을 맞았다!’

장량은 비틀거리다가 머리를 부여잡고 섰다. 그러나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크... 이 녀석이!”

“엇?”

진명은 당황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이 한 수에 기절을 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장량이 보통의 파락호는 아닌 모양이다. 이문혈을 때릴 때 내공의 반발이 느껴졌다. 어느 정도 기본이 된 무인이란 뜻이다.

진명은 이를 악물고 재차 공격을 시도했다. 채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장량이 연거푸 진명의 주먹에 얻어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타격을 받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오히려 눈을 빛냈다.

“이 자식, 넌 죽었어.”

진명이 당황한 사이 장량이 반격을 개시했다.

허둥대던 진명은 손발이 어지러워졌다. 비슷한 실력일 때에는 초식의 우월이 더하는 법이다. 불행히도 장량은 진명보다 더 많은 초식을 알고 있었고, 진명의 초식은 모두 읽혔다.

“하하! 건방진 놈아. 어디 한번 날뛰어 봐라! 장안사호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나?”

장안사호는 진명의 생각보다 실력이 있는 무인으로 장안성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본래 정파태생이 아니라 낭인이었기에 행동이나 말투가 파락호와 같았을 뿐이다.

“어디 맛 좀 봐라!”

그 순간 장량의 주먹이 진명의 명치를 가격했다.

“크악!”

진명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주저앉을 뻔 했다.

울컥하고 솟는 핏물을 삼키며 서너 걸음을 뒤로 물러섰다. 정통으로 맞은 것도 아닌데 일격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왜 이러지?’

진명은 과거를 떠올렸다. 현 상황은 무관에서 대련을 할 때와는 사뭇 달랐다.

더구나 상대에 비해 수 차례나 더 많은 공격을 성공시켰는데도 입은 피해는 자신이 더 크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이 입으로 새어 나오는 피를 닦으며 장량을 노려보았다.

장량은 히죽거리면서 다가왔다.

“이놈 보게? 잘난 척 하더니 입만 고수였냐?”

생각보다 고수다. 단순한 파락호가 아니다.

진명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몇 번 쥐었다 폈다.

삼류 무관에서 배운 형의권으로는 역시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작 단초식뿐인 나한권을 쓰기도 애매하다.

괜히 어설프게 나한권을 썼다가는 소림의 명성에 먹칠을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장량이 주먹을 뻗는다. 기세가 보통이 아닌 것이 이번에 한번 더 정통으로 맞았다가는 황천행일 것이다.

“죽어라!”

장량의 주먹이 코앞까지 다가와서야 다급해진 진명이 출수했다. 놀란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레 몸에 익혀진 수법이 튀어나왔다. 만 번이나 행해 왔던 바로 그 단초식의 나한권이다. 이번에 놀란 것은 장량이었다.

뒤늦게 뻗은 진명의 주먹은 장량의 주먹보다도 빨랐다.

“어? 어어어!”

장량의 두 눈이 휘둥그래지고 ‘아차’하는 순간, 진명의 주먹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듯 정확히 장량의 백회혈에 박혀 들었다.

쩍!

나한권 1초식의 선인공수!

진명이 아는 유일한 나한권이었다.

장량은 이럴 수는 없다는 듯한 눈으로 진명을 쳐다보았다. 진명은 장량이 다시 덤벼들 까봐 주춤거리고 몸을 사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장량의 눈이 서서히 뒤집혀갔다. 실력면에서야 장량이 우월하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회심의 일격을 허용하고 만 것이다.

털썩.

장량은 쓰러졌고, 객잔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해냈다!”

진명은 쓰러진 장량의 품을 뒤져 전낭을 찾아냈다. 전낭은 꽤 두둑했지만 진명은 두 냥만 꺼내고 더 이상의 욕심은 부리지 않았다.

“불만이 있으면 당가의방으로 가서 따지시오.”

혼절했으니 들리지는 않을 테지만, 깨어난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해줄 것이다. 진명은 일을 마치자 장량의 일행들이 나서기 전에 얼른 객잔을 떠나려 했지만, 그것 역시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새끼가 우리 장안사호를 건드려놓고 그냥 내빼시려고?”

“우릴 웃음거리로 만들고도 살아남을 것 같아? 엉?”

어느새 남은 장안삼호가 진명을 삼면에서 포위하고 있었다. 장안사호에서 잠깐 동안 장안삼호가 된 그들은 서슬이 퍼런 칼을 꺼내 들고 진명을 노려보았다.

살기가 객잔 안을 감돌자 그때까지 구경하던 손님들이 죄다 벽 쪽으로 몸을 피했다. 장안삼호가 탁자와 의자들을 걷어차며 공간을 만들었다.

“네놈의 목을 잘라서 당가의방으로 가주마.”

“본 형제를 때려서 병신으로 만들었으니 약값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톡톡히 받아내야지.”

진명은 마른침을 삼켰다.

장안사호의 실력이 서로간에 비슷비슷하다면 진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장안삼호가 서서히 공력을 끌어올렸다.

느껴지는 기세가 보통이 아니다.

‘장량과 비슷..... 아니면 그 이상?’

진명은 안색이 떨떠름한 얼굴로 종얼거렸다.

“이런 쟁장.”

아무리 봐도 그냥 저냥 한 파락호들이 아니다.



# 武極 - Story Book

## 제 7 화 [백도]

진명은 장안삼호에게 둘러싸인 채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무래도 싸우는 건 무리다. 차라리 달아나자.’  
그러나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틈을 찾아야 해.’  
장안삼호 중의 한 명이 칼을 날리듯 베어왔다.  
“반쪽을 내주마!”  
칼의 기세가 사나웠다. 선불리 마주할 수가 없었다.  
진명은 옆으로 몸을 굴렀다. 몸을 굴리고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다친 등 쪽에 충격이 왔다. 발길질을 당한 것이다.  
“으악!”  
진명이 충격에 의해 허우적거리며 앞으로 넘어가자 장안삼호의 무릎이 올라왔다. 진명의 턱에 무릎이 들어박혔다.  
진명은 눈이 반이나 돌아갔다. 짝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으로 엎어졌다.  
“어디 웅 좀 써봐라.”  
“이거 원 싱거워서 살 수가 있나.”  
장안삼호는 진명을 짓밟기 시작했다. 무공도 아니고 그냥 구타였다.  
무공이고 나발이고 그냥 짓밟는 것이다.  
퍽퍽퍽퍽.  
진명은 몇 번이나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우악스런 주먹과 발길질에 쓰러지고 말았다.  
낄낄대는 비웃음이 귓가를 울린다.  
“덤벼봐. 덤비라니까?”  
“감히 당가의방 따위의 일을 맡고 우리 장안사호를 우습게 봐?”  
진명이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깨문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비웃음을 당하는 건 죽기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퍽퍽 하고 격한 음이 울릴 때마다 진명의 몸이 떨렸다.  
‘죽는다.’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  
‘혜각 대사님을 만나야 하는데..... 의방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자신이 생각해봐도 웃긴 노릇이었다.  
소림사에서 지금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으면서도 살아남았는데 고작 파락호에게 죽게 되다니.  
‘진명, 이 바보 같은 놈. 사내로 태어나 큰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이없게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소림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무공을 수련하리라. 그래서 마교를 처단하리라.  
이 작고 소박한 바람조차 이룰 수 없다니.  
‘난 정말 재수가 없는 놈이구나.’  
그러나 진명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너무 순해서 바보 같고 딱히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끈기 하나만큼은 그를 당할 자가 없다.  
흐릿한 시야를 밝히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때마침 얼굴로 날아오는 발이 보인다.  
“에이잇!”  
더 생각할 것도 없었다. 진명은 온 힘을 다해 발을 물었다.  
덥썩!  
어찌나 힘껏 물었는지 허름한 가죽신의 외피를 뚫고 이빨이 들어갔다. 구릿한 특유의 발 냄새와 찝득한 피비린내가 동시에 났다.  
“으아아!”  
이런 진명의 행동을 생각도 못했기에 장안사호도 한 순간 어안이 빙빙해졌다.  
“이, 이 새끼!”



정신을 차린 장안삼호가 죽어라 진명을 짓밟았다.

진명은 악착같이 발을 붙들고 늘어졌다. 머리를 밟히고 주먹으로 얻어맞아도 발을 놓지 않았다. 이빨이 부러져라 깨물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 거머리 같은 새끼 좀 떼어놔! 내, 내 발가락! 으아아아!”

창졸간에 장안사호에서 장안이호가 되게 생겼다. 발가락을 물린 이는 자지러져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누워버렸고, 남은 둘은 급한 마음에 진명을 떼어버리려고 난리였다.

“그만 놔라, 놔!”

“안 때릴 테니까 놓으라고!”

“이 골통자식, 바지를 벗겨서 객잔 앞에 매달아 놓을까 보다!”

“그냥 목을 잘라버려!”

그 말에 진명은 뒷목이 뜨끔해졌다. 차가운 느낌이 뒷목에 와 닿는 것 같았다. 절대 절명의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진명을 살렸다.

“그쯤 해둬. 그러다 애먼 꼬마 하나 잡겠다.”

익숙한 목소리.

거짓말처럼 구타가 멈췄다. 진명은 발을 놓지 않은 채로 눈을 돌렸다.

평안 객잔의 문에 누군가 서 있었다.

“쫓쫓. 약값 받으러 보냈다가 약값만 더 들게 생겼어.”

“당가...의방의...?”

당청이었다.

“이, 이게 어떻게 된거야?”

진명이 눈치를 보며 일어났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기절해있던 장량이 언제 깨어났는지 당청을 보며 소리쳤다.

“당가영감! 그렇게 누가 이런 독종 놈을 보내래!”

발을 물린 장안사호 중 한명도 함께 소리쳤다.

“내 발가락 너덜거리는 거 봐! 저놈이 내 발가락을 씹어먹으려 했다고!”

# 武極 - Story Book

당청이 연신 혀를 차며 말했다.

"멍청한 놈들. 형의권과 나한권을 쓰는 걸 보면 중간에 그만 뒀어야지. 왜 끝까지 조저, 조지길."

"아, 죽기 직전까지 조저봐야 뭐가 나와도 나올 거 아뇨!"

장랑이 투덜거렸다.

"게다가 나한권을 본 순간 기절했는데 그만두길 뭘 그만둔단 말ियो?"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장안사호의 첫째가 신출내기에게 한방에 뺨어놓고 핑계를 댄단 말이지?"

"아, 누가 저 비리비리한 녀석이 제대로 된 나한권을 쓸 줄 알았나?"

장랑을 비롯한 장안사호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때 진명이 당청을 노려보며 물었다.

마치 자신 몰래 모종의 거래가 오간 듯 불쾌한 상황이다.

"이게 뭡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였소?"

당청은 헤실거리면서 진명에게 다가왔다.

"너무 화내지 말게. 처음 본 뜨내기 무인을 함부로 믿을 수는 없지 않나."

진명은 당청이 장안사호와 싸고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믿고 안 믿고 한단 말ियो! 누가 댁더러 날 믿어달라 했소? 치료만 해줬으면 그만이지!"

"쫂쫂. 세상 돌아가는 꼴을 하나도 모르는군."

억울한 느낌이 든 진명이 화를 내려 하는데 당청이 먼저 말을 잘랐다.

"자네 여기가 어딘지 모르나?"

"압니다! 장안성. 여기가 장안성 아닙니까!"

"그래. 장안성이지. 정파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우는 장안성."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자넨 몰라도 우린 상관이 있지. 사파나 마교의 간세가 들락거리는 걸 내버려둘 수는 없거든."

진명은 입을 쩍 벌렸다. 마교라면 보이는 족족 잡아죽여도 시원찮을 만큼

원한을 가진 판국에 자신을 마교의 간세라 하다니.

"그럼 내가 사파나 마교의 간세란 말입니까?"

"그야 모르지. 모르니까 시험해본 거 아닌가. 이것이 정파연합에서 장안성을 이제껏 지켜올 수 있었던 방법이라네."

"그래서요?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제대로 된 나한권을 쓰는 걸 보니 적어도 우리 정파쪽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 게다가 장랑의 품에는 꽤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그걸 욕심내지도 않았고. 자넨 사파나 마교의 간세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자유로이 장안성을 다녀도 돼."

"허! 참 내."

진명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다.

당청이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게. 처음 보는 뜨내기 무인들은 무조건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다네. 의방을 가든 객잔을 가든 자네처럼 시험을 거쳐야만 하지. 자넨 통과야."

"젠장! 이거나 가져가시오!"

진명은 장랑에게서 빼앗은 돈을 당청에게 던지려 했다. 당청이 손을 저으며 장랑을 가리켰다.

"저 친구에게 주게. 또 다른 뜨내기가 오면 사용해야 하니까."

"에에잇!"

진명은 돈을 장랑에게 던졌다. 장랑이 가볍게 돈을 받아 들었다.

"더 볼일이 없으면 난 가겠소!"

진명이 씩씩대며 발을 옮기려 하는데 당청이 붙잡는다.

"아 잠깐, 그전에 하나만 더."

"또 뭡니까! 이젠 자유롭게 다녀도 된다면서요!"

"아직은 아니지. 보아하니 자네 소질도 있고 기초도 탄탄해 보이는데, 무공은 어디서 배웠는가?"

## 武極 - Story Book

굳이 숨길 얘기는 아니었지만 진명은 통명스럽게 답했다.

"소림의 속가제자요."

"호오, 그래서 나한권이 제대로 였구만. 소림사가 얼마 전에 멸문지화를 당했다던데 웅케도 살아남았어. 등에 입은 상처도 그때 입은 건가?"

그때를 생각하니 마교에 대한 분노가 새삼스럽게 치민다.

진명의 눈에 불길이 일어났다.

"그렇소."

누가 봐도 마교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 표정이다.

당청이 안됐다는 표정으로 또다시 혀를 찼다.

"쫓쫓.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게. 소림사 뿐 아니라 9파1방 모두가 같은 일을 겪었으니."

진명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마음이 무겁다.

'역시나. 내 추측이 맞았구나. 9파1방은 모조리 무너지다니. 그럼 이제 마교는 막을 수 없는 건가.....'

당청이 자신을 시험한 것도 괜한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진명 자신처럼 살아남은 문파의 제자들이 장안성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을 것이다. 강호의 대부분이 마교의 수중에 넘어간 이상 그들이 올 곳은 바로 이 장안성밖에는 없다. 그 중에 섞여있을 간자를 추려내는 것이 바로 당청등의 임무였던 것이다.

정파의 큰 줄기인 9파1방이 모두 무너졌으니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소림에서도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곳에 있을지 모른다.'

작지만 희망이 생겼다. 장안성이 아무리 넓다 한들 찾아 다니다 보면 끝끝내 만날 수 있을 터.

진명은 아까보다 당청과 장안사호에 대한 미움이 사그러 들었다.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네. 자네가 만약 사파나 마교의 무공을 숨긴 간세였다면

저들은 대번에 자네 목을 날려 버렸을 테니. 알다시피 자넨 장안사호의 상대가 아닐세. 장랑을 쓰러뜨린 것도 운이 좋았던 거지."

괜히 찢끔한 진명이었다. 겉모습이 파락호라고 우습게 보았지만 역시나 그들은 상당한 실력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럼 전 이만..."

"잠깐. 한가지만 더."

진명이 당청을 돌아보았다.

당청이 말했다.

"자네가 소림의 생존자라니, 말해주지. 아마 자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네. 그들을 만나볼 텐가?"

"내게 관심을.....?"

당청은 얼굴에서 웃음기를 지우고 진지하게 말했다.

"단, 그들을 만나면 목숨을 걸어야 하네."

"그게 무슨 말이오?"

당청이 말없이 손바닥만한 목패(木牌) 하나를 내민다.

손때가 닳아 낡은 목패에는 '백도(白道)'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백도!"

그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명이 모를 리 없다.

정파.

정파의 기치이며 표상을 나타내는 두 글자다.

묘한 감흥이 일었다.

가슴이 두근댄다.

당청이 슬쩍 웃으면서 말한다.

"9파1방이 무너졌어도 정파는 무너진 게 아니네. 적어도 아직은."

진명이 장안성을 찾아오며 했던 생각과 같은 말이다.

"마교를 피해 달아날 생각이라면 패를 받지 않고 그냥 떠나도 좋네. 그러나 이 패를 받는다면 마교와의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 武極 - Story Book

진명이 물끄러미 당청과 당청의 손에 놓인 목패를 본다.

"결정하게."

진명은 당청의 재촉이 무색하게 목패를 집어 들었다. 그리곤 싸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당청에게 말했다.

"내 목숨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서 말ियो."

그의 목숨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범문에게 빚을 진 목숨이다. 더구나 그의 어깨에는 가족들의 복수까지 걸려 있다.

"싸우다 죽겠는가?"

"싸우다 죽겠소."

더 이상의 말은 필요치 않았다.

당청이 목패를 건네고 말했다.

"객잔의 서쪽으로 가면 성벽에 허름한 모옥 하나가 붙어 있을 걸세. 성벽을 따라가면 보일 테니 찾긴 어렵지 않겠지. 거기 문지기에게 이 목패를 보여주게."

진명은 벅찬 마음으로 목패를 받아 품속에 넣었다.

장량이 그런 진명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한다.

"어이, 복수하고 싶으면 실력을 키워서 다시 오라고.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발을 물려 다친 사내가 투덜대듯 말한다.

"장량, 다시 오라고 할 처지가 아냐. 오히려 너와 내가 복수를 해야 한다고."

"아, 그렇게 되는 건가? ㅋㅋㅋ."

여전히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야비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낭인 출신이었다 해도 이젠 그들도 같은 정파인이다. 그들 역시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진명이 장안사호를 보며 옅은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복수를 받아줄 테니, 죽지 마시오."

장안사호도 웃으며 답한다.

"어이, 먼저 나게 두들겨 맞은 게 누군데 그래? 너나 복수하기 전에 죽지 말라고."

"흐흐."

"흐흐흐."

한동안 진명과 장안사호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보다 못한 당청이 혀를 차며 말했다.

"웃어도 꼭 사파 놈들처럼 웃어. 자, 볼 일들 끝났으면 어서 갈 길을 가라고."

"그럼."

진명은 당청의 재촉에 포권을 하고 평안 객잔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장량이 당청에게 물었다.

"저 녀석 어쩐지 거물이 될 것 같지 않수?"

"모르지."

"내 눈은 틀림없어. 저놈은 반드시 큰놈이 될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장량이 꾀내기에게 당할 리 없거든."

"쫂쫂. 지가 방심해서 당한 주제에 누굴 탓하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명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당청의 눈에도 한줄기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난세.

역사상 최고로 마교의 발호가 극에 이른 때.

지금이야말로 영웅이 필요한 때다.

# 武極 - Story Book

## 제 8 화 [단심맹]

진명은 객잔가를 지나 서쪽 성벽으로 향했다.

'성벽에 뭐가 있다는 거지?'

객잔가의 건물 뒤편으로 성벽이 높이 솟아 있었다.

지리를 잘 모르는 진명은 그저 성벽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걷다 보니 약간의 굴곡이 있고, 그 안쪽으로 길이 나 있는 것이 보인다. 그 길 안쪽에 막다른 골목처럼 통로가 있다.

당청이 모옥은 그 통로의 끝에 있었다. 아니, 자세히 보니 모옥이라기보단 일주문(一柱門)처럼 기둥 위에 지붕을 얹어 성벽에 붙인 듯한 형태다.

문도 달려 있다. 일반적인 성문보다는 작고 여염집의 문보다는 큰 문이다.

'성벽에 문이라... 그래 봐야 성문일 텐데, 뭐 하러 이런 곳에 문을 만들어 뒀는지.'

진명은 가우뚱 하면서도 문으로 다가갔다. 당청이 말한 문지기는 보이지 않고 그 앞에서 웬 남자 하나가 가판을 늘어놓고 있다.

파는 것도 딱히 종류가 없이 잡다한데 약을 주로 파는지 가판대의 절반이 동글동글한 환약으로 가득하다.

"어서 오시오. 뭐 구하는 거라도 있소?"

"아, 전 그냥....."

"그러지 말고 한번 보슈. 마누라가 시원찮다고 구박할 땐 요 삼지구엽단이 좋고, 밤일이 벅갯불에 콩 볶듯 하면 요 음양환이 좋소. 요고 몇 알이면 기냥 요강이 뒤집어진단니까."

남자는 너스레를 떨며 보기에다 수상한 환약을 몇 알 집어 보였다.

진명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삼지구엽초나 음양곽이나 똑같은 약초 아닙니까?"

"에이, 누가 삼지구엽초, 음양곽이라고 했나? 이건 삼지구엽단..... 이건 음양환.

서로 말이 다르지 않소?"

사기꾼처럼 느물거리는 약장수다.

진명은 약장수에게서 관심을 버리고 문지기를 찾았다. 그러나 둘러봐도 문지기는커녕 무기를 든 무림인 하나 보이지 않는다.

그때 약장수가 아무렇지 않은 듯 한마디를 내던진다.

"삼지구엽초랑 음양곽이 같은 거면 정도나 백도나 같은 말이겠군."

진명은 깜짝 놀랐다.

약장수를 돌아보니 그가 히죽 웃었다.

"내 말이 틀렸수?"

진명은 가만히 약장수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건 얼마요?"

약장수가 코를 후비적거리며 탄청을 피우듯 말했다.

"뭐, 마음엔 안 들지만 손님이 똑같은 거라고 우기니, 삼지구엽단에 음양환을 몇 개 덤으로 얹어주리다. 그런데 우린 약값은 돈으로 받지 않수."

진명은 뭔가 깨닫는 게 있었다.

품에 넣어 두었던 당청에게 받은 목패를 꺼내 약장수에게 보여주었다.

백도란 글씨가 확 드러난 낡은 목패를 본 순간 약장수의 눈빛이 변했다. 일순간이었지만 진명은 약장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약장수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어이쿠, 원래 당가의방의 손님이셨구만. 그래, 손님은 얼마나 바가지를 썼수?"

"50전."

"하여튼 그 노인네 바가지 씌우는 데에는 도사여."

약장수가 진명에게 주기로 했던 삼지구엽단과 음양환을 손에 쥐었다. 그러더니 닫힌 문을 향해 그 환약들을 던졌다.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었다.

진명은 사기꾼 약장수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실력을 숨긴 고수라는 걸 알았



# 武極 - Story Book

다.

환약이 마치 암기처럼 튀어나갔다.

문에 부딪친 환약 알갱이들이 일정한 박자로 소리를 냈다.

탁 타탁탁 탁탁! 타타탁.

박자 뿐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가 다르다. 그 짧은 순간에 힘을 다르게 조절해 던진 것이다.

'암호?'

진명은 침을 꿀꺽 삼켰다. 당청등이 신중하게 사람을 선별할 만큼 비밀스러운 곳이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칼날 같은 기세의 무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20대 중반, 혹은 거의 30대에 가까운 듯한 나이의 무인이었다.

약장수와는 달리 기세를 숨기지 않고 경계를 하고 있다. 암호를 듣고 문을 열었지만 잘못되었다면 바로 칼을 뽑을 기세였다.

그가 아무 말없이 약장수와 진명을 번갈아 보았다.

약장수가 여전히 느긋거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청풍! 인상 좀 펴고 살아라. 손님들이 놀라시잖냐."

청풍이라는 이름의 무인이 눈썹에 힘을 주고 약장수를 노려보았다.

"마지막 부호가 틀렸다."

약장수가 헤실 거리고 웃었다.

"아, 그런가? 아침부터 오리고기를 뜯었더니 손에 기름이 묻어 미끄러진 모양이군."

"장난은 그만치지."

"알았으니까 신입이나 받아라."

청풍이 진명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이 친구는?"

"누구긴 누구야 신입이라니까."

약장수는 점소이처럼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내밀어 청풍을 가리켰다.

"약값은 잘 받았고, 저 친구를 따라가슈."

청풍이 고개를 고덕였다.

"날 따라와라."

청풍이 지체 없이 문안으로 몸을 돌렸다.

진명은 약장수에게 살짝 포권을 해 인사하고는, 청풍을 따라 문안으로 들어갔다.

성벽을 통과하는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기이할 정도로 좁은 통로였다. 성벽을 뚫고 그 위에 흠을 발랐는지 동굴의 토벽처럼 느껴졌다.

말없이 걷던 청풍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대략은....."

토벽에 매달아 놓은 햇불이 일렁거린다. 청풍은 햇불의 그림자가 귀찮은 듯 눈살을 찌푸리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9파1방의 본산이 어제부로 완전히 함락당했다."

당청에게 들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들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수많은 중소문파가 동시에 공격당했다. 아마 지금쯤은 정파에 속해있던 문파치고 살아남은 문파가 3할도 채 되지 않을 거다."

우울한 소식이었다. 마교는 완전히 정파의 씨를 말릴 생각인지 공격의 고삐를 단 한숨도 놓지 않았다.

"살아남은 이들중에 그래도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안성으로 모인다. 우린 선별을 통해 그중에서도 일부를 받아들인다. 자네 역시 그렇게 이곳에 오게 된 거지."

진명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사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파가 마교와 손을 잡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정파와 사파가 갈라서



# 武極 - Story Book

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다.

하지만 청풍의 말은 달랐다.

"사파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사파의 10문파, 패도십강이 모두 붕괴되고 난 후 중소문파들은 추풍낙엽처럼 쏠리고 있다더군."

사파 역시 마교의 공격으로 정파와 같은 꼴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그렇다면....."

"작금의 세상은 누가 뭐래도 마교의 천하다."

자꾸만 기분이 우울해진 진명이 고개를 떨구었다.

'범문대사님..... 대사님의 희생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군요.'

소림은 마교의 계략에 빠져 멸문 당했다. 그것도 믿지 못할 만큼의 정교한 섭혼술에 의해서.

그 섭혼술을 파훼하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방법을 알아내 다른 문파에 알릴 수만 있다면 마교를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범문은 목숨을 걸고 진명을 구했다. 진명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미 마교의 천하가 되었다면 섭혼술을 파훼하는 방법을 알아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게 아닌가.

범문의 희생이 부질없어진 것 같아 진명은 가슴이 아팠다.

'대사님.....'

그때 청풍이 진명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칼처럼 날카로운 기세에 어울리지 않는 따스한 손이었다.

진명은 고개를 들었다. 청풍이 그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난 청성의 제자였다. 청성은 마교의 공격에 가장 먼저 휩쓸렸지. 수많은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검을 휘둘렀다. 그땐 왜 그랬는지도 몰랐다. 섭혼술에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으니."

청풍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다.

"봐라. 그러나 우린 살아남았다. 살아남아 이곳에 꿈을 키우고 있다. 희망을 버리지 마라. 그리 쉽게 포기할 생각이었다면 우린 이곳을 만들지도, 이곳에 모이

지도 않았을 거다."

어느새 동굴 같던 통로는 끝나 있었다. 새하얀 빛이 밖에서 비쳐 들고 있다.

"아!"

동굴 끝에 서서 밖을 내다본 진명은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내뱉고 말았다.

"이.... 이런 곳이!"

좁은 통로의 끝에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 해 봐야 겨우 집 두어 채 정도가 있고, 살아남은 이들이 비루한 물골로 신세한탄이나 하는 풍경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진명의 눈에 보인 풍경은 전혀 달랐다.

통로를 벗어난 순간 보이는 탁트인 공간은 답답한 가슴을 뺑 뚫리게 할 만큼 넓고 거대했다. 그 공간을 비추는 햇살이 눈을 멀게 했다.

높은 산이 병풍처럼 에워싼 분지 같은 공간에 넓은 연무장이 있었다. 거대한 누각과 전각이 연무장을 내려다보며 천하를 호령하듯 우뚝 서 있었다.

몇인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무인들이 연무장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수련을 한다. 우렁찬 기합소리와 병장기의 날카로운 파공음이 멀리 서 있는 진명의 귓가에도 들린다.

진명의 생각처럼 비참하고 풀 죽은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희망.

활기.

그 둘로 가득한 이곳은 장안성 안의 또 다른 작은 장안성이었다.

청풍이 앞으로 나서서 호령하듯 외쳤다.

"강호에 퍼져있던 모든 정파인이 한자리에 있다. 소림도 아미도 천년문도 청성도! 모두가 한곳에 모여 마교에 대항할 꿈을 키우고 있는 거다!"

청풍은 몸을 돌렸다. 그의 뒤에서 비쳐오는 햇살에 눈이 부셨다.

청풍이 한자한자 또박또박 말한다.

"이곳이 바로 정파 최후의 희망, 새로운 정파 연합 단심맹(丹心盟)이다!"

"단심맹!"

# 武極 - Story Book

진명의 가슴이 벅차 올랐다.

본래 단심맹이라 불리기 이전, 이곳은 화산파에서 말고 있었다.

뛰어난 역량을 지닌 기재나 유망한 인재를 이곳에서 지도하고 가르쳤다. 은거하던 전대 고수들, 혹은 당금 최강의 화산파 고수들이 나서서 화산파의 후예를 키워냈다.

일종의 훈련소, 혹은 양성소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정사무림맹이 서역대정벌에서 복구할 수 없는 패퇴를 하고, 뒤이어 9파1방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차례로 쓰러지면서 많은 정파의 생존자들이 장안성으로 몰려들었다.

마교천하의 세상에서 그나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정파의 유일한 보루 장안성. 어쩌면 눈치빠른 생존자들이 장안성으로 몰리게 된 것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일이었다.

살아남은 정파의 명숙들이 화산파, 무림맹 정파지부에 모여 꼬박 하루밤낮을 의논했다.

마교에 대항할 방법을 찾기 위해.

꺼져가는 정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정파 연합인 단심맹이 탄생하였다.

"건물을 증축하고 연무장을 넓히고..... 그래서 지금처럼 거대한 공간이 된 거지."

청풍의 말이었다.

"단심맹 안에선 모두가 같은 제자다. 전에 어떤 문파의 제자였던 이곳에서는 단심맹의 소속 무인일 뿐이다."

청풍의 설명이 이어졌다.

"명숙들은 정파를 되살리기 위해 9파1방의 무공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 원한

다면 자넨 어떤 문파의 무공이라도 배울 수 있다."

"대가는?"

"마교를 물리치는 것. 그것 하나뿐이다."

청풍의 눈에 깊은 회한이 어린다. 아마 그 역시 멸문당한 청성의 사문을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자네가 찾는 혜각선사는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소림의 일대제자가 있으니 일단 그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지."

청풍은 단심맹의 숨겨진 입구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전각 밑 연무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소림의 일대제자 범여대사가 소림무공을 전수하고 있으니 만나보도록."

"감사합니다."

"내게 고마워할 건 없다. 나 역시 마교 놈들을 쳐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니까."

청풍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감돌았다.

"자, 어서 가봐."

"엣!"

진명은 씩씩하게 대답을 하고는 연무장을 향했다.

따사로운 햇빛아래 땀을 흘리며 모두가 수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 무인이 아미파의 검술을 익히고, 여 무인이 소림의 나한권을 수련하고 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연령을 가리지 않고, 땀투성이가 되어 조금이라도 강해지려 애쓴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

진명은 주먹을 꼭 쥐었다.

'마교와 싸운다. 싸울 수 있다. 최고의 고수가 되어 절대 그 놈들이 무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몇 번이고 해 온 다짐이건만 지금처럼 벅찬 심정은 아니었다.

진명은 너무 힘을 주어서 다른 이들이 보면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딱딱하게

## 武極 - Story Book

걸었다. 어정쩡한 그 모습에 몇몇 무인이 돌아보고 웃었다.

진명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범문의 일과 마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소림의 일대제자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뿐이다.

소림의 범여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마치 훈련교관처럼 연무장의 가장 앞쪽에 서 있는 이들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림의 승려처럼 보이는 이는 한 사람뿐이었다.

승려는 소림을 상징하듯 붉은 가사를 입고 손에는 굵은 염주와 선장(禪杖)을 들었다.

진명은 짧게 호흡을 가다듬고 승려의 앞으로 걸어갔다.

# 武極 - Story Book

## 제 9 화 [범여]

진명은 승려의 앞으로 가 반장을 했다.

한 손을 가슴에 세우는 반장은 소림만의 인사법이다. 본디 양손을 가슴에 모으는 합장(合掌)으로 반 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림에서는 법을 얻기 위해 오른팔을 꿇은 혜가를 기리기 위해 가사로 오른손을 감추고 왼손만으로 반장을 한다.

진명 스스로가 숙연하게 소림의 제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범여대사님이십니까?"

승려가 반장으로 답했다.

"아미타불. 소승이 범여일세. 시주는.....?"

"속가제자인 진명이라고 합니다."

"속가제자라고?"

"속가제자라고는 하지만 입적부에 이름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범여의 눈에 기이한 빛이 맴돌았다.

"소림의 기명제자라고? 흥. 어차피 입적부도 다 타버렸을 텐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증명할 방법도 없지."

의심스럽다는 눈빛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림의 제자는 모두 대회합에 참여했었고, 참변을 당했으니 말이다. 범여가 아는 한 살아남은 이는 혜각이 이끄는 일대제자가 전부였다.

"대회합에 참가하지 않았던가?"

진명은 황급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도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다?"

"그것이....."

범여의 표정이 험악해진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꼭 다문 입술에 힘이 들어갔

다.

단순히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는 것 같다. 말 한번 잘못하면 일장으로 자신을 처죽일 듯한 표정이다.

미간이 파르르 떨리며 눈썹이 흘날린다.

‘내가 살아남은 게 그리 잘못인가?’

진명으로서의 왜 범여가 이토록 화를 내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당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일부러 도망갈래도 섭혼술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말로 운이 좋아 진명은 섭혼술에서 깨어났고 범문 덕에 구사일생했던 것이다. 어차피 달아나지 않았으면 개죽음이나 당했을 것이다.

‘너무하신다.’

그리 고생고생해서 찾아왔더니 반기기는커녕 죽일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다니.

진명은 적잖이 섭섭했다.

만약 범여가 한마디를 더 했다면 진명도 대들었을지 몰랐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범여는 눈을 감고 불호를 외우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를 쓰고 있었다.

"운이..... 좋았군."

"범문대사님이 아니셨다면 죽었을 겁니다."

"범문 사제가?"

"예. 범문대사님께서는 절 살리시고..... 그만....."

범여의 입가가 썰룩이더니 벼락같은 노호성이 터져 나온다.

"네 이놈! 어디서 거짓을 말하느냐!"

놀라서 눈이 휘둥그래진 진명이 해명했다.

"거짓이라니요? 제 말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거짓이 아니면? 왜 범문이 너 같은 녀석을 살리고 죽었던 말이나! 네 녀석 스스로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 武極 - Story Book

"그, 그게....."

진명은 범여의 거친 말에 당황해서 섭혼술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소림이 어디인가.

부처를 모시는 승려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바위나 돌, 하다못해 날벌레 같은 미물에도 존엄이 있다 하여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다. 대자대비한 부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여 제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살계를 열지 않는다.

그래서 소림이고, 소림을 정파의 대들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 소림의 승려가, 그것도 일대제자가 사람의 목숨을 깔보고 있다. 범문의 목숨 값이 진명 같은 하찮은 속가제자의 목숨 값보다 비싸다 말하고 있다.

진명은 분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같은 난세에 진명 같은 삼류무인 열보다 범문 같은 고수 하나가 더 있는 게 낫다. 하지만 다른 이도 아닌 소림의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참기 힘들었다.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범문대사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목숨 걸고 장안성까지 찾아왔단 말입니다!'

마음 같아서야 그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차마 사문의 존장에게 대들 순 없었다.

진명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쥐었다.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왔다.

범여는 한번 더 소리를 지르려다가 진명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더니 '쫓'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차피 단심맹으로 찾아온 이상 너나 나나 똑같다. 소림의 본산을, 나아가 마교의 손에서 강호를 되찾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을 길러 그들과 맞서야 한다. 앞으로는 그게 네 사명이다. 범문도 그걸 바랬을 것이다."

"....."

"나도 이곳에서는 단심맹의 한 무인으로써 소림의 무공을 가르치고 있다. 네가 내게 무공을 배우든 다른 문파의 무공을 배우든 상관하지 않겠다."

진명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이런 대접을 받을지 몰랐다. 범문의 유지를 잇기 위해 힘들게 살아남은 자신을 따듯하게 맞아줄 줄 알았다. 정식제자도 아닌 속가제자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몇 남지도 않은 같은 소림의 제자이니.....

한데 소림의 제자로 살갑게 대하기는커녕, 쓸모 없는 놈이 왜 살았냐고 호통을 치고... 소림의 제자든 아니든 상관없으니 무공이나 배워 마교와 싸우란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정파가 사람을 구하는 게 급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파의 사람이라면 모두 받아들일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하지만 진명은 심한 자괴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왜 살아남았던 것일까.....'

소림 본산에서 실혼인들의 추격을 뿌리치며 끝까지 살아남았던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별볼일 없이 느껴진다.

"나는 바쁜 사람이다. 내게 무공을 배우지 않을 거면 내 앞에서 꺼져라."

울컥.

심해도 너무 심했다.

진명은 핏발이 선 눈으로 고개를 들어 범여를 쳐다보았다.

범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 같은 고수가 진명처럼 햇병아리 무인에게 겁을 먹을 리도 없는 것이니 당연하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사 진명이 기습적으로 주먹을 날린다 해도 주먹이 닿기 전에 진명의 목을 비틀어버릴 만한 고수다.

진명은 오기가 섰다.

"배울 겁니다. 아니, 배우겠습니다! 전 소림의 제자이고 죽을 때까지 소림의 무인으로 남을 겁니다!"

감정이 흔들려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범여는 그것조차 무시했다.

"소림에 입문하며 뭘 배웠느냐."

그의 말투는 건조하고 딱딱했다.

"나한권을 배웠습니다."

# 武極 - Story Book

"성취는?"

진명은 말없이 한걸음을 물러나 기수식을 취했다.

쿵.

땅이 무너져라 진각을 밟고 자신이 아는 나한권을 펼쳐보였다.

선인공수.

평안 객잔에서 장랑을 때려눕혔던 바로 그 초식이다.

진명의 동작은 절도있고 강맹했다.

진기의 운용이 부드럽고 끊임이 없다. 기초가 튼실해 나한권의 초식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다.

진명에게 나한권을 가르친 각원도 그렇게 말했다. 진명의 선인공수는 최고라고. 적어도 선인공수를 펼치는 데에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어차피 하나밖에 모르는 초식. 이것만 죽어라 연습했다. 덕분에 이제껏 살아남았으니 자신감도 있다.

그러나 진명이 초식 시연을 끝내고 손을 거두자, 범여는 코웃음을 쳤다. 진명의 자신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비웃음이었다.

"끝이냐?"

"예."

솔직히 속가제자가 된지도 얼마 안되어 대회합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 더 배울 틈이 없었다.

"어디 가서 소림의 속가였다고 하지도 마라. 내 눈이 다 부끄럽구나. 겨우 상1초를 배워놓고 속가 제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냐?"

진명은 또다시 가슴이 울컥했다. 각원은 기초를 튼실히 해야 나중에 더 발전이 빠르다고 말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겨주고 싶었다.

"각각의 초식은 상초와 중초, 하초로 나뉘어 있다. 중1초와 하1초를 알아야 나한권 1초식을 모두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범여는 시작하겠다는 말도 없이 나한권을 연이어 시연해 보였다.

“패왕이 무쇠 솔을 들어올리는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니, 이것이 패왕거정! 무

량한 마음으로 악을 계도하니 좌우삽화!”

나한권 1초식의 남은 두 동작이다.

쿵, 쿵

진각이 울릴 때마다 팔을 뻗고 회수하며 발을 차는데, 번개처럼 신속하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시연이다. 발끝의 움직임, 손끝 놀림 하나하나에 소림 특유의 강맹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진명이 감탄할 틈도 없이 범여는 마지막 동작을 끝내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섰다.

강풍이 한번 스쳐간 듯 온몸이 오싹해졌다.

‘이것이 소림 일대제자의 나한권!’

사람됨은 둘째치고 무공만큼은 진명도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다. 만약 지금의 나한권으로 범여가 진명을 공격해온다면 도저히 피하거나 막을 엄두가 안 날 것이다.

"해봐라."

말은 짧고 정감이란 하나도 없는 말투.

진명은 자신이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으므로 굳이 되묻지 않았다. 방금 본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해 보였다.

"쫓."

진명의 동작이 어설피자 범여가 지적을 해준다.

“무쇠 솔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겠느냐.”

“그야.....”

“백 근이 넘는 무쇠 솔을 들려면 하체가 지탱을 해주어야 하는 법이다. 그 하체의 기운을 허리로 이끌어 상체로 보낸다. 그것이 패왕거정의 요체다.”

범여는 몇 번 지적을 하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나머지는 혼자 수련하도록 하고, 1초식이 몸에 익으면 다시 찾아와라. 2초식은 그때 알려주겠다."

진명은 반장이 아닌 포권으로 인사했다. 이를테면 약간의 반항이다.

## 武極 - Story Book

범여가 그 의미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범여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더 물어볼 것이 있나?”

진명은 범문의 일이 떠올랐다.

원래 장안성으로 오게 된 것도 혜각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어쩐지 범여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다. 섭혼술에서 어떻게 깨어났는지 진명 스스로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해봐야 믿지도 않을 테고, 욕이나 먹을 것 같다.

"받아라."

범여가 진명에게 작은 죽간편(竹簡片)을 건넸다. 죽간을 반으로 조각 내어 글씨를 새겨 넣은 것이다.

"이것은...?"

"객점가로 가 아무 객점에서나 그 증표를 보여주면 방을 내어줄 것이다. 방값 지불은 단심맹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

"하나 그 외에는 일절 다른 지원이 없다. 네 녀석이 자급자족하여야 한다. 단심맹은 물론이고 소림조차 매일 수십 명씩 몰려드는 피라미들을 일일이 감당할 수는 없다. "

진명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뭐 하러 번거롭게 시험을 하고 무공을 가르쳐줍니까! 피라미는 피라미처럼 살다가 죽으라고 하시지요!'

진명은 오기를 넘어서 악에 받쳤다.

보란 듯 고수가 되어 범여가 지금의 일을 후회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범여는 진명이 결심을 다 하기도 전에 축객령을 내렸다.

"볼일이 끝났으면 내 앞에서 꺼져라."

정말로 하찮은 대우였다.

진명은 치미는 화를 꺾꺾 눌러 참고 물었다.

"혜각 선사님을 만나 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혜각 사숙을?"

범여는 비웃음을 입가에 걸었다.

"혜각 사숙은 너 같은 신출내기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상했던 대답이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진명의 눈이 불타올랐다. 범여는 인상을 쓰더니 말했다.

"단심맹의 본청으로 가면 본문의 범우 사형이 계시다. 범우 사형께 여쭙어라."

"알겠습니다."

진명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범여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다.

범여는 진명의 뒷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을 삼키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분노가 치솟아 하늘을 뚫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아! 각원아. 저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놈들도 살아났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승인 날 버리고 먼저 갔느냐. 각원아.....’

단심맹의 본청은 마치 큰 고을의 관청처럼 크고 웅장했다.

단심맹을 관리하기 위해 지은 곳으로, 정파의 명숙들이 모여 있다. 9파1방의 문주급에 해당하는 이들은 화산파, 옛 정파 무림맹의 지부에 있지만, 어지간한 대소사는 이곳의 명숙들이 처리한다.

진명은 커다란 대청을 지나 소림의 범우가 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범우는 인자한 얼굴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눈에도 범여와는 다른 성격임이 보였다.

"소림의 속가제자인 진명이 범우 대사님을 뵙습니다."

진명의 인사에 범우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아미타불. 소림의 제자를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잘 왔네."

범우의 따스한 말투에 진명은 방금 까지 범여에게 받았던 서러움이 새삼 복받쳤다. 진명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허어, 그간 고생이 많았던 게로군. 괜찮네. 이젠 괜찮아."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왜 범우를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까는 범여의 기세에 놀려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니  
뱃물이 터진 것처럼 말이 술술 흘러나왔다.

대회합에서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범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범문의 고결한 희생으로 장안성까지 오게 된 일들. 그 동안 겪은 고초.  
그 모든 일들을 쉬지 않고 쏟아냈다. 다소 두서가 없었지만 못 알아들을 정도  
는 아니었다.

"으음...."

범우는 진명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침음성을 냈다.

"그게 정말인가?"

"사실입니다. 제자는 분명 섭혼술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  
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섭혼술이 풀렸던 겁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보통 일이 아닐세. 그러니 범문이 자넌 이  
리로 보낸 것이겠지."

범우가 부드러운 눈으로 진명을 보며 말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동심(不動心)을 극한까지 이루었다는 본산의 제자들도  
마교의 섭혼술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네. 섭혼술에 당한 이상 누구도 그것을 풀지  
못했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지."

"제자가 조금이라도 더 영민했다면 그 이유를 알아냈을 터인데..."

진명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털어내어 홀가분해졌지만, 다시금 괴로워졌다.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라네."

범우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만약 섭혼술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최악의 경우 본산의 제자  
들을 구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마교와의 싸움에서 밀리진 않을 걸세."

범우의 말은 사실이었다.

9파1방의 대표들 중 일부는 당장 힘을 모아 마교를 쳐야 한다 주장하고 있었  
다.

그러나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섭혼술이었다.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섭혼술에 당하면 오히려 마교의 주구가 되어버리니, 선불리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범우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범여 사제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보지도 못했다고?"

"예. 제 말을.... 조금도 들으시려 하지 않기에....."

"범여 사제도 본래부터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네. 오히려 불제자에 어울리지 않  
을 만큼 우리 중에 가장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지."

범우는 쓴 미소를 지었다.

"한데 대회합에서 그만 범여 사제의 제자가 섭혼술에 걸려 이지를 상실했네.  
그것도 바로 범여 사제의 눈 앞에서."

범우는 그때의 참혹한 기억이 떠올랐는지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마지막까지  
제자인 각원을 죽일 수 없었던 범여의 고뇌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섰다.

"범여 사제는 우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자에게 목숨을 잃으려고까지 했다네.  
차마 자신의 손으로 자식처럼 키운 제자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게지."

"그랬군요. 그럼 결국은....."

"결국 해각 사숙의 말씀을 듣고 범여는 자신의 손으로 제자를 거두었네. 가슴  
이 찢어지고 비통했을 게야.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네. 범여 사제의 사람됨이  
변한 것은."

범우는 말을 마치고 진명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범여 사제를 너무 미워하지 말게나."

진명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범우의 말을 듣고 보니 머리로야 이해가 간다. 자식 같던 제자도 죽었는데 진  
명처럼 삼류인 제자는 살아남았으니 하늘이 원망스러우리라.

그러나 머리로 이해는 가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범여가 싫었다.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었던 각원이 문득 떠오른다. 겨우 나한권 단초식을 배웠  
을 뿐이지만 소림사에서 만난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스승인 셈이다.

## 武極 - Story Book

‘각원 대사께서는 어찌 되셨을까.....’

범우가 진명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이 얘기는 반드시 해각 사숙께 전하겠네. 그때까지 자네는 철차탁마 하여 실력을 쌓게.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마교를 강호에서 몰아내고 소림의 본산을 수복하세나."

"예.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진명의 눈에는 재차 투지가 솟아올랐다.

"단 한 명,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소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네. 비록

자네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범여와는 정반대의 말이었지만 진명에게는 범우의 말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소림은 건재하다....."

진명은 가슴이 뜨거운 것으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이제야 소림의 제자로 인정을 받았구나.'

진명은 범우로부터 단심맹에 소속된 후 해야 할 것들과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듣고는 밖으로 나왔다.

# 武極 - Story Book

## 제 10 화 [일령]

진명은 손에 쥔 죽간편을 몇 번이나 매만졌다.

단심맹을 나오면서 사무관에게 들었던 말을 되새겨본다.

‘단심맹의 소속이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일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는 수련에만 힘쓰시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오는 호출에만 응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뭔가에 홀린 듯 순식간에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마교와 싸워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 사이에 있던 일들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었다.

특히나 단심맹이란 새로운 소속의 무인이 된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도 난 소림의 제자다. 소림의 제자로서 마교와 싸우는 것이다.’

범우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없던 자부심이 다 느껴지고 당당하게 어깨도 펼 수 있다.

‘고작 나한권 상1초를 배워놓고 어디 가서 소림의 속가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건 사실이니까.’

다만 앞으로 계속 범여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좀 꺼끄러울 뿐이다. 하지만 그 역시 진명에게는 투지를 불태우게 하는 일이다.

‘두고 보라지. 반드시 고수가 되어 범여대사가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할테닷.’

진명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혼자서 히죽거리면서 객점가로 향했다.

장안성의 객점가는 정문 바로 앞쪽에 위치한 구역이다.

광장과 붙어 있는 객잔가와 달리 객점가는 숙박이 가능하다. 평소라면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했을 장소이지만, 현재는 강호 전 지역에서 모여드는 정파인들의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 머물면 되지?"

광장을 지나 객점가로 들어섰지만 객점이 너무 많아 어디로 가야 할지 헷사리

선택할 수가 없었다.

휘황찬란한 홍등과 현판들을 보면 객점가가 아니라 마치 환락가와도 같다.

"아무데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진명은 시골에서 갓 상경한 촌놈처럼 쭈뼛 거렸다.

그때 누군가 진명에게 말을 걸었다.

"어이, 거기 형씨."

쾌활하고 맑은 목소리에 진명이 돌아보니 목소리만큼이나 명랑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다. 남자처럼 복장을 하고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남자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

올해로 21세인 진명보다 좀 더 어리게 보이는 여자다. 양 허리에는 두 개의 검을 차고 있었는데 아마도 쌍검을 쓰는 것 같았다.

머리는 양쪽으로 땀아 위로 올렸는데 외모만큼이나 깜찍하고 귀여웠다.

진명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며 되물었다.

"누구..... 시죠?"

"나? 나는 아미파에서 온 일령이라고 해."

일령은 다짜고짜 말을 놓았다.

"형씨도 신참이야?"

"에?"

"잘됐네! 나도 장안성은 처음이라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진명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이봐요. 그럴 땐 잘됐다고 하는 게 아니죠. 지리를 모르면 잘 아는 사람을 만나야지, 서로 모르면 같이 헤메기만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혼자 헤메는 것 보다는 낫잖아. 심심하지도 않고. 내 말이 틀려?"

"뭐..... 틀리진 않지만 어쩐지 좀 찝찝한데....."

진명이 떨떠름한 표정을 짓자 일령이 볼을 뽀루통하게 내밀었다.

"뭐야아. 나 같은 미인이 함께 다녀준다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그런 표정이

# 武極 - Story Book

람?”

“아니, 그건 아니지만.....”

“무슨 남자가 이랬다저랬다 해? 게다가 내겐 누구냐고 물어놓고 자기가 누군지는 말도 안 하구.”

“아!”

진명은 머쓱하게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다.

“난 소림의 진명....”

“나이는?”

“21살.”

일령은 취조를 하는 것처럼 묻다가 진명이 나이를 말하는 순간 눈을 커다랗게 떴다.

“21살?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

“그냥 편하게 진형이라고 부를게. 진형은 나한테 귀여운 일령아, 이렇게 부르면 돼. 난 19살이거든.”

“.....”

“한번 해봐. 귀여운 일령아.”

“귀... 귀.....”

부르는 사람조차 닭살이 돋을 정도인데 정작 일령은 씨익 웃고 있을 따름이었다. 진명은 순간 자기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생각했다.

“싫고? 싫으면 말을 하고.”

“당연히 싫.....”

진명이 막 ‘싫지’라고 말하려는데 일령이 진명의 입 모양을 보더니 갑자기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진명이 범여에게 받은 것과 같은 죽간편이다.

“아 참. 나 이런걸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해?”

정말 제멋대로인 아가씨였다.

진명은 쓴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몰라.”

“쳇, 결국 쓸모 없는 연장자를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 하게 생겼군. 나이 헛 먹은 거 아냐?”

진명이 언성을 높였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둘다 길을 모르면 고생한다고!”

“아아, 알았어. 그렇다고 발끈하긴.”

일령은 흥등으로 빛나는 객점가를 뚫어져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감 잡았다. 나만 따라와.”

진명은 괜히 불안해졌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따라가도 되나?’

앞서가던 일령이 고개를 획 돌아본다.

“뭐해? 나만 따라오라니까?”

진명은 일령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한 소저지만, 따라간다고 손해 볼 건 없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들었다는 건 모르는 진명이다.

일령이 재잘거리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진형. 그런데 소림의 제자라면서 삭발은 왜 안 했어?”

“아, 난 속가제자니까. 그러는 일 소저는 왜.....”

“나도 속가로 있었어. 사부는 나한테 정식으로 입적해서 정식 제자가 되라고 했지만, 나 같은 미인이 어떻게 머리를 박박 깎고 중이 되겠어.”

“사부님은....”

“돌아가셨어. 9파1방이 싹 쓸린 마당에 아미파라고 멀쩡할 리가 없잖아?”

일령은 짐짓 쾌활한 척 말을 하고 있었지만 눈가에 살짝 슬픔이 엿보였다. 진명이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려는데 이번에도 일령이 먼저 진명의 말을 가로막았다.

“괜찮아. 사부님은 내가 낙천적이고 활발한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곤 오히려 진명에게 웃어 보였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그녀의 웃음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런 아픈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이가 나쁜 마음으로 내게 접근했을 리는 없겠군.’

진명은 조금이나마 일령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일령이 진명에게 처음 말을 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 잘생긴 미남이어서도 아니고 거대문파의 소속이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만만한 사람처럼 보여서, 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감을 잡았다는 말과는 달리 일령은 한참을 헤맸다. 어떤 객점으로 가 숙소를 잡아야 할 지 쉽게 고르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몇 군데에서 물어보긴 했지만 방이 없다고 퇴짜를 맞았다.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

일령이 가리킨 객점은 주변에 있는 다른 객점보다 월등히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다.

진명은 조금 고심했다.

“글쎄..... 여긴 너무 비싸 보이는데? 단심맹에서 이런 곳을 우리에게 배정해줬을 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다들 들어가보지 않았을지도 몰라. 에잇, 밀쳐야 본전이다!”

진명이 말릴 틈도 없이 일령은 문을 열고 객점의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옵쇼!”

단심맹에서 수련을 하던 무인들만큼이나 우렁찬 점소이의 목소리가 둘을 맞이했다.

점소이는 허리를 반으로 굽혀 꾸벅 인사를 했다.

“저희 장안제일루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 갑쇼? 요리면 요리, 술이면 술, 여자면 여자 뭐든지....”

습관적으로 말을 하던 점소이가 일령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말이 많아서 그렇지 일령은 어딜 가도 손에 꼽아줄 만한 외모였다. 성숙한 아름다움보다는 맑고 큰 눈과 조그마한 코, 양증맞은 입술이 깨물어줄 만큼 귀여웠다.

“아, 죄송합니다. 소인의 방정맞은 입이 그만 실수를, 헤헤헤.”

“괜찮아.”

“아리따우신 여협의 넓으신 아량에 그저 소인은 감사드릴뿐입니다. 헤헤.”

일령과 진명이 객점 안으로 들어서면서 이미 많은 손님들의 눈길이 쏠려 있었다. 그 중 대부분은 무인이었고 또 그 중 대부분이 일령을 쳐다보고 있었다.

진명은 괜히 자신까지 주목을 끌게 된 것 같아 겸연쩍었다.

“흠흠.”

괜한 헛기침을 하고 객점 안을 둘러보니,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호화롭다.

벽이며 바닥이며 죄다 비싼 가공 원목을 사용했고, 주루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나 그림이 그려진 족자가 여기저기 걸려 있다. 감상용이라기보단 고가의 장식품으로 보일 뿐이지만, 그것이 객점 내를 한결 호화롭게 보이게 하는데 일조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리고 진명은 그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자신들을 쳐다보는 객점 안의 손님들.

그들 역시 주루의 실내장식에 걸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기가 도는 비단옷에 영롱한 옥이 박힌 장신구로 한껏 부를 뽐낸다. 대부분이 무인인 만큼 각자의 무기조차 범상치 않아 보인다.

아미파라고 하면 역시나 검소함으로도 유명하다. 그곳에서 온 일령이나 거의 개차반이 된 자신의 옷차림은 그들에 비하면 거지꼴이나 마찬가지였다.

군계일학이라고 봐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백학(白鶴)들 틈에 끼어있는 두 마리의 더러운 까마귀일 뿐이었다.

‘젠장.’

진명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제야 그들의 시선에 얹힌 이질감이 느껴졌다. 진명이나 일령처럼 갓 단심맹에 들어온데다 강호에 이름도 없는 무명무인이 올만한 곳이 아닌 것이다.

진명은 당장이라도 이곳을 나가고 싶었다.

괜한 놀림거리가 되는 건 사양이다. 이미 범여대사에게 당할 만큼 당했다.

그러나 진명의 생각과 달리 일령은 벌써 죽간편을 내밀고 있었다.

## 武極 - Story Book

“단심맹에서 이걸 보여주면 방을 내준다고 했는데, 방 하나 내줘.”

점소이의 표정이 난처하게 변했다.

“저, 손님 그게.....”

“왜? 안돼?”

“안되는 건 아니구요.....”

“안되는 건 아닌데 왜? 보아하니 빈 방이 있는 것 같은데.”

진명은 애써 모른 척 하려 했지만 눈동자만 살짝 돌려 일령을 보고 있지 않을 뿐, 몸은 그대로였다. 방금 까지 알던 사람을 모른 척 할 정도로 못된 심성이 아니었다.

일령은 눈치도 없이 손가락으로 진명을 가리켰다.

“아, 저기 저 진형한테도 방하나 내줘.”

주변에서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붉어진 진명의 얼굴이 새빨간 홍시처럼 달아올랐다. 진명이 일령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냥 가자.”

“왜?”

일령은 이상하다는 듯 진명을 보며 말한다.

“단심맹에서 하라고 한 거잖아. 다른 데 가 봐야 방도 없는데 어딜 가.”

일령이 점소이를 돌아보았다. 점소이가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다.

“방 있어, 없어?”

“방은 있는데 말이지요....”

일령이 죽간편을 들어보였다.

“이걸로 방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아이구, 저희 가게가 장안성에 있는 이상 어떻게 단심맹을 거약할 수 있겠습니까요.”

“그럼 됐네. 방 줘. 두개.”

일령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데 비해 점소이는 몸 둘 바를

모르고 있다.

“일령, 그만 가자.”

“왜?”

“그야..... 우리가 올 만한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올만한 곳이 아냐? 방 얻을 수 있는 거 맞다잖아.”

“하지만.....”

일령은 점소이를 보며 쏘아대듯 말했다.

“잘 들어. 단심맹은 모두가 똑같아. 싸움이 나면 나가서 싸워야 하고 누구나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누군 되고 누군 안돼? 그런 법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단심맹의 본청에 가서 물어볼까? 장안제일루에서 방 안 내준다는 데 왜 그러냐고?”

점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럼 방을 내주던가.”

“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아, 정말 답답하네.”

진명은 일령이 너무 철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상황을 알고도 일부러 따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누군가 표출한 신법으로 진명과 일령의 앞에 내려섰다. 방금 까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청년이었다.

청년은 영웅건을 쓰고 부연 우옷빛의 무복을 입었다. 허리에는 검을 하나 찼는데 소매에 매화문양이 그려져 있다.

그가 일령과 진명을 차례대로 쳐다보며 말했다.

"주제를 모르는 것들이로군."

일령이 눈을 부릅떴다.

"뭐?"



# 武極 - Story Book

## 제 11 화 [평일지]

청년이 차갑게 말을 내뱉었다.

"함부로 행패를 부리지 말고 조용히 나가거라. 여긴 너희 같은 놈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진명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의 모습을 보니 범여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세상 어딜 가도 사람을 차별하는 건 마찬가지구나.'

처음부터 이 객점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비록 단심맹에서 객점가에 있는 모든 객점과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곳은 진명처럼 하찮은 신분에게는 내주지 않는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화산파의 제자나 무림 명숙들에게만 제공을 할 것이다.

진명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억지로라도 일령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순간 튀어나온 일령의 말이 객점 안에 있던 모두를 경악케 했다.

일령이 청년을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한 것이다.

"이건 어디서 튀어나온 개새끼야?"

"....."

"....."

객점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일령이 내던진 한마디가 분위기를 순식간에 싸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일령에게 말을 걸었던 청년은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하.....하'하고 얼빠진 웃음만 내고 있었다. 다른 이유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귀여운 얼굴의 소녀가 '개새끼'라고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다.

놀란 점소이가 일령에게 다급히 속삭인다.

"아, 아가씨! 이분은 화산파에서 오신 분이려구요!"

일령은 심드렁하게 대꾸한다.

"그래서?"

"그.... 그래서라니요. 화산파는....."

그 뒷말은 못 들었지만 진명도 어느 정도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다.

9파1방이 동시에 마교의 공격을 받으며 무너지는 와중에도 지금처럼 장안성만은 화산파가 지켜내고 있었다.

단심맹의 소속이니 모두 같은 처지라는 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다른 문파의 생존자들이 화산에 몸을 의탁하러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안성에서만큼은 화산이 주인행세를 톡톡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령에게 욕을 들었던 청년은 잔뜩 얼굴이 일그러진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나는 대화산파의 4대제자인 평일지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령은 그저 뻘뻘 평일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평일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에 한 가닥 비열한 웃음을 머금는다.

"후후, 미모만 믿고 까분다 이건가? 그러다고 봐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화산에서 어떻게 이런 몰지각한 놈이 나왔을까?"

일령은 한마디도 지지 않았다. 평일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감히 화산을 욕하다니!"

"화산을 욕한 게 아니라, 널 욕하는 거야."

"거, 건방진!"

평일지의 눈에 불뚝이 튜다.

그는 화산에서 촉망 받는 기재였다.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출중해 사문의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20세가 되자 같은 기수에서는 더 이상 그를 당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최연소 장문인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말까지 농담 삼아 던질 정도였다.

한데 성격이 약간 문제였다. 워낙 자질이 좋고 존장들에게 귀여움을 받다 보니 그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가 없었다. 어지간한 일은 덮어주고, 심하다 싶은 일도

## 武極 - Story Book

꾸지람 한번이면 해결이 되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그는 점점 안하무인으로 변해갔다. 오히려 그런 성격 때문에 남들에게 뒤지기 싫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실력이 일취월장할수록 성격도 방자해져만 갔다.

3차 서역대정벌에서 화산의 존장들이 수두룩하게 죽어나간 이후에는 더 이상 그를 말릴만한 사람도 없었다.

심지어는 마교에 패해 장안성으로 들어오는 타 문파의 무인들을 시덥잖게 보고, 술자리에서 그들을 향해 '싸움에 지고 나서 꼬리를 말고 온 패배자들' 이라고 폭언을 퍼부은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누구도 그에게 대들지 못했다.

화산파가 뒤에 버티고 있는데다, 오만하기가 극에 달해 있음에도 무공실력이 워낙 뛰어나 각파의 1대, 2대 제자 정도가 아니면 그를 대적하기가 어려웠다. 같은 나이에서는 동수를 이룰 만한 상대가 없다는 뜻이다.

항간에는 그가 화산의 절기를 모두 이어받은 적전 제자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한마디로 화산파의 모든 것을 건 비장의 한 수가 바로 평일지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묘령의 아가씨가 자만심이 하늘까지 뻗어있는 그를 향해 반대로 폭언을 퍼붓고 있었던 것이다.

"죽고 싶으냐!"

평일지는 참을성이 부족했다.

검의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평일지와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들도 차마 그를 말리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을 따름이다.

일령은 전혀 저줄 생각이 없다. 그녀도 허리춤에 있는 쌍검으로 손을 옮겨갔다.

"해볼래?"

평일지는 눈앞의 아가씨와 싸워도 질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않고 있었다. 화는 났지만 곧 침착해졌다.

그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좋아. 네가 날 이기면 이곳에 방을 잡도록 해주지. 네 옆의 그 거렁뱅이도."

"택이 이기면?"

평일지는 묘한 눈초리로 일령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쿵쿵. 화산파를 모욕한 대가는 치러야겠지?"

일령이 눈썹을 찡그렸다.

진명은 그 순간 온몸이 뜨끈해지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난세라 하더라도, 우리가 별볼일 없는 무인이라 해도.... 이건 아냐. 정파의 주축이라는 화산에서 이런 횡포를 부릴 순 없다!'

스으윽.

평일지가 검을 쥐고 기세를 뽐어냈다.

"어디, 얼굴만큼이나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볼까?"

바람도 불지 않는데 평일지의 옷이 팔락거린다. 검을 뽑는 순간 살기에 몸이 바싹 오그라들 정도다.

일령의 얼굴빛이 살짝 변한다. 그녀의 곁에 있는 진명조차 두려움을 느끼는데 정면에서 평일지를 마주한 일령은 오죽할까.

진명은 평일지의 무공이 범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속가제자인 자신과 다르다. 화산파의 정식제자다. 어렸을 때부터 고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신분이든 계급이든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령이 당하게 내버려둘 순 없어.'

고작 나한권 1초식을 갓 배운 상태에서 화산의 정식 제자와 맞설 수 있을까?

'무리다. 화산의 평일지라면 화산을 이끌어갈 차세대 무인이다.'

그러나 일령은 일단 부딪쳐보지 않고는 물러서기 싫은 모양이었다.

"제법....!"

일령이 쌍검을 뽑으며 앞으로 나섰고, 평일지도 막 초식을 전개하려 했다.

그 순간 진명이 일령과 평일지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뭐, 뭐 하는 거야!"

일령이 급하게 몸을 회전시키며 걸음을 멈췄다. 평일지는 아니었다.

## 武極 - Story Book

착!

어느새 진명의 목에 평일지의 검이 바싹 다가와 멈추어 있다. 아니, 살짝 베어져 피가 흐른다. 멈출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고의적이다.

평일지가 험악한 인상으로 욱박질렀다.

"뭐 하는 짓이나, 애송이!"

진명은 두근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그만두시오."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베겠다."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처럼 손에 힘을 준다. 평일지의 잘 버려진 검날이 조금 더 진명의 목을 파고 들었다.

"비키지 않겠소."

"정말로 벤다!"

"마음대로 하시오!"

진명이 악에 받쳐 한걸음을 내디뎠다.

사악!

검날이 목을 베어 피가 쭉 흘렀다. 평일지는 다급한 신음성을 내며 검을 살짝 옆으로 흘렸다.

"이, 이 보잘것없는 놈이 감히!"

생각 같아서야 진명의 목을 그대로 내리치고 싶다. 그러나 무기도 들지 않고, 싸울 준비도 안되어 있는 사람을 벨 순 없다.

무엇보다, 함부로 싸워 서로간에 목숨을 해하지 말라는 지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가뜰이나 인원이 부족하고 총원도 힘든 마당이다. 사사로운 감정싸움으로 전력을 손실시킬 수는 없었다.

진명이 망설이는 평일지를 보며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말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일ियो. 형장은 내가 우스워 보일지 모르나, 나는 내 목숨이 우스운 적은 한 번도 없었소."

마음이 좀 더 넓은 이였다면 진명의 말을 듣고 다시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진명의 말에는 진실함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평일지는 진명의 말 한마디로 힘만 믿고 설치는 악당이 되어버렸다. 그와 함께 온 일행들, 그리고 객점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이다.

스럭.

어쩐 일인지 평일지는 검을 그대로 거두었다.

하지만 진명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발길질이 날아왔다.

퍽!

진명은 복부를 얻어맞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맞는 순간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것처럼 통증이 밀려들었다.

"쿨럭 쿨럭!"

일령이 놀라 소리쳤다.

"진형!"

입에서 핏덩이 툭툭 튀어나온다.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다. 가벼운 발차기처럼 보였지만 무지막지한 내력이 실려 있었던 모양이다.

'끝까지 비... 비열하게.....'

진명은 이를 악물었다.

평일지는 검을 넣고 꿈틀거리는 버러지 보듯 진명을 내려다본다.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너 같은 놈 하나 어디서 언제 시체로 발견돼도 아무도 신경 안 써."

등골이 오싹해져 오는 협박이었다. 정말로 평일지가 마음만 먹는다면 진명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될 것이다.

평일지는 일령을 한번 쳐다보더니 일행들을 향해 손짓했다. 일령은 분노를 참지 못해 얼굴이 파르르 떨렸다.

"술맛이 다 떨어졌으니 다른 데로 가자."

그나마 이쯤에서 끝낼 생각인 것 같아 다행이었다.

평일지와 그의 일행들은 점소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객점을 나가버렸다.

# 武極 - Story Book

일령이 진명을 부축했다.

"괜찮아?"

"내상을 좀 입은 것 같아."

"목은?"

"대단치 않아. 피도 멎었고."

"나쁜놈. 지가 화산의 제자면 다야?"

일령은 눈물을 다 글썽거렸다.

"왜 소림의 제자라고 말 안 했어. 소림의 제자라고 하면 저 나쁜 놈도 함부로 하지 못 했을 텐데."

"그러는 너도 아미파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거야....."

진명은 입가의 피를 닦으며 씩씩하게 웃었다.

"마찬가지야. 내가 당하는 건 상관없지만 소림의 이름을 더럽힐 순 없었거든."

"진짜 바보다. 그래 봐야 속가제자면서."

일령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무공을 배워두는 건데. 그랬으면 저런 자식은 그냥 확 한 방에."

진명은 묵묵히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런 둘을 바라보고 있던 점소이가 안됐다는 얼굴로 다가왔다.

"여기서 일한 지 꽤 됐지만 화산의 평 소협에게 대든 사람을 본건 두 분이 처음이군요."

일령이 점소이를 보며 투덜거렸다.

"이게 다 네가 방을 안 내줘서 그런 거 아냐. 알았으면 방이나 줘."

점소이가 손사래를 쳤다.

"평소협은 우리 단골입니다. 그랬다가는 제 목이 대신 날아 갑니다요. 하지만..."

"하지만...?"

"제가 아는 객점이 있으니 그곳을 소개시켜 드립죠. 방이 남아있을 겁니다요." 점소이가 객점의 위치를 설명해주었다.

진명과 일령은 어쩔 수 없이 점소이가 소개한 객점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은 객점가에서도 고트머리에 위치한 허름한 곳이었다.

지내기 끔찍한 곳은 아니었지만 장안제일루를 보고 와서 그런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방안에는 낡은 목조 침대 하나와 비뚤어진 탁자, 다리가 부러진 의자 한 개가 있었다. 너무 단촐해서 썰렁한 겨울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이만하면 황제가 지내는 곳 못지 않수. 이나마도 방이 없어 밤이슬을 맞으며 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주인은 통명스럽게 말을 내뱉고 방을 나갔다.

일령은 진명의 옆방을 얻었다. 아미파에서 평소 검소하게 지냈던 탓인지 일령은 큰 불만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 사이에 어디서 얘기를 듣고 왔는지 대신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객점으로 옮기겠다고 몇번이나 다짐을 했다.

"객점주인들이나 단심맹도 다 한통속이야. 애초에 객실을 전부 계약한 게 아니라 반만 계약을 했다는 거야. 좋은 객점의 방은 아까 평일지란 녀석 같은 놈을 주고 우린 이런 데에 넣어 주는 거지. 더 좋은 데로 가려면 돈을 주고 구하던가 하는 수밖에 없어."

쉬지 않고 재잘거리는 일령의 말을 진명은 끝까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평일지와 범여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다.

'누구에게도 무시 받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멸시당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절대.....'

장안성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다.

# 武極 - Story Book

## 제 12 화 [수련]

이른 아침부터 진명은 객점 뒤쪽 마당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다.

차분하게 손을 모았다가 발을 내디디며 주먹을 뺀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어찌나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지 쌀쌀한 날씨인데도 땀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 앉아 있던 일령이 하품을 했다.

"하아암. 진형도 참 어지간하네. 잠도 없나 봐. 꼭두새벽부터."

막 한 초식을 끝낸 진명이 숨을 고르며 일령을 보았다.

"휴우. 늘 하던 일인걸 뭐."

"대단하다. 난 눈도 안 떠지는데."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나중에 내가 흘릴 피 한 방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

일령이 눈을 휘둥그레 떴다.

"우와! 다시 봐야겠다. 진 형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덕분에 몇 번이나 목숨을 구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었다.

겨우 선인공수 단초식 하나로 소림사에서 그 수많은 실존인들을 뚫고 살아났다. 평안 객잔에서는 장안사호 중의 장량을 선인공수로 때려눕혔다.

남들에게 말하면 웃겠지만, 각원에게 배운 선인공수는 진명에게 있어 구명절초인 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쉬지 않고 만 번이나 선인공수를 연습했던 덕이다.

진명은 선인공수의 단 한 수 덕에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한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일령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 형은 꽤 험한 일을 많이 겪었던 모양이네."

"두말하면 잔소리지."

소림사의 멸문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으니까, 라는 말은 씩씩한 웃음과 함께 삼켜버린 진명이었다.

잠시 쉬었던 진명이 다시 나한권을 처음부터 시작한다.

예전 같았으면 다른 무인의 수련을 훑쳐보는 것은 무림의 금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과 상황이 다르다. 정파의 무인이라면 누구나 9파1방의 무공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 굳이 훑쳐보든 말든 상관없게 되어버렸다.

진명이 나한권을 펼치자 일령이 질렸다는 얼굴로 묻는다.

"또 해?"

"하루에 백 번. 부족하면 이백 번. 그게 날 가르쳐주신 스승님의 말씀이었어."

"지겹지 않아?"

"안 지겨워."

처음엔 일령도 진명이 뭘 그리 열심히 하나 싶어 호기심을 가지고 보았었다.

그런데 진명이 하는 거라고는 나한권의 1초식 세 동작뿐이었다.

그걸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동이 막 터울까 하는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아침 먹을 시간이 훌쩍 지날 때까지 계속이다.

"밥 안 먹어?"

진명은 나한권 1초식 세 동작을 모두 끝내고 나서야 대답했다.

"먼저 먹어."

"정말?"

그 사이 다시 나한권을 시작한 진명은 또 세 동작을 모두 끝내고 나서야 대답한다.

"그래."

이쯤 되니 더 묻기도 귀찮아졌다.

"그럼 나 혼자 먹고 온다."

일령이 엉덩이를 툭툭 털며 일어났는데 진명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 武極 - Story Book

“귀찮으면 만두라도 가져다 줄까?”

확확.

이번에도 진명은 초식을 모두 전개하고 나서 대답했다.

“응.”

일령은 질렸다는 얼굴로 양손을 들고 객점으로 들어갔다.

진명은 일령이 가져다 준 만두 하나를 먹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

일령이 지겨운 얼굴로 물었다.

“또 하게?”

“일하러 나가기 전까지는 해야지.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련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

“일을 하다니?”

“단심맹에서 숙소는 잡아줬지만 공짜로 먹고 살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

일령이 뭔가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나 돈이라면 좀 있는데. 아미파에서 올 때 좀 챙겨왔거든.”

진명은 일령이 돈이 있다는 말에도 별로 신경 쓰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거야 령 아우의 돈이지, 내 돈은 아니잖아.”

왜 여자인 일령을 아우라 부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더 자연스러워 진명은 굳이 소저라고 부르지 않았다.

일령도 호칭은 굳이 개의치 않는지 되물었다.

“무슨 일을 해서 돈 벌건데?”

“나무라도 좀 베어볼까 하고.”

“나무를 베?”

“응.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것 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당분간 진 형을 먹여 살릴 테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었다.

진명은 정색을 했다.

“아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거야.”

“차라리 단심맹에 가서 임무라도 좀 받아오면 어때? 임무를 수행하면 적당히 보수도 지급된다던데.”

“아직 그럴만한 실력이 안돼.”

진명은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모자란 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지금 상태라면 밖을 나가서 몇 걸음 돌아다니기도 전에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일령이 할 말이 없어져서 가만히 있자, 진명은 다시 수련을 시작했다.

나한권 1초식이라고 해 봐야 세 동작을 모두 끝내는 데는 일각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걸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 끈기도 보통 끈기가 아니었다.

“와, 진짜 미련하다.”

일령이 말을 걸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진 형이 어느 정도 수련을 마칠 때까지 식비를 낼게. 그리고 나서 단심맹에서 임무를 받아 그걸로 진 형이 내게 식비를 내. 그럼 되잖아?”

진명은 묵묵히 수련에만 열중했다.

일령이 계속해서 말했다.

“나룻집 그까짓 거 하루 종일 해봐야 얼마 돈도 안돼. 시간만 아까운 거야. 그 시간에 차라리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남은 시간에 수련을 해도 백 번은 더 하겠다.”

그 말에는 진명도 귀가 솔깃한 모양이었다.

“음.....”

“생각해봐. 이젠 시간이 돈이라고. 수련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나무를 패다 팔고 있어.”

“으음.....”

구미가 당기는 게 확실했다.



## 武極 - Story Book

일령은 미끼에 걸린 물고기를 낚아채듯 단번에 진명을 끌어당겼다.

두둑한 전낭을 보란 듯 진명의 눈앞에 내밀었다.

진명이 마지못해 응한다는 투로 말했다.

“령 아우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자자, 그럼 이걸로 협상 끝.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진명이 고맙다는 얼굴로 일령을 보았다.

“고마워. 그럼 이제 난 령 아우만 믿고 당분간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겠군.”

그렇게 말한 진명은 일령이 말릴 틈도 없이 지겨운 나한권 수련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이게 아니었는데.....”

일령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나랑 놀아달라고 할 작정이었는데.....’

그러나 진명은 짐을 한결 덜었다는 생각에 개운한 얼굴로 완전히 수련에 몰두하고 있었다. 거기다 대고 욕을 퍼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령은 한숨만 폭 내쉬었다.

“내 그 동안 독하다 독하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지독한 사람은 진짜 처음이다!”

진명은 숙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자 미친 듯이 수련에 열중했다.

늦은 밤까지 밥 먹고 잠깐씩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그 세 동작을 반복하기만 했다.

옆에서 일령이 아무리 꼬드기고 말려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사흘이 훌쩍 지났다.

이제는 옆에서 구경하던 일령조차 눈을 감고도 나한권의 1초식을 구사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우아아! 내가 다 지겨워서 못 참겠다!"

일령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부르짖었다.

진명은 핏 하고 웃었다.

지금은 그나마 중1초와 하1초를 배웠다. 그 전에 상1초만 알았을 땐 그것만 하루 종일 연습했다.

그때보다는 훨씬 덜 지겨웠다.

아니, 애초에 지겹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서 수련을 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마냥 뿌듯하기만 할 뿐이었다.

괜히 장안사호 중 한명인 장랑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게 아니다. 우연이라도 그만한 연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일령은 수백 번도 더 했던 말을 또 해야 했다.

"그러지 말고 오늘은 단심맹으로 가보자. 다른 무공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혼자 다녀와. 난 아직 다른 무공을 배울 준비가 안됐어."

“임무라도 받아야지. 이제 슬슬 돈이 떨어져 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도대체 그 놈의 조금만은 어디까지야!”

일령이 ‘크앙!’하고 울부짖는 것처럼 말했다.

"고집도 진짜 왕고집! 그거만 백날 하면 뭐해. 하다못해 2초식이라도 배워오던가. 보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진명은 대답 없이 나한권에 열중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완벽하게 초식을 구사할 줄 알게 되면 그때 2초식을 배운다.'

가소롭게 웃는 범여의 얼굴이 떠오른다. 1초식을 완전히 익히지 않고 간다면 그가 비웃는 얼굴로 뭐라고 말할지 충분히 상상이 간다.

부웅, 부웅.

1초식이 꽤 몸에 익었는지 휘두르는 주먹에서 묵직한 바람소리가 난다.

초식은 단순히 동작을 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 초식의 동작에는 의미가

## 武極 - Story Book

있다. 그 의미를 십분 이해하여 몸으로 완벽히 터득한 것이 10성의 경지다.

10성의 경지를 지나 초식 속에 숨겨진 오의(奧義)를 알게 되면 궁극적으로 12성에 도달하게 되지만, 그것은 초보무인이나 다름없는 진명이 도달하기엔 머나먼 경지다.

일단 진명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각 초식을 10성 대성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무공이라도 한 초식을 10성까지 익히게 되면 일류무공에 뒤지지 않게 된다.

'나는 소림의 제자다. 사람들의 앞에서 떳떳이 소림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소림의 무공을 완벽히 익혀야 한다.'

몇 되지 않는 동작을 반복하는 건 피곤하고 지루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진명은 오기로 버텼다.

지치는 건 오히려 보고 있는 일령이다.

“내가 진 형처럼 수련을 했으면 천하제일 여고수가 되어 있을 거야.”

일령은 진저리를 치면서도 진명의 끈기에 감탄했다.

그래서였을까?

그저 무뎠고 우직하게만 보였던 진명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일령이 알던 어떤 사람도 진명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었다. 명문 정파일수록 내가공부(內家工夫)가 뛰어나기 마련이고, 내가공부가 뛰어난 고수일수록 신체적인 수련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누구도 진명처럼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에 초식을 연구하고 비무를 하고 심상 수련을 했었다.

명문정파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인 아미에서, 그것도 최고 수준의 고수들 사이에서 무공을 배운 일령에게는 진명의 모습이 색다르기 그지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투명한 땀이 햇살을 받아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반짝거리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벌에 붉게 그을린 피부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주 잠깐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땀방울도 예쁘게 보이지 않았고, 그을린 피부도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무려 일주일!

일주일이 지나면서 일령은 완전히 참을성을 잃고 말았다.

진명이 잠시 앉아 땀을 닦고 있을 때였다.

마침내 보다 못한 일령이 벌떡 일어섰다.

"나랑 내기하자!"

"내기?"

"비무하자."

뜬금없이 나온 말이라 진명이 일령을 물끄러미 보았다.

"나랑 비무해서 내가 이기면 같이 단심맹으로 가고 내가 지면 하루 종일 옆에서 수련하는 거 봐 줄께."

"옆에서 안 봐줘도 되는데....."

"어쨌거나 혼자서 수련만 한다고 무공이 느는 게 아니잖아. 이왕이면 같이 하자구."

일령은 벌써 쌍검을 빼 들고 마당에 섰다.

"자자, 빨리빨리."

실력은 뛰어나지만 무공에는 그리 열심인 편이 아닌 일령이었다. 그런 그녀가 견디다 못해 진명과 비무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내가 오죽하면 다 이러겠어.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고역이라구!”

"흠."

진명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무인에게 무공을 겨루는 것은 들뜨고 흥분되는 일이다. 일주일 내내 연습한 나한권 1초식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럼 해볼까?"

"약속했다! 내가 이기면 같이 단심맹으로 가는 거다아?"

## 武極 - Story Book

"알았어."

진명도 일령과 적당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기수식을 취한다.

"헤헤. 비무라고 안 봐줄거야. 아, 그런데 나한권만 쓸 거지?"

"당연하지."

"좋아좋아. 오늘은 이 지겨운 객점을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거야 네 생각이지.”

“헹, 아무렴.”

일령은 쌍검을 가지런히 몸 앞에 두고 약간 측면으로 몸을 튼 상태에서 진명을 마주했다.

“자, 간닷!”

# 武極 - Story Book

## 2.2. 제 2 장

### 제 13 화 [비무]

단순한 비무지만 진명은 실전처럼 생각하고 일령의 동작을 분석해 보았다.

'오른손잡이인가? 왼손잡이?'

쌍검은 다루기가 어렵다는 단점만 제외한다면 보통의 한 손 병기보다도 이점이 많다. 현란한 동작으로 상대를 속일 수도 있고 공방을 조화롭게 펼칠 수도 있다.

일령의 두 검 끝은 모두 진명을 향해 있다. 하나는 가슴 께에서, 하나는 머리 위에서. 어디서 먼저 공격이 튀어나올지는 일령 만이 안다.

“안 봐준다!”

“좋아! 나도 봐주지 않을 거야!”

“누가 할 소릴?”

일령이 빠르게 거리를 좁히며 상체를 내밀었다.

사삭.

앞에 두었던 검으로 눈깜짝할 사이에 두 번을 긋는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있던 검이 돌연 방향을 바꾸어 진명의 코앞으로 똑 떨어진다.

진명은 일령의 기세에 함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로 연이어 물러났다.

파파팟.

잠깐 사이에 세 번이나 검이 스쳐갔다. 앞섰던 슬쩍 베어졌다.

‘너무 빠르다!’

일령의 실력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범위가 긴 검을 상대로 속도에서 뒤쳐졌다면 말할 것도 없이 불리한 상태다.

“뒤로 피하기만 하면 어쩔 거야!”

일령이 동작을 거두며 쌍검을 회수하는 순간 진명이 틈을 잡았다.

쿵!

진각을 밟는 순간 번개처럼 뛰쳐나가 일령의 머리를 노린다.

나한권 상1초 선인공수!

장랑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 초식이다.

그러나 일령은 장랑처럼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지 않았다. 진명의 공격은 뻔하다. 상1초 중1초 하1초 뿐이다.

‘일주일도 넘게 내내 지겹도록 봤는데 내가 당할까봐?’

진명의 공격은 그가 노력한 만큼 강력하고 빨랐다. 선인공수 하나만 놓고 따지자면 같은 수준의 무인들 중에서는 단연코 상대가 없을 만하다.

하지만 일령은 진명의 초식이 향하는 투로(鬪路)를 모두 알고 있었다. 진명이 내지르는 주먹의 궤도에 이미 일령의 검이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

'그대로 주먹을 뺀으면 손목을 베인다.'

진명은 할 수 없이 권을 거두고 일령의 다리를 쓸어 찼다.

나한권 하1초 좌우삽화다.

일령은 쌍검의 묘를 살려 다른 검으로 진명의 가슴을 노렸다. 검격은 팔이나 발보다 길다. 이번에도 진명은 뒤로 물러나야 했다.

"이런...."

진명은 떨떠름한 얼굴로 일령의 검격에서 벗어났다.

공격을 성공시키기는커녕 초식을 제대로 펼칠 수조차 없었다.

일령이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우하하. 나의 승리인가!"

"아직 아냐!"

진명이 재차 공격을 펼치려 했지만 그때마다 일령의 검이 진명을 가로막았다.

"소용없어. 모르는 초식도 아니고 다 아는 건데 내가 당할 것 같아?"

## 武極 - Story Book

일령이 검을 거꾸 찔러내자 진명은 허리를 뒤틀며 겨우 피해냈다.

진명의 패는 모두 드러난 데 비해 일령의 패는 가려져 있다. 일령이 현란한 초식으로 공격해오면 반격은커녕 피하는 게 고작인 진명이었다.

일령은 진명의 생각보다 실력이 뛰어났다. 비무다 보니 몸이 상하지 않게 적당히 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일령은 상당한 초식을 연이어 구사하며 진명을 몰아갔다. 진명은 계속 뒷걸음질을 쳤다. 만약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였다면 벌써 목이 달아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상대가 모르는 초식을 많이 알아야 승부에서 유리한 법이지!"

분하지만 일령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진명은 식은땀을 흘리며 공격을 막아내는 데 바빴다.

일령은 한번 사용한 초식은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초식을 알고 있어서 진명은 애를 먹어야 했다. 순전히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나처럼 스승도 없이 갓 입문한 속가제자와는 격이 다르다 이건가....'

같은 속가라 하더라도 일령은 진명과는 달랐다. 정식으로 사부를 두고 어렸을 때부터 무공을 배웠다. 기본이 되어있는 건 물론이고 초식의 성취도 높았다.

'아냐. 내가 부족한 거다. 아직 초식의 이해가 부족해.'

진명의 생각을 읽은 듯 일령이 말했다.

"백 번을 연습하면 뭐해. 중요한 건 깨달음이야. 무작정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초식을 어떻게 운용할지 생각해야 한다구."

"깨달음!"

진명은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다.

'초식에 담긴 뜻. 나는 무조건 몸을 움직이기만 했지 초식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초식의 의미.... 그 속에 담긴 뜻.....'

무작정 주먹만 휘둘렀다는 일령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나자, 복잡했던 머리가 환해졌다.

'의미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휘둘러보지 않고서는 초식에 담긴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각원 대사님의 말이 바로 그거였어! 초식에 담긴 뜻을 알 때까지 백 번이고 이백 번이고 하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하지!"

일령이 승부를 걸어왔다. 이제까지와는 기세가 달랐다.

진명은 일령이 실력을 다 내보인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그녀의 검이 몇 개의 잔영을 남기며 진명의 혈도를 노리고 날아든다.

반은 허초고 반은 실초다.

피하려 해도 피하기 어렵고, 더 이상 달아날 공간도 없다.

이 정도의 현란한 환검(幻劍)은 명문정파의 제자들도 쉽게 구사하기 어렵다. 말이 속가였지 일반 속가제자의 수준이 아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항복을 외쳐야 올바른 상황.

그 순간 진명은 무엇에라도 홀린 것처럼 몸을 움직였다.

'앞으로!'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수천 번도 더 연습했던 초식들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초식이 필요한지는 내 몸이 가장 잘 알고 있어. 내 몸이 가는 대로 말긴다!'

그리고 진명에게서 뻗어 나온 것은 다름아닌 패왕거정이었다.

십 수개의 칼날이 몸으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으로 파고드는 것은 자칫 무모하기까지 한 모습이었다.

패왕거정!

진명의 상상 속에서 장대한 체구를 가진 패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하를 호령하던 패왕이 성벽 아래에 모인 적군들을 바라본다. 수십만의 적군이 창날을 번뜩이고 있다.

패왕은 펄펄 끓는 물이 담긴 무쇠 솥을 가져오라 이른다.

병졸 십 여명이 수백근이 넘는 무쇠 솥을 킁킁대며 들고 와 패왕의 앞에 둔다.

## 武極 - Story Book

패왕은 무쇠 술을 양팔로 감싸 안는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거한이지만, 패왕에게도 무쇠 술을 드는 일은 버겁다.

그래도 패왕은 포기하지 않는다. 마보로 무릎을 굽히고 무쇠 술을 감싸 안은 팔에 힘을 준다. 열명이 들고 온 무쇠 술이 한 치, 두 치 땅에서 떠오른다. 패왕은 가슴에서부터 어깨 위까지 무쇠 술을 들어올렸다. 이윽고 머리 위까지 무쇠 술을 완전히 올린다.

그리고 패왕이 무쇠 술을 들고 적들에게 물을 쏟는 순간, 진명의 권이 그림처럼 교차해 뺏어나간다.

진명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완전히 초식에 몸을 내맡기고 정신을 집중한 결과, 이제까지 연습했던 때와는 다른 힘이 느껴졌다.

무거운 무쇠 술을 드는 것처럼 발끝에 힘을 주니 절로 무릎과 허벅지가 탄탄해졌다. 그렇게 올라온 힘이 허리를 통해 어깨로, 어깨를 통해 주먹으로 전해졌다. 눈앞에 있는 수십 만의 적군을 향해 무쇠 술을 들어 던지듯이.

-백 근이 넘는 무쇠 술을 들려면 하체가 지탱을 해주어야 하는 법이다. 그 하체의 기운을 허리로 이끌어 상체로 보낸다. 그것이 패왕거정의 요체다.

범여의 말이다.

진명은 이순간 범여의 말 뜻을, 그가 말한 패왕거정의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앗!”

일령이 외마디 비명소리를 냈다.

그녀가 뿌린 검세가 진명의 권세에 밀리고 있다. 진명의 짓쳐오는 권이 일령의 검을 가닥가닥 부수며 돌진한다.

마치 각개격파를 당하는 듯 했다.

수십으로 갈라진 힘이 하나의 모은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

내공수위는 진명보다 일령이 훨씬 높지만 한군데로 모은 권의 힘이 좀 더 앞서고 있다. 그만큼 진명의 권은 무겁고 진중했다.

기세는 태산처럼 무겁고 그 안에 실린 힘은 장강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다.

‘치잇! 갑자기 달라졌어.’

방금보다 서너 배는 더 무거운 기세에 가벼운 일령의 환검이 당해내지 못한다.

일령은 입술을 질끈 물고 별 수 없이 검을 회수했다. 내공을 쏟아 부어 계속 몰아칠 수도 있지만 무리한 일이었다.

그랬다가는 서로가 양패구상을 당하는 꼴이 되어 누구 한 사람은 크게 다칠 것이다.

“이제 그만!”

묵직한 진명의 공세에서 일령은 절묘하게 몸을 빼냈다. 공격 도중에 이토록 쉽게 몸을 뺄 수 있는 건 일령이 진명보다 몇 배는 더 고수란 뜻이다. 물론 일령도 그게 그리 쉬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훌쩍 뒤로 몸을 날린 일령이 소리쳤다.

“그만하자니까?”

그러나 진명은 미처 힘을 거둘 수가 없었다.

“어…….어어어?”

앞으로 몸이 쏠렸다.

자기가 자신의 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번 초식에 힘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진명은 비틀거리다가 그만 앞으로 쓰러졌다.

쿠당탕.

“으!”

영거주춤 일어서는 진명의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돌았다. 무인이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것은 창피한 일이다. 더구나 일령은 공격을 곧바로 멈추고 몸을 빼냈는데 자신은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커다란 수준 차이를 느낀 탓





도 있었다.

일령이 고소하다는 얼굴로 말했다.

“헐, 꼴 좋다. 그러니까 왜 죽자 사자 주먹질을 하고 그래. 비무를 하자고 했지 누가 생사를 가르자고 했나?”

“아, 그게……. 미안.”

갑작스럽게 되었던 거라 진명도 할 말이 없었다.

얼굴을 붉힌 채 뒷머리를 긁어댔다.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음…….”

“됐어. 앞으로는 진 형과 비무 같은 거 하자고 하지 말아야겠어. 사람이 갑자기 악귀처럼 돌변해서 나 같은 귀여운 동생을 잡아먹으려 하잖아.”

아닌 게 아니라 아차 했으면 당할 뻔 했다. 공격을 거둔 시기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도 한대 맞았을 것이다. 맞는 것도 싫지만 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을 생각을 하니 그게 더 싫었다.

“어?”

진명이 그 말에 갑자기 사정을 했다.

“그러지 말고 한번만 더 해보자.”

일령은 대경실색했다.

“뭐엇? 내가 미쳤어? 싫어.”

일령은 진명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해 버렸다.

“한번만 부탁해. 뭔가 알 듯 말 듯 하단 말야.”

진명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어 실력이 늘었다는 건 아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럴지 않고서야 갑자기 기운이 몇배나 달라질 리가 없으니까.

“제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해. 한번만 더 비무해줘.”

일령의 귀여운 얼굴이 찡그려졌다.

“이… 이… 이……. 무공광 같으니! 나처럼 예쁜 여자가 땀투성이가 되어 뒹굴면 좋겠어?”

“한번만 더 하자. 그럼 단심맹도 같이 갈게.”



# 武極 - Story Book

“뭔가 앞뒤가 바뀐 거 같은데...”

일령이 고민하는 얼굴을 하자, 진명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아냐. 전혀 그렇지 않아. 이걸 그냥 거래야.”

“내가 손해 보는 거 같은데...”

“절대 령 아우가 손해보지 않게 할게.”

“흠.”

일령이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다.

“나 같은 예쁜 여자를 꼭 때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니래도?”

“좋아. 그럼 나도 하나만 더 요구를 해야겠어.”

“뭐든지 말해봐.”

“뭐든지 간에 내가 말하는 걸 한가지 꼭 들어주기.”

“음.....”

“싫으면 댄 사람을 찾아보시던지?”

진명이 황급히 말했다.

“아, 아냐! 들어줄게.”

일령은 개구장이처럼 미소를 지었다.

“그럼 비무 해주는 대신 내 소원 하나 꼭 들어주기다?”

“알았어.”

“언제 무슨 상황이든지, 어떤 부탁이든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들어줄게.”

“뭐... 그까짓 일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고. 소원 하나 들어주는 데 목숨을 걸면 너무 아깝잖아.”

“좋아. 그렇게 할게.”

일령은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진명의 말을 따라 비무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실수라는 걸 깨닫는 데 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한 번만 하자던 비무가 다섯 번이나 이어졌던 것이다. 그것도 진명은 자신이 쓰러지지 않았으니 아직 한 번에 속하는 거라며 우기기까지 했다.

“그만 좀 놓아줘!”

일령이 비명을 지를 정도가 될 때까지 진명은 일령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덕분에 진명은 다섯 번 째 비무때 일령에게 죽도록 맞고 쓰러졌다.

찰거머리 같은 진명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일령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후로 일령은 남자들의, 특히나 진명의 ‘한 번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했다.

표 1 정파 권법 나한권<sup>1</sup>

선인공수(仙人拱手) 5	고수반근(枯樹盤根) 7	위타헌저(韋陀獻杵) 8	청룡파미(靑龍擺尾) 2
패왕거정(霸王舉鼎) 14	야차탐해(夜叉探海) 15	노승입선(老僧入禪) 9	좌우편마(左右騙馬) 10
좌우삽화(左右插花) 24	추창량격(推槍亮格) 18	철우경지(鐵牛耕地) 19	연자탁수(燕子卓水) 20

<sup>1</sup> 나한권: 정파 권법 중 ‘금’ 오행의 속성을 가진 권법. 총 12개의 초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 혈의 부위는 순서대로 상단의 인영, 태양, 견정, 염천, 중단의 잔중, 유문, 옥당, 구미, 하단의 태충, 조구, 지기, 중도를 공격할 수 있다. 나한권의 상승 단계는 소림사 수복과 관련된 본산 공략 편에서 설명한다. – 이희성 –

# 武極 - Story Book

## 제 14 화 [소환]

"대단하네. 설마 했는데..... 이렇게 상대도 안될 줄은 몰랐어."

진명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얼마나 얻어 맞았는지 아직도 눈앞에 별이 보이는 듯 하다.

"헉헉. 끈질기네, 진 형도."

일령도 숨이 차서 주저앉았다.

"아우, 무슨 사람이 적당한 걸 몰라. 내 다시는 진 형이랑 비무하나 봐라."

일령의 핀잔에 진명은 부은 뺨을 어루만지며 슬쩍 웃었다.

"고마워. 덕분에 많이 배웠어."

"고맙긴! 힘들어 죽겠단 말야!"

솔직히 일령의 실력은 진명보다 한참이나 위였다. 다섯 번의 비무를 하는 동안 일령의 웃기조차 제대로 건드려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진명은 기분이 좋았다. 일령은 무관에서 함께 비무를 했던 동료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고수였다. 명문정파에서 제대로 배운 무인과의 비무는 그에게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만큼이나 배운 게 많았고, 자신이 부족한 점을 깨달았다. 많이 얻어맞긴 했지만 그보다는 수확이 더 컸다.

진명이 일령을 보며 물었다.

"물어볼 게 있는데....."

"설마 또 비무하자는 건 아니지? 안돼, 절대 안돼."

지레 겁먹은 일령이 손사래를 쳤다. 진명의 실력은 분명 자신보다 아래였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제압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손에 사정을 두지 않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진명을 땅에 눕힐 수 있었다. 정말로 힘들었다.

"그게 아니고, 지난번 장안제일루에서 만났던 화산의 제자 있잖아."

"아, 평일지라고 하던 재수없는 녀석?"

"응."

"개가 왜?"

"그 녀석이랑 싸운다 해도 이길 수 있었지?"

일령은 잠깐 고민하며 말했다.

"모르겠어. 그 놈 옛날부터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 하지만 나도 그렇게 쉽게 지진 않았을 거야."

"그렇구나."

진명은 팔베개를 하고 땅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넘실거리는 푸른 하늘.

평일지는 그에게 하늘과 땅만큼의 벽이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일령은 그와 싸워도 쉽게 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난 아직 멀었다. 만약 비무가 아니고 실제 싸움이였다면 아마 10초를 넘기기 전에 일령의 칼에 목이 날아갔을 거야.'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해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조금은 암담했다.

진명의 우울한 표정을 보았는지 일령이 과장되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한다.

"진 형. 내 사부님이 누군지 알아?"

"글쎄? 아우님 실력을 보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

"헤헤, 내가 워낙 천재에다 무골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사부님이 바로 연화검(蓮花劍)이시거든."

"연화검?"

순간 진명의 눈이 동그래졌다.

"연화검 금정신니!"

"응."

일령이 찻 하고 혀를 내밀며 가볍게 검을 휘두르는 동작을 취해 보인다.

"사부님이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정신차리고 했으면 평일지 따위 그냥 날려버리

# 武極 - Story Book

는 건데."

일령이 강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연화검 금정신니는 아미파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고수 중의 고수다. 그런 스승에게 어렸을 때부터 무공을 배웠으니 어중이떠중이로 돌다가 속가가 된 진명하고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렇구나. 네 사부님이....."

진명은 뒷말을 흐렸다. 일령이 사부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한 걸 떠올렸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그것도 잠시, 곧 일령이 벌떡 일어나 쾌활하게 외쳤다.

"자!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었으니까 빨리 나랑 단심맹으로 가자."

"알았어."

진명은 마지 못하는 척 끄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그런데 문득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어?"

객점의 점소이가 뒷문으로 불쑥 튀어나오더니 진명과 일령을 보고 외쳤다.

"여기 계셨군요! 어디 가셨나 한참 찾았습니다."

"우리를?"

"단심맹에서의 소환령입니다."

점소이가 붉은 천이 감긴 손바닥만한 작은 깃발을 보였다.

단심맹의 연락이 온 것이다.

단심맹의 연락망은 장안성의 구석구석 뻗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특히나 장안성 내의 상인들이 적극 참여했다. 어차피 사파나 마교에 의해 장안성이 함락당하면 자신들이 설 곳도 없어지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지금처럼 단심맹의 연락망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어리둥절해 하는 진명을 두고 일령이 점소이에게 물었다.

"어디로?"

"정문입니다."

말을 마친 점소이는 급히 돌아갔다.

일령이 진명을 잡아 끌었다.

"장안성 정문으로 가야 돼."

"무슨 일인데?"

"소환령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

"응."

단심맹을 나오면서 사무관에게 들었던 얘기가.

"전투가 있을 거야."

"뭐? 누가 쳐들어오기라도 했다고? 장안성을?"

"나도 몰라. 일단 가자!"

진명과 일령은 객점을 나왔다. 이미 다른 이들에게도 소식이 알려졌는지 단심맹의 무인들이 병장기를 착용한 채 정문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일령이 허겁지겁 달려가는 한 젊은 무인에게 물었다.

"형씨! 말 좀 물어봅시다. 대체 무슨 일이 난 거요?"

눈위에 커다란 점이 난 젊은 무인은 헉헉거리면서 말했다.

"흑도군이러오."

"흑도군?"

젊은 무인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도 모르냐는 듯한 눈초리로 일령을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일령의 미모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래져서는 금세 대답했다.

"흑도군은 사파의 용병집단이오. 얼마 전에 단심맹에서 지방군벌들의 힘을 빌려 백도군을 창설했더니만, 놈들도 백도군에 대항한답시고 잡놈들을 끌어다가 흑도군을 만들었소. 그 흑도군이 장안성으로 오고 있다 하오."

정파나 사파나 마교에 의해 입은 피해가 너무 컸다. 말 그대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단심맹의 수뇌부에서는 지방군벌들의 병력을 용병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무림문파로 이루어진 단심맹에 용병인 백도군이 가세하게 된 것이다.

진명이 무인에게 물었다.

## 武極 - Story Book

“대체 흑도군이 얼마나 되길래 장안성으로 직접 공격을 온 거랍니까?”

현재 장안성은 정파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다. 9파1방은 물론이고 살아남은 정파 무인들이 모두 모였다. 말 그대로 용담호혈(龍潭虎穴)이다. 마교도 쉽사리 건들지 못하는데 사파가 공격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무인은 일령을 대할 때와는 달리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어지간한 병력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지. 하지만 사파 놈들은 흑도군 이전에도 간혹 기습공격을 해왔소. 해적들이 마을을 강탈하듯이 먹고 튀는 거요. 운이 좋다면 혼란 중에 간자라도 하나 몰래 심어놓고.”

일령이 짐짓 감탄하는 척 무인을 추켜세웠다.

“형씨는 아는 게 많군요. 난 일령이라 하고 이쪽은 진명.”

“난 화산의 속가로 임완춘이라 하오. 장안성에서 1년도 넘게 있었소. 여기서 일어난 어지간한 일은 모두 꿰뚫고 있수다.”

“그럼 오늘도 기습공격을 오는 거요?”

“아니, 오면서 들었더니 척후조가 정찰을 나갔다가 들켜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임완춘은 말을 하면서 슬슬 주위 눈치를 보고 달리는 속도를 줄였다.

“왜 그러니까?”

진명이 묻자 임완춘이 조그만 소리로 말한다.

“쉬잇. 예쁜 소저가 있으시니 내 비밀을 알려주리다. 일령 소저, 그리고 거기진...소협. 걸음을 좀 늦추시오.”

그 사이에도 다른 무인들은 병장기를 꼬나 쥐고 앞으로 달려나간다.

임완춘은 일단의 무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지금 저 친구들처럼 멋모르고 달려나갔다면 백이면 백, 이거요 이거. 내 장담하는 데 저 친구들은 단심맹에 든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일 거요.”

임완춘은 자신의 목을 검 손잡이로 긁는 시늉을 했다.

“에엥? 어째서요?”

“아, 목소리 좀 낮추고.... 생각을 해보시오. 정문에서 일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겠소?”

임완춘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말을 이었다.

“기본적으로 정문을 지키는 경비무사들이 있을 거고, 정문에서 가까운 싸구려 객점에 머무는 우리 같은 삼류무인들이라오. 각파의 최고 고수들은 저 안쪽의 단심맹 본관에 있고, 그 다음 고수들은 단심맹 훈련관에 있단 말요.”

일령이 놀란 눈으로 진명을 쳐다보았다. 진명도 위기를 알아챘는지 얼굴이 신중하다.

“흑도군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장안성 정문 앞까지 뛰어왔겠소? 경비무사 정도야 가볍게 해치울 자신이 있으니 바로 코앞까지 올 수 있는 것이오.”

일령이 임완춘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긴..... 그냥 조금 천천히 가면 고수들이 지원을 올 거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앞을 지나쳐간 불쌍한 저 친구들 중에 반은 죽겠지만.”

일령이 걱정스럽게 진명을 본다.

“진 형. 어찌지?”

진명은 어금니를 깨물었다. 조금도 고민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가야지.”

“가면 반은 죽는다는데?”

진명은 완강하다.

임완춘이 되려 놀라 진명을 말린다.

“객기 부리다간 시체 한구만 더 늘 뿐이오. 내 1년 동안 지켜보고 하는 얘기라니까.”

진명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가기 싫으면 임 형은 가지 마십시오. 난 가야겠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고집불통이네. 가면 죽는대도?”

“적은 힘이나마 한 손 거들어 시간을 끌면,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라도 더 구할 수 있는데 왜 망설인단 말입니까?”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더 얘기를 하기도 싫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곤 앞으로 뛰어나갔다.

임완춘이 입을 비틀며 욕을 했다.

“이런 얼어붙질. 목숨을 구할 방법을 가르쳐줘도 난리네. 소저, 소저도 같은 생각이요?”

일령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진 형은 소림의 제자니까. 불문의 제자가 사람 죽는 걸 내버려두는 거 봤소?”

그러면서 일령도 진명의 뒤를 따라가려 한다. 임완춘이 말리려 했더니 일령이 돌아보면서 싱긋 웃는다.

“나도 아미파의 제자라서.”

일령이 발을 돌려 진명의 뒤를 쫓아갔다.

뒤에 덩그러니 남은 임완춘이 인상을 팍 찡그렸다.

“제기랄, 불문 제자 좋아하네. 둘 다 꼴을 보니까 속가구만. 속가 주제에 무슨 ..... 나도 그럼 화산의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난 임완춘은 불길한 느낌에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돌려보니 싸늘한 눈초리로 평일지가 쏘아보고 있다.

“화산의 제자가 뭘 어쨌다는 거냐. 소환령이 내렸는데 왜 여기서 뭉개고 앉아 있어!”

“아, 아닙니다! 갑니다. 지금 갑니다요!”

임완춘은 부리나케 뛰었다.

‘평일지에게 잘못 보이면 그날로 인생이 끝장이다!’

그러나 임완춘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다.

평일지 같은 고수가 운 좋게 근처에 있었으니 그나마 살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진명이 정문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까지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열린 정문 사이로 멀리 뿌연 먼지와 인영(人影)이 보인다. 십여 명 정도의 무

인이 달려오고 있다. 등에 화살이 꽂혀 있다거나 다리에서 피를 흘리는 등, 대부분이 작지 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단심맹의 척후조다.

그 뒤로 바짝 흑도군의 용병 수십 명이 뒤쫓아온다. 그들이 입고 있는 무복에는 흑도군을 상징하는 귀신 형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쉽게 구분이 간다.

몸을 한껏 낮추고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오는 그들의 모습에 정문에 있는 단심맹 무인들이 마른침을 삼킨다.

임완춘의 말대로 그들 대부분은 단심맹에 든 지 얼마 안된 신입들이었다. 호기 좋게 뛰어오긴 했지만 결코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라는걸 순식간에 알아챘다. 누구도 먼저 나가서 척후조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순식간에 흑도군에게 쓸려버릴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다. 자신들은 삼류지만 저들은 고수다.

기세에서 벌써 느껴진다. 정파의 본산이나 다름없는 장안성의 코앞까지 올 수 있는 담력, 자신들의 무공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단심맹 무인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다.

상처를 입은 척후조가 하나 둘 흑도군에게 따라 잡히기 시작했다. 흑도군은 뒤쳐진 척후조를 베었다. 다리를 잘라 뛰지 못하게 만들고는 계속해서 정문으로 돌진해 온다.

성문에 있던 단심맹 무인 중 누군가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무, 문을 닫아야 해! 사파 놈들이 성안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성문을 닫아! 아니면 우리가 죽어!”

평소같으면 쟁쟁하게 문을 닫아걸어 흑도군이 성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테지만, 오늘은 척후조가 쫓기고 있었다. 그 때문에라도 성문을 쉽게 닫지 못했다.

그러나 척후조 몇 명을 구하겠다고 성문을 닫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는 무인들 상당수가 죽어나갈 것이다. 거기다 단심맹 측 고수들이 지원을 오기 전까지 정문 근처의 민가와 상점들은 약탈을 당할 게 분명하다.

## 武極 - Story Book

“달아!”

“성문을 달아!”

하지만 성문은 닫히지 않았다.

성문을 닫지 못하게 누군가 앞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질 급한 이들이 놀라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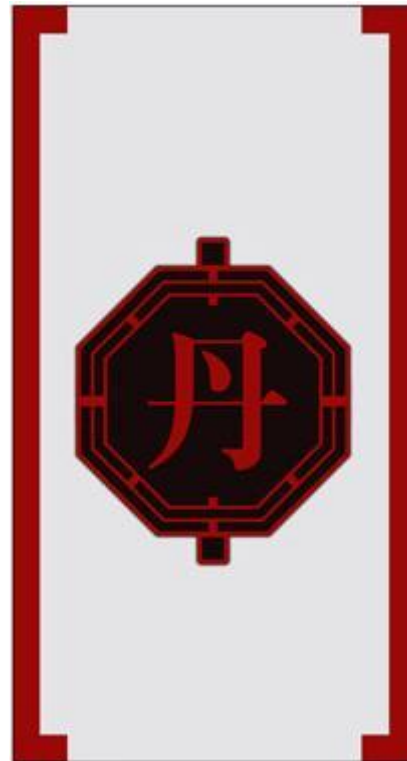
“저 새끼 뭐야!”

“똥지려고 환장했나!”

욕설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척후조와 흑도군을 향해 마주 달려나간다.

진명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 제 15 화 [흑도군]

용병이라 해도 군대는 군대였다.

군대가 무서운 점은 상하절대복종체계에서 나오는 엄격한 조직력에 기인한다. 특히나 흑도군 중에서도 기습공격과 개요유격전을 맡고 있는 야차부대는 소수정예체제로, 조직이 작은 만큼 그 조직력이 단단하다.

야차부대라는 이름은 대장의 별호를 딴 것이다. 야차(夜叉)라는 별호답게 그는 사납기로 유명한 흑도군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 이걸 뭐 우습지도 않군. 저게 지금 이 야차를 맞이하는 단심맹이냐?”

야차부대의 대장, 야차가 혀를 차며 내뱉었다.

정파의 잔챙이들을 사냥하는 가운데, 장안성의 성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마따나 우습지도 않은 것이, 뛰쳐나온 인간은 단 한 명뿐이었다. 혹여 그 뒤로 단심맹의 인간들이 더 나오지는 않을까 싶었지만 성문은 다시금 굳게 닫히고 있었다.

야차의 뒤를 따르던 부하 하나가 그의 말을 받았다.

“이 자식들이 겁을 좀 먹었나 본데요? 뭐, 어차피 저희야 척후조만 없애면 되니 편한 일 아닙니까.”

그 말에 야차가 한쪽 입 꼬리를 비틀었다. 덩달아 이마에서부터 시작해 콧방울까지 이어지는 굵은 흥터가 꿈틀대며 움직였다. 그가 왜 야차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표정이었다.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지. 지금 놈들이 이 야차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소리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장이 잘라낸 단심맹 놈들 수급이 얼마데요?”

“가끔 그런 것을 모르는 바보들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 저 놈은 내

손으로 직접 썰어버려야겠다.”

야차의 말은 사실이었다. 진명은 장안성 주위에서 활동하는 야차부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을뿐더러, 그들을 이끄는 악귀 같은 사내 야차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명이 야차가 어느 정도의 고수인가 전혀 몰라봤다는 말은 아니었다.

‘고수다!’

정파의 척후조를 뒤쫓는 야차부대의 숫자는 수십에 이르렀지만, 진명은 한 눈에 그들의 대장 야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패도적인 기세 때문이었다. 귀신 얼굴이 그려진 검은색 무복을 입은 야차는 말 그대로 지옥에서 뛰쳐나온 악귀와도 같은 느낌을 뿜어내고 있었다.

‘내가 과연 저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

아무리 겁 없이 달려왔다고는 하나 진명의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순간,

“하앗!”

다른 흑도군과 속도를 맞춰 달려오던 야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튀어나왔다. 동시에 야차의 손에 들린 납적한 도가 묵직한 파공음을 뿌리며 허공을 갈랐다.

“으허억!”

동시에 핏물이 튀기며 척후조 한 명이 달리던 자세 그대로 쓰러졌다. 찌익 갈라진 등 쪽에서 핏물이 꾸역꾸역 흘러나왔다.

그것도 진명에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다.

“안돼!”

이미 진명의 머릿속은 텅 비어가고 있었다.

아마 그런 장면을 보지 않았더라면 왜 일령이 뒤따라 오고 있지 않는지, 왜 자신의 등 뒤에서 성문이 다시 닫혔는지 왜 지원군이 더 오지 않는지, 진명도



# 武極 - Story Book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에 앞서 몸이 먼저 튀어나가 버렸다.

부웅

진명의 주먹이 야차를 향해 뻗었다. 가장 자신 있는 초식, 패왕거정이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권풍을 느낀 야차가 진명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야차의 얼굴을 가로지른 흉터가 잔인하게 꿈틀거렸다.

“나한권? 소림이냐?”

비록 일권(一拳)이었으나 야차는 그 속에 숨어있는 정파무림의 태산복두, 소림의 기운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야차는 신속히 몸을 돌리며 뜨듯한 피가 묻어있는 도를 횡으로 뿌렸다.

진명은 단단한 하체 힘을 바탕으로 다급히 허리를 제쳤다. 야차의 도가 아슬아슬하게 진명의 코 끝을 스쳐갔다.

“괜찮으십니까?”

진명은 바닥에 쓰러진 척후조원을 향해 물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야차의 도에 몸이 갈리는 순간 이미 죽은 것이다. 마른 흙을 적시는 피는 아직도 따듯한데 그의 혼만이 싸늘히 식어버렸다.

진명은 그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 한 کن을 불에 지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내 눈 앞에서 또 사람이 죽었다! 내가 너무 늦은 것이다. 상대를 보고 겁을 먹은 바람에.....’

그러나 지금은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만한 시간이 없었다. 다행히 다른 몇 명의 척후조는 큰 부상은 입어도 살아 있는 상태였다.

‘내가 막아서 시간을 끌어야 한다. 그러면 저들도 살릴 수 있어!’

야차가 비웃듯 말을 던졌다.

“꼴에 소림이라는 건가? 여기서 목탁이라도 두드려줄 샘인가 보지?”

쉬잉

동시에 그의 도가 다시 횡으로 날아왔다. 야차의 패도적인 도법은 손목을 회전축으로 삼아 납작하게 반원을 그리는 힘에서 비롯된다. 두툼하고 납작한

도신이 가장 크게 힘을 받는 형태다.

‘늦었다!’

상대적으로 권격보다 넓은 도격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다. 진명은 이미 몸을 움직여 피하기에 늦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진명은 이를 악물고 허리를 크게 낮췄다. 그리고는 자신을 가르기 위해 짓쳐 들어오는 도봉(刀峰)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횡으로 들어오는 칼날은 확실히 아래쪽에 틈이 있었다. 허리가 꺾어지도록 낮추자 진명에게도 그 틈이 보였다.

“이얍!”

기합소리와 함께 진명은 그 틈 안으로 좌우삽화의 일초를 찢어 넣었다.

평

진명의 주먹은 정확하게 야차의 하복부를 강타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욱!”

진명은 등짝이 부쉬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찰나의 순간, 야차의 도가 수직으로 떨어지며 칼등으로 진명의 등을 내리쳤던 것이다. 과연 야차라는 이름이 허명이 아님을 알려주는 한 수였다.

진명은 입에서 왈칵 피를 뱉으며 바닥을 한 바퀴 굴렀다.

‘내 사, 상대가 아니다.’

빈틈이 보였는데도 그곳을 공략하지 못했다. 그만큼 진명과 야차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진명은 힘껏 일어났지만 등을 강타한 충격은 채 반도 해소되지 않았다.

야차가 소리쳤다.

“제법 눈썰미는 있구나!”

그가 재차 위협적인 도세(刀勢)를 뿜어냈다. 진명은 죽을 힘을 다해 덜덜 떨리는 하체에 힘을 주고 권을 내질렀다.

야차의 눈가가 일그러졌다.

## 武極 - Story Book

“이놈이?”

진명의 동작에서 야차는 진명의 수준을 금세 파악했다.

야차는 일부러 땀을 흘리며 진명의 공격을 몇 번 지켜보았다. 어차피 단심맹 놈들은 성문을 걸어 닫은 참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야차는 진명이 할 줄 아는 무공이 나한권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확실하다.

하수다.

혼자 나와서 얼마나 고수인가 했더니, 정말로 그냥 삼류나 될까 한 하수였다. 주먹의 기세는 날카롭지만 그냥 그뿐이다.

“크아아아! 단심맹 놈들이 나를 놀리는구나!”

야차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토록 분노한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자문할 만큼 화가 났다.

“감히 이 야차를 상대로 너 같은 쥐새끼가 나와? 장안성 안에 웅크리고 있던 고수들은 죄다 똥지기라도 했던 말이야?”

진명이 지지 않고 대꾸했다.

“나는 쥐새끼가 아니라 소림의 제자다!”

“웃기고 자빠졌네. 나한권 일 초식으로 소림 물 좀 먹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야차부대도 전부 소림 똥중이게?”

수치심으로 진명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의 부족함이 소림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그러나 그럴수록 진명의 주먹은 더욱 굳건히 쥐어졌다.

“소림의 이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어서 덤벼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이 벌레 같은 꼬마 놈이!”

진명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자 야차의 인상이 험악해졌다.

“온 몸을 잘게 다져주마!”

부웅, 획

야차의 손목이 움직이며 그의 도가 커다란 바람을 일으켰다.

“나 역시 너 같은 잔챙이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 여기까지 쫓아온 놈들을 빨리 죽여 없애야 하니까.”

야차의 눈에 붉은색 핏발이 일어났다.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그만의 살기였다.

한편, 닫힌 성문 안에서 일령은 성문을 지키는 경비대와 실갱이를 벌이는 중이었다.

“야! 이거 당장 못 열어? 니들이 그러고도 정파라고 할 수 있어? 어서 당장 열란 말이야!”

마음 같아서는 맨손으로 성문을 잡아뜯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장안성을 지키는 경비대는 일령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지금 다 같이 죽자는 소리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계집이 주제파악 못하고 설쳐대는 거야? 네가 단심맹주라도 되는 줄 알아?”

“뭐?”

일령이 매서운 눈빛으로 경비대를 쏘아보았다.

“주제파악? 그러는 니들은 주제파악이 뭔지나 알고 있어? 명색이 장안성의 경비대라는 것들이 주제파악도 못하고 제 목숨부터 챙겨?”

일령의 거친 말투에 대뜸 열이 받은 경비대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였다.

“뭐라고?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왜? 덤비게? 좋아, 어디 한 번 덤벼보라고. 제 목숨만 챙기는 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지.”

일령은 찡,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허리춤에서 쌍검을 뽑아 들었다. 일령의 검에 서려있는 현묘한 기운은 감히 일개 경비대 따위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삼시간에 성문 주위에 날이 선 긴장이 흘렀다.

“뭐, 뭐야... 진짜로 성문을 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린 다 죽는다고!”

일령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사실 일령은 마음 속으로

## 武極 - Story Book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 씨. 답답해 미치겠네. 난 여기서 너희들하고 드잡이 질 할 시간이 없단 말이다. 지금쯤 진형은.....’

그렇다. 지금 저 밖에는 흑도군 수십 명에 맞서 진명이 홀로 맞서고 있었다.

진명이 아무리 뛰어난 고수, 이를테면 화산파의 그 왕재수 평일지 정도되는 고수라고 할지라도 흑도군 수십과 맞서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거기에 덧붙여 흑도군 수십과 맞서 쫓기는 척후조 까지 돕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이라고 보아도 좋았다.

일령은 마음이 타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여차하면 이것들 목을 따서라도 성문을 열어야.....’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임을 일령은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자신이 단심맹 소속에다가 아미파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장안성에서 정식으로 고용한 경비대를 살해하는 일은 명백한 위법이었다. 분명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게다가 불가의 제자인 일령이 같은 정파의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령이 입술을 꼬옥 깨물었다.

‘하지만..... 진형과 이 놈들의 목숨, 둘 중의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일령은 진명의 목숨을 택하고 싶었다.

안다. 그녀도 안다. 사람의 목숨에 경중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의 사부인 금정신니가 무공보다 앞세운 가르침도 바로 그것이었다.

-명심하여라. 바람은 결코 한 곳으로만 불지 않는다는 것을. 네 마음 어느 곳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면 네 검은 결코 바람을 앞서지 못할 것이다.

스승의 지엄한 목소리가 귓가를 쟁쟁 울리는 것만 같았다. 일령은 검을 움켜쥔 손을 파르르 떨면서 외쳤다.

“어서 성문을 열어! 못하겠으면 내가 열 테니까!”

“그, 그게.....”

일령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일까. 그토록 완고하던 경비대의 손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각할 여지 없이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다.

탓

누군가가 표출한 신법으로 일령과 경비대 사이에 끼어들었다.

“너, 너는.....”

그는 화산파의 왕재수, 평일지였다. 평일지가 험악한 눈초리로 일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주제를 모르고 까불던 그 소저로군. 객잔에서도 행패더니 여기서도 행패인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지?”

일령이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악! 이 왕재수는 왜 하필 이럴 때 나타나서 지랄이야!’

일령은 입을 손으로 막았다. 입을 막고 나서야 속으로 한 욕이라는 걸 알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평일지의 등장은 지금 상황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괜찮을지도 몰랐다.

명문대파인 화산파의 제자라면 흑도군이 무서워 척후조들을 모른척하자는 그런 개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장안성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단심맹의 고수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평일지의 말이 곧 법이나 마찬가지다.

일령이 평일지에게 말했다.

“안됐지만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 바로 너 같은데? 어서 성문을 열어야 해. 지금 우리 쪽의 척후조가 흑도군에게 쫓기고 있단 말이야. 설마하니 너도 성문을 쫄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자고는 말하지 않겠지?”

평일지는 일령의 말에 입가에 슬쩍 비웃음을 걸었다.

“자신은 있고?”

## 武極 - Story Book

일령이 쌍검을 힘껏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 武極 - Story Book

## 제 16 화 [야차]

일령의 말에 평일지는 대답 대신 제법 괜찮은 경신술을 발휘했다. 성벽에 설치된 성벽까지 단 몇 차례의 도약으로 올라갔던 것이다.

그 위에서 평일지는 성벽 밖의 상황을 바라보았다.

일령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있었다. 이미 척후조들은 거의 잡히거나 죽은 상태였다. 지금 성문을 열고 지원군을 보낸다 해도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

대신 평일지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

“야차부대인가?”

평일지는 한 눈에 저들이 야차부대임을 알아보았다. 정파인이라면 지긋지긋하게 이가 갈릴만한 이름이었다. 야차부대는 특히나 신속히 치고 빠지는 식의 개요유격전으로, 아픈 곳만 골라 쿡쿡 쑤신 다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통에 단심맹에서도 골칫거리인 놈들이었다.

“잘하면 이번에 몰살시킬 수도 있겠군.”

평일지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어렸다.

그토록 용의주도하게, 발 빠르고 영악하게 치고 빠지던 야차부대가 오늘은 어떤 일인지 장안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보통 야차부대가 장안성을 공격할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시간대를 골라 미처 단심맹에서 대비할 틈도 없이 뒤통수를 치고 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저들도 그간의 작은 승리에 취했는지, 오늘은 개요유격전의 원리를 망각한 채 성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일지는 성벽 위에서 몸을 돌려 성벽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여태껏 새파란 눈길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일령을 무시한 채, 성문 근처로 모여든 단심맹의 무인들과 경비대를 향해 외쳤다.

“이대로 성문을 닫은 채 우리는 공성전을 준비한다! 저들은 분명 성벽을

넘으려 할 것이다. 오늘에야 말로 저 지긋지긋한 야차부대를 궤멸할 수 있는 기회다!”

일령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일령은 대뜸 소리를 질렀다.

“뭐야, 이 자식! 그러니까 척후조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잔 소리야? 더군다나 저기에는 벌써 단심맹의 사람이 나가있다고! 혼자서 고군분투 하는 게 안보여? 그러고도 네가 화산의 제자냐!”

평일지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척후조를 구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게다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단심맹의 사람 따윈 보이지도 않는군.”

“뭐야? 진 형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일지가 이마에 손을 올리고 밖을 내다보는 시늉을 했다.

“호오. 이제 보니 그때의 거렁뱅이가 저 혼자 잘났다고 나선 모양이로군. 그 따위 실력으로 감히 야차부대에게 덤벼들다니.....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일! 그런 어리석음까지 화산이 뒤 치다꺼릴 해줄 의무는 없다!”

“아오, 진짜! 저 개새끼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일령이 평일지가 한 것처럼 신법을 발휘해 성벽 위로 올라갔다. 사실 그녀의 경신술은 평일지의 것처럼 완숙하지 못했기에 일령은 죽을 힘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오기로 성벽에 올라선 일령은 평일지를 향해 외쳤다.

“이 새끼야! 네 놈은 눈깔이 뻘냐! 어쩌서 진 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뭐라고?”

평일지의 눈에 노기가 어렸다.

“얼굴이 예쁘장하다고 봐줬더니 입이 너무 험하구나!”

“시끄러워!”

일령은 평일지를 무시하고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력을 잔뜩 끌어올린 그녀의 눈에 흑도군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진명의 모습을

## 武極 - Story Book

찾던 일령은 무언가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뭔가 이상하다. 대체 왜.....?’

순간 일령은 그것이 무언지를 깨달았다.

일령이 정색을 한 뒤 평일지를 향해 말했다.

“지금 당장 성문을 열어야 해. 지금, 당장.”

일령은 더없이 진지하고 차분한 얼굴로 살기를 뿜었다.

일령이 이상한 점을 느낀 것은 야차부대의 숫자에서였다.

‘고작 저걸 가지고 성벽을 넘겠다고?’

하지만 흑도군이 아무리 패도무쌍하다 한들, 고작 몇 십으로 장안성의 성벽을 넘을 수 있을 리는 만무했다.

장안성이 어떤 곳인가.

그야말로 정파의 마지막 보루다. 마교조차 장안성을 쉬이 함락시킬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고작 수십의 흑도군만으로 성벽을 넘으려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그냥 개소리야!’

임완춘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흑도군들은 그저 기습적으로 쳐들어 와 성문 근처에서만 약탈을 하고 갈 뿐이라고.

그런 녀석들이 성문을 굳이 넘어와서 위험을 자초할까.

일령은 야차부대가 뭐 하는 놈들인지 정확히 알고 있진 않지만, 평일지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야차부대에게는 성벽을 넘을 것도 아니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게시리 성에 근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게 뭐지?’

이유는 간단했다.

‘척후조!’

그들은 척후조를 뒤쫓아 장안성까지 왔다. 만약 척후조가 장안성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곳으로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그것은.....

‘척후조가 뭔가를 알아왔다! 분명히 우리 쪽에 들켜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성문을 열어야 했다. 오늘 싸움의 승패는 이쪽이 얼마나 피해를 덜 받는가도 아니고, 흑도군을 얼마나 잡아죽이는가도 아니었다.

척후조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의 관건인 셈이었다.

일령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평일지를 향해 거침없이 쏘아붙였다.

“저 놈들이 성벽을 기어오를 거라고?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저놈들은 척후조를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조건 척후조를 살려야 한다고!”

평일지가 한껏 아니꼬운 눈초리로 일령을 비웃었다.

“이미 늦었다는 말 못 들었나? 저 아래를 보라! 척후조가 과연 몇이나 살아남았는지! 지원군을 보내봤자 전멸이 뻔.....”

“아, 진짜 멍청하네!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냐? 척후조가 뭘 알아왔길래 저 놈들이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뭐라고? 지금 내게 멍청하다고 한 거냐! 이 건방진 계집이!”

평일지가 막 두 눈에 불을 켜며 검을 뽑으려 할 찰나였다.

단숨에 말을 마친 일령은 망설임 새도 없이 양 팔을 펼치고 성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 이런!”

평일지는 황당한 얼굴로 일령이 뛰어내린 성벽 아래를 쳐다볼 뿐이었다.

일령은 귓가로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왜 뛰었지?’

## 武極 - Story Book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척후조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진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유라면 둘 중 하나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아, 재수없으면 발목 나가겠네.’

일령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하늘님 부처님 스승님 장로님 엄마 아빠 그리고 진형. 령아가 무사히 살아남도록 빌어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신법을 좀 열심히 배워둘걸.’

일령은 공중에서 연거푸 제비 넘기를 하며 성벽을 손으로 쳤다. 어떻게든 낙하 속도를 줄여보려는 노력이었다.

다행히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 일령은 어디가 부러지는 일 없이 무사히 착지할 수 있었다.

물론 두 다리로 착지하는 것은 무리인 터라 살짝 엉덩방아를 찧긴 했지만 말이다.

“씨이, 모양 구겨지게..... 그래도 멀쩡한 게 어디냐.”

일령은 씩씩하게 일어나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애타게 진명을 찾았다.

“진 형!”

그 순간 진명은 온 몸에 크고 작은 부상을 매단 채 여전히 야차를 상대하고 있었다.

간신히 맞서고는 있었지만, 진명은 입에서 단내가 풀풀 날 정도로 지쳐있었다. 이미 밀천이 들통난 상황에서 상대하게 되는 야차는 너무도 강했다. 솔직함을 섞어 말하자면 진명은 가까스로 목숨만 붙어있는 상황이었다.

“헉, 헉헉.....”

“쥐새끼처럼 잘도 피해 다니는군.”

말은 그렇게 해도 야차 역시 피곤과 짜증이 몰려오는 상태였다.

고작 나한권 1초식을 상대하는 일이 이토록 짜증나는 일인 줄 미처 몰랐다.

움직임을 보면 쥐뿔도 없는 삼류가 분명한데 어쩌다 가끔씩 들어오는 정권에는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그냥 한 대 맞아주고 목을 베어버리면 그만인데, 저런 하수에게 맞는다는 자체가 그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리는 일이었다. 하수의 주먹에 맞아 멍이라도 들면 수하들을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를 회수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다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야차는 짜증을 섞어 내뱉었다.

“쫓. 진작에 끝냈어야 할 사냥이었는데.....”

간만에 그의 손길이 약간 느슨해졌다. 이미 진명의 상태는 탈진 직전이었다. 이대로 몇 합만 주고받으면 꼭 칼에 맞지 않더라도 제 팔에 지쳐 쓰러질 것이다.

잠시 숨을 골랐던 야차는 이제야 말로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너무 만만한 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다.

야차는 마지막 초식을 전개하기 위해 도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크게 치켜들었다. 그의 성명절기인 일월야차(一月夜叉)였다.

“이제 그만 죽어라!”

부우웅

진명으로서도 감히 피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기세였다.

진명의 시선이 아주 순간적으로 야차의 뒤를 보았다. 진명의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가 생겨났다.

야차가 진명의 그 작은 행동을 놓칠 리 없었다. 야차는 순간 진명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자그마한 갈등에 빠졌다.

도를 날리는 중에도 야차의 눈에 얼핏 불안감이 스쳤다.

진명은 이제 피에 젖은 무복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 주먹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휘이익.

거친 칼 바람이 주위의 먼지를 휩쓸며 진명에게 향했다.



## 武極 - Story Book

“이야아아!”

진명은 힘을 쥐어짜 진각을 밟았다.

쿵!

온 몸이 진동하며 찢릿한 기운이 등허리를 타고 올랐다.

진명은 거센 도풍(刀風)에 대항하며 주먹을 뺏어냈다.

광!

귀가 먹먹해질 만큼 무지막지한 굉음이 울렸다.

“이게 무슨……”

야차가 어이 없다는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있었다.

베지 못했다.

애송이가 주먹으로 자신의 도를 쳐낸 것이다. 그것도 전력을 다하면 아름드리 소나무도 갈라버리는 자신의 일월야차를 정면으로 상대해서.

그의 도는 목표를 벗어나 땅에 깊숙이 찌킨 상태였다.

“크윽!”

야차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다.

도를 튕겨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문제는 그의 옆구리에 있었다.

그의 옆구리에 박힌 검 한 자루.

그것은 진명도 익히 알고 있는 검이었다.

“진 허영!”

일령이 진명을 부르며 신법을 전개해 달려오고 있었다.

일령이 던진 검이었던 것이다.

눈깜짝할 사이 진명에게 다가선 일령은 야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네 상대는 나야.”

“네 년이 이 검을 던졌냐?”

“흠. 보면 모르겠어?”

“이 씹어먹을 핏덩이들이!”

그의 주변으로 부하들이 모여 들었다. 그들도 즐기듯이 야차와 진명의 대결을

보고 있다가 야차가 당하는 것을 보고 모인 것이다.

“대장님!”

“내버려둬!”

야차의 흉터가 꿈틀거렸다. 그는 숨을 힘껏 들이킨 다음 옆구리에 틀어박힌 일령의 검을 단숨에 뽑아버렸다.

취익-

핏물이 길게 튀었다. 동시에 야차의 검은 무복이 피를 머금고 한층 더 진한 색을 띄웠다.

야차는 지혈을 하고 진명과 일령을 바라보았다.

눈동자까지 충혈되어 정말 지옥의 야차처럼 보이는 얼굴이었다.

“죽여버린다.”

진명은 어떻게든 서 있기는 한 상태였다. 일월야차에 맞섰던 오른쪽 주먹은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맞설 수 있을까?’

야차 한 명도 버거운데 주위를 둘러싼 다른 흑도군들까지는 무리일 것이다.

진명은 자신의 앞을 막고 있는 일령의 자그마한 등을 보았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달려온 그녀의 등이다.

“일령……”

일령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걱정하지마. 내가 진 형을 지켜줄 테니.”

어쩐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진명은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알고 보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습다.

일령이 선수를 치듯 말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면 나중에. 진 형과 내가 살아나면 하라구.”

진명은 말없이 웃었다.

야차가 노호성을 질렀다.

## 武極 - Story Book

“이 개 같은 년놈들이 어딜 살아간다고!”

그가 자신의 도를 다시 들었다. 도신(刀身)이 부르르 떨렸다.

분노가 극에 달해 도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무지막지한 내력이 도를 떨게 만드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진명은 성큼 한 발을 내딛어 일령의 앞으로 다시 나섰다.

“어? 진 형.”

“고맙지만, 이 자는 소림을 모욕했어. 내가 그 빛을 갚아야 해.”  
쿵.

쿵.

진명은 땅에 발을 박아 넣듯이 두 번의 진각을 밟았다. 마지막 남은 한 울의 힘까지 모두 끌어 올렸다.

그 기세가 굳건하여 마치 거대한 산과도 같았다. 분명 모든 힘을 다 소진했을 텐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진명 스스로도 몰랐다.

진명은 이를 악 다물고 야차를 노려보았다.

“소림의 무공은 물려서지 않는다. 와라!”



# 武極 - Story Book

## 제 17 화 [투지]

“이노옴-!”

야차가 도를 힘껏 들어올리는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함성이 울렸다.

“와아아아!”

“음?”

야차는 뜻밖의 함성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이없게도 장안성의 성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에서 단심맹의 무인들이 마구 뛰쳐나오는 게 아닌가!

야차는 놀란 얼굴로 중얼거렸다.

“평소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치는 데 바빴던 겁쟁이들이 어째서?”

야차 부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파 놈들을 몰아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성 밖에 있던 야차 부대나 일령은 왜 갑자기 성문을 열고 무인들이 뛰쳐나오는 지 그 이유를 몰랐다.

바로 진명 때문이었다.

몇 번이나 장안성을 침입해 약탈을 해 왔던 두려운 야차 부대를 상대로 혼자서 맞서는 진명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투지를 일깨운 것이다.

처음엔 단심맹의 무인들도 진명의 행동을 객기라고 생각했었다. 야차 부대의 무서움도 모르고 객기를 부리다가 젊은 놈 하나가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곧 죽을 것 같던 진명이 끈질기게 버티고 버티며 야차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질 않은가!

그 모습을 보며 단심맹의 무인들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혼자서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만약 자신들이 미리 앞서 나가 힘을 합쳤다면 더 많은 척후조를 살릴 수 있었을 터였다.

더구나 귀여운 외모의 소녀까지 평일지를 힐난하며 뛰어내린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그들도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단심맹의 무인들은 성문을 열고 나가기를 간청했고, 평일지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맨 앞에는 단단히 약이 오른 표정의 평일지가 있었다.

‘저 어리버리한 놈이 나를 바보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게 할 수는 없다!’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는 흑도군을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경공을 발휘하며 가장 맨 앞으로 뛰어나오고 있었다.

“크으으.....”

야차의 얼굴이 잔뜩 찌푸려졌다.

단심맹의 삼류 무인들 따위가 아무리 함성을 지르고 달려들어봤자 평소라면 겁먹을 그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하들이 동요하고 있었다. 많은 단심맹 무인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는 모습에 부하들의 기가 죽은 것이다. 게다가 그는 옆구리에 깊은 상처까지 입고 있었다.

어느덧 야차부대가 주춤거리며 물러서기 시작했다.

야차는 그야말로 악귀 같은 표정을 지어냈다.

“흑도의 형제들은 들어라!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다! 죽더라도 임무를 마쳐라!”

야차가 흑도군을 향해 크게 외쳤다. 그러나 그에 맞서듯, 단심맹 측에서는 평일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척후조의 신병을 최우선으로 한다! 흑도군을 죽이는 공보다 척후조를 살리는 공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가장 무공이 높은 평일지가 선두에 나서자 단심맹의 무인들은 더욱 힘을

## 武極 - Story Book

얻었다.

어차피 숫자에서도 크게 앞선 상황이다. 몇몇이 짝을 이루어 한 명의 흑도군을 상대하며 척후조를 보호했다.

“이야아!”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썹 썹!

곳곳에서 맨주먹이 부딪히고, 병장기가 만났다. 살이 튀고 피가 번졌다.

그러나 야차 부대의 명성이 허명은 아니었다. 그들은 임무를 다하라는 명을 듣자마자 자신들의 몸은 돌보지 않고 척후조를 제거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일령이 진명을 보고 말했다.

“진 형, 잘 봤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든 혼자서 할 생각하지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거라니까?”

진명이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뒤 없이 달려나선 것은 분명 그의 실수였다.

야차가 돌을 보며 눈썹을 꿈틀댔다.

“건방진 년놈들이 내가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잊은 모양이로구나.”

일령이 야차를 보며 코웃음을 날렸다.

“어차피 그 몸으로 뭘 할 수도 없을 텐데 꿈지나 말고 도망가시지 그래?”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계집년이 감히!”

야차는 더 이상 장난을 치고 사정을 보아가며 싸울 생각이 없었다.

“죽어라!”

야차의 도가 질풍처럼 날아들었다.

“앗! 비겁하게!”

일령은 진명을 옆으로 밀어내고 자신도 황급히 발을 놀리며 야차의 도를 피해냈다.

비겁하다는 말을 들은 야차의 눈이 부름 떠졌다.

“내 옆구리에 몰래 칼을 처박은 년이 어디서 비겁하다는 거냐!”

야차가 도를 휘두르며 일령을 뒤쫓았다.

어찌나 화가 나서 눈이 뒤집혔는지 바로 옆에서 주춤거리는 진명은 보이지도 않았다. 옆구리에서는 내내 피가 흘러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피로 찍힌 발자국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광폭한 기세로 일령을 몰아가고 있었다.

일령의 보법은 진명의 생각보다 뛰어났다. 부드러우면서 수시로 변화가 생기는 것이 과연 명문 정파에서 제대로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명은 야차의 공격을 두 번도 제대로 피하지 못했었다. 몸으로 비껴 맞거나 도망쳤을 뿐이다.

“크아아아!”

야차가 비명 같은 고함을 지르며 도를 휘둘러 원을 그려냈다.

워낙 몸놀림이 가볍고 어렸을 때부터 무공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도 제법 들었던 일령이었지만, 고수인 야차의 공세를 계속해서 피해낼 수는 없었다. 야차가 도를 휘두르는 속도가 일령의 신법을 거의 따라잡을 만큼 일령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렇게 깊숙이 칼에 찔렸는데 저만한 무위를 보이다니!’

진명은 새삼 감탄했다. 보기와 달리 내공도 깊은 모양이다. 내공이 깊은 고수는 어지간한 외상을 입어도 일반 사람처럼 쉽게 죽지 않는다.

하지만 감탄할 새에 일령이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잘 피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웃이 베이고 있었다.

내공이 부족하다 보니 호흡을 길게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작 옆구리 한 번 쏘었다고 해서 내가 그리 만만할거라는 생각은 마라!”

야차는 말을 함과 동시에 초식을 전개했다. 좀 전에 진명에게 썼던 바로 그 초식이었다.

“하앗!”

잡음이 섞이지 않은 일월야차는 과연 무서운 한 수였다.

더군다나 야차는 뒷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상대를 죽이겠다는 동귀어진의 일념으로 덤벼들고 있었다.

## 武極 - Story Book

“이런!”

이런 상대에게 맞선다는 것은 나 역시 죽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다. 일령은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살짝 틀어 퇴로를 살폈다.

그러나 그 순간, 야차의 눈이 번뜩였다.

파앗!

야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공세를 바꾸며 일령의 허리를 베어갔다. 퇴로를 보는 순간 이미 자세가 흔들렸던 것이다.

일령의 가느다란 허리가 당장에라도 두 동강이 날 것 같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명이 있었다.

진명은 성큼 일령과 야차의 사이에 뛰어들며 망가진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패왕거정을 시전했다.

쿠웅.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웅후한 기세로 진명의 주먹이 뺨어갔다.

야차는 순간 거대한 왕의 모습을 본 기분이 들었다.

그런 기분이 든 순간 이미 야차의 도는 튕겨나고 있었다.

“뭉.... 뭉!”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일령이 몸을 튕기며 야차의 품으로 파고 들었다.

일령의 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갈비뼈를 파고 들어 야차의 심장을 꿰뚫었다. 일령이 야차의 복부를 걷어차며 뒤로 물러나자 야차의 가슴에서 한자도 넘게 핏줄기가 솟구쳤다.

“크아아아!”

옆구리의 부상이 깊었던 까닭에 끝까지 힘을 심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다. 실력 없는 애송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럴 수가..... 나 야차가 한날 애송이들에게..... 커억!”

야차의 입에서 울컥대며 한 웅큼의 핏덩이가 튀어나오고, 이어 흥건하게 피가 쏟아졌다.

“크크... 크크크...”

야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았다. 제대로 싸웠다면 그리 쉽게 당하지 않았을 그의 부하들이 척후조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대가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있었다. 야차 부대는 이미 궤멸 직전이었다.

야차의 눈이 진명을 향했다. 진명은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었지만 억지로 주먹을 들었다.

그러나 야차는 그저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이었다.

“애송이 놈..... 다른 건 몰라도..... 네 놈의 나한권만큼은..... 진짜배기구나. 크크.”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야차의 눈이 뒤집어 졌다.

쿵, 소리를 내며 거구의 몸이 땅 위로 쓰러졌다.

간신히 위기를 넘긴 일령은 멍한 표정으로 쓰러진 야차를 바라보다가 진명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럴 수가! 진 형이.....”

“내가 뭐?”

“그러니까 진 형이..... 아아, 그러니까 진 형이 내 목숨도 살리고 흑도군의 대장도 죽이고 보기에도 엄청나 보이는 부상을 입었는데 셋 다 너무 충격적인 터라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어!”

너무 솔직한 심정을 내보이는 일령은 더할 나위 없이 귀여웠지만, 진명은 그런 것을 느낄 새가 없었다.

“척후조는? 척후조는 어떻게 됐어?”

“아아....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심맹에서 나섰으니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을 거야.”

사실은 거의 다 죽었다. 사람들이 한쪽에 몰려 있는걸 보니 한 명 정도는 부상을 입은 채로 살린 모양이긴 했다.

하지만 일령은 차마 진명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후우... 그래. 그거 다행이다.”

## 武極 - Story Book

그 말을 듣고 난 진명은 그제서야 땅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명은 이제 더 이상 서있을 힘도 없었다. 온 몸이 덜덜 떨리며 눈 앞이 캄캄해져 왔다. 평생 모아온 기력을 한 순간에 다 소진한 듯 피로가 몰려왔다.

“진 형, 괜찮아? 엄청나게 아파 보여.”

“난 괜찮아. 난 그래도 살아있잖아. 아직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데, 어서가 봐야 할 텐데 이제는 서 있을 기운도 없다.”

“괜찮아. 얼추 정리된 것 같으니까.”

일령이 냉큼 야차의 도를 집어 들었다. 시체를 만진다는 것이 끔찍하기도 했을 테지만, 일령은 인상을 쓰면서도 자신이 할 일을 했다.

칼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든 일령은 있는 힘껏 외쳤다.

“흑도군의 대장이 죽었다! 흑도군의 대장이 죽었다아!”

일령의 말은 거의 끝나가고 있던 전투의 종지부를 찍는 발언이었다.

그 기세를 몰아 평일지가 더욱 거세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야차부대를 없애버린다! 앞으로 흑도군에 야차부대란 이름은 없을 것이다!”

“와아아아!”

터질 듯 간헐있던 물이, 어느 순간 물꼬가 터지면서 와르르 쏟아지듯 단심맹의 무인들이 남은 야차부대를 거침없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일령이 말했다.

“나는 진 형처럼 다친 것도 아니고 사지육신 멀쩡하니 좀 거들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굳이 그럴 것 없어 보이네. 진형, 저거 보여?”

그러나 진명은 야차의 시체 옆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있었다. 깜짝 놀란 일령이 진명의 상체를 살폈지만, 진명은 탈진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든 상태였다.

일령이 잠든 진명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아아. 그래, 좀 자라구. 나중에는 유명세를 톡톡히 치뤄야 할 테니까. 혼자서 겁도 없이 달려나가 흑도군의 대장을 죽이다니..... 그것도 나한권 일초식 밖에

모르는 초짜가 말이지.”

‘여긴... 어디?’

진명이 눈을 뜬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환한 빛이 진명의 눈을 찔러왔다.

진명이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하나 섬뜩한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누군가의 허연 머리칼이었다.

“으으..... 아앗!”

진명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가 입은 부상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지끈!

진명은 비명도 못 지르고 입을 벌린 채 도로 침상 위에 드러누웠다.

“쫓쫓..... 황천길 유람이 그리 쉬운 줄 아나. 남들은 돈 주고도 못 가볼 데를 혼자 다녀왔으니 몸이 개꿀이 날만도 하지. 아, 좀 더 누워있어.”

그러나 진명은 이 친절한 말에 외려 겁을 먹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눈 앞에 있는 노인은 바로 당가의방의 당청이었던 것이다.

“내, 내가 왜 여길 또..... 아니, 노인장은 그래 놓고 치료비를 얼마나 받으려고...”

한 번 호되게 바가지를 쓴 적이 있는 진명으로서도 다시금 당가의방 한 구석에 몸을 누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스러웠다.

의원이 진명을 향해 실실 웃기 시작했다.

“자네는 앞으로도 한 보름쯤은 더 정양을 해야 할 테니... 어디 보자, 지난번엔 얼마를 받았었더라? 2백 냥? 3백 냥?”

“노인장! 으.....!”

소리를 치며 일어나려던 진명은 아찔한 통증에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의방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며 말했다.

“영감, 좀 어지간히 좀 하슈.”

# 武極 - Story Book

## 제 18 화 [인정]

“누구.....?”

진명이 눈을 떠서 살피니 화산의 속가제자라던 임완춘이었다.

임완춘은 진명에게 한쪽 눈을 찡긐하며 당청에게 하던 말을 이었다.

“기껏 살려놓은 환자를 도로 죽이려는 그 심보는 대체 뭐요? 이 친구 얼굴이 허영게 질린 것 좀 보라지.”

당청이 임완춘에게 눈을 흘겼다.

“아, 이 놈이. 왜 와서 남의 장사를 망치려 들어? 그럼 네가 대신 내줄테냐?”

“으엥? 내가 왜?”

“그럼, 날더러 흠 퍼다 장사하라는 거냐?”

“에그, 영감. 장난인 거 다 아니까 그만 하시래두. 야차를 죽인 놈이 누구냐며 한사코 이 놈은 자기가 데려다 살려놓겠다고 떼 쓰던 양반께서 왜 이러셔? 아, 그게 다 돈 벌려고 그런 거였던 말요?”

임완춘이 당청의 칼칼한 목소리까지 흉내 내며 너스레를 떨자 결국에는 당청도 히죽 웃어버렸다.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진명이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임완춘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아니, 진 소협. 모르고 계셨소? 아차, 내 정신 좀 봐. 이제까지 죽은 듯 쓰러져 있었으니 모르고 있었겠구만.”

“뭘 말입니까?”

“진소협이 야차를 죽인 거 말ियो. 그 일로 다들 난리도 아니외다. 흑도군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던 야차를 죽이다니..... 그것도 무명의 진 소협이 말ियो. 암튼 단심맹의 수뇌 회의에서까지 거론되었다니 진 소협은 그야말로 강호신성(江湖新星)이 되었소이다.”

진명의 얼굴이 벌개졌다.

“강호림신성이라니... 그 무슨...”

“더군다나 나한권 1초식만으로 야차를 격파했다지 않소? 과연 소림은 소림이라며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요. 진형 덕택에 소림의 무공교두인 범여대사께서는 나한권을 배우려는 자들이 늘어나 주무실 틈도 없다 하지 않겠소? 진 소협 그리 안 봤는데..... 허허, 생긴 건 이리 순박해 배도 숨은 고수였잖소!”

그 말에 진명이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내가 나한권 1초식만 쓴 것은 고수라서가 아니라 할 줄 아는 무공이 그것밖에 없어 그런 겁니다.”

“.....엥?”

임완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진소협이 겸손한 거요, 아니면 설마 진짜 초짜인 거요? 아니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초짜가 야차를 죽였다고?”

진명의 얼굴이 좀 전보다 더욱 붉어졌다.

“사실 야차를 죽인 건 제가 아니라 일령입니다.”

“무슨 소리요. 야차의 도를 박살내고 가슴을 때려 부셨다던데.”

진명은 어딘가 소문이 와전되었다는 걸 알고 ‘하하’ 웃었다.

진명의 얼굴에서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임완춘은 결국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뭘, 어쨌든 간에 이걸 어쩌면 더 놀라운 일이로군. 정말로 나한권 밖에, 그것도 일 초식 밖에 모르는 진 형이 그 야차를 죽였다니. 하, 이것 참. 각 파의 후기지사들이 듣는다면 기절초풍을 할지도 모르오. 진형,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랴.”

진명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임완춘은 은근슬쩍 진명에 대한 호칭을 진 소협에서 진 형으로 낮췄다.



## 武極 - Story Book

그러나 진명은 딱히 불쾌해하거나 하지 않았다. 어차피 소협이라는 호칭은 자신에게 낯설다고 생각했었던 탓이었다.

“순전히 운이 좋았던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일령 아우도 함께 했었고..... 아, 맞다. 혹시 일령 아우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일령이 마치 호랑이가 때 맞춰 들어오듯 당가의방 안으로 들어섰다. 진명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운 기색이 가득했다.

“우와. 진형, 이제 깨어난 거야?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응. 고마워.”

일령이 쑥스러운 듯 혀를 살짝 내밀었다.

“뭘. 걱정에 돈 드나.”

“어디 다친 데 없어?”

“응. 나야 뭐 한 것도 없는데.”

“한 게 없다니. 아우가 검을 던져 날 구해주지 않았으면 난 아마 죽었을 거야.”

“진형도 내 목숨을 살려줬잖아. 헤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서로 생명의 은인이네.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겠나.”

임완춘이 끼어들었다.

“어허..... 환자를 문병 왔으면 상세를 묻고 쾌유를 빌어야지, 니가 좋네 내가 좋네 그런 청춘놀음이나 하고 있으면 쓰나 어디.”

“에엑?”

일령이 대번에 정색을 했다.

“이 양반이 대낮부터 실성을 했나. 진형하고 내가 뭘 어쨌다고 청춘 놀음이래? 어서 그 말 취소하지 못해요?”

“쫄쫄. 조신해야 할 처자가 그리 펄쩍 뛰니 더 수상해. 암, 그렇고말고. 영감님도 그게 좀 수상하지 않소?”

당청이 머리칼만큼 하얀 쥐꼬리 수염을 설레설레 흔들었다.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에잉, 쫄쫄.”

양쪽에서 쌍으로 혀를 차대니 일령은 더욱 기가 막혔다.

가뜩이나 지난 번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하는 터라 검로(劍路)가 막힐 지경인데, 옆에서 부추기니 공연히 더 안달복달하는 심정이 되는 것이다.

“아, 진짜! 의원님까지! 그런 게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

“아, 아님 말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이 자가 자빠져 누워있는 삼일 내내 왜 호랑이 콧감창고 드나들 듯 바빴누? 막말로 지는 다친 데도 없으면서.”

일령이 당당하게 말했다.

“그거야 진형이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아, 그쪽도 이쪽 구해줬다며. 그럼 똑 같은 거 아냐? 그것도 빛이라고 우길 셈이야?”

“씨이! 그런거 아니라니깐!”

참다 못한 일령이 벌떡 일어섰다.

평소 같으면 누가 무슨 농을 지껄이던 여우 같이 맞받아칠 수 있는 일령이지만, 지금은 표정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었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진 형! 나 그냥 갈래!”

일령이 정말로 갈 것처럼 팩 돌아섰다.

그 등 뒤로 진명이 입을 열었다. 그 역시 임완춘과 당청이 합세해서 일령을 몰아세우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중이었다.

청춘 놀음이니 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과 일령 사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기도 어쩐지 민망했던 것이다.

“일부러 들러줘서 고마워, 아우. 아우도 할 일이 있을 텐데...”

“당연하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 진형한테 전할 말이 있어. 나 참. 이 얘기를 안하고 그냥 갈 뻔했네.”

돌아서던 일령이 다시 진명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안정을 찾은 일령은 새침한 눈빛으로 임완춘과 당청을 쏘아보았다.

“땃들이 실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내가 왜 여기 왔는지도 까먹을 뻔 했잖아요. 앞으로 잠자코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 뭐 내가 틀린 소리 했나...”

## 武極 - Story Book

“시끄러워!”

일령은 최대한 위협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욕박을 질러준 다음에 진명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진형. 그 척후조 말이야.”

척후조라는 말을 들은 진명이 영겁결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척후조! 척후조는 어떻게 됐어? 살았..... 아웁.”

물론 잠시 뒤에 온 몸이 쑸다는 것을 느끼고 도로 드러눕긴 했지만.

“진형. 좀 조심해. 아무튼, 많이들 애쓰긴 했는데 평일지 그 바보 새끼가 똥을 들이는 바람에 많이 죽었어. 구해낸 사람은 셋이었는데, 그 중 둘은 부상이 너무 심해서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았어. 그런데 확실히 척후조가 뭔가 대단한 비사를 캐온 모양이야.”

당청과 임완춘 역시 진지한 표정이 되어 일령을 주목했다.

장안성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 좀 더 보태서 모두의 생사와 연관되는 일이라고 보아도 무방했다.

그러니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령이 오히려, 하는 작은 헛기침을 한 다음 말을 이었다.

“자세한 건 나도 말해줄 수 없어. 이걸 일러준 사고(師姑)가 수뇌부 회의에서 기밀로 정한 사항이라고 나한테도 입 닫았거든. 어쨌거나 척후조가.....”

“잠깐!”

임완춘이 재빨리 일령의 말을 끊었다.

“아, 왜요?”

“사고께서 단심맹의 수뇌부라고 한다면..... 아니, 그렇다면 최소한 한 문파의 장로급은 되어야 한단 애긴데 대체 이렇게 어린 소저가 어떻게 해서 그만한 배분을 갖고 있는 거지?”

일령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내 사부가 금정신니니까. 물론 돌아가시긴 했지만...”

“헉! 그 아미파의 금정신니께서 소저의 사부였다고? 그게 정말이오?”

“아니, 내가 왜 그런걸 거짓말 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허어, 허어.”

임완춘이 입을 딱 벌린 채 콧김을 뿜어냈다.

‘이럴 수가. 내가 두 눈을 뜨고도 숨은 보석을 몰라봤구나. 무공이라면 몰라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한 임완춘이었는데..... 아이고, 이를 어쩌나.’

처음에는 둘 다 일 년 안에 죽겠거니 했다. 실력은커녕 배경도 쥐뿔도 없는, 그나마 운 좋게 한 초식 배워 속가제자라는 말을 달고 있는 잡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명은 금정신니의 직전제자였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야차를 죽임으로써 일약 장안성의 떠오르는 후기지수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본다면 그 간간하고 오만방자한 평일지보다는, 이 사람들 옆에 붙어 있는 게 주워먹을 떡고물이라도 생겨날지 몰랐다.

거기까지 생각한 임완춘이 당장에 표정을 바꿔가며 해살해살 웃어댔다.

“아이고, 이거 내가 눈 구멍이 잘못 뚫렸는지 우리 일령 소저를 몰라 뵈었소.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

“됐어요. 내가 누구 제자라고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나 말 계속해도 되죠?”

“아, 되다마다. 어서 하십쇼.”

일령이 다시 진명과 시선을 맞추었다.

“그래서 척후조가 알아온 사실 때문에 조만간 단심맹에서도 뭔가 큰 일을 할 건가 봐. 장안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개편도 있을 거고. 사실 그간 정파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였으니 중구난방으로 얹히긴 했지. 그간 죽은 사람들 빈 자리도 채워야 하고. 그래서 일단 무공이 고강한 구대문파의 사람들을 요직에 기용할건데, 으흐흐 놀라지 마시라. 수뇌부에서 진형을 크게 생각하고 있대나봐.”

“뭐?”

“뭐라고?”

임완춘과 진명이 동시에 외쳤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스스로 그럴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령이 전해준 말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그건..... 말도 안돼. 난 그럴 자격이 없는데. 령 아우 뭔가 잘못 안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진형 때문에 사흘 내내 사고한테 붙들려 있었는데. 막상 소림 내에서도 진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나한테 꼬치꼬치 캐문잖아.”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일령이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째서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야? 진형이 아니었으면 우린 척후조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알 길이 없었을 거라고. 진형은 척후조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장안성 전체를 위기에서 구한 셈이야.”

진명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건 사실과 틀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진형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었던 거야. 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때였다.

“그것은 인정할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엄격한 목소리가 느닷없이 일행에게 들려왔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일행들은 깜짝 놀라 의방의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버..... 범여대사!”

가장 먼저 얼굴을 알아본 임완춘이 소리쳤다.

소림의 무공교두인 범여대사가 눈 앞에 있었다.

쉴 틈도 없이 바쁘다는 그가 몸소 이곳 의방 거리까지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불 일이 있었다는 뜻이고, 지금으로선 그 불 일이 진명이라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사문의 존장을 본 진명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마음 같아서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으로는 달달 떨어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진명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본 당청이 인상을 핵 찌푸렸다.

“에잉.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범여는 엄격한 표정으로 후들거리는 진명을 바라볼 뿐이었다.

참다 못한 일령이 나섰다.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범여가 진명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는 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외다.”

진명은 실망하는 자신의 표정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나 역시 내가 그럴 자격을 갖췄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일부러 여기 까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할 정도라니. 나도 참 여러모로 한심한 인간이구나.’

진명은 쓰린 속을 삼키며 지그시 입술을 물었다.

참다 못한 일령이 예의를 벗어 던지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째서요? 진형은 이미 큰 일을 해냈어요! 그건 대사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던 것일 뿐! 부처의 보살품이 있었기 때문이오. 고작 그 일로 기고만장하여 본분을 잊는다면 그것은 소림의 이름에 흠칠을 하는 일이오.”

“뭐라고요? 지금 진형 때문에 사람들이 소림, 소림 입에 달고 사는 게 안보여요? 그게 어떻게 흠칠을 하는 거냐고요!”

“남들이 추어준다고 그 장단에 맞춰 자신을 잊는다면 그것 또한 소림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외다.”

범여가 진명을 보고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 말이 틀렸느냐?”

진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범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흥. 대답이 없는걸 보니 네 놈은 고작 나한권 1초식을 배운 녀석이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구나?”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힘들게 고개를 숙였다.

“대사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자는 그럴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주제는 제대로 알고 있으니 다행이구나. 내 그렇게 생각해서 너에게 단심맹의 요직을 맡기겠다는 수뇌부의 요청을 물렸다.”

“아앗! 어째서 그런.....”

정작 진명은 가만히 있는 임완춘이 호들갑스럽게 나섰다.

그러다 진명과 범여가 조용히 쳐다보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물러났다. 그로서는 큰 떡고물이 날아간 셈이었다.

진명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알겠습니다. 제자, 감사 드립니다.”

범여가 그런 진명을 잠시 바라보았다.

통 무슨 생각을 할 수 없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리 같은 표정으로 호통을 치더니, 다시 만난 지금은 그렇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거리감을 두게 한다.

잠시 후에 범여가 말했다.

“몸을 좀 추스를 수 있게 되거들랑 나를 찾아와라. 2초식을 가르쳐주마.”

“예? 아, 하지만 제자는 아직 대사께서 일러주신 1초식의 수련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잔 말이 많구나.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말을 끝으로 범여는 매정하게 보일 정도로 획 돌아서서 당가의방을 나섰다.

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일령이 입술을 비죽대며 말했다.

“뭐야?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심보 고약한 양반 같으니라고.....”

그러자 당청이 끼어들었다.

“하여간 요새 것들은 생각이 모자라 다니까. 저건 심보가 고약한 게 아니라 사람이 무른 게다.”

“어째서요? 저렇게 얄밋게 말하는데!”

“못되게 굴 참이었으면 예까지 직접 와서 열린 무공부터 배우라고 훈수 두겠

냐? 큰 일을 할 인물이 아니라는 건, 아직은 큰 일을 할 만한 놈이 못되었다는 소리야. 그러니 어서 와서 가르침을 받으란 소리고.”

“응? 그러니까 결론은 무공 배우러 오라 그 소리였다고요? 그 말을 왜 저렇게 해요, 그럼?”

“그거야 사람 성격이지!”

답답해진 당청이 뻥 소리를 지르자 일령이 입을 뻐죽 대며 한 발짝 물러났다.

“그러니까 성격 나쁜 건 맞네, 뭐.”

당청이 일령에게 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진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범여대사에게 2초식을 배우려면 아직 멀었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

그러자 당청이 혀를 찼다.

“쫄쫄... 이 놈은 진짜 큰 일하긴 글렀군. 이렇게 앞 뒤로 꺾꽂이 막혀서야 어디..... 아, 저 양반이 바보냐? 네 놈이 1초식을 다 배웠으니까 다음 2초식을 가르쳐 준다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아직 1초식을 다.....”

“에그, 멍청한 놈. 네 놈이 1초식을 다 못 익혔으면 어째 야차 놈 털 끝이라도 건드려봤겠냐?”

“.....예?”

진명이 멍한 표정으로 있자 당청은 그를 억지로 제자리에 눕혔다.

“어서 낫기나 해, 이놈아! 그래야 2초식이든 3초식이든 배우러 갈 거 아냐!”

“... ..”

침상에 도로 누운 진명이 갑자기 웃음을 지었다.

갑자기 몸이 씻은 듯이 나은 기분이었다.

‘조금은..... 나도 인정을 받게 된 건가.’

과연 나한권의 2초식은 어떨지, 그 생각만으로도 진명은 가슴이 벅차 올랐다.



## 武極 - Story Book



# 武極 - Story Book

## 제 19 화 [고수반근]

진명이 범여를 찾아간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며칠 후였다.

오른손의 주먹이 상한 것을 빼고는 용케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다만 기력이 크게 쇠했고 내상이 있어 며칠 요양을 해야 했던 것뿐이다.

그럼에도 당청은 아직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머리칼을 쥐어뜯어가며 말했다. 하나 더 이상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가 없던 진명이었다.

진명은 결코 무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둬두고 나서야 단심맹으로 향할 수 있었다.

일전에 찾았던 단심맹 훈련관 내의 연무장으로 가는 진명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걸음걸이만 볼 땐 그가 부상을 당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연무장의 광경은 진명이 처음으로 범여를 봤을 때와 똑같았다.

진명은 그날처럼 범여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제자 왔습니다.”

범여가 힐끗 진명을 쳐다본다.

“몸은 다 추스른 게냐?”

“행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듯 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범여는 그 말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어리석은 놈. 야차가 네 놈의 무식함에 질린 게로구나.”

“... ..”

진명은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범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은 그로서도 괴로운 일이었다. 어쨌거나 범여는 사문의 존장이며, 지금으로서는 그에게 무공을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알아 주실 거다.’

외려 진명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채찍질했다.

범여는 진명에게서 눈을 돌려 수련 중이었던 무인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의 배움은 이것으로 마친다. 수련이 더 필요한 자들은 원하는 대로 연무장을 써도 좋다.”

범여에게 나한권을 배우고 있던 무인들이 진명을 보며 수근 났다.

그 중 한 명이 진명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 혹시 야차를 때려 잡으셨다는 그 진 소협이십니까?”

진명이 쑥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야차를 죽인 것은 제가 아니라 일령 아우.....”

그러나 진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인들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어렸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야차를 때려 눕히다니.”

“역시 소림의 나한권이군요.”

“나도 나한권만 죽어라 수련해서 진 소협 같은 고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찬사를 던지는데 진명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다.

범여의 얼굴이 찡그려졌다.

“공(功)보다 명(名)이 앞서는구나. 소림의 제자라는 놈이 허울뿐인 얘기를 듣는 것이 그리 기쁘더냐?”

진명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긴!”

범여의 눈썹이 도끼처럼 치켜 올랐다.

나한권을 배우던 무인들은 범여의 표정이 험악해지자 슬금슬금 물러났다.

범여가 진명에게 눈짓을 했다.

“아무래도 안되겠으니, 넌 나를 따라 오너라.”

##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묵묵히 범여의 뒤를 따랐다.

범여가 진명을 데려간 곳은 연무장 한쪽 구석의 작은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머리통 굵기만한 크기의 목각 인형이 몇 개 서 있었다. 높이는 장정 하나가 서 있는 정도였다.

범여는 개중 가장 앞에 있는 인형 앞에 섰다.

“한 초식당 한 번이다.”

“.....예?”

진명이 의아한 눈빛으로 범여를 바라보았다. 범여는 설명을 대신해 시범을 보였다.

“고수반근! 야차탐해! 추창량격!”

범여의 입에서 나한권 2초식의 초식명들이 연이어 흘러나왔다. 동시에 퍽퍽 울리는 묵직하고 청량한 타격음도 들려왔다.

“와서 보아라.”

그 말에 진명이 목각 인형 앞으로 다가갔다. 인형의 상, 중, 하단에 각각 범여가 남긴 나한권의 흔적이 깊이 패어 있었다. 한 눈에도 범여의 주먹에 실린 힘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범여의 말이 이어졌다.

“지금 내가 말고 있는 이 연무장에 나한권의 1초식 밖에 모르는 자는 너밖에 없다. 따라서 네 녀석이 지금 연무장에 와서 무공을 배우려 해도 진도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기회를 주마. 나한권의 2초식을 한 번씩 시전 해서 이 정도의 흔적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연무장에 와서 수련을 해도 좋다.”

진명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바위도 아니고 나무에 주먹 자국을 새기는 것은 힘들지만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다. 진명은 자신감을 갖고 목각 인형 앞으로 다가가서 자세를 잡았다.

그러나 범여가 진명을 말렸다.

“그게 다가 아니다.”

투독.

동시에 진명의 발 밑으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팔다리에 묶거라. 앞으로의 수련은 항시 그것들을 착용하고서 진행한다.”

진명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웠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들은 철로 만들어진 둥글넓적한 환이었다.

“철환(鐵丸)?”

모두 네 쌍인 것으로 보아 각각 양 팔과 다리에 착용하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진명은 시키는 대로 철환을 착용했다. 양쪽에 연결고리가 달려 있어서 착용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옥!”

철환을 팔에 착용하자 마자 팔이 축 늘어졌다.

“이, 이건....!”

엄청난 무게감이 양 팔과 양 다리를 꼭 누르고 있었다. 진명의 몸이 성할 때였더라도 이 정도 무게였으면 분명 버거웠을 것이다.

진명이 휘청대며 일어서자 범여가 그를 보며 비웃듯 말했다.

“왜? 못하겠느냐?”

진명이 입술을 꼭 물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식은 땀이 뻘뻘 났다.

‘도... 도대체 몇 근이나 되길래.’

진명은 천천히 심호흡을 한 다음 천천히 발을 움직여 목각 인형 앞에 섰다.

범여는 그 맞은 편으로 가 진명을 마주 보았다.



## 武極 - Story Book

“내가 다시 시범을 보이겠다. 두 번은 하지 않을 것이니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거라.”

범여는 다시 한 번 나한권의 2초식을 선보였다.

좀 전 목각 인형을 상대로 했을 때와는 다르게 속도를 약간 늦춰 진명이 잘 볼 수 있도록 한 시범이었다.

범여의 나한권은 어느 때처럼 절도 있고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간 진명도 나한권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일까. 처음 장안성에 와서 범여를 보았을 때만큼 강렬한 충격은 느껴지지 않았다.

‘저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터무니 없이 무거운 철환만 아니라면.’

진명이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범여대사는 내가 다른 소림의 제자들처럼 연무장에서 수련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걸까.’

진명 역시 이런 식의 수련 방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외공을 위주로 하는 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 연무장 안에서 본 그 어떤 소림의 제자도 철환을 두른 채로 수련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 입으로 하겠다 했으니 그저 꼭 참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범여가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다.

“철환 하나가 20근이다. 너무 가볍다면 말하거라. 더 무거운 걸 준비해줄 테니.”

진명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2초식의 시연을 마친 범여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진명을 내버려둔 채 그 자리를 떠났다.

“후우.....”

얼음장 같은 범여가 떠나자 저절로 입에서 한숨이 나왔다.

진명은 일단 한 번 해보거나 하자라는 마음에 주먹을 뺐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이럴 수가!’

무거운 철환을 매단 그의 주먹은 매우 느렸다. 그리고 느려진 만큼 터무니없이 약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팔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다.

팔뚝이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하다못해 주먹을 내뺐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렇게 느리고 약한 주먹으로는 나한권을 아무리 정확하게 시전 한다고 한들 어린아이도 혼내줄 수 없을 것이다.

‘장난이 아니구나.’

양 팔과 다리에 매달린 철환이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지는 진명이었다. 그리고 마음은 그보다 갑절이나 더 무거웠다.

이 상태로라면, 범여가 말한 대로 목각 인형이 움푹 패일 정도로 권흔(拳痕)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결코 쉽게는 제자로 인정해주시지 않겠다는 건가.....”

진명이 저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곧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게 아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야. 한다고 했으니 끝까지 해보는 거다.’

진명은 이를 악물고 초식을 전개했다.

“고수반근! 야차탐해! 추창량격!”

온 몸에 빠근하게 통증이 몰려들었다. 사지가 부르르 떨려왔다.

너무 힘들어서 단초식 하나를 전개할 때마다 쉬어야 했다. 힘이 점점 떨어지면서 초식 하나를 미처 끝내기도 전에 주저앉기도 했다.

하지만 진명은 포기하지 않았다.

느리고 무겁게, 괴롭고 지루하게 나한권의 이 초식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헉헉.....”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진명의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들었다.

이마로부터 구르는 땀 방울 하나가 진명의 속눈썹에 매달렸다. 진명은 눈을

## 武極 - Story Book

비비기 위해 잠시 초식을 멈추고 손을 들어올렸다.

그런데 손이 들리지 않았다. 철환이 너무 무거워 땀을 닦을 수도 없었다.

“으...”

흥건히 젖은 소맷자락에는 땀만 묻어있는 게 아니었다. 군데군데 붉은색도 번져 있었다. 야차에게 당했던 상처가 터진 모양이었다.

진명은 아예 겉옷을 벗어 던졌다. 몸은 그만 쉬라고 백적지근한 비명을 질러대는데, 진명에게는 그 소리가 통 들리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를 대신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임완춘이었다. 그 역시 새로운 무공을 전수받기 위해 훈련관에 드나들고 있었던 것이다.

“어이쿠, 진 형!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요? 흐억!”

임완춘은 진명을 들어 올리다 말고 기겁을 했다. 덕분에 진명은 다시 툭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눕혀졌다.

“뭐, 뭐야! 왜 이리 무거워! 천근추의 수법이라도 수련중인 거요?”

“아닙니다.”

진명이 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임완춘이 이상한 얼굴로 물었다.

“그러나 저러나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예는 왜 온거요?”

“저야 범여대사께 나한권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는 임 형께서는 어떤 일이십니까?”

“훈련관에 드나드는 이유야 뻔하잖소. 나 역시 화산파의 무공을 배우기 위해 왔지. 속가때 못 배우던 무공도 지금은 배울 수 있으니. 그런데 진 형은 왜 연무장에 있지 않고 여기서 혼자 있는 거요?”

“아, 범여대사께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배움이 일천하여 연무장에 있는 다른 자들과 진도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군요.”

“으앵? 그가 정말 그리 말했소?”

임완춘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니, 어차피 다들 무공을 배우는 시기가 달라서 진도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하필 진 형에게만 그러실까. 응? 그런데 진 형이 팔에 매달고 있는 건 뭐요? 혹시 암기요?”

“예? 암기라뇨. 이것은 철환입니다.”

“철환?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왜 그런걸 매달고 있소?”

“이것 또한 범여대사께서 내주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매달고서 수련의 성과를 내어야 합니다.”

임완춘이 질렸다는 표정을 혀를 내둘렀다.

“나 참.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거웠지. 정말이지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군. 아니, 그 양반 아무리 진 형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하지 않소? 철환을 매달고 하는 수련이라니. 이런 조잡한 수는 외문기공을 익히는 자들이나 하는 짓 아니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께서 부러 시키신 일이니 분명 다른 뜻도 있겠지요.”

“그런게 어디 있소? 진 형도 참 답답하오. 지금 사람들은 진 형을 칭찬 못해 야단인데 왜 굳이 이런 구박을 건디고 계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범여 대사께 가서 한 마디 하시오! 무공을 가르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괴롭히느냐고. 진 형도 그렇소. 무공이 어디 소림 것만 있소? 예서는 얼마든지 다른 파의 무공도 배울 수 있지 않소. 범여대사께 배울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파로 가시오! 우리 화산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무공이 있소이다.”

그 때였다.

“뭐라고? 화산이 그리 만만한 곳인 줄 아느냐? 소림에서도 내친 딸거지들이나 받아주게?”

임완춘의 등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드러나는 얼굴은 유감스럽게도 화산파의 후기지수 평일지였다.

# 武極 - Story Book

## 제 20 화 [성장]

평일지는 자신을 따르는 화산파의 무리들과 함께 진명이 수련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섰다.

그 무리들은 대개 화산의 속가제자들이었는데, 장안성 내에서 화산파의 입지를 믿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자연 이들의 눈에 진명이 곱게 보일 리 없었다.

진명은 억지로 힘을 내어 일어섰다. 그리고는 평일지를 향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어디까지나 소림의 제자요. 그쪽의 생각대로 화산의 무공을 얻어 배울 생각은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오.”

그러자 평일지 무리 중 하나가 썩 나서서 외쳤다.

“무례하기 이를 데 없구나! 감히 누구 앞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강호의 배분으로 따져도 평 대협께서 한참은 윗 분이거늘.”

“오해하지 말라는 내 말이 뭐 잘못되었소?”

진명이 곱힘 없이 따지고 들자 임완춘이 중재에 나섰다.

“아아, 왜 들 이러실까. 장 형, 같은 정파인들끼리 이렇게 살벌하게 굴건 없잖아? 이쪽 진 소협이 아직 뭘 잘 몰라 그러는 건데 한 번 좀 봐주라고.”

화산파의 무리들은 임완춘 역시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

처음 장안성에 왔을 때 임완춘 역시 그 무리와 어울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적이 있었다. 물론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장 형이라 불린 자가 임완춘에게 고까운 시선을 던졌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야? 저 놈이 좀 뜯다 싶으니 그새를 못 참고 이쪽에 들러붙은 거야? 거 참, 떨어지들끼리 알아서 잘들 논다니까.”

평일지 무리가 깔깔대고 웃어댔다. 어디서나 돈 있고 세력 있는 무리가 더 힘을 쓰기 마련인 것이다.

임완춘은 무안한 표정으로 말 끝을 흐렸다.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두루 사이 좋게 지내자는 건데.....”

참다 못한 진명이 나섰다.

“딱히 다른 볼 일이 없다면 그만 가주시오. 나는 수련을 마저 해야 하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이번에는 다른 자가 말했다.

“수련 중이라고? 이런 구석에서? 찌끄러기들이 어깨 너머로 무공을 훑쳐 배우는 데 아냐. 여기서 대체 무슨 수련을 한다는 거야.”

진명이 입술을 깨물었다.

평소였다면 남들이 뭐라 하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방금 전 범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자신이 내준 과제를 해내면 그때서 연무장에 받아주겠다고.

지금 평일지 무리의 말은 범여의 뜻을 대변하는 듯 해서, 진명은 그게 괴로웠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외다. 나야 사문의 존장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뿐이니. 이제 그만 가주시오.”

진명은 마음을 다잡고 자세를 고쳤다. 저들이 무어라 떠들건 그는 자신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진명이 나한권을 시전 하자마자 자지러지는 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푸하하! 저렇게 느려터진 나한권을 본 적이나 있나?”

“저런 실력으로 야차를 죽였다는 걸 믿을 수가 없군. 혹시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 아냐?”

“나뉘. 저런 놈이니 소림에서도 안 받아주는 게 아닌가. 저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재능이 없는 거라고. 무공을 익힐 팔자가 아닌 게지.”

진명이 속으로 어금니를 물었다.

‘그래. 멋대로 떠들어라. 나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눈썰미가 좋은 평일지는 진명의 나한권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을 알아챘다. 순간 평일지의 안색이 살짝 변했다.

‘범여 대사가 정말로 저 놈을 탐탁지 않게 여길 뿐이라면 굳이 따로 수련을 시킬 리가 없다. 아닌 듯 해도 신경 쓰고 있는 거다.’

그게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대체 왜들 난리인 거지? 고작 이런 떨거지 하나를 가지고.’

진명이 운이 좋아 야차를 죽였다지만, 평일지는 야차부대를 궤멸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소림과 진명뿐이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단심맹의 수뇌부에서조차 진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세대의 단심맹을 이끌 자는 당연히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평일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욕이었다.

평일지가 고까운 음성을 내뿜었다.

“다들 관둬라. 어차피 나한권이야 무공이랄 수도 없는 주먹질 나부랭이니까. 빠르던 느리던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다.”

그 말에 진명이 동작을 멈추고 핵 고개를 돌렸다.

“그 말 취소하시오!”

“뭐?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냐?”

“그렇소. 나는 얼마든지 비웃어도 좋으나 소림은 비웃는 것은 참을 수 없소이다. 나한권은 결코 별 볼일 없는 무공이 아니오!”

“그렇게 말하는 용기가 가상하군. 지금 네 꼴을 보면서도 나한권이 괜찮은 무공이라는 거냐?”

“그렇소! 나한권은 약하지 않소!”

평일지가 싸늘히 웃었다. 내심 그가 노리고 있던 대로 일이 풀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디 한 번 증명해봐라. 그 잘난 나한권으로 말이다.”

평일지가 눈짓을 보냈다. 그의 뜻을 알아차린 화산의 무리들이 재빨리 나서서 진명을 에워쌌다.

“이런 일에는 굳이 평 대협께서 나설 것도 없지. 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이

## 武極 - Story Book

야.”

진명은 굳은 얼굴로 그들을 응시했다.

“누구라도 상관없소. 내가 취소한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진명은 진심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평일지의 입에서 취소한다는 말을 들을 참이었다.

그러자 이제껏 잠자코 있던 임완춘이 진명의 옷자락을 잡아 당기며 그를 말했다.

“진 형. 그러지 마시오. 그러다 큰 일 난다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아, 저 놈들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야비하고 더러운 놈들이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진명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을 지 의문이었다.

“어서 시작하십시오.”

“그럼 사양하지 않겠어. 간닷!”

진명의 앞으로 장 형이라던 자의 검이 휙 날아들었다.

그의 이름은 장이환으로, 제법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꽤 괜찮은 스승을 초빙해 무공의 기본을 닦은 자였다. 엄밀히 말해 특출난 재능은 없었으나 기초가 튼튼한 탓에 화산파의 매화검을 어느 정도까지 익힐 수 있었다.

아마도 이전의 진명이었다면 이 한 수에 가슴팍을 베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명은 일령이나 야차 같은 고수들을 상대하면서 저도 모르게 무공을 보는 안목이 제법 늘었다. 이 자는 확실히 일령이나 야차에 비하면 한 수, 아니 몇 수나 아래였다.

휙

진명은 다리를 움직이기 힘드니 상체만 움직여 그의 검을 피해냈다. 다음에는 진명의 차례였다.

“선인공수!”

부웅

진명이 출수했다.

‘.....!’

그러나 온 힘을 다했음에도 철환을 두른 주먹은 너무도 느렸다. 더군다나 진명은 아직 철환의 무게에 적응하지 못한 터라 그의 선인공수는 원래의 궤도를 벗어나 버렸다.

“하하! 이건 뭐, 우습지도 않잖아?”

선인공수를 간단히 받아 친 그 자는 다른 초식을 전개했다. 진명은 선불리 맞서지 못하고 일단 몸을 움직여 피했다.

그러나 진명이 몸을 피한 그 자리를, 마침 다른 자가 떡 하니 서서 막고 있었다. 진명이 가까스로 방향을 틀어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피했으나, 이번에는 또 다른 자가 진명을 막아 섰다.

‘비겁한 놈들!’

정파인들의 비무에서 이런 식으로 까지 반칙을 일삼는 자는 없었다. 이는 분명 정파의 법도에 어긋나는 짓이었다.

그러나 질투에 휩싸인 평일지는 이 뻔한 반칙을 보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다.

결국 퇴로가 막힌 진명은 매화검에 쫓기다가, 뒤이어 들이닥친 낙영장에 복부를 얻어 맞았다.

“욱!”

부상과 극심한 피로가 겹친 진명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무엇보다 팔다리를 짓누르고 있는 철환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야! 소림의 나한권! 역시 듣던 대로 대단한 무공이구만. 킬킬.”

진명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나한권이 모욕을 당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익!”

그는 기를 쓰고 일어나 다시 화산파의 무리들을 상대했다. 그러나 철환까지 두



# 武極 - Story Book

른 상태에서는 도무지 다수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결국 진명은 평일지 무리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야 말았다.

“아오, 그것들이 정말 사람 맞아? 어떻게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내 이것들을 당장!”

뒤늦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일령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진 형! 내가 복수해줄게! 나랑 같이 가자!”

그러나 진명은 통통 부어터진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여전히 수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일령이 진명의 팔을 붙들고 말했다.

“진 형! 제발 그만 좀 해! 진 형은 분하지도 않아? 진 형은 바보야? 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물러터졌어! 그런 짓을 당하고도 아무 일 없는 척 수련이나 해도 되는 거냐고!”

그러자 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임완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소용 없소이다, 일령 소저. 그런 말은 내가 수백 번도 넘게 했더랬지. 진 형이 어디 콧등으로라도 듣는 줄 아시오?”

진명이 평일지 무리에게 말로 못할 해코지를 당한지 벌써 며칠이 흘렀다.

진명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로지 수련에만 열중했다. 먹고 자는 시간까지 최소한으로 줄여가며 밤낮 가리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임완춘이 옆에서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결코 수련을 멈추지도 않았고, 평일지 무리에 대한 욕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잔뜩 분노한 일령이 귓가에 소리를 질러대도 마찬가지였다.

“령 아우, 이거 놓아줘. 수련을 마저 해야지.”

“지금 그깟 초식 몇 개 더 익히는 게 중요해? 진 형이 직접 나서기 싫다면 단심맹에 고발이라도 해! 화산파만 믿고 까부는 그 놈들이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피해? 이 놈들, 그냥 나뒹다가는 더 기고만장할거라고! 진 형이 안 가겠다면 나라도 단심맹에 가겠어!”

진명이 나직하게 말했다.

“고발하고 말 것도 없어. 내가 먼저 덤빈 것이고, 실력이 안되니까 얻어맞은 것 뿐이야.”

“그 놈들은 다수였잖아! 비겁하고 치사했다고!”

“언제 어디서나 일대일 비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치사할 것도 없어.”

“그 놈들이 사파야? 아니면 마교야? 같은 정파인끼리 그랬다면 작정을 하고 진 형을 노린 거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이건 더 나아가 소림까지 우습게 본 거라고!”

그 때였다.

퍼억

갑자기 진명의 주먹이 획 앞으로 뻗어나간다 싶더니 목각 인형의 가슴 부분에 꽂혔다. 진명의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지, 진 형...”

일령과 임완춘이 깜짝 놀라 진명을 바라보았다.

진명은 심호흡을 깊게 한 다음, 천천히 주먹을 거둬들였다. 진명의 나한권이 꽂혔던 부분은 범여가 그랬을 때처럼 움푹 패여 있었다.

그것을 본 진명이 입을 열었다.

“아우 말대로 그 자들은 소림을 우습게 봤어. 내 모자라는 실력을 보고 소림을 비웃었던 거야. 그러니 나는 내 실력으로 소림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실력으로.”

결코 적지 않은 무게감이 실려있는 말이었다.

진명은 수련을 하느라 잠시 흐트러졌던 무복을 가다듬고는 말했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령 아우, 같이 가주겠어? 물론 임 형께도 부탁드립니다.”

임완춘과 일령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진명이 나서겠다는데 굳이 말릴 생각은 없었다.

화산파의 무뢰한들에게 얻어맞은 지 일주일만의 일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진명 일행이 향한 곳은 단심맹의 너른 연무장이었다.

이 시간대에는 화산파의 무공 수련이 있었는데, 평일지를 제외한 일행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수련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연무장으로 들어서는 진명을 발견한 평일지 일행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야, 저거. 지금 우리한테 오는 건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진명은 똑바로 장이환을 향해 갔다. 그리고 정중한 태도로 포권을 취한 다음 말했다.

“일전에 소림의 나한권에 대해 몸쓸 말을 했던 일 때문에 왔소. 나는 아직 그 말을 취소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소이다. 가능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하오.”

장이환이 피식피식 웃어댔다.

“뭐라고? 지금 일부러 시비를 걸러 왔다는 것인가?”

“아니오.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취소한다는 말을 들으러 왔소. 물론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은 자는 화산파의 평일지 대협이니 그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던지 아니면 그를 이곳으로 모셔왔으면 하오.”

그 말에 장이환을 비롯한 화산파 무리는 박장대소를 했다. 장이환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때 내가 새겨준 검상이 아직도 다 낫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또 무슨 놈의 배짱인지 모르겠군. 정 원한다면 다시 덤벼라! 오늘도 네 놈이 살아남는다면 내가 네 목을 내놓겠다!”

“평일지 대협은 부르지 않을 것이오?”

“평 대협까지 갈 것도 없다! 네 놈은 내 손에서 요절이 날테니까!”

장이환이 다짜고짜 매화검의 일초를 날렸다. 비무의 예고 대련의 법도고 무시한 행동이었다. 진명은 주먹을 말아 쥐며 그에 맞섰다.

쉬익, 부웅

진명의 주먹이 유연하게 뺨으며 선인공수의 일 초를 그려냈다.

“선인공수!”

진명은 나한권을 강조라도 하듯, 똑똑히 초식의 이름을 외쳤다. 동시에 유연하던 주먹에서 갑자기 바위처럼 묵직한 권풍이 일어났다.

“으윽!”

장이환이 신음소리와 함께 뒤로 물러났다. 진명은 거둬서 나한권을 쏟아냈다.

“패왕거정! 좌우삼화!”

무거운 철환을 몸에 달고 움직였던 덕일까? 진명은 예전과 다름없으면서도 끊이지 않고 두 번이나 연속으로 초식을 전개할 수 있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발전이었다.

평, 평

“으웨엑!”

호쾌한 타격음이 울리고, 두 수를 모두 막아내지 못한 장이환이 바닥에 쓰러졌다. 특히나 중단 공격이 제대로 들어간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장이환이 너무도 손 쉽게 무너지자 화산파의 평일지 패거리들은 불안한 표정이 되었다. 오늘은 진명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처럼 다수를 내세워 덤벼드는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진명이 말했다.

“일어서시오. 지금까지는 나한권의 일 초식이었소. 이제 나한권의 이 초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장이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패거리 중 하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놈은 예의도 모르느냐?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더 공격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게?”

“그럼 당신이 대신 나설 거요?”

“뭐?”



## 武極 - Story Book

“나는 누구라도 상관없소. 당신들이 나한권을 비웃은 것은 내가 나한권의 이 초식을 수련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니, 나로서는 꼭 이 초식을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소?”

“이런 방자한 놈. 좋다, 내가 나서겠다.”

기세 좋게 나선 화산파의 그는 오히려 장이환보다 실력이 못한 자였다. 그 역시 진명의 나한권 일초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애초에 야차도 인정한 진명의 나한권을 이들이 막아낸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철환의 수련 덕에 진명의 나한권은 더 빨라졌고 더 강해졌다.

진명은 쓰러진 이의 앞에 서서 담담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이제부터 이 초식이오.”

“그, 그만해라. 너는 기어코 피를 보겠다는 것이냐!”

진명은 대답대신 싱긋 웃었다.

“아니오. 나는 기어코 나한권의 이 초식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이오. 내가 이 초식을 마저 보여드리고 나면, 아마도 당신들은 내가 나한권을 이 초식까지만 익혔다는 사실에 고마워 해야 할 거요.”

진명의 말은 사실이었다.

늘씬하게 얻어터진 화산파의 무리들은 꿈에서라도 나한권이 별 볼일 없는 주먹질이라는 생각은 두 번 다시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장이환과 그 패거리들은 울상이 되었다.

‘이런 쌍! 나한권 1초식에 이렇게 즐기는 처음이다.’

볼 일을 마친 진명이 양 손을 툭툭 털고 나서자 입을 딱 벌린 채 보고만 있던 임완춘이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진 형! 그때와는 어쩔 이리 사람이 다르오? 내 범여 대사에게 심술 방탕이가 어찌고 한 말은 깨끗이 취소하리다. 이제 보니 그 철환을 두르는 게 나한권의 증진에 특효처방인 모양이네! 진 형, 나도 그것 좀 빌립시다! 설마 그거

벌써 범여 대사께 돌려 드린 건 아니겠지?”

“아, 이거요?”

임완춘의 말에 진명이 소매를 걷어 올렸다.

“으잉?”

드러난 진명의 팔에는 철환이 그대로 달려있는 채였다. 임완춘이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니 그럼... 지금껏 그 철환을 차고서.....”

진명은 대답 대신 웃음을 지었다. 일령이 질렸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역시 대단해, 진 형은. 우리 스승님 말씀이 노력과 재능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같아서, 재능이 노력을 이기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보니 그 말씀이 딱 맞아. 진 형은 진짜 징글징글한 거북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자 임완춘이 킬킬대며 말했다.

“아, 이제껏 그걸 달고 했으면 제대로 된 나한권을 못 보여준 셈 아니오? 어쩔소? 철환을 빼고서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게? 저치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을 듯 한데.”

“그럴까요?”

진명이 이렇게 대꾸하며 화산파 무리에게 고개를 돌리자 그들은 허영게 질린 얼굴이 되었다.

“도, 도망가자!”

“빌어먹을!”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다투어 연무장에서 도망쳤다.

“꿀 좋네, 저것들.”

일령이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 이에 내기라도 하듯, 임완춘이 더 큰 소리로 웃어댔다.

# 武極 - Story Book

## 제 21 화 [불안]

화산파의 패거리들을 혼내준 지 며칠이 지났다.

진명의 무위에 놀라서인지 아니면 나한권 1초식에 당한 게 창피해서였는지,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른한 오후.

진명과 일령이 머물고 있는 객점으로 임완춘이 혈레벌떡 달려들어왔다.

“이보게, 아우님들!”

늘 그렇듯이 진명은 객점 뒷마당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고, 일령은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지루한 눈빛으로 진명의 수련을 구경하는 중이었다.

임완춘의 다소 들뜬듯한 목소리에 진명과 일령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휴우, 휴우.”

임완춘은 급하게 뛰어왔는지 한참 숨을 골랐다.

일령이 그런 임완춘에게 핀잔을 주었다.

“임 형은 무슨 무인이 달리기 좀 했다고 그리 혈떡거려?”

임완춘은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가 알아 온 정보를 들으면 일령 소저도 그렇게는 말 못 할거요.”

“무슨 정보길래 그러십니까?”

진명도 땀을 닦으며 임완춘에게로 다가왔다.

지난번 일 이후 임완춘과 진명, 일령의 사이는 훨씬 가까워졌다. 이제는 임완춘이 스스로없이 놀러와 농담을 할 정도였다.

“아, 이런 중요한 정보는 원래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 제 맛인데.”

궁금함은 참지 못하는 일령이 임완춘을 재촉했다.

“대낮부터 술은.... 빨리 얘기나 해 봐요.”

“험험, 소저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임완춘은 누가 들을까 걱정된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말했다.

“낙양성에 마교가 들어왔다더군.”

임완춘은 ‘어때? 놀랐지?’ 하는 얼굴로 진명과 일령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진명과 일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거야 벌써 다 아는 사실이잖습니까?”

“그러게. 마교가 소림사를 친 건 당연히 낙양성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일 텐데.”

일령이 핀잔을 주었다.

“임 형은 별 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을 떨고 그래요.”

하지만 임완춘은 손을 내저으며 언성을 높였다.

“그게 아니라니까! 나 임완춘이 별 것도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떨 사람은 아니지.”

그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내 아는 친구들에게 들으니 그것 때문에 곧 원정을 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요.”

“음.”

일령은 고운 아미를 살짝 찡그렸다.

“코앞까지 마교가 왔으니 원정을 나가야 한다면 나가야지. 하지만 그게 그리 대단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어허, 그게 단순한 게 아니래도 그러시네. 이번 원정 건은 거의 확정된 거요. 확정!”

진명과 일령은 도대체 왜 임완춘이 난리를 피우는 지 알 수가 없어 그를 쳐다보았다.

단심맹에 있어 마교와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단심맹의 일원으로써 원정을 가야 한다면 참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임완춘은 그게 마치 큰일인 것 마냥 떠들어 대고 있으니 이상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거 답답하네. 그렇게 단순한 일이면 내가 이렇게 미친놈처럼 혈레벌떡 뛰어왔겠소?”

## 武極 - Story Book

일령이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난 그래도 임 형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걸.”

“소저는 이 정보에 우리 목숨이 달려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소? 내 얘기는, 만약에 이번 원정에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설혹 차출이 된다 해도 무조건 가면 안된다고.”

“왜요?”

일령이 되묻자, 임완춘은 답답하다는 듯 진명을 보았다.

하지만 진명도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전 갑니다. 소림의 제자로서 본산에 마교가 와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서는 나한권의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진명이었다.

임완춘은 가슴을 치며 말했다.

“아이구, 이 아우님들이 아직도 사태의 중요함을 모르네 그라. 내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이렇게 달려왔건만.”

일령이 임완춘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임 형. 임 형은 이번 원정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죠?”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임완춘이 자못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지난번 척후조가 사파의 흑도군에게 쫓겼던 사건 말이요. 그 척후조가 들고 온 게 뭔지 혹시 들었소?”

일령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게 낙양성으로 원정을 가는 일과 관계가 있나요?”

임완춘은 얼굴에 잔뜩 힘을 주고 침까지 튀어가며 말했다.

“관계가 있고 말고. 척후조가 들고 온 게 바로 남궁(南宮)이라 쓰여진 피에 젖은 천 조각 이었다는 거요. 뭐, 그 피야 척후조원의 피였겠지. 여하튼 알고 보니 그건 찢어진 깃발의 일부분이었다오.”

“음?”

“이번 척후조는 낙양성의 정탐이 목적이었다고 하오. 즉, 낙양성에 마교 뿐 아니라 남궁세가도 들어왔다는 거지.”

일령이 잠시 생각하는 듯 턱에 손을 올렸다. 임완춘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슬슬 일령 소저도 감이 오시오?”

“남궁세가라면.....”

“마교에 투항한 배신자들이지. 사파 쪽으로 붙은 세가들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요.”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세가가 완전히 멸문할 지경이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뭘.”

“어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일령 소저도 더 이상 남궁세가를 두둔하지 못하게 될 거요.”

“남궁세가가 뭘 어쨌는데요?”

“알다시피 많은 무림세가들이 터전을 잃고 상계로 뛰어들었잖소? 특히나 남궁세가는 마교 쪽에 붙어서 오히려 정마대전 이전보다도 더 순식간에 세를 불렀고.”

“그랬죠.”

“그 남궁세가가 장안성에 가까운 낙양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요. 게다가 순식간에 낙양성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소?”

임완춘은 치를 떨면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냈다.

“그 동안 낙양성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여타 세가의 식솔들을 모조리 도륙해 버린 것이요. 그것도 하룻밤 새에. 척후조가 남궁세가의 깃발을 들고 온 건 그런 뜻이요.”

일령이 벌떡 일어서서 소리를 쳤다.

“그런 나쁜.....!”

일령은 임완춘을 보며 말했다.

“그런 나쁜 놈들은 그냥 가서 지옥구경을 시켜버려야죠. 왜 원정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 武極 - Story Book

임완춘이 일령을 만류했다.

“잘 생각해보시오. 사실 우리 같은 일개 무인들이야 상계가 어떻게 되든, 상권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यो.”

일령이 인상을 찌푸렸다.

임완춘은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단심맹의 높은 어르신들은 다르지. 하다못해 단심맹의 운영자금 대부분이 장안성의 상권을 쥔 세가들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장안성에는 정파에 힘을 보탠 대부분의 세가가 자리하고 있단 말ियो.”

“이를 테면 그들의 복수를 해야 한단 뜻인가요?”

“당연하지. 지척에서 세가의 식솔들이 죽어나갔는데 아무런 복수도 앓을 수 있겠소? 또, 장안성의 빼앗긴 상권도 되찾아 와야 하고. 내 알아 보니, 낙양성은 장안성의 물류 이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오. 당장 내달부터 식자재 가격이 두 배로 뛴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건 문제군요.”

“문제 정도가 아니지. 남궁세가가 낙양성에 자리를 잡았다는 건 완전히 놀러 앉겠다는 뜻이잖소? 그러니까 일령 소저도 생각을 해보시오.”

임완춘은 완전히 흥분해서는 목청을 높여 말했다.

“낙양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점인데 마교 녀석들이 그걸 모를까? 그럴 리가 없지,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러니 호락호락한 놈들을 보냈겠소? 절-대 아니지.”

“제대로 붙으면 피해가 꽤 크겠군요.”

“피해 정도겠소? 우리처럼 머릿수나 채우는.....”

임완춘은 살짝 진명과 일령의 눈치를 보고 다시 말했다.

“나처럼 머릿수나 채우는 삼류 무인들은 그냥 말 그대로 머릿수나 채우는 거요. 씩씩하게 걸어나갔다가 송장이 되어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지.”

일령은 문득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도 원정을 결정했다? 큰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론 상권은 매우 중요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보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싸우더라도 굶으면서 싸울 수는 없다.

하지만 당장에 별다른 대책도 없이 공격을 간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정말 이상하긴 하군요.”

“흠. 그것만 이상한 게 아뇨.”

임완춘은 팔짱을 끼고 화가 난 듯이 말했다.

“빌어먹을 사파의 개잡종들이 왜 우리 단심맹의 척후조를 그렇게 죽기살기로 척살하려 들었겠소?”

“예?”

“다들 척후조가 알아온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파 놈들이 왜 척후조를 죽여라 쫓았는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쓰고 있단 말이지. 그냥 척후조가 눈 앞에 보여서 싸움을 건 걸까?”

임완춘은 자신의 머리를 톡톡 쳤다.

“아무래도 이번 일은 안 좋아. 내 예감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소.”

“흐음.”

일령은 잠시 고민하다가 진명을 보았다.

“진 형은 어쩔 거야?”

진명은 나한권을 수련하며 대답했다.

“난 간다.”

임완춘이 펄쩍 뛰었다.

“정말로 위험할 거라니까!”

진명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소림의 본산이 있는 낙양성입니다.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낙양성이 마교의 손에 유린당하는 모습을 소림의 제자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 武極 - Story Book

“걱정할 시간에 무공을 조금이라도 더 수련하면 살아 돌아올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진명은 땀을 닦고는 다시 수련에 열중했다. 임완춘이 뭐라고 말해도 들을 태세가 아니었다.

임완춘이 일령을 보았다.

“일령 소저도?”

일령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진 형을 사지로 밀어 넣고 혼자 있을 수는 없죠.”

“아이구야. 나도 몰라.”

임완춘은 혀를 내돌렸다.

“난 아우님들을 생각해서 찾아온 거요. 어떻게 되든 나중에 내 탓 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이나 해보슈.”

임완춘은 혀를 차면서 객점을 나갔다.

일령은 임완춘의 말이 신경 쓰이는지 찡그린 채로 진명을 쳐다보았다.

진명은 완전히 몰입했는지 임완춘이 간 것도 모르고 나한권만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다.

“진 형은 이럴 때 보면 세상 참 편하게 사는 거라니까.”

단순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의지로 밀고 나가는 진명의 모습에 걱정이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편해지는 건가?”

일령은 매일 진명의 곁에 죽치고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전전긍긍하는 임완춘이 보면 진명만이 아니라 자신도 태평한 사람 중에 하나일 테니까 말이다.

진명과 일령의 고집스러움에 진저리를 치며 나갔던 임완춘이 다시 돌아온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아우님들! 이번엔 진짜 특급정보!”

“콜록!”

일령은 소면을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다. 진명조차 임완춘을 보고 황당했는지 소면을 씹지도 않고 삼켰다.

“아니, 또 뭐 하러 온 거예요?”

임완춘은 진명과 일령이 있는 탁자에 와 앉았다. 그리고는 점소이를 보며 손을 들었다.

“여기 소면 하나만 더 갖다 줘! 돈은 여기 이 우형의 아우님들에게 받고.”

언제나 그렇듯 녀석 하나는 좋은 인물이었다. 점소이조차 몰래 웃으면서 주방으로 소면을 가지러 갔을 정도였다.

임완춘은 어이가 없어 하는 진명과 일령을 보며 손가락을 흔들었다.

“아아, 소면 하나가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을걸.”

일령은 젖다고 손을 들었다.

“이번엔 무슨 애긴데요?”

“낙양성에 파견된 마교의 고수가 누군지를 알아냈다는 말씀.”

“그래요? 임 형은 그런 건 어떻게 잘도 물어 오는군요.”

“당연하지. 이래봐도 이 우형이 아는 사람이 좀 된다고. 아무튼.....”

임완춘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우고 말했다.

“낙양성 공성에 참가하는 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요. 내 듣기로는 마교의 적나한이 투입되었다고 하오.”

“적나한(血羅漢)?”

진명이 되묻자 임완춘은 그럴 줄 알았다며 설명했다.

“마교의 무시무시한 고수가 있소. 9대 문파에서 전력으로 키운 절정 고수와 맞먹는 실력이라고 하더군. 그 적나한이 바로 낙양성에 지원을 와 있다는 거요.”

진명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일령도 ‘에게 겨우 한 명?’ 이라는 농담조차 던지지 않았다.

서역 대정벌에서 정파는 수많은 고수를 잃었다. 9대 문파에서 전력으로 키운

## 武極 - Story Book

절정 고수와 맞먹는 실력이라면 지금의 단심맹에서도 손에 꼽을 지경인 것이다.  
임완춘이 계속해서 말했다.

“진명 아우님도 지난번 야차와 싸울 때처럼 운을 바랄 수가 없을 거요. 이번에는 야차와 비교도 안되는 고수니까. 그러니 내 말대로 그냥 낙양성행은 포기하십시오.”

“흐음.”

“고민할 필요가 없소. 그냥 눈 딱 감고 무조건 못나가겠다 버티쇼. 다른 땀 몰라도 이번엔 정말 나가면 그날로 장례식이요. 마교 놈들이 보통 무서운 줄 아오? 난 그 놈들하고 마주칠 생각만해도 오금부터 저려오는 구만.”

진명은 임완춘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임완춘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겁이 난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적나한이 있다 해도 제가 그와 싸울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측에서도 그에 대비한 고수가 나설 겁니다.”

그 말에 임완춘은 옅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장담하는데 누가 지휘를 맡게 될 건지 얘기를 듣고 나면 절대로 낙양성에 가고 싶지 않을 거요.”

진명과 일령은 무슨 뜻이냐며 임완춘을 쳐다보았다.

임완춘은 아주 떨떠름한 얼굴로 남들이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재수없는 자식이요.”

진명과 일령의 얼굴이 찡그려졌다.

임완춘은 평일지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 武極 - Story Book

## 제 22 화 [출진]

“우와아아아!” “와아아아!”

단심맹의 훈련관을 가득 메운 군웅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훈련관의 연무장 앞쪽 작은 단상위로 청수한 노인 한 명이 올라서자, 군웅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그를 주시했다.

순식간에 연무장이 고요함에 젖어 들었다.

노인이 형형한 눈빛으로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단심맹의 의기 높은 협사들이여! 드디어 가슴에 품었던 한을 풀 때가 왔다.”

군웅들은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노인을 쳐다보았다. 단심맹에 몸을 의탁한 무인들 중에 저마다 한을 가지지 않은 이가 없다. 어떤 이는 가족을 잃고 어떤 이는 사부를, 또 어떤 이는 제자들을 잃었다. 그 피맺힌 원한을 마침내 풀 시기가 도래했으니 가슴이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단상에 선 노인, 화산파의 장문인이자 화산의 최고수인 태화일검(太華一劍) 적호상이 검을 뽑아 들었다.

“오늘 낙양성을 시작으로 우리는 패악한 마교의 무리를 강호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 순간 군웅들이 재차 함성을 질렀다.

“와아아아!”

반격. 반격의 시작이다.

태화일검 적호상이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다.

“오늘 우리가 뽑아 든 칼이 마교 토벌의 첫 기치가 될 것이다!”

곧이어 평일지가 단상위로 올랐다. 그가 바로 이번 낙양성 수복 작전의 지휘관이었다.

“우와아아아!”

군웅들이 무기를 들고 함성을 질러댔다. 평일지가 포권으로 군웅들의 함성에

응답했다.

그 함성 속에 진명과 일령도 파묻혀 있었다.

임완춘이 진명과 일령에게 투덜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렇게 만류했건만 결국 아우님들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구만.”

일령이 피식 웃으며 임완춘에게 대꾸했다.

“그러는 임 형은 여기에 왜 있는 거죠?”

“제기랄, 나야 가고 싶지 않지. 그런데 위에서 가라는 걸 어떻게 해. 배가 아프고 몸살 기운도 있다고 했는데 화산파의 제자는 죽어도 낙양성에 가서 뉘지라잡수.”

임완춘이 땅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니이미! 평소엔 속가라고 화산파 제자 취급도 안 해주면서 이럴 때만 화산파 제자 운운한다니까. 내가 그때 왜 속가로라도 받아달라고 빌빌거리면서 빌었을까.”

진명과 일령은 임완춘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진명이 말했다.

“임 형. 어차피 결정되었으니 최선을 다해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완춘은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냐는 듯 진명을 보았다.

“아우님.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이번엔 정말 예감이 안 좋다니까?”

낙양성으로 출진하는 무인의 수는 백여 명 정도였다. 본성인 장안성을 지켜야 하는 인원을 제외한 것이니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백여 명의 단심맹 무인들은 장안성 동북쪽으로 행군을 시작했다.

낙양성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

예전에 소림사에서 탈출할 당시 진명은 이 길로 오지 못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며칠을 돌고 돌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훨씬 나아진 셈이다. 적어도 쫓기는 게 아니라 다시



# 武極 - Story Book

되값아주기 위해 가고 있으니 말이다.

단심맹 무인들 대부분은 출발 때와는 달리 행군 내내 말이 없었다.

막강한 전력의 마교를 상대하기 위해 가는 길이다. 비록 기습공격이라 하더라도 상당수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죽음의 길이 될지도 몰랐다.

일령이 음산한 분위기를 억지로 떨치려는 듯 진명을 보며 말을 걸었다.

“우와, 저기 좀 봐. 진 형, 저기 저기.”

일령이 가리킨 곳은 절벽 어림이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엄청난 수의 동굴이 뚫려 있었다. 마치 벌집마냥 뚫린 동굴에는 수많은 불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멀리서도 눈에 확 띄일 만큼 거대한 불상부터 아주 작은 불상까지, 그 모양과 크기가 죄다 달랐다.

“저기가 그 유명한 용문석굴이야?”

“응.”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보긴 처음이야. 정말 대단하다.”

누군가 일령의 말에 끼어들었다.

“용문석굴은 막고굴, 운강석굴과 함께 3대 석굴로 불리는 곳이다. 천 개가 넘는 석굴이 있고 불상의 수도 십만 개나 된다고 하지.”

낮선 이의 목소리에 일령이 고개를 돌렸다.

칼처럼 날카로운 느낌의 사내였다. 진명은 그를 알아보고 ‘어?’ 소리를 냈다.

“청풍 대협!”

처음 단심맹으로 진명을 안내했던 청성의 제자, 청풍이었다.

“자네도 참가했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소림사의 제자라면 참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가 상당한 고수라는 걸 알고 있기에 진명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청풍이 진명에게 물었다.

“자넨 3조인가?”

“예.”

“아쉽군. 난 2조다.”

단심맹에서 출발하기 전, 무인들은 세 조로 나뉘었다. 진명과 일령은 3조에 속했고, 평일지는 1조의 조장이자 총지휘관이었다. 임완춘은 그 1조에 있었다.

“2조의 조장이 청성의 제자라고 하더니 청풍 대협이셨군요.”

청풍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묘한 어투로 되물었다.

“3조의 조장이 소림의 범우 대사시지?”

“그렇습니다.”

범우는 이번 출진에서 최고령자이며 최고의 배분이었다. 원래 배분에서라면 총지휘관은 범우가 되었어야 옳았다. 하나 범우는 극구 지휘관 자리를 사양했다.

청풍은 잠시 자신의 조원들을 돌아보다가 진명을 보고 말했다.

“죽지 말게. 살아야 새로운 세상도 볼 수 있는 법이니.”

“고맙습니다.”

청풍은 곧 자신의 조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일령이 청풍의 뒷모습을 보며 물었다.

“누구야?”

“단심맹에 올 때 뵈었던 분이야. 2조의 조장을 맡으셨다더군.”

“이야.....”

일령이 짐짓 감탄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보니 진 형은 임 형이 쫓아 다닐 만 한데?”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1조, 2조, 3조의 조장을 전부 알고 있잖아. 조장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 고수들인데, 그 셋하고 죄다 안면을 트고 있으면 대단한 거 아냐?”

“그런가?”

일령은 임완춘의 말투를 우스꽝스럽게 흉내 내어 말했기에 진명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낙양성이 가까워질수록 단심맹 무인들의 침묵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 武極 - Story Book

드디어 낙양성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도착하자 대다수의 무인들이 긴장된 안색으로 무기를 움켜 쥐었다.

낙양성을 둘러싸듯 세 곳의 초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의 공격목표인 마교의 분타다.

망루가 설치된 분타에 마교의 무사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멀리서도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수가 생각보다 적지 않았다.

한 분타에 적어도 30명 이상이다.

평일지가 2조와 3조의 조장을 불렀다.

“지금부터 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일지는 흠 바닥에 간단히 원을 그려 성과 분타를 표시했다.

“출발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낙양성을 북(北), 나머지 마교의 분타를 동, 남, 서로 보고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동쪽 분타를 2조에서 맡고 서쪽 분타를 1조가 맡습니다. 그리고 3조는 남쪽의 분타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2조 조장인 청풍이 냉막한 얼굴로 물었다.

“각개 격파를 하자는 뜻인가?”

청풍의 하대에 평일지가 슬쩍 인상을 썼다. 그러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정 된 얘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저들의 수가 많다. 그렇게 하면 숫자에서도 불리한 우리의 전력이 분산되어 오히려 각개 격파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한쪽을 몰아챌다간 나머지 두 개 분타의 협공을 받아 포위될 수 있습니다. 수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포위가 되는 것은 병법에서 가장 지양해야 할 부분이지요.”

“흠.”

청풍이 다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남쪽 분타는 장안성과 가장 가까운 곳이니 틀림없이 적나한이 이곳에 있을 거다. 차라리 전력을 반분하여 동쪽과 서쪽을 치고 남쪽을 협공하는 형태가 낫지

않겠나.”

평일지의 입술 끝이 슬쩍 말려 올라갔다.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묵살하려 드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적나한이 동쪽이나 서쪽으로 지원을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각개 격파가 됩니다.”

평일지가 범우를 보고 말했다.

“범우 대사께서는 적나한을 상대로 시간만 끌어주십시오. 1조가 서쪽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고 남쪽으로 가서 돕겠습니다.”

“아미타불. 소승은 지휘관인 평 소협의를 말을 따르겠네.”

청풍은 코웃음을 쳤다.

“가장 강한 남쪽 분타를 우리측에서 가장 약한 3조가 맡는다? 자네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전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미 출발 전에 수뇌부 회의에서 결정된 작전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다면 그 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흠. 수뇌부 회의에서는 3개 조로 나뉘어 기습을 하자고 했지 적나한을 3조에 맡기라고는 하지 않았을텐데?”

청풍의 말 그대로였다. 수뇌부 회의에서 결정된 작전은 3개조 기습작전뿐이었다. 나머지는 평일지가 즉석에서 결정한 것이다.

1조는 화산의 정예로 이루어져 있었다. 게다가 낙양서의 서쪽에는 다른 지역으로 통하는 길이 없다. 당연히 마교의 서쪽 분타는 후방 지원의 형태로 가장 약할 수 밖에 없다.

2조는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8파 1방의 정예로 구성되어 있다.

3조는 숫자로는 가장 많지만 9파 1방의 속가와 중소 문파의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력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범우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다.

청풍은 평일지의 속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그를 쏘아 보았다.

‘어린 놈이 공명을 너무 탐하는 구나. 네 속을 모를 것 같으냐? 가장 약한 서

# 武極 - Story Book

쪽 분타를 화산파의 정예들인 1조로 단숨에 섬멸하여 공을 세우겠다는 작정이겠지.’

평일지는 가슴이 뜨끔했다.

청풍의 생각대로 평일지는 그러한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게다가 적나한이 있을 것이 틀림없는 남쪽 분타는 3조의 어중이떠중이들과 범우를 이용해 전력을 소비시킬 생각이었다. 그 후에 1조가 남쪽 분타의 뒤를 침으로써 어느 정도 지친 적나한까지 자신이 제거하여 명성을 쌓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반면 낙양성의 동쪽에는 두 갈래나 타 지역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 동쪽 분타는 서쪽 분타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었다.

청풍은 평일지를 한참이나 노려보았고, 평일지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청풍을 보았다.

“지휘관은 접니다.”

“지휘관의 무능은 아군의 전멸을 불러온다.”

평일지가 비웃었다.

“청성이 마교에 의해 궤멸한 것이 그런 이유였습니까?”

청풍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구나!”

범우가 나섰다.

“아미타불. 큰 싸움을 앞두고 내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소송은 평 소협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풍은 분노를 삭이며 입을 다물었다.

“알겠습니다.”

평일지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각자 조를 이끌고 각각 목표 분타의 최단 거리까지 접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각 후, 신호탄이 터지면 동시에 공격을 시작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의 목숨도 걸려 있으니 절대로

경거망동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 경거망동이란 말에 유독 힘이 들어갔다. 청풍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참으로 거만한 애송이로구나.’

그러나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화산은 마교의 강호 침략에서 거의 유일무이할 만큼 많은 전력을 보존한 문파였고,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단심맹도 없었을 터였다. 아마 마교에 대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저 녀석의 공명심이 일을 그르치면 안 될 텐데.’

청풍은 이를 깨물고 자신의 조로 돌아갔다. 범우도 합장을 하고 3조로 돌아갔다.

평일지는 그 둘의 뒷모습을 보며 조소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강호에는 내 이름 석자와 창천신룡이란 별호를 모두가 기억 하도록 해 주겠다. 마교 놈이든 사파 놈이든 아무도 화산의 창천신룡을 우습게 보지 못하리라.’

곧 각 조는 목표 분타를 향해 소리 없이 이동했다.

3조에 속한 진명과 일령 역시 범우를 따라 마교의 남쪽 분타 부근으로 이동했다. 위치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라 다른 조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다.

남쪽 분타는 보통 건물 4층 정도 높이의 망루와 소형 전각 몇 채를 담장으로 둘러싼 형태였다. 끝이 뾰족한 나무틀로 만들어진 거마목(拒馬木)을 담장 근처에 배치하고 세 명씩 짝을 이룬 보초들이 주변을 돌아다녔다.

분타의 근처에는 경작지들이 너른 형태로 펼쳐져 있어서 평지나 마찬가지였다. 최대한 가까이 간다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다가갈 수가 없었다.

앞선 이가 손짓을 보냈다.

‘대기.’

진명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용히 몸을 수그렸다.

일령도 옆에서 말없이 전방을 주시했다.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을까. 어느 순간 하늘로 불꽃 하나가 쏘아졌다.

## 武極 - Story Book

“신호다!”

범우가 벌떡 몸을 일으키고는 소리쳤다.

“모두 공격하라!”

드디어, 공격신호가 떨어진 것이다.



# 武極 - Story Book

## 제 23 화 [적나한]

“우와아!”

“마교 새끼들, 다 죽여버려!”

돌격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3조의 단심맹 무인들이 앞다투어 뛰어나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는 역시나 범우였다.

진명과 일령도 무인들의 틈에 끼어 달려나갔다.

60여장 정도 거리에 떨어진 마교의 분타에서도 단심맹 무인들을 발견했다.

빠-익!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리고 마교의 무사들이 전각에서 분주하게 뛰어나왔다. 날카로운 병장기가 햇빛에 반사되어 아찔하게 번쩍거렸다.

“와아아아!”

거친 함성 소리가 마교의 분타를 뒤흔들었다.

선두에 있던 범우가 최초로 분타 경계선까지 접근했고, 뒤를 이어 단심맹 무인들이 도착했다. 그런데 단심맹 무인들 중의 대다수가 마교의 무사들을 보는 순간 신음을 삼키며 급히 속도를 줄였다.

“저, 저게 뭐야!”

모두가 놀란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진명과 일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거마목을 앞에 두고 대치한 마교의 무사들, 그들의 생김을 보고 놀란 것이다.

길게 늘어뜨린 옷이라거나 알록달록한 무늬는 서역 복장의 특색이니 그럴다 칠 수 있었다. 하지만 팔이 무릎까지 늘어져 있다거나 어깨근육이 수박처럼 부풀어 오른 모습, 역삼각형 모양으로 발달한 상체가 꼬추처럼 굽어있는 모습은 분명 이질적이었다. 더구나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각기 다른 형태로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인간이 아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단심맹 무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마교도(魔敎徒)를 직접 본 이가 드물었기에 생긴 일이었다.

마교도들을 직접 본 이는 서역 대정벌에서 살아 돌아온 소수뿐이다. 심지어 소림사에서 마교의 힘을 직접 겪은 진명으로서도 마교의 무사들을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위협적이다.’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이었다.

범우는 단심맹의 무인들이 흔들리자 순간적으로 내공을 실어 외쳤다.

“동요하지 마라! 사이한 마공을 익힌 흔적일 뿐이다. 저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개개인의 싸움이 아닌 집단전에서 사기는 매우 중요하다. 순수하고 청량한 내공의 외침이 단심맹 무인들의 정신을 일깨웠다.

“그래. 저놈들도 인간이야.”

“칼이 박히면 죽는 사람이다!”

단심맹 무인들이 다시금 투지를 불태웠다. 그 때 범우가 다시 한번 진격 명령을 내렸다.

“모두 정파의 힘을 보여주어라!”

“와아아!”

주춤했던 사기가 한껏 뛰어 올랐다. 단심맹 무인들은 거센 파도처럼 마교의 무사들을 덮쳐갔다.

“죽여!”

“죽여버려!”

1조나 2조에 비해서는 무공이 떨어지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기세만큼은 무시 못할 것이었다. 미처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마교의 무사들이 혼란 속에서 단심맹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 武極 - Story Book

범우가 선두에서 긴 장창을 든 마교 무사의 가슴에 일장을 날렸다.

펑!

가죽이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마교 무사는 핏물을 쏟아내며 뒤로 튕겨져 날아갔다.

그것을 시작으로 단심맹 무인들이 마교의 무사들과 격돌했다.

챙! 채챙!

귀를 찌르는 쇠소리와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파공음이 뒤섞여 울리기 시작했다.

진명도 기형도를 든 마교 무사와 마주했다.

“탓!”

마교 무사의 길게 찢어진 눈이 진명을 보고 기형도가 치켜 올라가는 순간, 그보다 먼저 진명의 주먹이 마교 무사의 안면에 작렬했다.

끊임없는 수련과 몇 번의 심득을 얻은 끝에 진명의 나한권은 전과 다르게 몰라볼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

광!

눈 한번 깜박할 시간에 벌써 진명의 주먹이 먹혀 들었다. 마교 무사의 목이 뒤로 꺾이며 비틀거렸다. 그러나 진명은 당혹해 하고 있었다.

“크.”

내공을 실은 주먹이 은은히 내려왔다. 마치 돌덩이를 손으로 친 것 같았다.

비틀거리던 마교 무사가 곧 자세를 가다듬으며 공세로 나섰다. 진명이 혼신의 힘을 다해 친 일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회복한 것이다.

“이, 이런!”

기형도가 비틀린 반원을 그리며 진명의 머리로 날아들었다. 진명이 몸을 숙이며 기형도를 피하자, 갑자기 머리 위에서 똑 떨어지듯 기형도가 궤적을 바꾸었다. 진명은 뒷목이 서늘해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굴렀다.

팍.

기형도가 진명이 있던 자리의 바닥을 쳤다. 진명이 몸을 벌떡 일으키자 마교

무사가 손톱을 세워 진명의 복부를 노렸다.

“진 형!”

그 순간 일령이 번개처럼 옆에서 날아오며 마교 무사의 허리와 다리를 동시에 베었다. 공중에서 두 번을 회전하며 연속으로 어깨와 머리에 검흔(劍痕)을 남겼다.

차이이잉-

분명 살을 긋는 데 쇠가 마찰하는 소리가 났다.

피가 튀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마교 무사가 몸을 추스르며 두어 걸음을 물러났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진명이 달려들었다.

물러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명의 주먹이 마교 무사의 가슴을 향해 쏘아졌다. 마교 무사가 양 팔을 가슴으로 모으며 방비를 했다.

무거운 철환을 달고도 펼쳐냈던 초식인 만큼, 진명의 주먹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진명의 주먹은 마교 무사의 팔을 튕겨내고도 그 위력이 전혀 줄지 않았다.

묵직하고 강맹한 소림의 권.

쩍!

가슴이 함몰하며 마교 무사가 뒤로 나뿔굴었다. 이번만큼은 마교 무사도 당해낼 수가 없었는지 피를 토하며 널브러졌다.

“헉.....헉.”

겨우 몇 합을 움직였을 뿐인데 진명은 숨이 가빠왔다. 그만큼 힘을 쏟지 않으면 쓰러뜨릴 수 없는 적이었다.

“진 형의 나한권은 점점 원숙해지는데?”

일령이 그렇게 농담처럼 말을 하며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은 진명을 보고 있지 않았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마교..... 정말로 강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일개 무사들이라니.”

진명은 섬뜩해졌다.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마교의 무사들은 그보다도 더 강했다. 일령이 아니었다면 그나마 쉽게 제압할 수 없었을 터였다.

그의 생각처럼 단심맹 무인들은 마교 무사들을 상대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 武極 - Story Book

숫자라도 월등하면 협공이라도 할 텐데 수마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진명이 싸웠던 마교 무사처럼 대부분의 마교도들의 몸에는 도검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권각법 정도는 우습게 몸으로 받아버리는데다 개개인의 무공 수준도 마교 무사들 쪽이 훨씬 높았다.

“으아악!”

단심맹 무인 하나가 뼈가 다 드러나도록 가슴을 베이며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일령도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우리 꼭 살아가자.”

“그래.”

그 말을 끝으로 진명과 일령은 다시 갈라졌다.

한가로이 대화나 나눌 시간이 없었다. 주변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와 아우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흐른 피가 고여 웅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 시체가 쓰러졌다. 팔다리가 잘린 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 순간 뒤에서 휘두른 칼에 목이 달아났다.

수천, 수만의 대군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니 앞뒤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혼전은 아니었다. 하지만 생사를 두고 싸우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방에서 병장기가 날아들었다.

그 와중에도 범우의 신위는 놀랍도록 돋보이고 있었다.

끝을 보이지 않을 만큼의 막대한 내력을 바탕으로 일권, 일장에 마교 무사들 하나씩을 쓰러뜨렸다. 내공의 소비가 심했지만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수십 명의 전투에서 고수 한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했다. 도검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마교 무사들을 상대로 처음에 고전했던 단심맹 무사들도 마교 무사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가자 용기를 얻었다.

“아미타불!”

죽음의 불호가 외쳐질 때마다 마교 무사 하나의 목숨이 사라졌다.

9파 1방의 수장 격이었던 소림의 일대제자가 얼마나 강한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범우는 전투의 상황을 주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몸을 날렸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본래 마교의 고수인 적나한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적나한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범우가 고군분투 하는 사이 마교 무사들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단심맹의 무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마교 무사라 해도 2대 1, 3대 1의 싸움이 되어가니 전투의 양상은 급속히 기울어만 갔다.

일각 정도가 더 지나면서 분타에 생존해 있는 마교 무사들은 거의 없어진 지경에 이르렀다. 단심맹 무인들은 승리를 만끽하며 환호를 질렀다.

“마교 놈들을 해치웠다!”

마교 무사들은 전원 사망했고, 단심맹 무인들은 십여 명이 목숨을 잃었을 뿐이었다. 이 정도면 대승리라 볼 수 있었다.

범우는 처참한 현장을 보며 불호를 외었다.

“아미타불. 아무리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적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했다.

“마교의 전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더욱이 적나한은.....”

그런 범우의 눈에 한 망루를 내려오는 마교의 무사가 보였다.

다른 마교 무사들과 달리 장포를 길게 늘어뜨리고 언월도를 들었다. 그는 조금도 급하지 않게서서히 망루에서 걸어 내려오는 중이었다.

분타의 무사들이 모두 전사했음에도 마냥 태평한 모습이었다.

“저 자식은 뭐야?”

“죽여!”

승리에 도취된 단심맹 무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마교 무사가 언월도를 들었다.

“크아압!”

괴성과 함께 언월도가 움직였다.



# 武極 - Story Book

번쩍.

빛이 난다 싶은 착각이 들더니 단심맹 무인들이 순식간에 반으로 쪼개졌다.

크게 별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언월도를 내리치는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검과 도를 부러뜨리며 그대로 몸을 갈라버렸다.

“어? 어어?”

마교 무사가 허둥대는 단심맹 무인들을 향해 달렸다.

언월도가 한번 휘돌러지면 머리부터 사타구니까지 반으로 쪼개지는 건 예상고, 허리가 동강이 나거나 사선으로 몸이 갈리기도 했다.

잠깐 사이에 대여섯이 명을 달리했다.

“으음.”

“마, 말도 안돼.”

그러다 보니 단심맹 무인들도 선불리 그에게는 다가설 수 없었다. 마교 무사의 주변에는 온통 토막 난 시신들 뿐이었다.

“멈추어라!”

범우가 그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대가 적나한인가?”

범우의 물음에 언월도를 든 마교 무사가 스산한 웃음을 머금었다.

“적나한? ㅋㅋㅋ. 그분이 왜 이런 쪽정자들을 상대하고 있겠나. 너희들 정도야 혼자서도 충분하지. 이 염옥마(炎獄魔)가!”

“뭐라?”

“아마도 적나한께서는 화산의 피를 충분히 즐기고 계실 거다.”

범우의 얼굴에 낭패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아뿔사!”

이번 작전에서 3조는 적나한을 상대로 시간을 끄는 것이었다. 시간을 끄는 동안 정예인 1조와 2조가 동, 서의 마교 분타를 처리하고 합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나오기를 알고 있었다는 듯 적나한은 다른 분타에 있다질 않은가!

어쩐지 너무 쉽게 승리했다 싶었다.

“함정이구나! 어디서 정보가 누출된 것이냐!”

범우의 외침에 단심맹 무인들의 표정이 헬썩해졌다.

“함정에 빠, 빠졌다고?”

“그,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염옥마가 언월도를 크게 들어 휘두를 태세를 취했다. 범우가 공력을 한껏 끌어올려 공격에 대비하며 외쳤다.

“이 자는 내가 말을 테니 모두 서쪽 분타로 가거라!”

진명이 범우를 불렀다.

“범우 대사님!”

“내 걱정은 말고 서쪽 분타로 가거라! 1조가 위험하다!”

일령이 진명의 팔을 잡아 끌며 다른 단심맹 무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1조가 전멸할 수도 있어! 가야 해!”

광! 광광!

엄청난 폭음이 연속해서 터져 나왔다.

범우와 염옥마가 서로 격돌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언월도의 도기(刀氣)에 땅이 퍽퍽 패어나갔다. 범우는 옹케도 염옥마의 공격을 피하며 주먹을 날리고 있었다.

저런 고수들의 싸움에 끼어봐야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진명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다른 단심맹 무인들과 함께 서쪽 분타로 향했다.

“뭔가 잘못됐어!”

평일지는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채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 서쪽 분타를 기습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에 차 있던 그였다. 화산의 정예 무인들 20여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 武極 - Story Book

비밀 정보에 따르면 마교의 서쪽 분타는 마교 무사들 중에서도 거의 하급의 무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했다. 화산파의 수뇌부만 알고 있는 정보였고, 그들은 평일지에게 이 정보를 넘겨 주었다.

1조의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2조와 3조는 힘겨운 전투를 펼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청풍이나 범우가 쉽사리 당할 이들도 아니니 서로간에 소모전이 벌어질 테고, 그 후에 1조가 나머지를 처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화산이 강호 제일의 문파로 거듭나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화산이 소림과 무당에 밀릴 줄 알았더냐? 하하하!’

처음엔 확실히 그랬다. 화산의 정예 무인들이 뿔어내는 매화 검기에 마교의 무사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고, 상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리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오산임을 알아챈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다.

전각에서 새로운 마교의 무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방금까지 상대했던 마교도들 보다 월등히 강했다. 그리고 수 역시 많았다.

결국 평일지는 자신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수의 마교 무사들에게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단순히 그 정도라면 그나마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분타의 망루 아래에 보이는 노승 한 명이 자꾸만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아직 아무 것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핏빛 가삼을 걸친 채 자신을 향해 살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는 걸 보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했다.

“적나한! 적나한이 왜 여기에 있는 거냐! 으아아아!”

평일지는 미친 듯 검을 휘둘렀다.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는지는 조금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 武極 - Story Book

## 제 24 화 [짧은 승리]

좌악!

마교 무사의 팔뚝이 팔꿈치 아래에서부터 잘려 하늘로 튀어 올랐다.

평일지의 검이 팔이 잘린 마교 무사의 가슴을 통과했다가 다시 빠져 나왔다.

“크윽!”

마교 무사는 답답한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평일지는 주저앉은 마교 무사를 걷어차고 뒤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다른 마교 무사를 상대했다.

벌써 몇을 베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지독한 놈들!”

평일지는 이를 갈았다.

그냥 보통 사람을 베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마교 무사들의 피부는 마치 갑옷이라도 두른 것마냥 단단했다. 내공을 섞지 않은 보통의 칼질로는 깊게 벨 수가 없었다. 한 명을 쓰러뜨리는 데도 적잖은 공력이 소모되었다.

그래도 평일지는 좀 나은 편이었다. 일부 내공이 바닥난 화산 무인들은 마교 무사들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순식간에 주검이 되었다.

‘어째서 서쪽 분타에 이만한 마교도들이 잠복해 있었던 거냐!’

평일지의 머리에 퍼뜩 두려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나를 잡으려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긴 했지만 전혀 틀린 건 아니었다. 평일지는 화산에서 심혈을 들여 키우는 적전제자이고, 1조는 화산의 정예 무인들이다. 만약 평일지와 1조가 여기에서 전멸하게 된다면 화산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단심맹 내에 첩자가 있었구나!”

평일지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다.

“날 죽이겠다고 함정을 파? 건방진 것들!”

분노한 평일지가 한껏 내공을 끌어 올렸다. 내공을 적당히 안배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해치울 요량처럼 보였다.

파라라락.

그의 무복이 한껏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발 밑에서 흙먼지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서서히 일어났다. 피가 잔뜩 묻은 검 끝에서 희미하게 아지랑이가 피어 올랐다.

“타아앗!”

평일지가 발을 박차고 마교 무사들이 몰려 있는 틈으로 뛰어 들었다. 무모하다고 생각될만한 행동이었다.

마교 무사들의 무기가 평일지를 향해 쏘였다.

살점이 붙은 철퇴, 날카로운 혈조(血爪), 네 갈래로 끝이 갈라진 창날. 아차 하면 몸이 수천 갈래로 찢길 것만 같았다.

그러나 평일지는 허공에서 몸을 계속해서 비틀며 그 공격들을 모두 피해냈다. 어지럽게 잔상이남아 흔들렸다. 가히 절정의 신법이었다.

공격을 피하고 착지한 평일지가 몸을 웅크렸다가 한껏 일으키며 손을 떨쳤다.

“가랏!”

순간, 그의 몸에서 수십 개의 검영(劍影)이 뿔어나갔다.

검봉이 살짝 작은 원을 그렸다가 벌처럼 앞으로 쏘아져 나가고, 다시 회수되었다가 같은 동작으로 뿔어 나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다. 잠깐 사이에 그 동작이 수십 번을 반복되었다.

핏물이 점점이 흩날리고 검에서 피어 오르는 아지랑이가 몽환처럼 눈을 어지럽혔다. 마치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이 세찬 바람에 꽃잎을 날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매화의 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질이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면서 동시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수 명의 마교 무사들이 순식간에 너덜해진 것이다. 온몸에 구멍이 뚫려서 는 혈화(血花)를 피어내며 죽어가고 있었다.

살상력이 너무나 강력해 이제껏 한번도 써 본적이 없었던 화산의 절기, 화무백

# 武極 - Story Book

일홍(花無百日紅)의 위력이었다.

평일지는 혈화를 피워내며 연신 마교 무사들을 도륙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핏물이 고여 웅덩이를 만들어냈다.

“다 죽어! 감히 네깃 놈들이 나 창천신룡 평일지를 어찌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실전 경험이 부족한 평일지는 내공을 아끼지 않고 사용했다. 때문에 지금 그가 사용하는 화무백일홍의 위력은 십 할, 그 이상이었다.

그런데, 평일지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마음대로 검을 휘둘러 수 없게 되었다. 공력이 잔뜩 실린 그의 검이, 시리도록 짙은 핏빛 혈화를 그려내던 그의 검이 공중에서 멈춰버린 것이다.

“옴-마니반메훔(俺嘛呢呗美吽). 어린 시주의 검초가 악독하기 그지 없구나.”

기고만장하던 평일지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검은 적나한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 이제까지 방관만 하던 적나한이 나선 것이다.

“혀..... 적나한!”

평일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보통 검을 맨손으로 잡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공력을 담아 휘두르던 검을 잡았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타앗!”

평일지는 힘주어 검을 뽑았다. 적나한은 순순히 검을 놓아 주었다.

적나한은 소림사의 복장과 비슷하면서도 더 붉은 가사로 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살기가 가득하면서도 인자한, 상반되는 미소를 띠우고 말했다.

“시주가 화산파의 창천신룡 평일지로군.”

평일지는 이를 갈며 검을 곧추 세웠다.

“으득. 드디어 행차하셨나?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 싸울 맛이 나지. 내가 바로 평일지다!”

적나한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옴마니반메훔. 중생을 계도하여 더 많은 정토를 밟게 하리니, 평 시주의 뒤통은 본승이 감당하리다.”

부드럽게 웃고 있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순간 질풍처럼 적나한이 평일지를 향해 쇄도했다. 눈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힌 적나한은 합장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뻗었다. 붉은 가사만큼이나 시뻘겋게 손바닥이 달아올라 있었다.

“흠(呸)! ”

이미 준비하고 있던 평일지도 호락호락하게는 당하지 않았다. 검을 일직선으로 세워 적나한의 공세를 막은 후 보법을 밟아 그의 옆으로 돌았다.

그러나 적나한이 뻗은 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을 말아 쥐어 권으로 바꾸었다.

평일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 이것은!”

평!

적나한의 쌍권이 평일지의 가슴을 강타했다. 평일지는 핏줄기를 뚫어내며 뒤로 튕겨져 나갔다.

진명과 일령을 비롯한 3조가 서쪽 분타에 다다랐을 때에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멀리서 딱 보기에라도 서너 배는 더 많아 보이는 수의 마교 무사들이 1조를 포위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들은 남쪽 분타에서 보았던 무사들과 달랐다. 적어도 한 단계는 더 윗줄의 무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령이 눈썹을 찡그렸다.

“이런..... 우리만으로는 힘들겠어.”

3조라고 모를 리 없었다. 1조는 화산의 정예 무인들이다. 그런 1조도 버거워하는 상황인데 자신들이 나서봐야 크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은 분명했다.

그때 진명의 눈에 평일지의 모습이 들어왔다. 평일지는 온 몸을 핏빛 천으로 감싼 노승과 대결을 벌이고 있었다.

“적나한이다!”

3조의 무인들은 주저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 武極 - Story Book

“적나한까지 있으면 우리로서는 무리야.”

“맞아. 차라리 2조를 도우러 가면.....”

그러나 진명은 벌써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일령이 황급히 진명을 만류했다.

“미쳤어! 저 재수없는 평일지 자식을 도우려고 목숨을 걸 거야?”

진명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일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굳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잇었어? 저기에는 평일지 뿐 아니라 임 형도 있어.”

임완춘은 가장 위험했던 전쟁의 시기에 1년도 넘게 장안성에서 살아남았다. 무공 실력이야 어쨌던 간에 그런 이유로 그는 1조에 속해 있었다.

임완춘의 얼굴이 떠오르자 일령도 주저했다.

“하지만.....”

진명은 단호하게 말했다.

“범우 대사께서 목숨을 거신 것은 우리가 1조를 구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야. 난 적어도 그분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진명의 말에 3조의 무인들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자!”

“우리는 정파인이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곧 진명을 위시로 한 3조는 1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서쪽 분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야아아!”

갑자기 달려오는 3조를 발견한 서쪽 분타의 마교 무사들은 잠시 주춤거렸다. 1조의 무인들은 지원을 확인하고는 더 기운을 냈다.

“지원이 왔다! 모두 힘내!”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3조가 어중이떠중이든 뭐든 간에 고마울 따름이었다. 용기가 생기자 수세에 있던 1조의 무인들이 거칠게 마교 무사들을 몰아붙였다. 3조

가 측면에서 끼어든 탓에 어느 정도 포위망이 풀리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임 형! 임 형!”

진명이 임완춘을 찾아 다녔다. 임완춘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다고 발 밑에 굴러다니는 시체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다.

평! 퍼평!

“으악! 나 죽네!”

연이어 터지는 폭음 소리와 비명 소리 사이로 얼핏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 형!”

진명은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몸을 날렸다. 일령이 진명의 등을 보며 뒤따라 달렸다.

임완춘의 앞에는 그 무시무시한 적나한이 있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적나한이 도망가는 평일지를 쫓고 있었다는 점이다.

평일지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적나한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동료들 틈으로.

덕분에 화산의 무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적나한의 주먹을 맞고 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이번엔 임완춘의 차례였다.

진명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적나한의 등을 향해 전력으로 주먹을 날렸다.

쾌속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야차탐해의 일격!

적나한은 뒤쪽에서 불어 닥치는 맹렬한 파공음을 듣고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이 이채를 발했다.

“호오!”

그리고는 동시에 주먹을 날렸다.

광!

주먹이 맞부딪쳤는데 밀려난 것은 진명이었다. 진명은 바닥에 긴 자국을 남기며 서너 걸음도 넘게 미끄러지듯이 밀려났다.

# 武極 - Story Book

“크! 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실력 차가 있었다. 달려오는 힘까지 더한 주먹을 그 자리에 서서 밀어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진명이 더 놀란 것은 적나한이 사용한 초식이 바로 자신과 같은 야차 탐해였기 때문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난 임완춘이 몸을 피하며 빙 돌아 진명의 곁으로 왔다.

“진 소협! 조심해! 적나한은 소림의 나한권을 쓰고 있어!”

진명은 정신을 추스르고 적나한을 노려보았다.

“소림의 무공을 모방하다니!”

적나한은 ‘허허’ 하고 웃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아우성과 오가는 병장기 속에서도 그는 내내 태연자약한 모습이었다.

“소림의 무공이 그리 자랑스러울 게 있었던가?”

진명이 소리쳤다.

“그 말을 취소하십시오!”

“쫓쫓. 우매한지고. 눈은 있으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마음은 곧으나 방향이 틀렸구나.”

일령이 진명의 곁에서 외쳤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옴마니반메흠. 소림 무공의 원류는 본디 우리의 것이니, 서자(庶子)가 적자(嫡子)를 두고 어찌 모욕을 운운한단 말인가.”

진명의 눈이 불타올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옴마니반메흠. 보지 못한다면 보여줄 수 밖에.”

적나한은 빙판을 미끄러지듯이 고요히 진명의 앞으로 다가왔다.

“진 형! 위험해!”

일령이 쌍검으로 적나한의 옆을 쳤다. 가볍지만 치명적인 살초를 품고 침예한

검봉이 적나한을 찔러갔다.

적나한은 무표정한 얼굴로 몸을 틀더니 진각을 밟았다.

굉!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강력한 진각이었다. 진각을 밟은 주위로 원을 그리며 흩먼지가 풀썩 피어올랐다. 적나한은 진각을 밟은 그대로 가슴께 에서부터 주먹을 쳐올렸다.

진명의 얼굴이 경악에 물들었다.

“선인공수!”

기겁한 일령이 공세를 포기하고 허리를 뒤로 제꼈다. 일령의 상체 위로 적나한의 주먹이 지나가다가 멈추었다. 이어 적나한은 일령의 다리를 번개처럼 걷어쳤다.

“좌우삼화!”

일령의 무릎이 굽혀지고 공중으로 뿔었다. 적나한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 알아도 피하거나 막을 수가 없었다. 적나한은 다시 진각을 밟으며 마보의 상태로 쌍장을 모았다.

진명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적나한의 준비자세는 분명 패왕거정이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령이 적나한의 패왕거정을 맞았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일령!”

진명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발돋움으로 적나한을 향해 쇄도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가까이에 있던 임완춘이 적나한의 뒷목을 향해 검초를 날렸다.

“에잇, 쌍! 일령 소저를 건들지마!”

임완춘 역시 평생의 공력을 담은 듯 검이 날카롭기 그지 없었다. 하나 평일지의 검에 비하면 임완춘의 검은 한참이나 뒤떨어졌다.

적나한은 가볍게 목을 옆으로 제끼는 동작만으로 임완춘의 검을 피해냈다. 그리고는 일령을 계속해서 공격해갔다.

패왕거정!



## 武極 - Story Book

무지막지한 공력이 담긴 적나한의 권이 일령의 명치를 노렸다. 임완춘이 조금 이나마 틈을 벌여준 덕에 일령은 쌍검을 앞으로 교차해 적나한의 권을 막아냈다.  
짹!

이전에 진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적나한의 권이 일령의 쌍검을 그대로 쳐냈다. 아니, 쳐낸 정도가 아니라 검이 박살이 났다. 부드러움 속에 강맹함을 숨긴 소림

의 나한권과 달리 적나한의 나한권은 패도적이고 강렬했다.

“악!”

부러진 검편(劍片)이 일령의 몸 곳곳에 박혔다. 일령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임완춘의 눈이 뒤집혔다.

“이 개똥초 놈아!”





# 武極 - Story Book

## 제 25 화 [위기]

임완춘의 검이 마구잡이처럼 적나한의 전신을 난자했다. 적나한은 허리를 틀며 짧은 순간 달려오는 진명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였다.

그 눈빛은 마치 ‘이것이 나한권이다.’라고 비웃는 듯 했다.

진명으로서의 먼 발치에서 구경하기만 했던 나한권 3초식 위타현저와 4초식 청룡파미가 연속해서 임완춘의 몸에 작렬했다.

“안돼!”

진명은 울부짖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각을 밟았다.

광!

진각을 밟은 힘으로 앞으로 튀어나가 한번 더 진각을 밟았다.

광!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진명은 수천, 수만 번 연습한 때 처럼 몸이 이끄는 대로 내맡겼다.

몰아(沒我)의 순간에서 진명의 주먹이 튀어나갔다. 버드나무의 줄기처럼 낭창거리며 유연한 궤적이 그려졌다. 그러나 그 뒤에는 결코 누구도 무시 못 할 파도가 함께하고 있었다. 마치 한 명의 장수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전장으로 달려가는 듯한 기세였다.

나한권 상2초 고수반근!

적나한의 눈빛이 변했다.

이것이다. 척 보기에다 애송이의 느낌이 물씬 풍겨오는 꼬마. 그 꼬마에게 숨겨진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는 청룡파미를 임완춘의 천돌혈에 꽂아 넣어 마무리를 지으려다 말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것이 임완춘을 살렸다. 임완춘은 피를 토하며 몇 바퀴나 데구르르 굴러갔다.

광!

진명의 진각보다 몇 배나 더 큰 굉음을 울리며 적나한이 발을 굴렀다.

“옴마니반메흠! 본류의 힘을 보여주겠노라!”

적나한 역시 청룡파미로 진명에게 대항했다. 둘의 주먹이 아슬아슬하게 마주쳤다.

평!

우직!

소름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진명의 주먹이 튕겨나갔다. 그러나 적나한도 완벽하게 진명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마치 후폭풍처럼 진명의 주먹 뒤에 숨겨져 있던 미증유의 힘이 적나한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조금이지만 내상을 입은 듯 내장이 진탕되었다.

주먹은 떨쳐냈지만 그 뒤를 따라오던 숨겨진 힘에 직격 당한 것이다. 이래서야 공격을 막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 이놈이!”

적나한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위협을 느꼈다.

나한권의 오의(奧義)란 무엇인가. 오래 전 그의 사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하나이며 하나가 아닌 둘이 있고, 둘이며 둘이 아닌 넷이다. 보이는 것은 하나이되 그 뒤에 숨겨진 힘을 끌어내는 것이 나한권의 오의니라.

‘설마 이 애송이가 나한권의 오의를 깨닫고 있단 말인가?’

적나한은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야겠구나!”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버려두면 후환이 될 놈이었다.

그러나 적나한은 진명을 공격할 수 없었다. 그가 잠깐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망설였던 것이 평일지에게 시간을 주었다.

## 武極 - Story Book

평일지는 적나한이 동요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원인이 진명, 그 기분 나쁜 녀석 때문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기회마저 놓칠 그가 아니었다.

“적나한이 흔들리고 있다! 다들 적나한을 집중 공격해! 명령이다!”

적나한만 쓰러뜨리면 다른 마교 무사들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믿었다. 아니,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도 승산이 높아진다.

근처에 있던 화산파의 무인들이 먼저 적나한에게 덤벼들었다. 그들도 진명의 일격이 적나한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걸 알았다.

마교의 무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등을 보이는 화산파의 무인들을 공격했다. 화산파의 무인들은 목숨을 도외시하고 필생의 검초를 연이어 날려댔다.

적나한이 주먹을 휘둘렀다. 한 번 주먹질에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빠개졌다. 그럼에도 화산파 무인들은 그냥 죽지 않았다. 심지어 검을 던지기도 했다.

“크악!”

목뼈가 부러지며 단말마의 비명을 지른 화산파 무인의 검이 적나한의 팔뚝에 상처를 냈다. 어깨뼈가 박살 나며 주저앉던 화산파 무인의 검이 적나한의 무릎을 찌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적나한의 몸에 자잘한 상처들이 늘어갔다.

적나한은 분노했다.

“날파리 같은 놈들이 발악을 하는 구나!”

그렇다고 당할 그가 아니었지만, 기분이 몹시 상했다.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소림의 애송이 하나 때문이 아닌가!

애초 계획은 완벽했다.

단심맹에 거짓 정보를 흘려 가장 전력이 강한 화산파 무인들의 조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까지도 성공했다. 예상보다 평일지라는 녀석의 무공이 뛰어났지만, 그 정도야 자신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한도였다.

문제는 진명이란 녀석 하나 때문에 일이 지체되고, 그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었다. 거의 사기가 바닥이던 단심맹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덤으로 자신의 몸에 언짢은 상처들이 생기고.

중요한 것은 적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일이 더 쉬워진다.

“오늘 노납이 크게 살계를 열겠노라!”

갑자기 적나한의 몸놀림이 변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그는 급이 다른 고수였다. 그가 보법을 밟으며 움직이자 화산파 무인들의 검초는 헛되이 빛나갔다.

단심맹의 다른 무인들이 가세했다. 그래도 사정은 변함이 없었다.

적나한은 검초를 피하거나 흘리며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다. 평일지가 마교 무사 한 명의 심장에 검을 꽂아 넣으며 적나한을 조롱했다.

“하하! 살계를 열겠다더니 꿈무늬만 빼는구나. 입으로야 뭔들 못하겠나.”

그의 눈에는 마치 적나한이 동귀어진 하는 단심맹 무인들의 기세에 놀려 몸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평일지도 주변을 정리하며 적나한의 추격전에 참여하려 했다. 그런데 순간 등 허리가 찌릿하며 위험신호를 보내왔다.

“엇!”

평일지는 보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적나한을 쫓던 단심맹 무인들이 일렬로 서 있음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적나한이 의도적으로 그리 되도록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유, 유인한 거다!’

쿵!

도망만 다니던 적나한이 걸음을 멈추더니 크게 진각을 밟았다. 그 순간 평일지는 옆으로 몸을 날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인 위기가 느껴졌다.

평일지의 선택은 탁월했다.

적나한의 전신 가사는 터질 듯 팽창해 있었고 옷자락 끝은 마구 펄럭였다.

“대-라-금-강-권(大羅金剛拳)! ”

적나한이 붉게 물든 쌍권을 내밀었다. 실처럼 가는 경기가 아지랑이처럼 주먹을 타고 피어 오르더니 가공할 권력이 쏟아졌다.

# 武極 - Story Book

팡! 파팡!

벽력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고막을 두드리고 비명이 전장을 찢어발겼다.

“으아악!”

적나한의 앞, 거의 일렬로 서 있던 단심맹 무인들이 핏덩이가 되어 튕겨나갔다. 한둘이 아니라 열댓도 더 되는 무인들이 순식간에 절명한 것이다. 그 중에는 마교의 무사들도 몇 섞여 있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대부분의 시체는 곤죽이 되어 형체조차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이, 이럴 수가!”

아무도 움직이는 이가 없었다.

불현듯 찾아온 정적과 고요함만이 전장에 가득했다.

“옴-마니반메흠.”

적나한의 불호 소리가 염라대왕의 호명처럼 싸늘하게 가슴을 파고 들었다. 적나한은 가벼운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귀천(貴賤)없이 무(無)로 돌아가리니, 이들은 이미 진정한 해탈을 이룬 것이다.”

단심맹 무인들은 전의가 꺾였다. 목숨을 걸고 공격을 하면 적어도 한 칼은 때릴 수 있으니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해보지 못하고 피떡이 되는 건 그야말로 무의미한 죽음일 따름이었다.

“이길 수 없어.....”

누군가에게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단심맹 무인들의 전체의 마음처럼 퍼져나갔다.

성큼.

적나한이 한 걸음을 내딛자 단심맹 무인들 전체가 뒤로 두 걸음을 물러섰다.

적나한의 전면에서 있지 않고 죄다 옆으로 비켜서려 한다.

“아까의 기세는 어디에 있는가. 죽음이 두려운가? 걱정하지 마라. 모두가 부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니라.”

적나한은 손을 들어 공격 명령을 내리려 했다. 전의를 상실한 무인만큼 잡기

쉬운 먹이감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개소리. 살인을 밥먹 듯 하는 마줄이 부처를 들먹이는 거냐?”

청풍이었다. 청풍은 적나한의 전면으로 나서려다가 무릎을 꿇었다.

“크윽.”

그는 부러진 검을 지팡이 삼아 일어섰다. 그 역시 적나한의 대라금강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적나한의 한 쪽 얼굴이 일그러졌다.

“악귀에게는 지엄한 처벌만이 내릴 뿐이니라. 본 교를 사칭하던 소림사의 소마(小魔)들처럼.”

적나한이 청풍에게로 다가갔다. 지금의 청풍은 적나한의 일초지적도 되기 힘들다. 그러나 단심맹의 누구도 청풍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진명 역시 그러했다. 무섭고 두려웠다. 적나한의 대라금강권 위력을 보니 다리가 떨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진명은 이를 악물었다.

“소림사를, 소림을 비웃는 자에게 굴할 수 없어!”

진명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걸음을 떼었다. 한 번 걸음을 떼니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 진명!”

진명이 소리쳤다.

“나 진명은 마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심맹 무인들은 앞으로 나서는 진명을 보며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진명의 그 한마디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저벅!

단심맹 무인들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걸음씩을 내디뎠다.

“그래. 우린 정파다.”

“정파는 마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러나던 단심맹 무인들의 기세가 다시 올랐다.

“놈! 죽는 게 소원이로구나!”

적나한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쿵!

진각을 밟으며 다시 자세를 취했다. 대라금강권을 준비하는 것이다.

진명은 미친 듯이 앞으로 달리며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뺐었다.

“으아아아!”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부나방 같은 모습이었다. 하나 적나한은 진명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

현재 단심맹 무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그를 완벽히 꺾어야 전투가 더 쉬워진다.

“대-라-금-.....”

적나한은 대라금강권을 펼치기 위해 내력을 끌어올리다가 문득 입을 다물었다. 한줄기 미약한 경력이 내공의 운용을 방해한다.

‘이런!’

진명과 주먹을 맞부딪쳤을 때 입은 사소한 충격의 잔재가 남았다. 평소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대량의 내공을 쏟아낸 직후였다. 그럼에도 또다시 대라금강권을 펼치려 하니 무리가 온 것이다.

‘보통의 무공을 사용했다면!’

적나한은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출수를 멈출 수가 없었다.

“하!”

크게 기합을 지르며 내기를 다스린 적나한이 어거지로 대라금강권을 펼쳐냈다. 진명은 선인공수로 대라금강권을 마주했다.

백이면 백, 진명이 곤죽이 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진명은 쉽게 밀리지 않았다.

쾅!

주먹을 마주한 진명의 등 뒤로 피가 터져나갔다. 지면이 퍽퍽 패이며 흙먼지가

# 武極 - Story Book

휘날렸다.

‘낭패다!’

대라금강권은 강대한 위력을 가진 만큼 출수에 시간이 필요했다. 한데 내공의 운용이 잠시 방해 받고, 진명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출수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울컹!

기혈이 뒤틀려 입에서 핏물이 배어 나왔다. 대라금강권의 충격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런, 바보 같은.....”

적나한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적나한은 찌르는 듯한 살기를 느꼈다. 적나한이 몸을 비틀어 반격을 하려는 순간 이미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잔뜩 찡그러져 있던 적나한의 귓가에 비릿한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어떠냐. 이 창천신룡 평일지님의 칼 맛이. 건방지게 나를 비웃어?”

평일지였다. 평일지가 적나한이 방심한 틈에 그의 목에 검을 꽂아 넣은 것이다.

“크아아!”

적나한은 검을 잡고 힘을 주었다.

썩.

평일지의 보검이 적나한의 손에서 깨져 나갔다. 적나한은 부러진 검편을 평일지의 심장에 틀어 박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뜻대로 이를 수가 없었다. 적나한의 눈에 천하를 호령하는 패왕의 모습이 보였다.

‘허상인가?’

그 와중에도 적나한은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틀렸다. 허상이 아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닌 진정한 패왕거정의 모습이었다.

우드드득!

진명의 패왕거정이 적나한의 가슴을 뚫고, 뒤이어 동강난 검으로 평일지가

적나한의 목을 찼다.

마교의 절정 고수 적나한의 죽음이었다.

진명은 기운이 빠져 헉헉대는데 반해 평일지는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났는지 적나한의 목을 들고 소리쳤다.

“적의 대장인 적나한을 창천신룡이 베었노라!”

마교의 무사들도 단심맹의 무인들도 삼시간에 쯤 죽은 듯 고요해졌다. 워낙 경황이 없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에도 바빴다지만, 평일지가 도망을 다니고 진명과 그의 동료들이 적나한을 막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만약 전투 중이 아니었다면 다들 침을 뱉으며 평일지를 욕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생사를 건 전투 중이었다. 어쨌거나 적의 고수를 해치운 것만으로도 단심맹 무인들의 사기는 크게 올랐다.

“와아아아!”

“마교의 잡종들을 물리쳐라!”

전투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신이 난 평일지가 무차별로 마교 무사들을 쓰러뜨리고, 뒤이어 달려온 청풍과 2조의 합세로 단심맹은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마교의 무사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가고 전투는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라 갔다. 단심맹 무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았다.

진명은 일령을 안아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죽겠어. 쿨럭쿨럭.”

일령은 피가 섞인 기침을 하면서도 진명을 쳐다보았다. 어쩐지 일령의 얼굴이 붉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아!”

진명은 자신이 일령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을 같이 붉혔다.

“으으.... 그 청춘 놀음, 내 앞에서는 좀 하지 말라 하지 않았소!”

임완춘이 비틀거리면서 진명과 일령의 앞으로 다가왔다. 일령이 얼른 진명의

## 武極 - Story Book

품에서 벗어난 후 새침하게 쏘았다.

“임 형, 목숨 하나는 질기네요.”

“이제 나도 적나한에게 맞고도 죽지 않은 대영웅이라고 명성이 자자해 질까나? 와하하..... 쿨럭! 젠장 맛을, 갈비뼈가 서너 대는 더 나간 것 같다고.”

그래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무모한 출진이라 생각했는데 목숨도 구한데다, 적나한을 잡고 대승을 거두었으니 웃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임완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웃음 대신 경악의 표정이 몰들어 가고 있었다.

“이..... 이.....!”

“임 형! 왜 그래?”

임완춘은 말도 못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진명과 일령이

임완춘의 손가락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넓은 평원.

그곳에 지평선을 가득 메운 새까만 인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진명과 일령은 물론이고 마교 무사들을 모두 해치운 단심맹 무인들의 얼굴도 순식간에 얼어 붙었다.

곳곳에 들어 올린 깃발. 그 깃발에 보이는 귀신의 문양.

누군가가 흘린 것처럼 중얼거렸다.

“혈무련.....”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파의 혈무련이 등장한 것이다.







# 武極 - Story Book

## 2.3. 제 3 장

### 제 26 화 [계략]

“말도 안돼... 하필이면 지금이라니. 이대로 혈무련과 부딪혔다간 다들 개죽음을 당할 거야.”

일령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녀를 비롯한 정파의 인물들은 모두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은 상태.

게다가 처음의 각개격파 작전으로 인해 살아남은 인원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대로 혈무련과 정면충돌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망칠 만한 여력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걸 어쩌지?”

살아 남은 단심맹의 인원들은 자연스럽게 평일지를 바라보았다.

“그, 그게.....”

평일지의 얼굴이 흙빛으로 굳었다. 적나한을 죽였다고 큰 소리를 지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다.

총지휘관을 맡겠다고 나설 때만해도 평일지는 이런 상황에 딱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의 역할은 그렇게 무거워질 때도 있었다. 평일지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갑갑함을 느꼈다.

“나는... 그러니까 그게.....”

그 모습이 답답했는지 청성의 청풍이 나섰다. 그 역시 한 다리를 쓰지 못하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우리에게겐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해.”

“그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러십니까?”

“알고 있다면 말해라. 총지휘관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다시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었다. 대답 대신 평일지는 매서운 눈빛으로 청풍을 노려보았다.

“지금 설마 이런 상황에서 제게 시비를 거시는 겁니까?”

청풍으로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뭐라고? 시비?”

“네, 그렇습니다. 출발 전부터 청풍 대협께서는 저를 고까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해 저를 어떻게든 깎아 내리시려는 게 아닙니까?”

청풍이 결국 노호를 터트렸다.

“듣자 하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지금이 누가 누굴 깎아 내리고 추켜세우고 할 때이더냐?”

“물론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 청풍 대협께서 그러고 계시질 않습니까!”

“이 놈! 말을 가려라! 어디서 사람을 헐잡꾼으로 모는 게야!”

평일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 역시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란 말인가. 도무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데.

차라리 그 혼자라면 나올 것 같았다. 혼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여차하면 이것들을 방패 삼아서라도.....’

평일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어차피 죽으면 창천신룡이라는 별호도, 화산파의 직전제자라는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는 일이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더러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식의 말씀을 할 참이라면,

## 武極 - Story Book

저는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혈무련이 이 장소에 나타날 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게 어디 제 탓입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만 무어라 하십니까? 저는 적나한을 죽이느라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던 말입니다!”

“내가 언제 책임을 지라 했던 말이나! 총지휘관으로서 말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발뺌할 것이라면 애초에 왜 네가 총지휘를 맡겠다고 나선 것이냐!”

평일지가 보란 듯 이를 갈았다.

“이제는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도 모자라 자질까지 논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더우시다니, 기꺼이 총지휘관을 사임하겠습니다. 어디 청풍 대협께서 마음대로 해보시지요!”

청풍의 얼굴에 짙은 회의가 스쳐 지나갔다.

“네 놈이 지금.....”

‘네 놈이 지금 혼자 살겠다고 우리 모두를 버리겠다는 것이냐?’

이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청풍이었다. 하지만 선불리 입 밖으로 뱉었다간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순식간에 일행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이 오갔다. 그 긴장을 깨트린 것은 바로 일령이었다.

“너 아무래도 좀 맞아야겠다.”

일령의 시선이 향한 것은 평일지였다.

그러니까 그녀가 한 말은 평일지에게 한 게 맞았다. 어이가 없는 데다가 극단적이긴 했지만 분명히 평일지에게 한 말이었다.

“뭐... 라고?”

평일지의 안색이 돌변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한가지였다.

‘이 년을 어떻게 죽이지? 단 칼에 죽여? 아니면 그 전에 저 시건방진 입을 꿰메놓.....’

일령이 침착하게 평일지의 상념을 끊었다.

“당신이 좀 맞아야겠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할게. 청풍 대협, 까놓고 말해서 지금 우리 측 전력으로 혈무련을 상대할 수는 없겠죠? 누가 총지휘관을 관두든 말든 말이에요.”

그 말에 평일지가 잠시 살기를 드러냈고, 청풍이 나서서 그것을 가로막았다.

“그렇다네, 일 소저.”

“그렇다고 도망치기엔 상황이 나쁘군요. 청풍 대협만 하더라도 다리를 못쓰시니 신법을 쓰실 수도 없고요.”

청풍이 고개를 고덕였다.

“하지만 이 몸이 짐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네. 어떻게든 운신할 수 있는 자들이라도 추려내서 도주하게 한 다음...”

“그리고 나머지 인원으로 시간을 버시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남아봤자 일 각도 벌지 못해요. 그나마 형편없는 전력을 둘로 가르는 것부터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일 테구요.”

도주를 염두에 두고 있던 평일지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소리였다. 평일지가 당장 불멘소리를 했다.

“그렇다면 대체 어찌자는 소리냐? 이대로 다 함께 죽자는 것이냐?”

일령이 그에게 손가락을 흔들어 보였다.

“좀 가만히 있어 봐. 도주도, 전투도 불가능하다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야.”

“그게 뭐냐고!”

“계략! 몸을 못쓰면 머리라도 써야지.”

일령이 무슨 수를 생각해 낸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혈무련이 코 앞에 닥친 이 위급한 시점에서, 일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기란 무리였다.

청풍만 하더라도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일령 소저의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어찌 계략만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우리에게겐 계략을 짜내고 해낼만한 시간도, 힘도 남아있지 않으니.....”

## 武極 - Story Book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죠. 그렇다고 뻘히 보이는 죽음을 택할 수는 없잖아요.”

평일지가 싸늘한 비웃음을 날렸다.

“이러고 있을 시간에 도망이라도 치는 게 훨씬 더 살아날 가능성이 크겠군. 그 건방진 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다물고 있는 편이 낫겠다만?”

일령이 평일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저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 화산의 창천신룡께서 야차부대를 궤멸시킬 수 있었던 것은, 때마침 누군가의 시기 적절한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걸로 아는데?”

일령이 지난 일을 들먹거리자 평일지가 눈썹을 일그러뜨렸다.

일전에 야차부대가 척후조를 뒤쫓아 장안성까지 왔을 때, 평일지는 순간적으로 오판을 내려 척후조를 그대로 몰살당하게 내버려둘뻔한 일이 있었다. 그때 일령이 야차부대의 목적을 알아채고 중간에 나섰기 때문에 단심맹은 척후조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뭐, 그게 나라고 꼭 말하고 싶다는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 대신 입 다물란 소리도 하지 마. 다른 사람도 아닌 너한테서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으니까.”

일령의 아무진 표정이 평일지를 향했다. 아무래도 일령에게는 쟁기는 구석이 있는 평일지로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망할 계집 같으니.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때 가만히 침묵하고 있던 진명이 입을 열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저는 서로 나뉘어서 도망치는 것보다야 다 함께 뭐라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청풍이 진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는 사람을 진득하게 잡아 끄는 힘이 있었다.

그가 꼭 나한권 일 초식으로 야차를 때려잡았다는, 그런 식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진명의 터무니없이 솔직한 눈을 보고 있자면 그가 말하는 것 또한 진실일 것만 같았다.

‘처음 대했을 때와는 다르다.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일지도 모르겠군.’

청풍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일 소저의 말을 따르자는 것인가?”

“령 아우가 생각 없이 말을 꺼낼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완춘이 진명을 거들고 나섰다.

“암, 그 말이 맞지요! 꼴이 이렇다고 그냥 내빼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싫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남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청풍이 일령을 향해 말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있는가?”

일령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이 하나 있어요.”

“말해 보시게.”

그러자 일령은 진명과 평일지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다.

“아까 말한 대로예요. 화산의 창천신룡이 여기 진 형에게 좀 맞아줘야겠어요.”

평일지가 당장 안색을 달궜다.

“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는 그럴 수 없어!”

그의 반응을 예상이나 했다는 듯 일령이 가차없이 쏘아 부쳤다.

“방금 전 당신 입으로 총지휘관을 관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서열 상 우리를 이끌 사람은 청풍 대협이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곧 하극상이 되는 거라고. 안 그래?”

평일지가 이를 갈았다.

“네, 이 무슨...”

진명 역시 곤혹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대체 일령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령 아우, 아무래도 그건...”

## 武極 - Story Book

그러나 일령은 지금 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진 형. 꼭 그렇게 해야만 해.”  
이제는 청풍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다. 청풍은 힘을 실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사파의 총연합인 혈무련에서 다급히 병력을 낙양성으로 파견한 것은, 그들 역시 꽤 탐나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대대로 낙양성은 정파의 젖줄과도 같은 곳이었다.  
지리와 교통, 기후와 집적 시설 등을 이유로 풍요로운 상권을 형성한 낙양성은 정파의 입지를 굳히는데 단단히 한 몫을 거둔 지역이었다.

문제는 이곳이 대대로 소림의 앞마당 같은 곳인지라 사파가 쉽사리 넘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참에 마교가 소림을 박살내는 일이 벌어졌다. 혈무련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소림은 완전히 거덜났고, 몇몇만 간신히 살아서 장안성으로 도망쳤다고 하니 더 이상 낙양성을 넘보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 참에 낙양성을 완전히 손에 넣는다면, 정파의 자금줄도 하나 끊어놓을 수 있는 데다가 소림이 본거지를 회복할 가능성도 없애는 일이 된다.

정파보다 먼저 낙양성을 손에 넣어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거행하는 그들의 중요한 임무였다.

이번 일의 성공을 위해 혈무련은 내로라하는 신진고수들이 포함된 정예를 파견했다. 그 중에서 가장 무공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자는 비천문의 소문주인 서문강이었다.

“멈춰라!”

일행의 맨 앞에서 선두를 맡고 있던 서문강이 갑자기 소리쳤다.

혈무련의 무인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멈췄다.

“무슨 일이야?”

서문강과 더불어 혈무련의 신진고수라 일컫는 십대신위(十大新衛) 중 한 명 초위가 물었다. 그는 절정의 신법을 발휘해 어느 샌가 서문강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서문강이 대답 대신 앞을 가리켰다. 그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우리 보다 먼저 낙양성을 접수한 무리가 있는 듯 하군.”

“뭐? 설마 단심맹이 벌써 움직였던 소리는 아니겠지?”

초위가 전방을 응시했다.

낙양성 주위의 너른 벌판에 어른대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그것들이 쌓여있는 시체 더미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초위가 혀를 찼다.

“첻, 한 발 늦었군. 그럼 어떻게 하지?”

“물러나는 건 단심맹이 완전히 방비를 구축했는지 확인한 후다.”

“동감이다, 그건.”

초위는 등 뒤에 메고 있던 장창을 손에 쥐었다.

“적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준비는 해야지. 그럼 갈까?”

서문강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신호로, 멈췄던 혈무련의 무인들이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혈무련은 또다시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퍼영!

“으아아아악!”

누군가가 비명을 터트리며 시체 더미 위로 쓰러지고 있었다.

초위는 그가 입고 있는 화산의 도복을 알아보았다.

“화산?”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초위는 신법을 발휘해 앞으로 튀어나갔다.

피로 범벅이 된 화산파의 무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초주검이 된 그의 얼굴을 본 초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창천신룡 평일지!”

## 武極 - Story Book

“옴-마니반메흠!”

그와 동시에 묵직한 불호가 시체를 사이에서 걸어 나온 한 승려의 입에서 울려 퍼졌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온 몸을 감싼 붉은 가사, 사이한 염주. 그리고 더해지는 짙은 혈향.

바보가 아니라도 그가 방금 전 화산의 창천신룡 평일지를 날려버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사 안의 두 눈동자가 초위를 향해 번뜩였다.

“이로써 오늘 낙양 땅에 발을 들인 마지막 목숨을 거두었다 여겼거늘.....

아직 노납의 살계는 끝나지 않았단 말인가?”

초위의 얼굴에서 서서히 표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눈 앞의 승려를 향하는 적개심과 살의(殺意) 뿐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네가 그 적나한이군 그래?”

사파의 혈무런 역시 정보력에서는 정파에 밀리지 않는다.

“옴마니반메흠!”

대답을 대신해 불호가 들려왔다.

이것은 명백히 적나한을 상징하는 불호였다.

# 武極 - Story Book

## 제 27 화 [혈무련]

진명은 표정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다.

‘령 아우, 제발..... 이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는 지금 적나한의 시체에서 벗겨낸 가사와 염주를 두른 채 적나한의 행세를 하고 있었다.

피 냄새를 너무 맡아서인지, 아니면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서인지 자꾸만 어지럽고 머릿속이 텅 비는 듯한 느낌이었다.

게다가 태연히 거짓을 연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도 어려웠다. 진명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바로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적나한이라는 말에 대답도 않고 그의 불호만 윈 것이다.

진명의 속도 모른 채 초위는 그를 살살이 살피는 중이었다.

“네가 적나한이라면 왜 혼자 있는 거지? 설마 이 시체를 다 네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냐?”

일견 경솔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초위의 움직임은 신중하기 그지 없었다.

십대신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진명은 초위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움직임을 통해 그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고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매서운 눈을 가진 자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령 아우의 계책이 탄로날 수도 있겠구나.’

진명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일령이 말한 계략은 전적으로 진명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만큼 일령이 진명을 믿는다는 뜻도 되었고, 진명이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있었다.

“낙양은 이미 본교의 땅! 넘보지 말고 물러가거라.”

진명이 배에 힘을 주어 음성을 낮게 깔며 말했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소리

나지 않게 외치고 있었다.

‘제발, 제발... 이들 중에 적나한을 아는 자가 없기를...!’

진명의 말에 초위가 대꾸했다.

“혈무련을 너무 우습게 보는군. 설마하니 적나한 한 명에게 겁을 집어먹고 물러날 거라 생각하다니?”

실은 말만큼 초위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낙양성을 수복하기 위해 화산 최고의 후기지수인 평일지까지 참가한 정파의 정예 부대가 적나한에게 박살이 난 걸 눈 앞에서 본 후다. 적나한 한 명에게 그들이 다 당했다면 자신들도 안심할 수가 없다.

“오마니반메훔! 시주야 말로 노납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도다! 이곳은 본교의 땅이라고 분명히 일렀을 터!”

“뭐야? 그렇다면 저 성벽 너머로 마교의 인물들이 득실거린단 소린가? 그렇다면 왜 나서지 않지? 내 눈에는 적나한 하나밖에 안 보이는걸?”

진명이 낮게 외쳤다.

“할 수 없군. 보여주는 수밖에!”

진명이 양 팔을 넓게 펼쳤다. 어떻게 해서든 겁부터 주라는 일령의 말대로 진명은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다. 당연히 팔을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에도 어마어마한 힘이 실려있었다.

스스스스스.....

진명의 동작에 따라 미리 말을 맞췄던 대로 시체더미가 들썩들썩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은 시체가 아니라 시체들 사이에서 죽은 척하고 있던 단심맹의 인원들이었다. 진명이 연기하는 적나한에게 얻어맞고 쓰러진 것으로 되어있던 평일지도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초위의 눈빛이 핵 변했다.

“설마 이게... 마교의 섭혼술?”

## 武極 - Story Book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시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일부러 몸에 묻힌 피와 진흙이 이들을 더욱 시체처럼 보이게 했다. 게다가 좀 전까지 진짜 마교와 싸울 때 당했던 부상들도 고스란히 보이고 있었기에 섭혼술 연기는 한층 더 실감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초위를 뒤따라 온 혈무련의 무인들에게도 긴장감이 어렸다.

그들 또한 섭혼술의 악랄한 위력을 익히 알고 있었다. 오늘 일이 결코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서문강도 눈썹을 찡그렸다.

‘적나한 한 명에게 당했다고 보기엔 좀 이상하더니, 섭혼술이었던가?’

휘리릭

붉은 인영 하나가 날렵한 신법을 발휘해 진명의 곁으로 날아들었다.

마교의 무사인 척 위장한 일령이었다. 너울대는 붉은 옷 사이로 보이는 까만 눈동자가 섬뜩해 보였다.

“흥! 이건 또 뭐야? 정파의 딸거리들에 뒤이어 이번엔 사파 놈들인가? 오늘 따라 왜 이리 주제를 모르고 설치대는 거야?”

“뭐라고?”

초위가 날카롭게 외쳤다.

“네 년은 또 뭐냐?”

일령이 마치 유령처럼 음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건 네 놈이 알 바 아니지. 왜냐하면 너희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섭혼술의 제물이 될거니까! 오호호호호!”

일령의 연기는 확실히 진명과는 달랐다. 카랑카랑 울리는 괴이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등골이 쭈뼛할 정도였다.

초위가 긴장을 놓지 않으며 일령을 향해 창을 겨누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야 알지. 너희가 믿는 구석이 고작 섭혼술 따위라면 겁날 것도 없다. 혈무련의 십대신위가 그리 만만할 줄 아냐?”

일령이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깡깡. 아직 뼈다귀도 굳지 않은 애송이 주제에 배짱 한 번 좋구나. 섭혼술 따위라니? 그 섭혼술이 이제껏 도륙한 중원의 문파가 몇 개인 줄 세어보거나 했더냐?”

일령은 이번에는 진명을 향해 말했다.

“소림사를 깡그리 뭉개줄 때도 여기 계신 적나한과 나, 단 둘이서 해치웠지. 그렇지 않아요?”

진명이 묵묵히 고개를 고덕였다.

소림이 마교의 손에 걸려 거덜이 났다는 것은 강호에서도 익히 알려진 얘기였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섭혼술이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을, 단 둘이서 해치웠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

초위를 비롯한 혈무련 무사들의 표정이 변했다.

“설마..... 섭혼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호호. 물론이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려무나. 천이 몰려온들, 백이 몰려온들 일단 섭혼술만 발동되면 그것들은 모조리 나의 수하야.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녀의 힘은 더 강해진다. 무공? 그것도 강할수록 좋지. 실혼인이 되어도 몸에 익힌 무공은 잊지 않으니까. 깡깡깡.”

일령의 요사스런 웃음 소리가 허공을 울렸다.

그와 더불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공포도 가슴 속을 짓눌렀다.

초위가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년 말대로 고작 단 둘일 뿐인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나 꺾고럽다니. 이걸 어째야 하지?’

이제는 진명이 나설 차례였다. 그는 일부러 한숨을 토해낸 다음 이렇게 말했다.

“노납은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저들은 어쩔 수 없었다만 너희들은 아직 낙양성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니, 기회를 줄 때 떠나거라.”

일령이 천연덕스럽게 앙칼진 노기를 터트렸다.

“뭐라고요? 그냥 보낸다고요? 적나한께서는 지금 이 좋은 기회를 그냥



## 武極 - Story Book

날려버리겠단 말씀인가요? 저 애송이들이 정말로 혈무련의 십대신위라면 꽤 쓸만한 실혼인이 될게 뻔하잖아요. 본교의 교주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일령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자 진명의 연기에도 한층 불이 붙었다.

“교주께서 명하신 노납의 임무는 분명 낙양성을 지키는 것! 만약 저들이 낙양성 안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는다면 노납은 마땅히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하지만 저들이 암전히 물러나겠다면 노납은 굳이 손을 쓸 이유가 없다.”

“말도 안돼요! 저렇게 싱싱한 먹이감들을!”

진명이 눈을 부릅 떴다.

“노납은 이미 오늘 너무도 큰 살계를 열었나니! 이제는 그만 달을 때가 되었도다!”

“치잇...”

일령이 짐짓 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한 발자국 물러났다.

진명은 속으로 숨을 고르며 초위를 비롯한 혈무련의 무인들을 마주 보았다.

‘이제 그만 대충 속아 넘어갈 때도 되지 않았나? 제발 그냥 가라. 제발!’

새삼 느껴지는 것이었지만 혈무련의 숫자는 지금 단심맹 보다 세 배는 더 많았다. 개개인이 평일지 정도의 고수라는 십대신위가 둘 이상만 왔다고 쳐도 아군의 필패다.

최악의 경우 도망칠 시간을 벌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전멸했을 것이다.

“낙양을 건드리지 않겠다면 노납은 손을 쓰지 않겠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노납이 베푸는 자비이자 경고일터! 어서 돌아가거라! 아니면 중원인들의 시체로 새로운 성벽을 쌓겠다!”

쿵!

동시에 진명은 진각을 밟았다.

남은 힘을 몽땅 쥐어 짜내어 밟은 진각은 웅장한 기세로 지축을 흔들었다.

진짜 적나한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아니, 실제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지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그래 보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실혼인이 되었다는 단심맹의 무인들이 진명과 일령의 뒤로 죽 늘어서기까지 하고 있다.

반신반의 했던 혈무련의 무사들도 이제는 수궁할 수밖에 없다는 눈치였다.

“제길...”

초위가 고개를 돌려 서문강을 바라보았다.

서문강은 그를 향해 묵묵히 고개를 고덕였다.

마교가 본격적으로 중원진출을 노린다면, 낙양성은 확실히 매력적인 거점이었다.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혈무련의 판단에 안일한 구석이 있었다.

혈무련에서 그들을 파견한 목적이 오늘 여기서 마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낙양성을 접수하는데 있다면 이쯤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서문강의 뜻을 알아차린 초위가 말했다.

“알았다. 혈무련은 여기서 철수하지. 단, 나는 남겠다.”

초위의 말에 진명과 일령 뿐 아니라 혈무련의 무사들도 놀랐다.

일령이 뜨끔한 속을 감추며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왜? 본교에 투항이라도 하겠다는 소리냐? 호호, 이거 놀라운걸. 혈무련에 이토록 말이 잘 통하는 자가 있었다니?”

초위가 침을 탁 뱉으며 대꾸했다.

“웃기시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뽀죌해서 그런다. 마교의 적나한이 어떤지 정도는 보고 가야할거 아냐.”

일령이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아, 저 빌어먹을 자식! 다 된 밥에 코를 풀어도 유분수지.’

서문강이 초위의 곁으로 다가왔다.

“관둬라. 너 혼자 적나한을 상대해봤자 련에 좋을 것 하나 없어.”

“누가 련주한테 한 소리 들을 까봐 그런대? 그냥 이걸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마교 놈들을 눈 앞에 두고 그냥 가다니..... 내가 그랬다간 이 창이 날

## 武極 - Story Book

버릴 거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심정이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나 초위한테 공이나 사나 그런 게 어딤어. 나는 내 풀리는 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놈이란 걸 잊었어? 괜히 십대신위 중 만이가 네가 된 게 아니야. 너는 그나마 생각하고 사는 놈이라 그런 거지. 나는 내 멋대로 살게 냅뒀.”

“네가 이렇게 나섰다면 적나한이 약속을 깰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남겠다는 거잖아. 너는 애들 데리고 먼저 가라. 나는 적나한에게 정식으로 비무를 신청한 거니까.”

“섭혼술을 쓰는 놈들이다. 비무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 몰라. 나야 풀리는 대로 싸우면 그만이라고!”

초위가 핵 몸을 돌려 진명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나랑 한 바탕 뛰어서 내가 진다면 우리가 여기서 암전히 물러나는 것으로. 네 놈들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코를 푸는 셈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어?”

초위가 숨을 고르며 자세를 잡았다. 긴 창을 중간쯤 빼 들어 중단을 겨냥한 자세였다.

“거절은 없다. 혈무련은 세치 혀만 써서 구워삶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거절했다간 저 쪽에서 의심하고 나설지도 몰랐다.

‘어떡하지. 진 형이 저 놈을 단매에 때려죽이지 않는 한 적나한이 아니란 걸 대번에 눈치챌 텐데. 그렇다고 못 싸운다고 할 수도 없고…….’

일령의 머릿속이 터지기 직전, 진명이 나섰다.

“옴마니반메흠. 진정 노갑의 손에 다시 한 번 피를 묻히게 하겠다면, 그렇게 해 주마.”

일령이 깜짝 놀라 진명을 바라보았다.

“설마 저 애송이가 지껄이는 대로 놀아주시겠단 건가요? 대체 뭐 하러

그런……. 정히 그러실 거라면 차라리 제가 손을 쓰지요.”

“시주는 가만 있으시오! 저들은 이미 떠나기로 하였으니 시주 또한 섭혼술을 쓰면 아니 되오!”

진명이 단호한 태도로 일령을 물리치며 앞으로 나섰다.

이왕 벌어진 일이었다. 자신이 혼자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령의 계략은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방법이 없다. 반드시 이길 수 밖에.’

일령이 진명의 생각을 알고 아미를 살짝 찡그렸다.

‘진 형이 무너진다면 혈무련은 쉽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정말 섭혼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더구나 진명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멀쩡한 몸이라도 십대신위를 상대로는 힘든 터에,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부상을 입고 있다.

그런데도 일령은 진명을 믿고 있었다. 일령 뿐 아니라 단심맹의 무인들도 마찬가지로 진명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껏 진명이 보여준 일들은 하나같이 다 불가능한 것들이었으니까.

진명은 들키지 않도록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추슬렀다. 할 수 없다 해도 지금은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는 적나한이 했던 것처럼 나한권의 자세를 잡으며 외쳤다.

“옴-마니반메흠! 오라!”

초위가 입꼬리를 말아 웃으며 초식을 펼쳤다.

“암, 그래야지! 간닷!”

창졸 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초위의 등을 보며 서문강이 말했다.

“초위의 말을 들었겠지. 비무가 끝날 때까지 우리도 남는다.”

누구도 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초위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라고 말하기는 했어도, 사실은 이렇게 떠나는 혈무련의 자존심을 그 혼자서 지키려 했다는 것쯤은 다들 알 수 있는 일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그러니 혈무련에게는 최소한 이 비무의 결과를 지켜 봐야 할 의무가 있었다.

속이 터지는 것은 일령을 비롯한 단심맹의 사람들이었다.

‘휴우. 저것들이 약속을 계속 지키기를 바라는 수밖에.’

광!

순간 초위가 땅을 박차며 진명에게 달려들었다.

진명도 아무런 생각 없이 초위를 상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적나한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상을 숨겨가면서 싸우려면 단 한 수에 끝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진명도 알고 있었다.

더구나 창은 길고 주먹은 짧다.

‘최대한 기다린다.’

초위의 창이 활처럼 구부러진다 싶더니 화살처럼 튕겨져 날아온다.

공격이라기보다는 상대를 견제하며 가늠하는 수법이다.

진명이 노린 것은 바로 이것이다.

‘지금이다!’





# 武極 - Story Book

## 제 28 화 [십대신위]

진명은 연이어 두 번의 진각을 밟았다. 한 번 진각을 밟을 때마다 초위와의 거리가 확연하게 좁혀졌다.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어엇?”

초위도 단숨에 간격을 좁혀온 진명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이미 상대가 적나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방심은 없었다.

진명이 눈을 부릅떴다.

진명이 가장 빠르게 펼쳐낼 수 있는 초식은 선인공수다. 진명의 주먹이 초위의 머리를 노리며 뺨어갔다.

초위는 다급히 창을 거두며 창대를 위로 들었다. 상체를 흔들며 슬쩍 진명의 주먹을 흘리려 들었다.

진명은 생각보다 초위의 반응이 재빠르자 선인공수로는 타격을 입힐 수 없다는 걸 알아챘다.

‘기회를 놓칠 순 없어!’

진명은 지난 수련으로 이미 한 단계 더 성숙해져 있었다. 연이어 초식을 펼칠 줄 안다.

선인공수를 거둔 진명이 패왕거정으로 전환했다.

“하!”

패왕의 기세로 노도 같은 권력이 초위를 덮쳤다. 진명이 목숨을 걸고 내뺐은 일격이다.

“이런 니미!”

초위는 급변한 초식에 싸한 기분을 느끼며 창대로 가로막았다.

콰!

적나한 조차도 받아내기 힘들었던 진명의 패왕거정이다. 그 단단한 창대가

부러지려 했다.

초위가 재빨리 자신의 팔뚝으로 창대의 뒤를 받치며 지지했다. 그러나 막대한 권력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했다.

과직!

단단한 창대가 그대로 부러지며 팔까지 함께 뒤로 밀렸다. 초위의 가슴이 흰히 노출되었다.

초위가 더 기겁한 것은 창대가 부러졌는데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은 주먹의 기세다.

‘당했다! 역시 적나한의 위명은 헛것이 아니었어!’

초위는 이를 악물었다. 가슴팍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한데 순간 권력의 기세가 수그러들었다.

보통 정식 비무는 거동하기 힘든 부상을 입거나 무기가 훼손되는 시점에서 승패를 가르곤 한다. 철저한 정파의 사람인 진명은 당연히 이것으로 비무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놓은 것이다. 마음을 놓은 순간에 주먹에 힘이 빠졌다.

그러나 반대로 뼈까지 사파의 사람인 초위는 지금 이 순간이 말만 비무지 생사를 건 대결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창대가 박살 나는 순간, 초위는 욕설을 내뿜음과 동시에 부러져 반 토막이 된 창으로 진명을 찔러갔다.

날카로운 단창이 짧은 공격 거리의 이점을 발휘해 진명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피할 도리가 없음을 깨달은 진명은 이를 으득 깨물고는 나한권을 연달아 펼쳐냈다.

퍽! 퍼버버벅!

섬뜩할 정도로 속도를 높인 권풍이 초위의 상체로 쏟아졌지만 공세에서 밀린 터라 이전 같은 위력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뼈를 부술만 했다.

진명은 이미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린 상태였다. 옆구리에 박힌 단창은 전혀

## 武極 - Story Book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충격이 어마어마했다.

진명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그가 겪어왔던 끈질긴 수련 탓이었다. 몸이 빈사상태가 될 때까지 주먹을 휘둘렀던 감각이, 생각을 대신해 진명을 이끌고 있었다.

“크윽!”

공격에는 성공했지만 상체를 흰히 드러냈던 초위도 나한권을 거꾸 얻어맞았다. 가슴에 집중적으로 권을 맞은 초위는 피를 토하며 바닥을 뒹굴었다. 동시에 진명 또한 한 쪽 무릎을 굽히며 주저앉았다.

“진...!”

하마터면 진 형이라고 외칠뻔한 일령이 다급히 입술을 깨물었다.

진명은 바닥에 무릎을 댄 상태에서 외쳤다.

“옴마니반메흠! 비무는 끝났다! 혈무련은 그만 물러나거라!”

그러자 혈무련 쪽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섰다. 그 역시 십대신위 중 하나인 조적항이라는 자였다.

그는 일령과 진명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웃기는군. 언제부터 적나한이 더벅머리가 됐냐? 계인은 뭐 엉덩이에 찍었냐?”

조적항은 방금 전 비무에서 깊숙이 눌러쓰고 있던 가사가 벗겨진 진명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가 수상쩍은 얼굴로 물었다.

“네 놈들 대체 정체가 뭐야?”

“... ..!”

당황한 진명과 일령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러나 이 행동이 오히려 그들이 이제껏 거짓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듯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일단은 우겨보기로 작정한 일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네 놈은 누구냐? 감히 본교의 적나한께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 거냐?”

“끝까지 적나한이라고 우겨댈 참인가 보군. 좋아,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적나한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라고? 그간 향간에 떠돌던 것은 뜬소문인 게로군.”

조적항은 간교에 능하고 머리회전이 비상한 자였다. 십대신위 중 무공은 가장 낮았지만, 실제로 그와 손을 섞어본 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조적항이 눈치와 잔머리로 자신의 실력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었던 탓이다. 어찌 본다면 그것 또한 그의 실력이라고 부를 만 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적나한께서 방금 전 네 놈들이 십대신위라 자랑하던 저 애송이 놈을 쓰러트리는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느냐?”

“아아, 물론 그랬지. 그런데 그 적나한께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으니까 하는 말이야. 결국 그 애송이 놈하고 막상막하라는 소리지.”

일령이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일부러 코웃음을 쳤다.

“적나한께서 방금 전 화산의 창천신룡을 상대하는 터라 잠깐 부상을 입으셨다. 네 놈들은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창천신룡 따위야 내 알 바 아니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네놈들이 진짜 적나한인지 의심스럽다는 것과 그것과는 별개로 몸이 둔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지.”

“호호! 적나한께서 부상을 조금 당한 것이 뭐 그리 큰 일이라고? 본녀의 섭혼술만으로도 네 놈들은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

조적항이 비릿한 웃음을 머금었다.

“그래? 과연 그럴까? 나 역시 생각해 봤지. 과연 그 섭혼술을 네 년이 부릴 수 있다면, 대체 왜 여기서 우리와 말썬이나 하고 있을까 말이야. 섭혼술로 실혼인을 만들면 네 년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말로 설득하려 드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는 등 뒤의 혈무련 무사들을 향해 말했다.

“뭇들 하느나! 섭혼술은 가짜다! 적나한 또한 허세일터! 혈무련은 오늘 예정대로 낙양성을 접수한다!”

일령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이, 이럴 수가..... 거진 다 성공했는데.....’



## 武極 - Story Book

진명이 막판에 힘을 거두지만 않았어도 초위에게 반격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 바보처럼 순진하게도 말 그대로의 비무를 했던 진명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게 진 형의 매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나한에 이어 십대신위까지 이만큼 상대했으면 진 형도 할 만큼은 다 한 거야.’

조적항의 말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었다.

그제서야 일령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공포에서 벗어난 혈무련의 무사들이 하나 둘씩 무기를 꺼내 들기 시작했다.

조적항이 기세 등등한 표정으로 말했다.

“까딱 했으면 십대신위가 십대바보가 될 뻔했군. 이런 비루한 거짓에 속아넘어갈 뻔 했으니. 안 그래, 초 형?”

저들이 눈치 챘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싸워야 할 판이었다.

일령은 힘 없이 어깨를 늘어트렸다. 어지간해서는 주눅들지 않는 당찬 성격의 일령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게 맺혀있었다.

‘차라리 그냥 도망칠걸. 그랬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 것은 청풍이나 평일지를 비롯한 다른 단심맹 인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확실히 살아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는, 그런 캄캄한 절망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왔다.

‘후우.....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진명이 마지막 남아 있던 힘을 다해 억지로 일어섰다.

눈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진명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신히 초점을 맞춘 뒤 말했다.

“낙양 땅...을... 밟, 밟으려면..... 우선 노납을 먼저 밟아..... 쿨럭!”

말을 하던 진명이 울컥 피를 토하자 조적항이 비웃음을 던졌다.

“알았다. 기꺼이 밟아주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조적항이 자신의 무기인 얇은 박도를 가볍게 휘두르며 앞으로 다가왔다.

“죽어랏!”

휘익!

허공을 빙글거리던 박도가 진명의 이마를 향해 날아왔다. 너무나 빠르고 날렵한 박도는 금방이라도 진명의 머리를 반으로 쪼갤 것만 같았다.

진명의 죽음을 시작으로 다시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도 뻔히 결과가 보이는 죽음의 전투를.

평일지는 속으로 욕을 내뱉었다.

‘빌어먹을.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진명 놈에게 얻어맞았잖아.’

그런 그조차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탓!

진명과 조적항의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조적항을 막아선 자는 진명도, 청풍도, 평일지도 아니었다.

십대신위의 수장인 서문강이었다.

“그만해라.”

그가 조적항을 향해 묵직한 음성으로 말을 던졌다.

“초위가 졌으니 우리는 물러난다. 그게 약속이었다.”

조적항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세웠다.

“설마 지금도 저놈이 적나한이라고 믿는 건 아니겠지? 지금 그런 갈잡은 사기에 놀아나자는 말이야?”

“그래.”

서문강의 말은 단단했다. 그라는 사람이 단단한 것처럼.

“혈무련을 너 같은 험잡꾼으로 만들지 마라.”

“뭐라고?”

험잡꾼이라는 말에 조적항이 핏발을 세웠다.

“누가 험잡꾼이라는 거야! 어디 한 번 해보자는 거야?”

조적항이 공중에서 멈췄던 박도를 위협적으로 그어 내렸다. 서문강이 손가락을



# 武極 - Story Book

통겨 박도의 검면을 쳤다.

땅!

박도가 옆으로 빗겨나고 조적항은 중심을 잃어 허둥댔다.

“제, 제길!”

조적항이 힘으로 서문강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혈무련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개새끼들의 집단이 아니다. 단심맹 놈들이 우릴 사파라고 얄잡아 부르는 게 너 같은 놈들 때문이다.”

“서문강!”

조적항이 서문강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불렀다.

“네 놈 혼자 고고한 척 해 봐야 뭐라도 바뀔 것 같으냐? 어차피 먹고 먹히는 게 이 바닥이야.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거다!”

서문강은 코웃음을 쳤다.

“힘을 숭상하는 건 마교의 무리들이지, 우리 혈무련은 아니다.”

서문강은 조적항을 무시하고는 핵 등을 돌렸다.

으득!

조적항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조적항이 박도를 날렸다.

“죽었!”

서문강은 힐끗 뒤를 돌아보며 소매를 흔들었다.

따땅!

박도에 두 개의 구멍이 생겼다. 박도가 부르르 떨리며 튕겨나갈 듯 했다. 떨리는 박도를 억지로 잡고 있느라 조적항의 손아귀가 찢어져 피가 흘렀다.

온 힘을 다해 휘두른 박도를 겨우 소매를 떨쳐 막고 박도에 구멍을 내다니.

같은 혈무련의 무인들은 경외심이 가득한 눈으로 서문강을 보았지만, 단심맹 무인들의 가슴은 서늘해질 수 밖에 없었다.

서문강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한 번 더 내 말을 무시하면 다음은 네 놈의 눈알과 이마에 같은 구멍을 뚫어주겠다.”

“아..... 알았다.”

조적항은 꼬리를 만 개처럼 입술을 깨물고 물러났다. 실력차이가 현저해서 어떻게 할래야 해 볼 수가 없었다.

서문강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초위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초위가 이를 갈면서 기묘하게 웃었다.

“당분간 낮 뜨거워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겠군. 가짜 적나한한테 맞고 쳐누웠다고.”

“죽지 않고 살았으니, 진짜 적나한에게 감사하는 게 좋을걸.”

“뭐?”

초위의 눈이 잠시 몽롱해졌다. 서문강의 말 뜻을 금방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가짜 적나한 행세를 했다면, 진짜 적나한이 있긴 있었다는 뜻 아니겠나? 진짜 적나한은 어디로 갔을까.”

“설마..... 저 놈들이 적나한을 쓰러뜨렸다고?”

“가짜 적나한은 너와 싸우기 전부터 부상을 당해 있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옆구리를 쏘신 정도로 저렇게 쓰러지진 않았겠지.”

“덕분에 내가 살았단 말인가? 진짜 적나한에게 부상을 당한 덕분에?”

초위는 황당한 얼굴로 욕설을 내뱉었다.

“빌어먹을! 이런 개 같은 일이 다 있나.”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적나한에게 부상을 당하고도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으니 멀쩡한 상태였다면 어땠겠는가!

초위의 눈이 힘들게 버티고 서 있는 가짜 적나한, 진명을 향했다.

씨익 씨익.

초위의 목소리가 바람이 빠진 것처럼 섰다. 가슴을 얻어맞고 폐에 손상을 입은 모양이었다.

“이봐, 서문강.”

“말을 삼가는 게 좋겠다.”

“그거 아냐?”

## 武極 - Story Book

서문강은 묵묵히 초위의 말을 들었다.

“염병할. 좀 전에 나 말이다. 그냥 산 것도 아니고 저 놈이 봐줘서 살아난 거야. 막판에 힘을 빼더군. 나야 그냥 쭈셔버렸지만.”

“안다.”

“크흑!”

초위는 신음을 삼키며 일어섰다.

가짜 적나한, 진명을 보고 고통스러운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머금었다.

“이봐! 고맙다고 해야 할 건 내 쪽이 아닌 건 알지?”

진명은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조금 끄덕였을 뿐이었다.

초위는 분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돌렸다.

서문강이 손을 들었다.

“모두 련으로 귀환한다!”

# 武極 - Story Book

## 제 29 화 [낙양성]

낙양성이 단심맹의 땅이 된지 칠주야가 지났다.

눈코 뜰 새 없는 칠일이였다. 부상자들을 가려 의방으로 보내고, 장안성의 본맹으로 기별할 사람을 보내고, 이후로 거처로도 삼을 수 있는 객잔을 선별하는 등 할 일은 많고 많았다.

다들 걱정했던 소림의 범우는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되어 장안성으로 호송되었지만, 그 외의 많은 이들은 대부분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다.

그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살아남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심신을 지치게 하는 일이었다.

“후우.....”

호젓한 달빛이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이제껏 중상자로 취급 당해 암전히 의방에서 누워지내야 했던 진명은 산책 삼아 안채와 이어지는 후원으로 나왔다.

차분한 달빛을 바라보는 그의 입에서는 절로 한숨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웬 한숨인가? 그것도 이런 달밤에.”

진명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후원 반대편에서 청성파의 청풍이 걸어오고 있었다.

“아아, 청풍 대협이셨군요. 왜 주무시지 않고 이런 곳에 나와계십니까?”

“그러는 자네는?”

“저는 잠이 잘 안와서.....”

진명이 말 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려 딴 곳을 바라보았다. 진명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 가를 눈치챈 청풍이 짐짓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사 잠이 안 올만도 하겠군.”

진명이 바라보는 곳은 소실산. 소림사 본문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검은 장막이 드리워진 소실산 수많은 봉우리들의 윤곽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진명의 마음은 형클어졌다.

삼시간에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사문. 그 악몽의 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아 간신히 도망친 것도 상처였는데 코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마음은 한결 더 쓰라렸다.

진명이 다시 한 번 작은 한숨을 쉬어냈다.

“죄송합니다. 청성에서도 본문을 잃으셨는데 괜히 저만.....”

“아닐세. 낙양 하면 원래 소림의 땅 아니었나. 자네가 그러는 것도 당연하지. 그나저나 이리 좀 앉게. 답답한 거야 알지만 자네 몸은 좀 더 정양해야 할걸세.”

청풍은 진명을 이끌어 후원의 평상에 앉혔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달빛이 살며시 흘러내렸다.

진명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청풍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는 속가제자라 들었는데 사문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깊군. 실례가 안 된다면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예?”

진명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이유라니요? 제자가 사문을 위하는 데 어찌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청풍이 싱겁게 웃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이로군. 내 듣기로, 소림에서는 오히려 자네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나 범여 대사께서 말이지.”

진명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제가 소림의 제자라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청풍은 진명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림에서 진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청풍은 단심맹의

## 武極 - Story Book

문지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단심맹 안에서 굴러가는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한들 놓칠 리가 없었다.

소림의 무공교두인 범여가 유독 진명에게 살갑지 못하다고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알기 때문이다.

범여 정도 되는 자가 진명의 가치를 몰라볼 리 없었다.

벌써 진명이 단심맹에 들어온 뒤로 세운 공은 결코 적지 않았다. 이번 낙양성 수복 건만 해도 진명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다. 대외적으로는 평일지가 적나한을 해치웠다고 알려져 있지만-적어도 목을 벤 것만큼은 사실이지만-진명이 적나한을 궁지로 몰아넣었기에 그게 가능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다. 진명 덕분에 단심맹 내에서 소림의 입지가 한층 더 굳어졌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 것을 볼 때 범여가 진명을 흑독히 다루는 이유는,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여겨도 무방했다.

그러나 청풍은 그런 사실을 진명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명제자도 아닌 속가제자가 어찌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나. 하지만 자네는 분명 재목일세. 단지 소림에서 그것을 알고 들지 않는 것 일뿐. 무림인들은, 특히나 따지기 좋아하는 정파인들에겐 기명과 속가의 차이가 엄청나지. 속가는 아무리 뛰어난 재목이라고 한들 빛을 보기 쉽지 않을뿐더러 익힐 수 있는 무공에도 한계가 있는 법일세.”

진명도 기명과 속가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 당장 화산의 평일지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토록 젊은 나이에 본 파의 절학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것을 모두 익힌 평일지의 재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만한 사문의 배려가 뒤따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청풍은 은근한 어조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설득력을 실어 말했다.

“그러니 속가를 버리고 정식 기명제자가 되게나. 그게 자네라는 재목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방편일세.”

진명이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물론 소림의 기명제자가 되기엔 늦었지. 그러나 청성의 기명제자는 가능하다네.”

진명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예? 청성이라니요?”

“청성은 허례허식 따지길 좋아하는 다른 구대문파와는 달리, 재능과 인성이 된다면 누구라도 제자로 삼을 준비가 되어있다네. 자네라면 청성의 적전을 잇는 게 가능할거야.”

청풍의 표정은 진지했다. 오히려 진명이 당황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왜? 못하겠는가? 사문을 배신하는 일 같아서? 그렇다면 자네가 틀렸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살아남은 정파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마교와 대항해도 부족할 판 아닌가? 그런데 소림은 단순히 정식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네와 같은 인재를 홀대하고 있는 거야. 자네는 마교와의 전쟁에 있어 큰 몫을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일세. 나는 그게 더 잘못된 일이라고 보네. 사문이라고? 사문을 바꾸는 일은 부모를 갈아치우는 일과 같다고? 금수가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없다고? 그거야 말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헛소리라네. 지금 자네의 재능을 일찌감치 싹부터 잘라내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소림일세!”

“.....”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던 진명이 입을 다물었다. 청풍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자네가 무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처음을 떠올려보게나. 속가가 되어서 시시껄렁한 이류무공이나 배운다 해도 자네는 소림이라는 이름을 달고 싶었던 겐가? 아니면 정파의 절정무공을 배워 고수가 되고 싶었던 것인가? 이 점을 잘 생각해보게나.”

진명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청풍이 먼저 일어서며 진명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청성은 자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겠네.”

청풍이 떠나고, 후원에는 진명과 달빛만이 남았다.



방금 들었던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곱씹는 진명의 얼굴은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소림의 삼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절정 고수가 되고 싶었던 걸까. 아니, 이제 와서 청성의 무공을 배운다고 절정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될까?”

진명의 상념은 계속되지 못했다.

“진형!”

이번에는 일령이었다.

아직 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진명은 다소 멍한 눈으로 일령을 보았다.

“에헤헤헤..... 나 옆으로 가서 앉아도 되고?”

진명이 싱긋 웃으며 옆으로 슬쩍 몸을 옮겼다.

“뭘 그런걸 묻고 그래. 와서 앉아.”

“응.”

일령이 진명의 옆에 걸터 앉았다. 일령의 얼굴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미소가 가득했다.

“진 형은 그래서 청성파에 입문하는 걸 고민하는 거야?”

“응?”

진명이 깜짝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놀래긴. 어쩌다 들었어. 나서기가 좀 그래서 모른 체 하고 있었지.”

“아아... 그렇구나. 아니,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라서.”

“뭐, 나도 놀랍긴 했어. 청성의 청풍 대협께서 저렇게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낼 줄이야.”

“야욕?”

“낄낄. 그럼 야욕이 아니고 뭐야. 대놓고 진 형을 욕심 내고 있다는 소리인데. 뭐, 이러저러한 걸 다 떠나서 기분은 좋지 않아? 청성을 대표해서 진 형을 영입하겠다는 거잖아.”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에이, 일단 좋은 건 좋아해도 되지 뭐. 진 형은 어쩌고 싶은데?”

## 武極 - Story Book

일령의 가벼운 질문에 진명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생각을 잇기 위해서였다.

“글쎄... 나는.....”

“내가 맞춰볼게. 진 형은 고지식하니까 청성에 새로 입문하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하겠지만, 소림에서 진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청풍 대협외의 말에는 신경이 쓰이는 거지?”

진명이 그만 피식 웃어버렸다.

“아우는 어찌 그리 내 속을 잘 알아? 가끔 아우를 보면 내 속에 들어앉았다 나온 사람 같아.”

“그거야 진 형이 단순하니까. 얼굴에 다 써 있다고. 범외 대사가 걸리는 거지? 유독 진 형을 대할 때 냉랭하시니까.”

“그건 내가.....”

“그건 진 형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진 형, 그런 말로 자신을 속이지 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재능이 없다고 제자를 구박하는 사문은 없어. 부족한 면이 나아지도록 이끄는 게 사문이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소림에 목숨을 빚지고 있어. 범외 대사께서는 그걸 아니까 날 그리 좋게 여기시지 않는 거고.”

“헤에..... 목숨 빚이라고? 무슨 일이었길래?”

진명은 일령에게 자신이 소림의 대화합에서 도망친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다. 그 와중에 범문이 그를 대신해 희생한 이야기도 해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일령은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진 형을 미워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누군 죽어도 되고 누군 죽으면 안된다니? 무슨 승려가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일령이 씩씩대며 말했다.

“진 형! 그럴 바엔 차라리 정말로 청성에 입문해 버려. 적전제자도 가능하다잖아. 그게 무슨 의미인줄 알아? 청풍 대협과 같은 항렬이 되는 거야. 장문인이 직접 무공을 사사할지도 몰라.”

“아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말이 안돼? 어차피 속가라고 무시하는 건 본문 아니고? 그렇게 무시하는 속가 제자 하나 떠난다고 누가 뭐라 그럴까! 진 형이 청성의 제자가 된다고 해도 소림에서는 짝 소리할 자격도 없어!”

일령이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쿵광대는 발걸음으로 후원을 벗어나며 일령이 목청껏 외쳤다.

“진 형!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청성으로 가버려!”

“그러지 마, 아우.”

“뭘 그러지 마! 그냥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일령이 화를 낸 채로 그렇게 사라졌다. 일령까지 그렇게 나오자 진명은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진명이 정말로 당황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다. 오늘 밤의 자그마한 사건이, 어쩌다 그 얘기를 일령에게 전해 듣게 된 임완춘에 의해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여어, 진 아우는 그 소식을 들었소?”

이제는 퇴원을 해도 좋다는 의원의 말에 진명은 의방을 나설 채비를 차리는 중이었다.

마침 임완춘이 들어서며 그를 불렀다. 임완춘은 일령보다 먼저 치료를 마치고는 화산파의 잡무를 돕고 있었다.

“아이고, 마침 퇴원하려는 중이었던 모양이네. 내가 시간을 잘 맞췄구먼. 이제 몸은 괜찮소, 진 아우?”

진명에 대한 호칭이 또 바뀌었다. 진 소협에서 진 형으로, 이제는 은근슬쩍 진 아우가 되어버렸다.

진명은 싱겁게 웃으며 대꾸했다.

“무슨 소식 말입니까?”

“아, 본 맹에서 낙양성으로 사람을 파견한다 하오.”

## 武極 - Story Book

“사람을요? 어떤 사람들을 말입니까?”

“그야 물론 낙양성을 접수했으니 정비할 인력들이겠지. 보아하니 낙양성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작정인가 보오. 이쪽도 장안성처럼 단심맹의 영역으로 꾸려나갈 듯 하더이다.”

“그렇다면.....”

“아, 맞소. 수뇌부 일부도 이동하고, 상권도 나눌 듯 하오. 게다가 소림의 범여 대사께서 무공교두로 오신다더만.”

진명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렇군요. 잘됐습니다.”

“으엥? 아우는 어째 기뻐하는 것 같소?”

“당연히 기쁠 수밖에요. 이제는 나한권의 삼 초식을 마저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엥?”

임완춘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아우는 이미 청성에 새로이 입문하지 않았소? 새로운 무공을 익히려면 바쁠 터인데 나한권까지 배우시게?”

진명이 속으로 혀를 찼다.

“그럴 리가요. 임 형이 잘못 안 겁니다.”

“응? 아니, 다들 그러던데? 그거 잘된 일 아니오?”

임완춘은 자신이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사실을 슬쩍 감추며 이렇게 대꾸했다.

사실 그도 범여가 진명에게 냉정한 것을 알기에, 그 부분에 대해 특히 분노하고 있던 일령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적극 맞장구를 쳤던 것이다.

진명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다들 그러다니요. 대체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 겁니까?”

“아니 뭐, 내가 말한 게 다지. 아우의 재능을 어여빠 보신 청성의 청풍 대협께서 직전 제자로 입문하도록 손을 쓰셨다면서? 내 그 얘기 듣고 역시 대협은 대협이라 감탄했다고요. 여러모로 보나 아우에게는 더 잘된 일 아니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청풍 대협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문을 옮길 수는.....”

그 때 의방 바깥 쪽이 약간 시끌시끌해졌다.

진명과 임완춘은 동시에 말을 멈추고 의방 입구를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의방 주인과 약간의 시비를 가리고 있었는데, 곧이어 기세 등등한 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니, 이놈들이 환자들이 있는 의방에서 왜이리 시끄러워?”

그를 본 임완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으앗, 영감! 영감도 여기 오셨수?”

이제 보니 당가의방의 당청이었다. 장안성에 있는 자들 중 가장 먼저 낙양성에 도착한 무리에 속해있던 모양이었다.





# 武極 - Story Book

## 제 30 화 [사제지정]

당청이 나이답지 않게 새침한 표정으로 눈을 흘겼다.

“아, 여긴 부상자 천지라며! 당연히 이 몸이 달려와야지! 원래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단심맹에서 이리저리 절차를 밟느라 받아주고 왔더니 이래 늦은 게다!”

“아이고, 뭐 낙양성에는 의원이 없을까봐?”

“의원이 있어도 어디 나만하겠냐!”

“암, 그건 그렇지만. 낙양성 의원 나리들은 어찌나 강직하고 친절한지 영감처럼 되도 않는 바가지 씌우는 자는 한 명도 없더이다. 부상자가 많다는 건 돈이 된다는 거지. 암. 암.”

“뭘야? 이 놈이 지금 나랑 붙어보자는 게야?”

당청이 눈을 부라리며 임완춘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니 이제 진명이 나설 차례다.

“당 의원님, 좀 참으세요. 임 형이 당 의원님을 보니 반가운가 봅니다.”

진명의 뒤에서 임완춘이 히죽 웃었다. 그간 미운 정이 든 모양인지 느닷없는 당청의 등장이 진명도 싫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진명을 바라보는 당청의 표정은 반가운 기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그러진 모양새였다.

당청은 뚝뚝 목소리로 진명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 그럴잖아도 네 녀석한테 할 말이 있었다. 너 사고쳤다며?”

“.....예?”

진명이 황당한 얼굴로 묻자 당청은 혀를 끌끌 찼다.

“아, 네 놈이 범여 대사가 싫다고 청성으로 내뺐다며! 그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리야? 낙양성으로 달려오신 범여 대사께서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바로 그거였다!”

“헉!”

어지간하면 내색을 앓는 진명의 입에서 작은 경악성이 터져 나왔다.

진명은 얼굴이 굳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색되어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 그게 무슨.....”

진명은 청성의 제자가 될 생각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청성 최고의 무공을 가르치겠다는 적전제자조차 그의 소림에 대한 일편단심을 꺾을 순 없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을 청성의 제자라고 할까.

진명은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그 뒤로 당청의 질타가 이어졌다.

“에잉, 찢찢..... 너 이제 어쩔래?”

진명은 당장 범여에게 달려갔다.

범여는 마침 임시로 마련된 낙양성의 수뇌부를 나와 자신의 거처로 옮겨가던 중이었다.

진명이 의방에서 정양하는 사이 낙양성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 단심맹의 깃발이 나부꼈고 정파의 무인들이 오가고 있었다.

마치 작은 장안성을 보는 듯 했다.

“범여 대사님!”

진명이 범여를 보고 다급히 외쳤다.

범여 역시 진명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냉정한 얼굴에서 진명은 나한권으로도 깨부수기 힘든 단단한 벽을 느꼈다.

“청성의 진 소협 아니신가? 이 졸납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신지?”

살얼음이 깔려있는 음성이었다. 진명은 입 속에서 질끈 혀를 깨물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자에 대해 어떤 소문을 들으신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기엔 그 말을 믿는 자가 너무 많더이다. 심지어는 청성의 청풍 대협까지 말이오. 할 말이 그것이였다면 이제 그만 졸납의 길을 방해치

# 武極 - Story Book

말아주시오.”

“대사님! 제자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아미타불..... 졸납은 소림에게 들을 얘기가 아무 것도 없소이다.”

범여는 냉정히 등을 돌려 가던 길을 가고자 했다. 다급해진 진명이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범여의 가사자락을 붙들었다.

“대사님!”

“갈!”

범여가 노호를 터트리며 진명을 책 밀쳐냈다. 범여의 힘에 떠밀린 진명은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히듯 쓰러졌다. 그 위로 범여의 차가운 음성이 떨어졌다.

“방해하지 말라 했거늘! 너는 이제 소림의 제자도 뭣도 아니다! 너의 길이 소림과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되었다면 그리하면 된다! 어차피 네 스스로도 소림에 부끄러운 제자라 이르지 않았더냐!”

진명은 엉덩이를 땅에 댄 채 외쳤다.

“예! 그렇습니다! 제자의 실력은 미천하고 소림의 벽은 너무도 높다고 느꼈습니다! 하나의 초식을 익히기에도 제자는 죽을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스스로 소림의 이름을 내세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렇기에 제자는 더 이상 부끄러운 제자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진명의 음성이 높아짐에 따라 범여의 노기도 거세졌다.

“수련이 고되다고, 남들이 조금 추어준다고 그새 사문을 바꿀 결심을 한다는 것이 너를 부끄러운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남 탓을 할 게 아니다. 너는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남들이 추어주는 게 아무 것도 아니라면, 남들이 무어라 한들 그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는 소림에 목숨 빛이 있습니다. 제자는 죽어서라도 소림에 그 빛을 갚아야 합니다. 제자의 마음이 이렇게 확고한데 남들이 떠드는 몇 마디 말이 어찌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미 죽은 목숨을 어찌 갚는단 말이나! 네 놈이 소림에 남아 있으면, 범문의

목숨을 되돌려 오기라도 하겠단 말이나?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이미 소림과 너의 인연은 끝났다. 너는 그저 네 갈 길을 가거라!”

진명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아직 대사께서 하신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무어라?”

범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렇습니다! 분명 나한권 2초식을 완성해 목각인형에 권흔을 남기면 3초식을 가르쳐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사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도 저버리실 참입니까?”

수더분한 진명이 저렇게 까지 말하는 것은 그 역시 화가 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말은 통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쁜 점만 보려는 범여에게 진명은 서운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그런 면에서는 일령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사문은 재능 없는 제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자를 도와 제 몫을 하게 만들어야 옳았다. 그런데 범여는 반대로만 하려고 하니 속이 상하고 애가 탔다.

“하..... 좋다!”

범여는 갑자기 가사를 벗어 던지고 맨 피부의 상체를 드러냈다.

“나를 목각인형이라 여기고 내 몸에 권흔을 만들어 보거라.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외치니 2초식은 완성이 된 모양이로구나.”

진명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어떻게..... 제자는 못합니다.”

범여가 그를 비웃었다.

“왜? 자신이 없느냐?”

“아닙니다. 사문의 존장을 해할 수 없음입니다.”

“하! 너 스스로 소림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사문의 존장이 아니다.

## 武極 - Story Book

그저 미천한 졸승일 뿐이다. 자, 나를 때려눕히고 네 놈의 나한권을 증명해 보거라. 네 말대로 2초식이 완성이 되어 내 몸에 권흔을 남긴다면 3초식을 마저 가르쳐주마.”

범여의 말에는 함정이 있었다.

진명이 범여의 말을 따라 그를 해하여 나한권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한다면, 범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명에게 3초식을 가르쳐줄 것이다. 하지만 사문의 존장을 해한 진명이니 더는 소림의 제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진명이 기어코 범여에게 손을 댈 수 없다며 나한권을 시전할 것을 거절하면 범여는 3초식을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진명으로서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진명이 입술을 물어 뜯었다. 그러나 그는 나한권을 시전하는 대신 범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네 놈은 죽는 날까지 3초식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이래도 할 수 없다 하겠느냐?”

“예. 할 수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 다시 물으마. 네가 지금 나에게 나한권 2초식을 보이면 나는 3초식은 물론이거니와 네가 배우고 싶다는 소림의 무공을 모두 가르쳐주마. 어차피 지금은 문파 구분 없이 자유롭게 구대 문파의 무공을 배울 수 있다. 네가 소림의 제자이건 아니건 무공을 배우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도 없을 것이다. 이제 네 대답은 무엇이냐?”

그래도 진명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진명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소림의 무공을 배운 것은 사문의 존장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너는 소림의 무공을 배웠느냐?”

“그건.....”

진명의 머릿속에 각원의 모습이 스쳐갔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무공다운 무공을 가르쳐주었던 각원.

단초식 하나뿐이었지만 진명에게는 경이로운 모습이었다. 명문정파란 이런 것이다. 진명은 그때 소림을 느낄 수 있었다.

각원은 소림의 무공은 인내와 정진이라는, 길고 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진명에게 소림의 무공을 배우는데 있어 가장 값진 것을 가졌다면 그를 인정해주었다. 무인으로서 진명을 처음 인정해 준 자 또한 각원이었다. 삼류였던 진명에게 일류를 보는 눈을 가르쳐준 것도 각원이었다.

비록 속가에게는 명색상의 사부일 뿐이라 하나, 진명에게 있어서 각원은 진정한 스승이었고 사문이었으며 소림 그 자체였다. 진명은 각원에게 입은 은혜는 셀 수 없다고 여겼다. 각원이 아니었다면 진명은 여전히 삼류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다.

“제자 비록 아둔하고 부족하오나, 그런 제자에게 소림의 무공을 익히는 가장 값진 것을 가진 것이라며 제자를 바르게 인도해준 스승이 있습니다. 제자는 소림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승? 소림에 차이도록 많은 것이 나한권 일 초식을 배워간 속가들이다. 너를 가르쳐준 스승은 아마 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를 너는 스승이라 부르느냐?”

“물론입니다. 설사 각원 사부께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제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스승은 오로지 그 분이십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듯.

진명의 얘기가 범여의 귀를 청천벽력처럼 울렸다.

생각도 못한 이름이 진명의 입에서 나와버린 것이다.

“뭐...뭐?”

너무 놀란 범여는 자신의 앞에 진명이 서 있다는 것도 잊었다. 그의 노안(老顔)에 깊은 회한의 주름이 어린다.

‘각원이... 각원이 이 아이를 가르쳤다니..... 이 무슨 운명의 조화란 말인가!’

범여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다가 급격히 풀어지는 것을 반복했다. 진명은



## 武極 - Story Book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터라 범여의 표정을 보지 못했다.

‘어찌 그런... 하늘이 어찌.....’

범여의 눈가에 애잔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자신의 손으로 모질게 목숨을 끊어준 그 제자를.

각원은 그에게 가장 각별한 제자였다.

처음에는 각원도 느리고 둔했다. 초식 하나를 익히는데 남보다 곱절은 걸렸다.

그러나 역으로 가장 반듯하고 가장 정확하게 초식을 익혀나갔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쌓이자 각원은 가장 특출 난 제자가 되었다. 초기에 각원을 놀리듯 빠르게 초식을 배워나가던 제자들은 더 이상 각원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 모습이 기특해 속으로 얼마나 흐뭇해 했던가.

그러나 야속하게도 하늘은 범여의 손으로 각원의 목숨을 거두게 했다. 실혼인이 되어 소림을 공격하던 제자를, 범여는 악한 자식을 거두는 심정으로 베어냈다.

그러면서 그는 각원을 원망했다. 어찌 그리 모진 운명을 자신에게 주었냐고.

왜 하필 가장 아끼던 제가가 실혼인이 되어 왜 하필 그로 하여금 목숨을 거두게 만들었냐고.

그런데 각원은 범여에게 진명이라는 인연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이제야 왜 진명이 그토록 눈엣가시였는지 범여는 깨달았다.

‘그 아이와 닮아서 그랬구나. 그 아이와 닮아서.....’

저런 놈도 살았는데 왜 각원이 죽었느냐 했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저런 놈이 죽지 그랬냐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진명은 각원이 자신을 대신하여 범여에게 보낸 자였다. 꼭 움켜쥔 범여의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부디 그런 말씀은 거두십시오. 제자는, 제자는.....”

진명이 애끓는 목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었다. 범여는 각원의 이름이 불러일으킨 강렬한 상념에서 깨어나 진명을 바라보았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범여는 그냥 이렇게 말했다.

“연무장이..... 마련되는 대로 목각인형을 준비하겠다. 너는 그때 나한권을 부끄럽지 않도록 보여야 한다. 네 성과가 내 생각보다 모자라거든 벌을 내릴 것이다. 소림의 제자는 모두 스승으로부터 무공과 함께 벌을 배워왔다.”

범여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다.

상체는 여전히 벗은 채였다. 그는 땅에 벗어 던진 가사를 다시 주워 입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진명은 눈을 크게 뜨고는 범여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범여가 소림의 제자라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무엇이 갑자기 범여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몰랐지만, 진명의 마음 속에는 안도와 환희가 차 올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여 대사님!”

등 뒤로 진명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범여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꼭 움켜쥔 채로 떨리던 그의 주먹이 서서히 펼쳐졌다. 그와 더불어 범여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명은 저도 모르게 바보 같은 웃음을 흘리며 숙소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침내 인정받았다.’

그 사실에 자꾸 바보처럼 히죽히죽 웃음이 나왔다.

단심맹에서 새롭게 정해진 진명의 숙소는 소요루였다. 낙양성 안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곳이었다. 평일지를 비롯한 일대제자도 그곳에 머물렀다.

진명은 단순히 객잔에 여유가 되어서 자신이 이곳으로 온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야차에 이어 적나한까지 상대한 진명의 공을 높이 산 수뇌부의 결정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청풍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진명이 그저 소림의 별 볼일 없는 속가제자로 썩기에는 아까운 인물이라는

# 武極 - Story Book

말에는 그들도 충분히 동감이었다.

-그가 청성의 적전을 이어받는다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네. 가능한 그를 회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청성의 장문과 청풍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미 오고 간 터였다.

진명은 이러한 일들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이전처럼 나한권의 3초식을 배울 생각을 하며 가슴이 부풀어 있는 중이었다.

“하아... 다행이다. 임 형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군. 혹시 내가 잘못될 까봐

걱정을 많이 했으니.”

진명이 들뜬 음성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숙소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누구세요!”

“에?”

날카로운 여인의 음성이 들리며 진명의 코 앞으로 작은 비도가 날아들었다.

쌔액!

“으앗!”

진명은 기겁했다.

# 武極 - Story Book

## 제 31 화 [심란]

진명은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젖혀 아슬아슬하게 비도를 피해냈다. 하마터면 눈 뜨고 코가 베일 뻔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인이 홀로 머무는 처소에 함부로 들어온 이가 할 말이 아닐 텐데요.”

어이가 없어진 진명이야 말로 큰 소리를 냈다.

“여인이 머무는 처소? 그쪽은 대체 누군데 남의 처소에서.....!”

“예? 남의 처소라고요?”

여인이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얼굴을 붉혔다.

“이곳이..... 그럼 소협외의 처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원하신다면 맹에서 준 증표를 보여드릴까요?”

진명이 당당하게 외치며 죽간편을 꺼내 들자, 여인은 한층 더 당황하여 허둥대기 시작했다.

“이런, 이런 일이! 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만 방을 헛갈려 하여.....”

그제야 여인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 단정한 이목구비와 크고 맑은 눈이 인상적인 미인이었다. 일령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좀 더 독특한 느낌이 있었다. 차분하고 어른스럽고,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고혹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미인이다.

상황이야 어떻든 처소의 침상 근처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마주하게 된 진명도 덩달아 얼굴을 붉혔다.

“아, 아니..... 헛갈리셨던 거라면 됐습니다. 저는 자객이라도 든 줄 알았습니다. 하긴, 저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인물에게 자객 따위가 들 리 없겠지만.”

“어마.”

그러자 여인이 맑은 눈을 반짝 빛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만일 진 소협에게 자객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객이 진 소협의 실력을 두려워하여 그런 것이겠지요. 진 소협께서는 너무도 겸손하십니다.”

“아? 저를 아십니까?”

여인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단심맹의 사람치고 어찌 진 소협을 모르겠습니까.”

‘허..... 이상한 여인이네. 나를 안다면서 다짜고짜 칼을 날릴 건 또 뭐지?’

진명은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오해가 풀린 것이 기뻐 이렇게 말했다.

“예예. 그렇다면 제가 방문을 열 때 다른 마음이 없었다는 것도 믿어주시겠지요.”

여인이 알 듯 말 듯 살며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다고 하는 건지 아니라고 하는 건지 통 모를 고갯짓이었다.

“저..... 괜찮다면 이제 그만 제 방에서 나가주시겠습니까?”

딱히 할 말도 없던 진명이 이렇게 말하자 여인은 허둥지둥 문가로 다가왔다.

“어마,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눈치 없이.....”

“괜찮습니다. 그럼 살피가십시오.”

진명이 한쪽으로 비켜서자 여인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진명의 콧속으로 한 줄기 난향이 파고들었다. 여인의 몸에서 그토록 달콤한 향기가 난다는 것을 진명은 처음으로 알았다.

막 방을 나서기 전 여인이 진명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이리 말씀 드리면 당돌하다 생각지 모르겠지만..... 소녀는 이렇게라도 진 소협을 뵈어서 기쁩니다.”

“.....예?”

묘령의 여인은 허둥대던 첫인상과는 다르게 요염한 눈웃음을 남긴 채 사라졌다.



## 武極 - Story Book

여인의 몸에서 풍겨오는 그윽한 난향이 아직도 방안에 남아 있었다.

“도대체 누구지?”

진명은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리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일령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뻔 했다.

그거 참 수상하기 그지없네! 뭐라고? 우연히 방을 착각해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아는 남자인데다가 그렇게라도 뵈게 되어 기쁘다고? 그거 완전 여우구만! 그건 백이면 백, 날 잡아 잡썬 하고 들이 대는 거 아냐! 분명히 진 형 방인지 알고 일부러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걸 무림 용어로 뭐라는 줄 알아? 꽃뱀이라고 꽃뱀!

일령의 입에서는 이 말이 튀어나가기 직전이었다. 그게 무슨 무림용어나고 진명이 반박한다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두서가 없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일령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억지로 꼭 눌러 삼켰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간 진명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라도 질투로 오해할까 싶기도 했다.

‘질투? 아니, 내가 왜 질투를 해? 난 그냥 그런 여우 하나 때문에 여자들이 싸잡아 욕먹을 까봐 그러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정리한 일령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래? 진 형은 어땠어? 그렇게 예쁜 여자를 처소에서 봤는데 가슴 떨리고 그랬겠네. 시절이 하 수상해 그렇지 진 형도 한창 나이 아냐.”

그러자 진명은 쑥스러운 미소를 흘렸다.

“아니, 아우. 무슨 그런 말을... 그야 물론 그 소저가 예뻐던 건 사실이지만 말이야.”

일령은 눈이 뜨끈해졌다. 눈에 불꽃이 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웬지 모르게 열이 받았다.

“아하, 그러셔? 얼마나 예뻐길래?”

엇그제 숙소에서 보았던 묘령의 여인을 떠올리던 진명의 눈가가 가늘어졌다. 잘 떠오르지 않는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지만, 일령의 눈에는 그마저도 곱게 보이지 않았다.

“음... 글썸? 내가 여자를 대한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살면서 이제껏 본 여자들 중에선 제일 예쁜 것 같아.”

임완춘이 그 말을 들었다면 기겁을 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아무리 남자처럼 괄괄한 성격의 일령이라지만, 그녀 역시 여자다. 여자의 앞에서 다른 여자를 칭찬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더구나 일령이라면 어딜 가도 외모가 빠지는 편이 아니다. 강호가 마교에 유린당하는 순간에도 몇몇 남성들에게 구애를 받아본 일령이다.

드디어 일령은 폭발하고 말았다.

“뭐?”

짧은 한마디에 짙은 감정이 잔뜩 응축되어 뿜어나왔다. 일령의 짧은 대꾸에는 ‘그럼 나보다 더 예쁜단 말이냐!’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

물론 일령을 이제껏 여자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진명은 그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진명은 정말로 일령을 동생처럼 여기고 있었다. 생사의 위기를 몇 번이나 함께 넘기고 나니, 이성보다는 오히려 동료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대뜸 열이 받은 일령이 칼을 꺼내 들었다.

퍽!

“아파, 아우!”

별안간 칼등으로 등짝을 얻어맞은 진명이 놀란 얼굴로 일령을 바라보았다. 일령은 씩씩대다가 갑자기 살벌한 미소를 지었다.

“진 형영~ 우리 간만에 비무나 한 판 때릴까!”

## 武極 - Story Book

일령의 눈가에 도는 살기에 진명이 주춤했다.

“으, 응? 왜 갑자기?”

“아, 몰라몰라! 비무하자니까! 당장 일어섯!”

“아, 저기 난 아직 몸도 다 낫지 않아서.....”

“시끄러워! 간닷!”

다음 날.

임완춘은 아침 일찍 숙소로 진명을 찾아왔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아우! 이게 무슨 일리오? 행여 범여 대사께서 심기가 불편하다고 아우를 두드려 패기라도 하신 게요?”

진명이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무슨 그런...”

진명의 눈두덩은 시퍼렇게 부어 올라 있었고, 얼굴도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그럼 간밤에 적나한에 버금가는 자객이라도 숨어 들었나?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단심맹의 영웅이 이 꼴이 될 리가!”

“하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오? 그것도 작심하고 팬 것마냥.”

“아, 이건 어제 령 아우와 비무를 하다가.....”

“험!”

임완춘은 숨을 들이켰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진명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일령 소저가 진 아우를 그리 두들겨 뺨단 말이오? 그 곱디고운 손으로?”

진명이 쓰게 웃었다.

“령 아우의 실력이 저보다야 출중하니까요. 원래 비무를 하면 제가 한 번 손을 쓰기도 벅찬 상대였습니다.”

“그래도.....”

임완춘은 묘한 눈초리로 진명의 위아래를 훑어 보았다.

일령의 실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진명은 최근 급성장해 기세를 타고 있다. 장안성에서 사파의 용병대인 흑도군의 야차를 쓰러뜨리고, 낙양성의 마교 분타에서는 적나한과 거의 동수를 이루었다. 더구나 부상당한 상태로 혈무련 십대신위 중 한 명을 상대하기까지 했다.

일령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야차나 적나한에 비할 바는 아니다. 물론 진명의 몸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아무래도 진 아우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만 힘을 쓰는 모양이구려.”

“하하하.....”

진명은 통통 부은 얼굴로 어색하게 웃었다.

느닷없이 비무를 하자며 달려든 일령에게 선기를 빼앗긴 탓도 있지만, 진명은 일령에게 함부로 손을 쓸 수도 없었다. 설마 죽이진 않겠지 생각하며 그만두라고 공허한 외침을 날리다가, 한 번 맞기 시작하면서 줄창 얻어맞은 것이다.

일령이 어찌나 독하게 손을 썼는지 진명이 제 실력을 발휘할 틈도 없었다. 아니, 진명이 일령에게 과하게 손을 쓸 수 없는데 비해 일령은 마음껏 손을 썼으니, 어떤 면에서 보자면 야차나 적나한보다 진명에게는 일령이 더 무서운 상대였다.

지금 진명의 얼굴은 장안성에 처음 온 날 당가의방의 당청에게 속아 장안사호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을 때를 연상하게 했다.

임완춘이 진명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으!”

진명이 통증에 얼굴을 찌푸리자 임완춘이 탄식처럼 말을 내뱉었다.

“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얼굴을 이래 만들어 놓나. 일령 소저가 뭔가 심사가 틀어진 일이 있었던 모양이로구만.”

“예에? 제가 령 아우를 화나게 했다고요?”

진명이 고개를 기우뚱거렸다. 살기를 풀풀 흘리며 덤벼들던 일령의 모습이 떠올랐다.

## 武極 - Story Book

“아하. 그게 나한테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런데 왜 화가 났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이 일령의 화를 돋웠던 기억은 없었다.

임완춘이 다시 말했다.

“잘 생각해 보오. 원래 여자들이란 사소한 일에도 불 같이 화를 내기 마련이니까. 진 아우가 혹시 일령 소저를 놔두고 다른 여인과 바람이라도 난 게 아니요?”

진명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흔들었다.

“바람이라니요. 그럴 리가요.”

“정말 없소? 그런데 일령 소저는 왜 그렇게 화가 났지?”

진명의 얼굴이 붉어졌다.

“령 아우와 저는 그저 좋은 친구 사이일 뿐입니다. 령 아우야 성격도 화통하고 무공도 출중한데다가 머리도 좋고..... 여러모로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친구입니다. 저야 저 같은 것과 잘 어울려주는 령 아우가 감사할 뿐이지요.”

임완춘이 혀를 찼다.

“에잉, 쫓쫓. 진 아우는 말이야, 사람은 진득하니 좋은데 가끔 너무 겸손해서 좀 그렇다니까. 내 볼 땀 우리 진 아우와 일령 소저는 딱 들어맞는 한 폭의 그림 같은데 말이지.”

그 말에 진명은 묘령의 정체 모를 여인이 떠올랐다. 난향을 풍기며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를 울리던 여인.

가뜩이나 달아오른 진명의 얼굴이 더욱 더 벌개졌다.

“괜한 말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에그, 부끄러워하긴. 연애란 게 원래 해보기 전이야 어렵지. 아우도 그렇게만 생각 말고 어서 빨리 일령 소저와 같은 참한 처자를 만나서.....”

계속 이어지는 일령 타령에 불편함을 견디다 못한 진명이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임 형께서는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설마하니 여인네들 애기나 하려던 건 아닐 테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내 또 깜빡 했네. 아우와 있으면 이렇게 정신줄을

놓는다니까. 지금부터 단심맹의 낙양성 분타주를 뽑기 위한 전체회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도 가십시오.”

전체회의라는 말을 처음 들은 진명이 물었다.

“전체회의를 할 만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에이, 낙양성이야 아직 장안성에 비할 바가 아니지. 일대 제자들은 다 합하여도 열이 될까 말까요. 어차피 아직 부상자들이 반이 넘는 형편인데 이 참에 전체회의 한 번 하지 않고 뭐하겠소. 급히 온 수뇌부 몇과 일대제자들만 갖고 하는 회의도 모양새 없고 그렇나 보오.”

“그렇군요.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가깝소. 어서 채비하고 가십시오.”

단심맹 낙양분타의 첫 번째 전체회의장은 가깝고도 단출 했다.

바로 소요루 객잔의 일층 식당이었던 것이다. 상석에는 장안성에서 파견한 수뇌부 인원들이 자리했고, 그 밑으로 각 문파의 일대제자들이 각각 자리 잡았다. 범여나 청풍은 이들보다는 좀 더 상석 쪽에 앉아 있었다.

나머지 인원들은 대충 남는 자리에 합석하거나 서 있어야 했다.

소요루는 낙양성에서 첫 째 둘 째를 다투는 큰 객잔이었지만, 전체회의장으로 쓰기에는 확실히 부족한 감이 있었다.

진명과 임완춘은 가장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간신히 까치발을 들고 서 있을 수 있었다. 다행히 회의는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다.

진명은 일령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일령은 일대제자들이 자리한 한 구석에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을 한 채 앉아있었다.

“령 아우!”

진명이 작게 일령을 불렀다.

일령이 고개를 돌려 진명을 바라보았다. 진명이 빙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퉁퉁 부어 있는 얼굴에 억지로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 武極 - Story Book

“나 여기 있어!”

평소의 일령이라면 그런 진명을 보고 ‘푸핫!’ 하며 웃음을 터뜨렸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일령은 새침한 표정으로 진명을 못 본체 했다.

“어?”

화가 났어도 금세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진명은 당황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임완춘이 한 소리 거들었다.

“허어. 일령 소저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군. 진 아우는 이제 큰 일 났소. 자고로 이럴 땐 그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수 밖에 없대요.”

“아니, 무얼 잘 못 했는지 알아야 빌어도 빌 게 아닙니까!”

“쫓쫓.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일이 어려운 게요.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 여자란 통 알 수 없는 동물이 되기 마련이지.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고 들러다간 피가 마르는 쪽은 외려 남자라니까?”

# 武極 - Story Book

## 제 32 화 [붉은 향기]

“자꾸 그런 되도 않는 말 마십시오. 령 아우와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저래 화를 내나? 그게 더 수상쩍지.”

“저 정말 화냅니다? 행여라도 령 아우에게 누가 가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아, 진 아우처럼 듬직한 애인이 생긴다는데 일령 소저에게 누가 될 일이 뭐가 있겠소? 겸양도 이쯤 하면 병이지 병이야.”

두 사람이 계속 옥신각신 다투자 보다 못한 뒤에서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 좀 조용히 합시다! 무어라 하는지 좀 들어야 할 거 아니오!”

그제서야 임완춘이 찢끔하고 입을 닫았다. 진명도 머쓱하게 어깨를 움츠렸다.

민망해진 임완춘은 공연히 다른 곳으로 화재를 돌렸다.

“아니, 근데 이리 좁은 곳으로 사람을 몰아넣고는 왜 이리 늑장이지? 수뇌부도 열추 다 모인 듯 한데 왜 저리 미적대는지 혹시 누가 아시오?”

방금 전 임완춘에게 핀잔을 주었던 누군가가 쌀쌀맞게 대꾸해 주었다.

“그러게 좀 조용히 하지 그러셨소. 저 앞에서 뭐라고들 하는데 내 들려야 말이지.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오.”

“음? 그럼 꽤나 중요한 양반인 모양인데 대체 누구지? 내 볼 땐 대충들 와 있는 듯 한데.”

“내 말이 그 말이오.”

임완춘이 다른 자와 말을 주고받는 사이 진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무래도 회의가 끝난 다음 령 아우와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겠어. 대체 왜 화가 난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야. 거참, 화가 난 이유라도 말해주면 좋으련만.’

임완춘이 진명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그나저나 진 아우는 낙양성 지부장 노릇 해볼 생각 없소?”

“예?”

진명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임 형께서는 대체 왜 그러십니까. 방금 전까지는 령 아우 일로 자꾸만 실 없는 소리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지부장이라니요.”

“에이 참. 그게 아니오. 이게 나름 괜찮은 기회라니까. 분명히 낙양성 지부장이야 평일지나 뭐 그런 작자들이 하겠지만 요새는 진 아우의 명성이 워낙 높아졌기에 또 모르는 일 아니겠소? 여기 있는 단심맹 사람들 모두가 진 형이 적나한에 이어 혈무련까지 퇴치하는걸 똑똑히 보았던 말이오.”

임완춘은 일부러 주변 사람들 더러 들으라는 듯, 힘을 주어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방금 전까지 면박을 주던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임완춘에게 말을 건넸다.

“아니, 그게 사실이오? 여기 계신 소협이 바로 그 분이셨소?”

진명의 얼굴이 붉어지고, 임완춘의 어깨가 으쓱거렸다.

“아, 그렇지. 여기 진 아우가, 뭐 나와는 의형제의 깊은 연을 맺긴 했지만, 여튼 바로 그 소림의 진명 소협 되신다오.”

어느 샌가 진명은 임완춘의 의형제가 되었다. 몇 사람만 더 거치면 진명과 임완춘을 진짜 형제로 아는 자도 생겨날 것이다.

“이거 반갑소이다. 나는 기정방이라고 하오. 명문정파의 제자도 아니고, 실력도 보잘것없소만. 진 소협을 이렇듯 가까이서 뵈게 되어 영광이외다.”

기정방이 ‘카’ 하고 조그맣게 탄성을 읊조리며 말했다.

“진 소협이야 기억하실 리 없겠지만 나도 혈무련 놈들 앞에서 실혼인 노릇을 했더랬소.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통쾌하면서도 조마조마했다오.”

기정방이라고 하는 다부진 인상의 대머리 사내는 임완춘을 제치고 나서서 진명에게 포권을 했다.

진명은 얼떨결에 그의 인사를 받게 되었다.

“영광이라니, 과찬입니다. 저는 소림의 속가 출신인 진명입니다.”

“허어, 진 소협이 속가라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려. 그런데 속가 제자가 어찌



그런 출중한 무예를 익히셨소?”

“출중하다니요. 본문의 범여 대사께서 들으셨다간 또 제게 경을 치실 겁니다.”  
기정방은 호기롭게 껄껄 웃었다.

“보통 속가가 아닌 모양이구려. 범여 대사께서 인신 수양까지 겸해주시니 말이오. 그러고 보니 그 얼굴은 범여 대사의 작품인 게요?”

진명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어댔다.

“아니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대사께서야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니 걱정이 많으신 것뿐입니다.”

“그렇소? 내 보기엔 소협처럼 젊은 나이에 그만한 실력을 갖추기란 지난한 일 같소만.”

진명과 기정방이 대화를 주고 받는데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엇? 이 분이 정말 소림의 진 소협이시오? 정파의 적나한 말이지?”

이제 보니 진명은 낙양성 내에서 꽤나 유명인사가 되었던 모양이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진명 주위로 몰려들며 잠시 소란이 일어났다.

“하이고. 생각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젊은 친구가 대단하구만.”

“그러게나 말일세. 게다가 사람도 진득해 보여. 실력 좀 있다고 으스스대던 평일지와는 완전 딴 판인데?”

“어이, 진 소협! 이쪽과도 인사 좀 나눕시다. 나는 해남에서 온.....”

회의가 시작되려는 찰라 느닷없는 소란이 생기자 상석에서 누군가가 일어서서 차갑게 외쳤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이래서는 회의고 뭐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일령이었다. 진명과 일령의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도 일령은 찬 바람이 일 만큼 냉랭한 기세로 핵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진명이 서운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러지 마, 아우.....”

그때였다.

입구부터 뻑뻑한 단심맹의 군웅들 사이로 표출한 그림자 하나가 스쳐갔다.



## 武極 - Story Book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순간 입을 딱 벌리고는 그림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알고 보니 그림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실로 감탄할 만한 경공술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마치 바람처럼 가벼이 스쳐간 그가 반듯한 걸음새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청성의 문주희입니다.”

문주희라는 이름에 군웅들의 여기저기에서 ‘아!’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청성의 적향 문주희! 과연 명불허전이로군.”

군중들의 시선을 한 눈에 잡아 끝만한 등장이었다. 만약 이 등장이 의도한 것이었다면 꽤나 영리하게 머리를 굴렸다는 소리가 된다. 회의 시간에 늦은 것도 이런 계산 하에 나온 것이었으리라.

진명은 슬픈 얼굴로 일령을 보느라 문주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다지 관심도 없었다.

다만 임완춘이 끝도 없이 예쁘다, 곱다 감탄사를 연발하는 바람에 정신이 들어 물었다.

“문주희가 누구니까?”

임완춘이 눈을 크게 떴다.

“진 아우, 정말 청성의 적향을 몰라? 청성 장문인 문해석의 외딸이잖아. 아리따운 외모에 무공 실력, 거기에 출중한 지모까지! 강호가 이리 개 박살 나지만 앓았어도 능히 천하제일미라는 별호가 붙었을 법한 소저라고. 아아, 어찌 저리 뒷모습까지 아름다울까!”

임완춘은 그새 진명에게 말을 낮추고 있었다. 남들 앞에서 의제라고 빼겼으니 새삼 다시 말을 높일 수도 없을 것이다. 진명은 그 부분은 그냥 대충 넘겨버렸다.

“문 소저의 별호가 적향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방금 전 신법을 보았나?”

“못 봤는데요.”

“에잉, 뭐 하느라 못 봐? 관심이 없으면 말 걸지 말게. 난 문 소저를 봐야 하니. 이야, 내가 살아생전에 적향 문주희를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여기까지 말한 임완춘을 목소리를 한껏 낮춰 말을 이었다. 말을 걸지 말라 했지만 잔뜩 바람이 들어가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던 모양이다.

그래도 눈은 여전히 문주희를 향한 채였다.

“사실 우리 일령 소저도 어디 간들 빠지지 않는 미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문 소저 쪽에 한 표라네. 미인의 조건은 여러 개지만 그 중 제일은 무엇보다도 사내를 한 눈에 휘어잡을 수 있는 색기가 으뜸이지. 솔직히 말해 일령 소저는 너무 그냥 풋풋하기만 한 것이 어쩔 땐 덜 자란 사내아이를 보는 듯한.....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일령 소저를 아우에게 떠민 것이 아니라, 아고, 저 뭐냐.....”

이제껏 일령과 진명을 연인 사이로 엮어내려던 임완춘은 내심 속내가 한 꺼풀 벗겨지자 당황하여 말을 주워담았다.

진명은 그저 씩씩히 웃을 뿐이었다.

“됐습니다, 임 형. 령 아우는 령 아우일 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일령 소저는 그저 우리의 일령 소저 아니겠나. 내가 그냥 저 나긋나긋 버들 잎 같은 문 소저의 자태에 홀려 실언을 했네. 이걸 일령 소저에게 비밀이네.”

진명이 임완춘과 같은 뜻의 말을 했던 까닭에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은 모르는 임완춘이었다.

“알겠습니다.”

세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문주희가 상석에 마련된 제 자리에 가서 앉자 수뇌부의 한 명인 화순 진인이 일어섰다.

그는 화산파의 다섯 번째 장로이자 오늘 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이었다.

“이제 어느 정도 모인 듯 하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심맹의 군웅들은 주목해 주시오.”

짹짹.

절도 있는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명의 귀에는 그 소리가 무미건조하고 가식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 武極 - Story Book

‘다들 뭔가를 방석 밑에 깔고 앉은 듯한 표정이구나. 왜 같은 단심맹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일까?’

그러나 오늘의 의제가 단심맹의 낙양성 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런 분위기는 당연한 것이었다. 각 문파들은 제 문파의 사람을 지부장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는 중이었다.

화순 진인이 말을 이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번 회의의 의제는 바로 단심맹의 낙양 지부장을 선출하는 일이되다. 지부장은 이제 막 복구를 시작한 낙양성에 정파의 뿌리를 다지는, 실로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할 자이니 무공뿐만이 아니라 인성과 두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가 맡아야 할 자리요. 그러니 신중히 임해주기 바라오.”

화순 진인의 말에는 틀린 구석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강조한, 무공과 인성, 두뇌가 모두 뛰어난 인재를 미리 점찍어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뻔한 일이다. 화산파에서는 평일지를 낙양성 지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장안성에 이어 낙양성까지 화산의 세력권 안에 두고자 했다.

아미파의 정화사태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보다 먼저 왜 새로이 이리 번잡스러운 방법으로 지부장을 선출해야 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전의 관례대로 수뇌부 내에서 순번을 따져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낙양이라면 대대로 소림의 땅. 소림의 인물이 맡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다른 문파가 나서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화사태의 말은 각 문파의 영역을 불가침으로 여겼던 정파 무림의 관례를 그대로 따르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화산파에서 꺼리는 부분이었다.

“외람되오나 작금 낙양을 어찌 소림의 땅이라 할 수 있단 말ियो. 새로운 지부장의 선출은 낙양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되다.”

“그 말은 소림에게는 더 이상 낙양을 맡길 수 없다는 말인지요? 수뇌부의 생각이 정녕 그렇습니까?”

“맹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일이되다.”

정화사태가 싸늘히 웃었다.

“흥. 맹이 아니라 화산에서 협의를 거치셨겠지요.”

화순 진인이 일순 표정을 굳히며 정화사태를 노려보았다.

“사태께서는 본 파와 맹에 시비를 거시는 것이요? 같은 수뇌부의 사람으로서 어찌 속사정을 모른 채 그리 말씀하시는 게요.”

“빈니(貧尼) 역시 나이 먹은 죄로 수뇌부에 한 자리 꿰차고 있으니 이리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산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지부장은 어떻게 하자는 소리지요? 진인께서 대책이 있으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요?”

화순진인의 입장이 애매해졌다.

그는 물론 평일지를 내세울 작정이었다. 하지만 화산의 장로인 그가 나서서 내놓고 자파의 제자를 밀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을 여겨 미리 남들과 입을 맞추긴 했다.

일부러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체회의를 고집했던 것도 그래서였고, 장안성에서 극히 일부의 수뇌부만 보내온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그런데 남들이 ‘그럼 화산의 일대제자 평일지가 제격이군요’ 해야 할 것을, 아미파에서 ‘그래서 누구라는 소리요?’라고 해버리니 입장이 난처해졌다.

하지만 화순 진인은 단심맹 안에서 뼈마디를 단단히 굳힌 백전노장이었다.

그는 미리 입을 맞춰둔 개방과 천년문의 장로에게 시선을 돌렸다.

“원래 개방의 여운 대협과 천년문의 수영 진인께서 수뇌부의 인물이 아니지만, 사안이 이래 되어서 각 파 수뇌부의 대리를 맡게 되셨소. 이 점은 단심맹의 군웅들께서 양해해주시길 바라는 바되다. 두 분께서는 낙양성 지부장을 맡을 만한 인물을 천거해주시길 부탁 드리오.”

답이야 뻔했다.

먼저 개방의 여운이 입을 열었다.

“일대제자 중에서 무공의 우열을 논하자면 단연코 화산의 적전인 평일지 소협이 되겠고, 능력을 논하자면야 그것도 평일지 소협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성에 관한 것이야 평소 그와 함께 했던 분들께서 잘들 아실 터이고.....”

## 武極 - Story Book

여운의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웅소! 하는 추임새가 터져 나왔다. 대부분 평일지와 어울려 다니는 화산의 무리들이었다.

평일지의 성격을 아는 다른 이들은 이맛살을 찌푸렸지만 내놓고 말을 할 수는 없었다.

“허면 수영 진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지금 낙양성에는 그만한 인물이 없지요.”

배분 상 수영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평일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사실 평일지가 낙양성 수복의 총지휘를 맡을 때부터, 화산에서는 지부장에 대한 계획까지 차곡차곡 쌓아놓은 터였다. 오늘의 전체회의는 그저 들러리일 뿐이다.

화순 진인이 정화사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러면 답이 되겠소?”

정화사태가 합장을 하며 머리를 숙였다.

“개방과 천년문이 가장 먼저 장안성에 들어와 오래도록 화산의 밥을 빌어먹었다는 사실은 잘 알겠군요. 그럼 빈니도 낙양성 지부장을 맡길만한 인물을 천거하지요.”

화순 진인의 눈썹이 꿈틀댔다.

“그럴만한 인물이 있단 말씀이시요?”

“본 파의 금정신니께서 거두신 기명제자 일령이란 아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일령은 눈을 둥글게 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

“너는 잠자코 있거라.”

일령을 향해 엄한 눈빛을 보낸 정화사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번 낙양성 수복 때 보았다면 잘 아실겁니다. 두뇌의 명석함은 평 소협보다 나으며, 무공 또한 금정신니께서 공들여 가르쳤으니 그보다 뒤쳐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니가 보증하는데 인성은 단연코 평일지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요. 아직 어리다는 점이 흠이라면 흠이나 옆에서 잘 보좌하면 낙양성 하나쯤은 거두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화순 진인은 말없이 인상을 썼다.

‘아예 내놓고 자파의 인물을 내세우는구나. 이것은 우리 화산이 같은 짓을 한다고 비꼬는 것이 아닌가!’

일령은 누가 보아도 어린 소녀였다. 그런 소녀가 낙양성을 책임지는 막중한 지부장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 武極 - Story Book

## 제 33 화 [오해]

그제서야 일령은 왜 굳이 속가인 자신을 일대제자들 틈바구니에 끼워 놓았는지 알아차렸다. 평소 허물없이 어리광을 부리곤 하던 사고였던 지라 이런 일에 자신을 끌어넣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일령이었다.

일령이 정화사태를 향해 소리 없이 눈을 흘겼다.

‘아유, 지금 내가 나서면 사고 체면이 말이 아닐 테고..... 이 일을 어쩐다?’

정화사태는 이번에는 옆에 앉은 범여를 향해 말했다.

“일단 아미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소림의 범여 대사는 할 말이 없으신지요? 낙양이 대대로 소림의 터였다는 사실을 인지해, 아미에서는 소림의 발언에 따라 의사를 바꿀 용의도 충분이 있습니다만.”

“아미타불.”

범여는 짧게 불호를 외며 잠시 뚨를 들었다. 머릿속에 잠시 진명의 얼굴이 스쳐간 탓이었다. 그러나 범여는 당장 낙양 땅을 되찾는 일보다는, 진명을 반듯하게 키우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소림은 아직 본산도 되찾지 못했소이다. 그런 마당에 낙양부터 되찾는다 덤비면 그 모양새가 과히 좋지만은 않을 터. 소림은 맹의 결정을 따르겠소이다.”

범여가 이리 나오니 정화사태는 눈썹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맹의 일이야 당연히 쪽수 많고 힘 있는 곳에서 미는 대로 끌려가기 마련인 것이다.

“후우..... 소림에선 항시 그렇게만 말씀하시는구려. 무림의 태산북두였던 소림의 기상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정화사태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 끝을 흐렸다.

그런데 그 틈새를 비집고 누군가가 나섰다. 청성의 붉은 향기라던 문주희다.

“정화사태께서는 청성의 의견을 묻지 않으시는군요.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다들 문주희를 돌아보았다. 일대제자들이 앉아 있는 사이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튀어나오니 저절로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화순 진인은 난데없이 튀어난 문주희에게 저도 모르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설마하니 청성에서는 제 딸을 내세울 참인가?’

문주희는 화순진인의 고까움을 당당하게 받아내었다.

“진인께서는 너무 그리 경계하지 마시지요. 설마하니 제가 맹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겠습니까?”

화순이 일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비록 부친이 청성의 장문이시라 하나 지금 이 자리는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참 당돌한 노릇이구나.”

그러자 문주희가 까르르 웃었다.

“어머, 말씀을 안 드렸군요. 저 역시 수뇌부 대리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으로 수뇌부의 일은 제게 일임한다 하시더군요.”

“뭣이?”

화순 진인의 표정이 당장에 똥 씹은 것마냥 변했다.

“그래서 제 의견 역시 여기 계신 여운 대협이나 수영 진인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청성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화순 진인이 청풍을 쳐다보았다. 청풍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문주희의 말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따로 할 말이 있을 리 없었다.

화순은 눈에 힘을 주며 물었다.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청성의 의견은 무엇이나?”

“별 다를 것 없습니다. 저 역시 낙양성 지부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으며,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이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낙양성 수복에 가장 큰 공을 세우신 인물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 武極 - Story Book

화순의 얼굴에 살며시 화색이 감돌았다.

낙양성 수복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다름아닌 평일지가 아닌가. 뒤늦게 등장해 버르장머리 없는 말버릇으로 잠시나마 그를 언짢게 하더니, 생각 외로 곱게 따라와줄 모양이다.

“그래, 그래서 화산에서도 본 파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문주희가 화순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세련된 미소를 담았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분은 소림의 진명 소협이십니다.”

“.....뭐라고?”

어이가 없는 것은 화순뿐만이 아니었다. 충격의 강도를 놓고 보자면 진명이 더했을 것이다.

임완춘이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일령만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일령의 마음이 풀릴까 고민하고 있던 진명이 화들짝 놀라 임완춘을 보았다.

“어이, 진 아우. 혹시 문 소저와 무슨 관계고 그런 거 아니겠지?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에?”

“지금 문 소저가 진 아우를 낙양성 지부장으로 추대하잖아!”

“예엿?”

진명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댔다.

“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문 소저라는 여인은 평생 얼굴 한 번 부딪힌 적 없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헉!”

갑자기 진명이 헛바람을 뿜어냈다.

문주희가 살며시 고개를 돌려 진명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던 것이다.

모르는 얼굴이 아니었다. 진명의 처소를 일시 점거하고 비도를 날렸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설마...!”

분명 같은 얼굴이었다.

처소에서 보았던 수줍고 청순하던 여인은 오간 데가 없고, 한 떨기 붉은 꽃처럼 화사한 여인이 그를 향해 고혹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진명에게 눈짓으로 인사를 건넨 문주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요. 나한권 일 초식으로 야차의 가슴팍을 부숴던 것도, 적나한을 단 매에 때려눕힌 자도, 뒤이어 몰려드는 혈무런 무리에 맞서 낙양성을 지켜낸 것도 저기 계신 진 소협이셨습니다. 뒤에서 얘기나 듣는 자들이야 저들 듣고 싶은 대로 평일지 소협의 이름자만 건졌겠습니까만, 청성에서 알아 본 바로는 태반의 공이 진 소협의 것이었더군요. 따라서 저는 당연히 인물됨과 무공, 능력까지 고루 갖추신 소림의 진 소협께서 이번 일에 적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임완춘이 큰 소리로 외쳤다.

“웁소! 문 소저 말 한 번 시원히 잘하시오!”

자기도 모르게 외쳤던 임완춘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화순 진인의 눈초리를 보고 식겁했다.

“헉! 내, 내가 무슨 말을.....”

임완춘이 입을 막았으나, 이미 흘러나온 말을 되 담을 수는 없었다. 그의 말을 벌써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들었다.

진명의 곁에서 그가 어떻게 싸웠던가를 기억하는 자들이 덩달아 호응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진명이 암담한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람?’

그 순간 가만히 문주희를 바라보고 있던 일령은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가는 생각 탓에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저 년이 틀림없겠군!’

귓가에서 진명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다.

-이제껏 내가 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예뻐.

## 武極 - Story Book

일령이 뽕뽕이름 이를 갈았다.

‘감히 진 형을 홀리려 들어? 넌 이제 죽었어!’

일령은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른 채 문주희를 향해 이를 갈았다.

회의가 길어졌다.

길고 긴 회의 끝에 진명이 낙양성 지부장이 되는 일은 없었다. 문주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일단 평일지가 어디서 속가가 나서나며 거세게 반발하자, 화산에 동조하는 이들이 평일지와 화산에 힘을 실어 주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범여가 ‘소림에서는 진명을 낙양성 지부장으로 내세우지 않겠다.’고 단언함으로써 썰기를 박은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진명은 오히려 범여가 고맙게 느껴졌다. 차라리 수련에만 전념하라는 범여의 뜻을 알 것 같았다. 지난번 사건 이후로 범여의 깊은 속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제자를 그토록 사랑하는 범여가 사손빨인 자신을 미워할 리 없다 확실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묘한 것은 문주희의 태도였다.

그토록 밀어부치던 것을 보면 속셈이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일이 무산되자 의외로 깨끗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심맹의 전체회의는 결국 화산의 일대제자 평일지가 낙양성의 단심맹 지부장을 맡는 것으로 끝이 났다.

결과에는 그리 관심이 없던 진명은 자신보다 더 아쉬워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일령의 뒤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다.

“령 아우! 령 아우!”

일령은 사고인 정화사태 옆에 찔싹 붙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진명은 목청껏 일령을 불렀지만, 일령은 정말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령 아우! 잠깐 얘기 좀 해!”

“진 소협!”

절묘한 순간에 진명의 앞을 문주희가 막아 섰다. 진명의 앞을 가로막고 일령과 사이를 떼어놓는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오늘 따라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는 한층 더 달게 느껴졌다.

“아... 그러니까..... 아, 문 소저!”

문주희가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예. 그 날은 실례가 많았습니다. 행여라도 그 일을 언짢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되어 소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례라니요. 그저 가벼운 실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히 주무십시오.”

문주희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일령 때문에 진명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했다. 문주희가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천하제일이라 칭송 받을 만큼 미모의 여인인 것도 사실이지만, 진명에게는 그런 것들이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다만 처음 보는 놀라운 미인인데다 특이한 난향의 체취가 잠시 진명의 마음을 끌리게 했을 뿐이다. 생사고락을 함께 한 일령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당장은 진명에게 더 급한 일이었다.

문주희는 그런 진명의 마음을 모른 척, 조금은 놀란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어마, 감사 드립니다. 소녀의 잠자리까지 자상히 살펴주시다니요.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네요.”

남들이 듣는다면 오해할 법한 말이다. 그러나 문주희가 워낙 순진한 얼굴을 한 탓에 진명은 그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럴 것 까지야..... 그런데 제가 지금 볼 일이 있어 먼저 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볼 일이라면 어떤?”

“제가 아는 아우가 있는데..... 아, 이건 나중에 말씀 드리지요. 그럼 이만.”



진명은 대충 문주희를 떨궈내고 다시 일령을 뒤쫓으려 했다.

“그러시지요.”

문주희가 옆으로 비켜섰다.

일령이 가버린 방향으로 두리번거렸지만 문주희가 시야를 절묘하게 가로막았던 터라 일령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새 가버렸나?”

그 때였다. 누군가가 진명의 등을 톡톡 쳐댔다.

“누굴 찾아?”

“령 아우!”

고개를 돌리자 일령의 얼굴이 보였다. 진명이 반가운 마음에 덥석 일령의 손을 잡았다. 일령은 눈을 찌푸렸지만 굳이 손을 떨쳐내진 않았다. 남들이야 오해하든 말든 진명의 손에서 따스한 온기가 배어 나와 기분이 좋았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한 것 같아. 진 형이랑 나랑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도 잠시.

진명의 이런 스스럼 없는 행동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자, 일령은 급격히 기분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일령은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진명을 쳐다보기만 했다. 진명이 황급하게 말을 했다.

“아우, 대체 왜 화가 난 거야. 말이라도 해줘야 내가 알지.”

“아아, 그랬어? 답답했구나.”

“그럼. 당연하지.”

일령이 씨익 웃었다. 어딘지 모르게 한기가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좋아, 그럼.”

그렇게 진명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일령은 갑자기 진명의 발등을 짹 밟았다.

“악!”



## 武極 - Story Book

“이게 내 대답이다! 흥! 다시는 말도 걸지 마!”

말을 마친 일령이 책 몸을 돌려 후다닥 뛰어가 버렸다. 당황한 진명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어마, 많이 아프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옆에서 가만히 진명과 일령을 지켜보고 있던 문주희가 말을 건넸다. 진명이 한층 우울해진 얼굴로 종얼거렸다.

“대체 뭇 때문에 화가 난 거람.”

잔뜩 풀 죽은 모습이 애처롭게 보일 정도였다. 문주희는 다정한 손짓으로 진명의 어깨를 톡톡 두들겨 주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라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진 소협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의형제 사이에 당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령 아우가 제게 화가 나 있다는 것 밖에. 딱히 잘 못 한 일이 없는데 대체 왜 저러는지 통 감이 안 오는군요.”

문주희는 하마터면 웃을 뻔 했다.

‘이 남자, 순진한 거야? 아니면 바보인 거야?’

그런 점이 더 매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문주희는 여전히 모른 척 말을 건네고 있었다.

“어마, 그러세요? 그렇다면 혹시 남자인 진 소협에게는 말 못할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같은 여자인 제가 한 번 물어봐 드릴까요?”

문주희가 슬쩍 ‘여자’라는 말에 힘을 주었음에도 진명은 알아채지 못했다.

문주희의 제안은 지나치게 친절하고 고마운 것이었다. 일령의 태도에 섭섭함

보다는 궁금함이 앞섰던 진명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렇게 말했다.

“아, 정말 그래 주시겠습니까? 령 아우가 통 입을 열지 않아 답답하던 참이었습니다.”

“진 소협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소녀가 발 벗고 나서야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명은 문주희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물론 벗어났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았다. 진명이 몇 걸음 옮기지 않아 어디선가 득달 같이 나타난 임완춘이 그를 잡아챘던 것이다.

“아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예?”

“어떻게 이 의형제에게 저런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었느냐 말이야! 아우가 청성의 문 소저와 아는 사이였다니! 우리가 정말 의형제가 맞는가? 이거 정말 서운하네!”

진명이 손사래를 쳤다.

“그건 임 형이 오해하신 겁니다.”

“오해? 아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분명 아우가 문 소저와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를 나누지 않았어! 게다가 문 소저는 낙양성 분타주로 진 아우를 천거했고! 이것만으로도 보통 사이가 아닐 것 같은데?”

“누가 들으면 정말로 오해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임완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진명을 다그쳤고, 진명은 임완춘에게 문주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 武極 - Story Book

## 제 34 화 [연정의 싹]

진명의 얘기를 듣는 동안 임완춘의 얼굴은 몇 번이나 변했다.

가끔 진명을 짜려보기도 하고, 부럽다는 얼굴로 쳐다보기도 했다. 어쨌든 간에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는 예상 외로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니까, 아우는 그 얘기를 일령 소저에게 그대로 전했던 말이지?”

“예.”

“그랬더니 일령 소저가 뭐라던가?”

“글쎄요? 별 다른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게. 내 볼 땀 일령 소저가 그 일로 화가 난 듯 한데?”

“어디 화가 날 만한 일이어야지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다시 생각해 보아. 자네가 문 소저를 처소에서 만난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일령 소저가 어땠는지.”

진명이 곰곰히 생각하다 답했다.

“그러니까, 저에게 기분이 좋았냐고 묻다가,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령 아우가 갑자기 비무를 하자고.....”

“비무? 그러고는 그 핑계로 아우를 떡이 되도록 두들겨 뺐고?”

임완춘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화가 난 게 분명하구만!”

듣고 보니 그렇다. 일령의 행동은 보통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진명의 얼굴에 걱정이 번지기 시작했다.

“대체 령 아우가 왜 화가 났을까요?”

“뻔하지! 아우 같으면 연인이 처소에서 단 둘이 딴 여자와 만났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겠나?”

진명은 강하게 항변했다.

“저와 령 아우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요?”

“쫄쫄. 이렇게 둔해서야. 아, 그럼 누가 ‘댁들은 이제 연인입네!’ 하고 증서라도 발부해줘야 연인이 되나? 원래 남녀관계란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지는 걸세. 깨닫는 순간이면 이미 발 뺄 수도 없는 법이라고!”

진명의 얼굴이 한층 더 창백해졌다.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임완춘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거 아우 표정이 영 떨떠름하구먼? 아니, 일령 소저가 그리 마음에 안 차는가? 그만하면 둘이 오손도손 잘 지낸다고 여겼는데 내 생각이 영 글렀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진명이 어두운 낯빛으로 간신히 대꾸했다.

“방금 전 문 소저께서 령 아우가 화를 풀도록 자신이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임 형 말이 맞다면 그 또한 제가 잘못된 일 같아서요.”

진명이 말 끝을 흐렸다. 자신이 우연히 문주희와 마주쳤다고 두들겨 뺐던 일령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문주희를 보내기까지 했다면 일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꿀꺽.

혈무련의 그 대단한 인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진명이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쫄쫄쫄. 여자가 무섭긴 무섭네. 천하의 진 아우가 이리 겁을 먹었으니.”

“그게 아니라 일령, 령 아우가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일령이 자신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명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일령이 화를 내고 자신을 싫어하면 참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플 것 같았다.

임완춘이 진명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아우, 내 충고 하는데, 둘 중 하나는 각오해야 할거야.”

## 武極 - Story Book

“둘 중 하나라니요?”

임완춘이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꼬았다. 진명이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손가락 하나를 잘라야 됩니까?”

“어이쿠야! 연애를 하면 바보가 된다더니! 진 아우가 멍청이가 되어버렸네 그러.”

임완춘은 질렸다는 듯이 짹짹 말을 쏟아냈다.

“두 번 다시 일령 소저를 안 보던가, 아니면 죽던가.”

임완춘의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회의장을 빠져나온 일령은 처소에 잠시 들렀다가 곧장 소요루 뒤편으로 향했다. 낙양성은 아직 단심맹의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에 아직 정식 연무장은 없었고, 그저 객점들 뒤편의 너른 공터를 연무장 대신으로 활용하는 중이었다.

“하앗!”

아무진 기합 소리와 함께 일령의 쌍검이 허공을 갈랐다. 유려한 검의 궤적이 바람이라도 벨 수 있을 듯 했다.

씩!

가벼우며 빠르고 변화무쌍한 아미파의 절정 검술을 연달아 펼쳐낸 일령은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기분이 나빴다.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씩, 씩.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

아무리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라 하더라도 여자로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자존심에 상처였다. 아니, 자존심의 상처보다도 더 큰 무언가가 자꾸만 일령을 화나게 만들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확실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일령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눈치채고는 핵 고개를 돌렸다.

“누구냐!”

그녀의 쌍검은 벌써부터 위협적인 자세로 전방을 향했다. 마치 걸리기만 하면 다 베어버릴 듯 한 흉흉한 기세였다.

“예민하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누군가 연무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일령을 뒤따라온 문주희였다.

일령이 당장 눈에 쌍심지를 켜다.

“뭐야? 음흉하게 남 수련이나 숨어서 보고 있다니. 청성에서는 그게 예의인가 보지?”

보기만 해도 괜히 화가 나는 문주희에게 고운 말이 나올 리 없었다.

일령이 아무리 제멋대로에 거침없는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경우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온 것이다.

“생긴 것도 그렇지만 하는 짓도 딱 고슴도치네. 뭐 이리 가시를 세워요?”

“뭐야?”

문주희가 어른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미치도록 얄미운 미소를 지어냈다.

“됐어요. 난 지금 동생과 싸우려고 온 게 아니니까. 그저 언니로서 충고를 하려고 왔을 뿐이에요. 우리 얘기 좀 하죠?”

일령의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화가 나서였다. 처음 보는 사이에 자기 소개도 없이 말부터 탁 놓는 태도도 짜증났지만, 일단 문주희라는 존재 자체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도 거슬렸다.

“당신이랑 내가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언니 동생이라? 가서 예의범절이나 좀 배우고 오지 그래?”

“진 소협과 형 동생 하는 사이 아닌가요? 그럼 나한테도 곧 아우가 될텐데?”

진명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형씨’라고 불렀던 일이 생각났다. 진명은 문주희에게 그런 일까지 털어놓았던 걸까?

일령이 참지 못하고 뺨 소리를 질렀다.

“뭐얏!”

그러나 일령답게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 武極 - Story Book

‘후! 참자, 참자. 저 년이 뭐라고 씨부리든 일부러 날 화나게 하려는 거야. 바보 같이 그런데 넘어갈 순 없잖아?’

일령이 냉정해진 음성으로 내뱉었다.

“용건이 뭐야? 내 뒤를 따라오느라 수고한 성의를 봐서 얘기는 들어주지. 하지만 보다시피 내가 바쁘니까 짧게 끝내.”

“혼자 허공에 대고 화풀이 칼질 해대는 게 바쁜 거라니. 동생은 한가해서 좋겠네요. 나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흠. 그렇게 바쁘면 가서 일 보든가.”

“아우, 까칠해. 나는 잘 지내고 싶은 건데 동생이 영 마음을 안 여네. 우리 때문에 진 소협이 마음 고생을 하시면 어찌려고요?”

이 말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다.

“진 형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고작 당신이랑 내가 마음을 안 터놓는 일 따위로 마음 고생을 하게? 당신, 망상증이라도 있는 거 아냐?”

일령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혀까지 끌끌 차주었다.

그러나 문주희 역시 만만치 않았다.

“나는 여자들이 속 좁게 구는 게 딱 질색이에요. 남녀 사이에도 얼마든지 우정은 존재하는 거고, 그런 사이라면 마땅히 서로 다른 인연이 생기더라도 축복해 줘야죠. 안 그래요?”

일령이 어금니를 꼭 깨물었다.

문주희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난 아우와도 사이 좋게 지냈으면 해요. 내가 친 언니처럼 잘해줄게요. 듣자 하니 만수전장의 외동딸이라면서요? 그렇다면 금지옥엽으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랐을 테지만 외롭기도 했을 거야. 나 역시 외동딸이라서 형제자매가 없는 외로움은 잘 알아요.”

일령은 황당해 했다.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내 앞에서 진 형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다고 까놓고 자랑하는 거야? 장난하냐! 진형 같은 곰탱이가 하루 이틀 만에 너랑 만리장성을

쌓게!’

이런 여우라면 어떤 남자라도 하루 만에, 아니 차 한잔 마실 동안에 넘어오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령은 진명이 그랬을 거라고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었다.

일령이 있는 힘껏 비웃음을 터트렸다.

“깡깡.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나더러 지금 그런 거짓말을 믿으라는 거야? 진 형과 당신이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쥐새끼가 뒷 발질로 소 잡는 소리 하고 앉았네, 진짜!”

“왜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난 이미 진 소협을 내 남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야 당신 망상이겠지! 진 형은 여자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야.”

“어마, 그걸 어떻게 알죠? 아우와 진 소협이 무슨 사이라도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보다야 내가 진 형을 잘 알지 않겠어? 게다가 진 형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으면 나한테 먼저 말했을 거라고.”

문주희가 눈을 빛냈다.

“그럼 조만간 말하겠네요.”

“그러니까 망상증이라는 거 아냐. 당신만 좋으면 진 형도 당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문주희의 표정이 변했다.

일령으로서는 흥내내기도 어려운, 그런 표정이었다. 괜히 분했다.

“내가 마음 먹어서 못 가진 남자는 이제껏 없었는데?”

일령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러자 문주희가 일령의 곁으로 바싹 다가왔다. 일령은 진명이 말했던 그 달콤한 체취를 느낄 수 있었다.

‘뭐야, 이 여자.’

문주희의 붉은 입술이 열리며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 武極 - Story Book

“나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조금도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도 노력한 만큼 갖는 거야. 누군가가 자기를 먼저 좋아해주지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여자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 소협이 날 바라보게끔 노력할 작정이에요. 가능한 모든 수를 동원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진 소협과 연인 사이가 될 리 없다고 믿나요?”

“... ..!”

“내가 아우에게 하고픈 말은 그거예요. 난 마음을 정했으니, 아우가 나보다 먼저 진 소협을 사모하고 있던 게 아니라면 나를 좀 응원해 달라고요. 그래 줄 거죠?”

일령은 차마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다. 문주희가 알밋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아예 틀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사실 뭘 어찌겠는가!

좋다는데. 그래서 노력하겠다는데.

일령은 말문이 탁 막혔다.

“나, 나는.....”

문주희가 머뭇대는 일령을 바라보며 다부진 음성으로 말했다.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지 않아도 되요. 하지만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줘요. 동생도 언젠가 누군가를 사랑할 텐데 이쯤은 이해해 줄 테죠?”

문주희가 다정한 태도로 일령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러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까불지마, 이 년아.”

“.....엑?”

일령은 기가 막혀서 잠깐 멍해졌다.

다음 순간, 문주희는 사라지고 없었다.

거짓말처럼 그녀를 대신해 붉은 향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일령은 분을 참지 못하고 한참이나 허공에 애먼 칼질을 해대야 했다.

“아우, 나와 얘기 좀 해. 부탁인데 이번에는 피하지 마.”

단호한 음성이었다. 진명의 눈에는 기어코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일령은 공연히 가슴이 뜨끔거렸다.

‘뭐가 저렇게 진지해? 어우, 괜히 사람 겁주고 그래.’

일령은 막 연무장을 나와 숙소로 가는 길이었다. 임시 연무장에서 소요루로 이어지는 소로는 연무장을 드나드는 단심맹의 사람이 아니라면 딱히 사용할 일이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진명과 사이가 벌어지고 나니 매일이 심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할 수 없이 연무장 출입이 잦아졌다. 툼툼이 사고인 정화사태가 직접 초식을 살피주기도 하는 통에 일령의 실력은 일취월장하는 중이었다. 일령은 한 때 진명이 그랬던 것처럼 독하게 수련에 집중했다.

희한하게도 연무장에 가장 열심히 드나들만한 진명의 모습이 통 보이지 않았다. 범여가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진명에게 따로 무공을 가르치는 덕분에 생긴 일이었지만, 일령은 이런 소식들을 듣지 못했다. 그저 진명이 보이지 않아 다행인 한 편 씩씩하기도 하고 살짝 불안하기도 할 뿐이었다.

그런 진명이 며칠 만에야 나타났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의 얼굴을 보자 반가웠다. 그간 뭐하며 지냈냐고 묻고픈 마음이 구름처럼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생각과는 달리 쌀쌀맞은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가 버렸다. 말을 뱉어낸 일령이 먼저 놀랐지만, 곧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는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그래. 그간 뭐하며 지냈냐고 물었을 때 문 남자와 그렇고 그랬어, 이런 대답이 들려올지도 모르니까. 그럼 난 아마 폭발하고 말걸.’

진명이 말했다.

“할 말은 해야겠어서. 아우가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났더라도, 그래서 나한테

## 武極 - Story Book

나쁘게 굴더라도 이 말은 해야겠어.”

“뭔데? 들어는 줄 테니까 빨리 말해줘.”

“대체 왜 그런 거야?”

진명은 뭔가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외려 이렇게 물었다.  
의외였다.

“왜 그랬냐니? 내가 왜 진 형한테 화를 냈던 거냐고 묻는 거야? 그거라면  
굳이 대답해주고 싶지 않아.”

“아니. 나는 지금 문 소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는 거야.”

일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마를 찡그렸다.

“내가 뭘 짓을 했다는 거야?”

“나한테 화를 내는 건 괜찮아. 내가 견디거나 참아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나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문 소저를 해하는 것은 옳지 않아.”

“뭐?”

일령이 버럭 음성을 높였다.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떠졌다.

“누가 뭘 어쨌다고?”

# 武極 - Story Book

## 제 35 화 [소문]

일령은 기가 막혔다.

“누가 누굴 해쳤다고?”

진명이 침착하게 뒷말을 이었다.

“아우가 나한테 화난 이유를 대신 묻기 위해 문 소저가 찾아갔을 때 말이야. 꼭 그럴 필요까진 없었잖아. 문 소저는 그 일로 아직도 팔을 쓰지 못해. 당 의원께서 하마터면 큰 일이 났을 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하?”

어이가 분노를 눌렀다. 일령은 대체 진명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황당할 뿐이었다.

“그 여자가 다친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인데?”

진명이 복잡한 눈빛으로 일령을 바라보았다.

“아우가 아우의 실력을 모를 리도 없는데. 그렇게 살초를 쓸 정도로 내게 화가 났던 거야?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나를 बे지 그랬어.”

일령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다.

‘진 형이 찾아온 이유가 그 여자 때문이었다니.’

일령은 우울해졌다.

잠시 숨을 고르던 일령은 간신히 이렇게 내뱉었다.

“그 년 어딴?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아우!”

진명이 안타깝게, 그러나 바보처럼 순진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온 거잖아! 문 소저가 무어라 했든 먼저 아우를 화나게 한 사람은 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풀라고!”

일령이 왈칵 소리를 질렀다.

“그래, 나 화 났다! 그 년한테도 화 났고 진 형한테도 화 났어. 대체 그 년이

뭐라고 진 형이 와서 이렇게 애걸복걸이야? 두 사람 정말 무슨 사이라도 된 거야? 그래서 진 형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문 소저와 내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건 아우가 잘 알잖아.”

“아니, 모르겠어. 그 년이 어디서 좀 맞고 왔다고 당장 나한테 달려와 그만 하네 어찌네 하는 진 형 태도를 보면 더더욱 모르겠어. 차라리 둘이 그런 사이가 됐다고 말해. 지금 진 형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딱 그 짝이니까!”

잠시 말문을 닫았던 진명이 물었다.

“그럼 아우는 날 좋아해서 문 소저를 해한 거야?”

“... 뭐?”

일령은 진명을, 진명의 눈을 쳐다보았다.

“임 형이 그랬어. 내가 문 소저와 만난 이야기를 해서 령 아우가 화났을 거라고. 그건 아우가 날 좋... 아해서 그런 거라고. 그 말이 사실이야?”

진명이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일령의 얼굴은 당황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나도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어.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아우 역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줘.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든 사실은 다른 거잖아.”

“... ..”

화를 풀게 하려고 나름대로 위로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열이 받았다.

“그러니까 문 소저를 미워하지 마, 아우. 내가 아우와 화해하도록 애써주려던 것뿐이야. 좋은 사람이야. 아우처럼.”

일령은 아무 말도 떠올리지 못한 채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진명이 방금 일령에게 던진 말은 적잖은 파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나 그 년이나 똑같다고? 내가 진 형한테 고작 그런 존재였던 건가? 알게

# 武極 - Story Book

된지 며칠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람과 비교되게?’

이 말은 탁한 가래처럼 목구멍에 착 달라붙어 도무지 입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지 않았다.

한참이나 말없이 묵묵히 진명을 바라보던 일령이 말했다.

“알았어. 대신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앞으로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 그 년이나 진 형이나. 나도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일령은 몸을 돌려 획 가버렸다.

“일령 아우!”

진명의 공허한 외침이 일령의 등뒤로 서글프게 내려앉았다.

“어마, 상처가 너무 깨끗해서 생각보다 잘 아물겠네. 아무래도 흉터가 좀 남는 게 낫지 않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문주희의 음성에, 청풍은 등골을 타고 소름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확실히 여자는 무섭다더니.....’

청풍의 인기척을 확인한 문주희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제가 혼자 하기 곤란해서 그러는데 여기 검상을 좀 내주시겠어요?”

청풍은 대답 대신 엉뚱한 질문을 했다.

“꼭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문주희가 순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어마?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청풍과 문주희의 눈빛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썩, 하는 울림 소리가 크게 들릴 것만 같은 광경이었다.

잠시 후 문주희가 소리 내어 깔깔 웃음을 터트렸다.

“나 참. 뭐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세요? 그래요, 내가 장난 좀 쳤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결과적으로 잘되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청풍은 문주희의 현란한 웃음에 넘어가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그녀였다. 총명하고 귀엽던 문주의 외동딸이 세월과 더불어 어떤 여자로 성장했는지, 청풍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게 정말로 문을 위하는 행동이었습니까?”

“아닐 건 또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청풍 대협은 너무 고지식하세요. 우리가 지금 찬 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친구를 천거했던 것은.....”

“네네, 알고 말고요. 그나마 쓸만하던 고수들은 죄다 죽고, 간신히 남은 고수 하나가 바로 청풍 대협이시지요. 하지만 청풍 대협의 실력이야 뻔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평일지 같은 일류고수가 되지 못 할거라는 건 본인이 더 잘 아는 사실이겠지요. 이대로 가다간 청성은 살아남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재능 있는 자들을 끌어들이야 한다고요.”

“그 점은 장문인과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아가씨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문주희가 이마에 주름을 그려 넣었다.

“자꾸 말 끊지 말아주시겠어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어찌할 건데요? 내가 나서서 유혹해도 쉽게 넘어오지 않는 남자를, 청풍 대협의 그 같잖은 말재간만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소린가요? 이런, 대체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네.”

청풍이 입을 다물었다. 문주희는 지금 남의 말을 들을 기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었고, 그렇게 된 이상 장문인이 직접 나선다 할지라도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문주희가 한층 더 날카롭고 계산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대대로 우리 청성은 구파 일방 중에서도 늘 뒤꽂무니에 있었죠. 서역대정벌을 계기로 구파 일방의 역학구도가 새로 짜여지길 바랬건만, 오히려 청성은 다른 문파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저만치 밀려나게 되었어요. 화산파가 장안에 자리 좀 잡아냈다고 목에 힘 주고 다니는 꼴을 볼 때마다 제





속이 어떤지 아세요? 흥, 청풍 대협께서 아실 리가 없겠죠. 그걸 안다면 지금처럼 거지가 동냥그릇 털어 절에 시주하는 소리나 해대진 않을 테니까.”

청풍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고, 문주희의 눈은 한층 더 앙칼지게 변해갔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자를 포섭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어요. 화산과의 미묘한 대립 구도도 그렇고, 혼자 힘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명성도 그렇고요. 거기에 청성이라는 날개가 보태진다면 그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예요. 문주희라는 이름과 그럴싸하게 어울릴만한 사람으로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러니 더는 말 마세요.”

그러나 청풍은 문주희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다. 진명은 문주희의 생각에 암전히 따라갈 줄만큼 말랑말랑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강직한 자입니다. 그를 회유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위해 아가씨가 하시는 일이 잘못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각오해야 할 겁니다.”

“그만 하라고 했죠?”

문주희가 이를 갈면서 내뱉었다. 그녀가 내뿜는 냉기에 청풍은 몸이 저러오는 듯 했다.

“청풍 대협 대신 청호 대협이나 청진 오라버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그런 말을 제가 입 밖에 내게 만들지 마세요.”

“... ..”

그 때문이었다. 청풍이 문주희를 말릴 수 없는 이유가.

청성의 일대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후기지수였던 청진은 문주희의 정혼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청진은 서역대정벌 때 사형인 청풍을 살리고 대신 죽었다.

청풍으로서는 문주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 셈이다. 그것은 너무도 깊고도 한스러운 빚이라서 청풍은 자신이 평생토록 애써도 도저히 갚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알..... 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 武極 - Story Book

결국 청풍은 이렇게 말했다. 문주희는 그런 그에게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냉정한 축객령을 내렸다.

“고마워요. 그만 가보세요.”

“그럼.”

청풍은 문주희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 다음 조용한 발걸음으로 그녀의 처소를 빠져 나왔다.

그의 얼굴은 먹구름마냥 어둡고 슬펐다. 차가운 말을 내뱉는 문주희의 얼굴 한쪽에 숨겨진 마음처럼.

“뭐라고?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평일지는 분노했다. 그가 낙양성 지부장의 직위에 오른 지 삼 일만의 일이었다.

“이런 망할 늙은이들을 보았나! 사람 등 떠밀 땀 언제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분을 참지 못한 평일지는 숙소 한 쪽에 놓인 걸상을 냅다 걷어찼다.

와지끈!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걸상이 주저앉았다. 그래도 평일지는 화를 다 삭이지 못해 거친 숨을 몰아 쉬었다.

“고, 고정하십시오. 누가 들으면 어쩌시려고.....”

“멋대로 들으라지! 그래서 낙양성 지부장 자리가 말만 그럴싸한 개살구였다고 다들 고소해 하라 그래! 애초에 청성에서 순순히 발을 뺄 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어찌나 분했는지 빠득빠득 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기랄.”

평일지는 평소라면 입에 담지도 않을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다.

낙양성 지부장이라는 새 감투를 얻은 평일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낙양성을 정비하는 일이었다.

말이 정비지, 사실은 엄청난 사업이었다. 낙양성의 일년 치 예산을 웃도는 돈이 들어가도 모자를 판국이었다.

단심맹 인원들이 거할 정식 숙소도 마련해야 했고 넓고 편리한 연무장도 갖춰야 했다. 수뇌부 회의를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해야 했으며 성의 방어를 위해 백도군을 새로 고용, 조직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양성 내에 단심맹 위주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만 이 지역의 상권을 잡음 없이 획득할 수 있었고, 앞으로 단심맹의 낙양성 지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필요한 것 또한 바로 돈이었다.

“돈만 밝히는 수전노들 같으니. 그러니 너희가 이제껏 그 모양으로 살았지.”

애초에 평일지는 낙양성 지부장이 떠맡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거부감도 없었다.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화산파를 등에 업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면 뭐든 쉽게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화산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는 때로 전폭적인 지지로 나타나지 않았던가. 그가 느끼는 중압감도 분명 있지만, 화산이 그에게 제공해 주는 이점이 훨씬 더 거대했다.

그러나.

이제껏 화산의 비호 하에서 화산의 말이라면 굵신굵신 대기 바뻐던 장안성의 상계와는 달리, 낙양성에 사는 자들은 뻔뻔하기 그지 없었다. 낙양이 대대로 소림의 땅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같은 단심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화산파라는 이름에 딱히 한 수 접어주는 일은 어렵도 없어 보였다.

“마교의 손에서 잃었던 상권을 되찾아 주었더니만, 이젠 나 몰라라 한다 이거지?”

그 뿐만 아니라 장안성의 상인연합 역시 자금 조달에 난색을 표했다. 낙양성에 다시 자리를 잡는 일도 버겁다는 변명을 해왔다.

실제로 낙양성의 토착 상인들이 남궁세가에 빼앗겼던 상권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장안성의 상인들과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낙양성의 상인들이

## 武極 - Story Book

단심맹을 반기면서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이유였다.

그런저런 이유로 그들이 내놓은 돈은 평일지가 원하는 양에 한참이나 못 미쳤다.

오죽하면 평일지는 단심맹 지부를 세울만한 부지조차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돈이 드는 백도군의 용병들을 고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마교에게나 먹혀버리라고 해!”

평일지는 이 두루뭉실한 핑계가 아니꼬워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일단 아쉬운 쪽은 그였다.

앞으로 요청할 일이 더더욱 많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저들이 이렇듯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평일지가 가야 할 길은 말 그대로 가시밭 길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른 자리다. 초장부터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한다면 반대쪽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줄 뿐이다.

평일지가 초조하게 방 안을 오갔다. 그는 아직 집무실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의 숙소를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는 상태였다.

“이럴 수는 없어. 단심맹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낙양성은 마교 놈들의 공짜 사냥터가 되어있을게 뻔한데 어째서 이리 배은망덕하게 나온단 말이냐?”

그러자 평일지의 개인 보좌 이원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역시 화산파의 사람이었다.

“아무래도 낙양상련에서는 화산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합니다. 소림에 대한 총심이 워낙 강한 곳이라서요.”

“그 놈의 소림, 소림! 소림의 범여가 나서서 이 몸을 지부장으로 지명했는데!”

이원조가 속으로 ‘그건 아닐 텐데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절대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어수룩해 보이는 외양 때문에 깜빡 속긴 쉽지만, 그는 계산에 능하고 지모가 탁월했으며 눈치가 빨랐다. 보좌관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인 셈이다.

“전체회의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상련에서는 도통 모르지 않습니까. 저들 나름대로 장안성에서 주위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 생각? 저들이야 언제나 돈돈 대는 돈 벌레 아니더냐?”

“돈 벌레니 생각이 많지요. 생각 없이 어찌 돈을 벌겠습니까.”

“흥!”

평일지가 강한 불쾌감을 내뿜었다. 그러나 화산파에서 평일지에게 거는 기대가 강한 만큼, 이원조에게 갖는 신뢰도 무시 못할 것이었다. 이원조가 한 말은 심에 팔 정도는 항상 옳았다.

“그래서? 어찌자는 건데?”

“그러니 저들은 소림이 달래야지요.”

“어떻게?”





# 武極 - Story Book

## 제 36 화 [평일지와 일령]

이원조가 말했다.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힘든 일을 미룰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설 필요가 별로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소림의 인물에게 맡기면 됩니다. 낙양상련 측에서는, 아마도 마교가 물러간 이후의 일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즉 원래 소림의 땅이었던 곳을 화산이 은근슬쩍 들어와 물을 바꿔놓을까 염려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소림의 인물 또한 낙양성 분타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노라고 저들이 믿게 된다면, 분명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줄 겁니다. 낙양성에서 단심맹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 그렇지. 사파 놈들이나 마교가 들어오면 협조금은 두 배 이상이 될 테니. 어쩌면 아예 상납금을 따로 떼어갈지도 모를 일이지. 수틀리면 목부터 잡아 비틀어 버리고 말 놈들이니까.”

“상련에서도 그간 겪은 것이 있으니 단심맹을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을 겁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고. 낙양성에 들어온 소림의 인물 중에서 쓸 만한 자가 있을까?”

여기서 쓸 만한 자라는 것은, 썸에 둔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이용해 먹기 좋은 자라는 뜻이다. 평일지가 생각했던 것은 범여였다. 그러면 대충 모양새도 나는데다가 낙양상련 쪽에서 환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원조는 이렇게 말했다.

“그야 물론 있지요. 소림의 진명입니다.”

“뭐야?”

평일지가 대뜸 핏대를 세웠다.

“그렇지 않아도 그 놈이 지부장이 되었어야 한단느니 하는 소리가 나돌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라는 말이나?”

이원조가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눈치가 백 단인 그는 화가 나면 평일지가 어떤 인간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편협한 시각에서 본 결과일 뿐이지요. 오히려 평 사숙께서 경합을 벌였던 자를 중용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대범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평 사숙께서는 이득이지요.”

평일지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도 난 싫어! 그딴 놈하고 같은 자리에서..... 나는 화산의 적전 제자란 말이다! 그런 속가 나부랭이와 비교될 수는 없어!”

“물론입니다만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심이 어떨지요. 그가 나서게 된다면 상련의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심이라는 말은 무시할게 못됩니다. 전체회의에서도.....”

전체회의에서 진명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던 군웅들의 함성을 평일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그의 자존심을, 자긍심을 날마다 벌레처럼 갉아먹는 중이었다. 괴롭고 두려운 기억이었다.

“그만! 그만 하라고!”

“예?”

평일지가 핵 고개를 돌려 이원조를 노려보았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 놈 이름을 꺼내지 마라! 아니면 네 혀를 잡아 뽑을 것이다!”

이원조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평일지의 눈을 보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평일지의 협박이 진심이라는 것쯤은 세 살 먹은 아이일지라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원조는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 武極 - Story Book

“청성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낙양성의 정비가 조속히 끝나지 않으면 그것을 빌미로 언제든지 평 대협을 추궁할 것입니다. 현재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청성의 방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청성이?”

“정확히는 장문 대리인 문주희지요.”

으드득.

평일지가 이를 갈았다. 눈 앞에 비릿한 웃음을 머금고 있는 문주희의 도도한 얼굴이 떠올랐다.

“문주희, 그것이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나를 이토록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냐!”

청성의 문주희, 그리고 진명. 그 둘이 자꾸만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평일지는 갑갑해졌다.

업무 때문에 꽤 오랫동안 입에 대지 않고 있던 술이 간절해졌다.

늦은 밤까지 정처없이 낙양성 안을 배회하던 일령은 작고 초라한 주루를 하나 발견했다. 파는 것이라고는 마른 안주 쪼가리에 탁주가 전부인 그런 주루였다.

그래도 소요루보다는 나았다.

어쩐지 소요루는 피하고 싶었다.

진명이나 문주희나, 얼굴을 알만한 자들은 죄다 소요루에 묵고 있는 탓이다.

소오객잔인지 뭔지 하는 현판이 걸려 있었지만 일령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다.

“어이, 주인장!”

일령은 주루 안으로 들어섰다.

주루 안은 겉과 마찬가지로 꼬질꼬질하고 비좁은데다가 손님이 잔뜩 있었다. 일령은 빈틈없이 자리한 사람들을 보며 숨이 탁 막히는 것을 느꼈다.

“주인장! 여기 자리 없어요?”

주방 안 쪽에서 양 손 가득 술병을 든 주인이 후다닥 달려 나왔다.

“아이고, 죄송한데 여긴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보아하니 이런 데 오실 만한 분이 아닌 듯 한데 소요루로 가심이 어떠실지요?”

“거기가 싫어서 이리 온 거예요. 여긴 왜 이리 사람이 많아요?”

“그야 단심맹 때문입죠. 일반인이 무림인과 섞여있으면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쪽은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레 단심맹 분들이 자주 가는 곳을 피하다 보니 이런 곳까지 사람이 몰리는 것이지요.”

일령이 탁,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 가나 단심맹이 문제네. 조그만 구석 자리라도 좋으니 어떻게 안돼요?”

“저기, 그러시면 합석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아요. 조용하기만 하다면.”

주인은 앞장서서 일령을 구석진 자리로 데려갔다.

고맙게도 천장을 받치는 기둥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시끄러운 주위와는 어느 정도 차단이 되어 있는 장소였다.

그곳에는 이미 주인이 말한 선객이 있었다. 사람들을 등지고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어 혼자 있고 싶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는 남자였다.

“나으리. 여기 이 소저께서 자리가 없어 그러는데 합석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두 명이 간신히 앉을 만한 구석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젊은 남자의 주변에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 적잖이 마신 모양이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타고난 술꾼이 아닌 이상 마음 속에 괴로운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시끄럽군. 방해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가 오만한 말투에 짜증을 섞어 말했다. 탁자 위에 놓인 검집을 탁 하고 쳤다. 잔뜩 겁을 먹은 주인이 황급히 허리를 굽혔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인은 그저 한번 여쭙어본 것 뿐입니다요.”

“알면 그만 꺼져라.”

## 武極 - Story Book

주인이 일령의 소매를 잡아 끌며 나가자는 눈짓을 보냈다.

그러나 일령은 곳곳이 버텼다.

“미안한데, 난 이 합석 꼭 해야겠네요.”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분이 뉘신 줄 알고...”

주인이 열심히 입을 병긋거리며 일령에게 애타는 심정을 전했다.

‘아 글썄 이 사람은 단심맹 소속 무인이라니까요! 까닥 잘못 걸리면 소저나 나나 그냥 칼로 쏘던...!’

일령은 주인을 살짝 밀어내고는 그 자의 맞은 편에 가서 앉았다.

남자가 소리쳤다.

“꺼지라니까!”

저 혼자만의 술 세계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그가 핵 고개를 돌렸다. 유감스럽게도 일령은 그 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당신이 뭇 때문에 이런 곳에서 혼자 술을 퍼 마시고 있어?”

평일지였다.

평소의 단정하던 모습은 누구한테 빌려주기라도 했는지 벌개진 얼굴에 앞췌은 온통 술에 젖은 채였다.

“뭐야? 하필이면 네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조용히 혼자 술 마실 생각이었는데 왜 하필 당신이 먼저 자리를 꿰차고 있어?”

일령은 손을 뻗어 평일지의 앞에 놓인 술병을 가로챘다.

“주인장! 여기 잔 하나 더 갖다 줘요.”

“예? 아니, 그러면 그게 저...”

“괜찮으니까 갖다 주거나 해요. 주인장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혹시 여기 이 양반이 마음대로 합석시켰다고 어디 때려부수거나 하면 화산의 평일지가 알고 보니 좀생이 같은 놈이었네, 두 번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이렇게 소문 내고 다니시면 되요. 자기 평판은 엄청나게 신경 쓰는 양반이니까 함부로 는 못할 거예요.”

일령의 말에 인상을 잔뜩 쓰고 있던 평일지가 갑자기 피식 웃음을 터트렸다.

“평판이라...”

“응. 당신은 남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할지 엄청나게 신경 쓰고 다니잖아. 그래서 없는 공도 만들어 내고 남의 공도 가로채가고 그러는 거 아냐? 그 알량한 평판 좀 높여보겠다고 말이야.”

주인을 손짓으로 보내며 일령은 그냥 술 병에 입을 대고는 술을 마셨다. 어차피 바닥에서 찰랑 거릴 정도로 남아있는 술병이라서, 병나발을 붙였어도 아직 술이 고팠다.

평일지의 눈치를 보던 주인이 재빨리 주방으로 가버리자 일령과 평일지 단 둘만이 남게 되었다.

일령이 턱에 묻은 술을 소맷자락으로 쓱 문질러 닦았다.

“에이, 거 좀생이답게도 남겼네. 이건 뭐 목에 기별도 안 가는군.”

평소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뻬을 평일지는 씩씩한 미소만 머금을 뿐이었다.

“평판이라, 내가 그런 인간이란 소리냐?”

일령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야. 그 말이 새삼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제 보니 완전 속물이네. 괜히 무게는 혼자 다 잡고 말야.”

평일지가 인상을 팍 썼다. 그는 일령의 손에서 핵 술병을 가로채 자신의 입에 댔다.

탈탈대고 흔들어도 이미 다 마셔버린 술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빌어먹을.”

평일지가 입맛을 다시며 소리를 쳤다.

“주인장! 여기 술 갖고 와! 술!”

“어차피 술잔을 가지고 올 테니 그때 말해도 되잖아. 그렇게 성질 더러운 거 자랑해야겠어?”

“조잘조잘 말도 많군. 남의 술 얻어먹으면서 조용히 입을 다무는 예의 정도는



# 武極 - Story Book

지켜주는 게 어때?”

일령이 양 손을 들어올렸다.

“그래, 그건 당신 말이 맞네. 나 오늘 정말이지 남한테 시비 걸 기분 아니니까  
얌전히 술이나 마실게. 미안해. 그리고 술은 내 돈으로 내가 마실 거야. 네게  
얻어먹는 게 아니라고.”

“빌어먹을. 말은 잘하는군.”

때마침 주인이 다가와 술잔과 술병을 탁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평일지는 새 술병에서 술을 한 잔 따라내더니, 일령 앞에 놓인 술잔에도 술을  
부어주었다.

“마셔라.”

“어라? 고마워.”

“술 한잔 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놀란 거잖아. 당신 의외로 괜찮은 술 상대인걸?”

평일지가 인상을 썼다.

“얌전히 술을 마신다고 한 지 얼마나 지났더라?”

“트집잡는 좀생이. 상대가 좀 추켜세워주면 고맙게 받아들일 수 없어?”

좀생이란 말에 평일지가 피식 웃었다. 붉어진 얼굴로 잔뜩 비꼬아 말했다.

“전통있는 아미파의 여협께서 그리 말을 해주시니 삼생이 영광이오.”

“명문 화산파의 대협께서 영광이시라니 소녀 역시 황공하옵니다.”

당연하게도 일령은 전혀 황공하지 않은 투로 답했다.

다른 곳에서라면 칼이 오갔을 테지만, 오늘따라 둘의 사이는 기이하게도  
조용했다.

비꼬는 말들이 오갔지만 분위기는 전혀 나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둘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맴돌았다.

평일지가 술잔을 들어 입에 털어 넣으며 말했다.

“지금처럼만 하라고. 그럼 어디 가서 무례하고 양식 없는 여자란 소리는  
안들을 테니까.”

여자.

그 한마디가 일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쳇, 나 원래 반듯하고 양식 있는 여자야. 내가 괘씸하게 굴 때는 상대방이  
뼈땀하고 양식 없을 때지.”

일령은 유독 여자, 라는 말을 강조했다. 평일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마치 자신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일령은 살짝 마음이 가벼워졌다.

일령이 한 입에 술을 털어내자 평일지는 다시 빈 술 잔을 채워놓았다.

“그럼 이제까지 내가 뼈땀하고 양식 없었다는 소린가?”

“흠, 뭐, 대충, 보통은, 그랬지.”

평소의 평일지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 들고 덤빌 것 같았지만,  
의외로 그는 잠잠했다. 오히려 일령이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뭐지? 이거 완전히 떡이 되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건가? 아님데,  
말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맛이 간 건 아닌데.’

평일지가 평소와는 다르게 맥 없는 음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내 입장에서야 내가 양식 있고 반듯한 것이다. 나는 화산의 적전제자니까. 내  
모든 행동이 사문을 위한 것인데 점잔 뺀다고 뒤흔치고 있을 수만은 없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다 같은 정파의 사람인데 굳이 편 가르기를 할 건  
없잖아? 당신이 하는 짓은 말 그대로 이기적인 거란 말이야.”

“나는 그거야말로 말로 이기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모두를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그럴 수 있나 보지?”

“못할 건 또 뭐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평일지니까. 내가 화산이 되고 화산이 곧 나이니까!”

이번에는 평일지가 술잔을 털었다. 그가 비운 술잔에는 술 대신 자조와 비소가  
가득 담겨 있는 듯 했다.

“화산에서는 내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파격적인 적전 항렬도 그렇고,  
아낌없이 내준 영약과 환단도 그래. 심지어 여덟 장로가 모두 나를 교육하는데  
매달렸던 때도 있었다. 나는 결코 사문을 가벼이 여길 수 없어. 화산은 나

## 武極 - Story Book

자신보다 소중하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던 일령이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문이 귀하고 고마우면 좋은 거지 왜 여기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어? 그것도 단심맹 사람들이 모를 만한 곳을 일부러 골라서.”

“그건...”

평일지의 표정이 괴로워졌다.

평일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새삼 그를 움죄고 있었다.

“문주희..... 그것이.....”

불끈 쥔 주먹에 핏줄이 돋았다.

동시에 일령의 눈이 번쩍 떠졌다.

“문주희? 지금 문주희라고 했어?”

“그래. 문주희 그것이 날 내쫓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더군.”

평일지는 주절거리며 말을 늘어놓았다.

요지는 간단했다. 장안성과 낙양성의 상인들에게서 제대로 자금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가뜩이나 쉽지 않은 그 일이 청성의 방해공작 탓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일령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평일지가 일령에게 말한 것은 일부분에 불과했다. 그 얘기만 들었다면 속으로는 ‘그러게 좋다고 냉큼 덤벼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평이냐?’ 라고 쓴 소리를 내뱉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령의 귀가 번쩍 뜨인 것은 바로 청성, 그 중에서도 문주희라는 이름이었다.

“그 여시 같은 게 끼어있다 이거지?”

“그래. 딸꾹, 여시 같은 문주희. 그 계집과 진가 놈이 한통속이 되어서 나를, 딸꾹! 이 평일지님을 괴롭힌단 말이다. 이것 들이... 화산의 퍼, 나 평일지를 뭘로 보... 는... 딸꾹!”

평일지가 중얼거리는 말은 ‘문주희와 진가 놈’ 만 빼고는 일령의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일령의 눈동자가 불타올랐다.